# 빛과 생



평양출판사
주체110(2021)년

# 빛과 생

평 양 출 판 사
주체110(2021)년

# 70년후의 재조명

생이란 무엇인가. 살아숨쉬며 생존만 한다면 그것이 생인가.

이 땅에 뿌리를 둔 천태만상의 생들이 모여 인간사회를 이루고있는 오늘날 어제를 살았고 오늘과 래일에 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생에 대하여 생각한다.

어떤 생이 참다운 생이며 어떤 생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끝나지 않는 생으로 남아 길이 전해지는가. 인간의 망각도, 세월의 흐름도 지울수 없는 참된 생으로 빛나는것은 무엇에 기인되는가.

인간의 망각은 세월의 흐름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아무리 강한 충격이나 깊은 여운을 준 사건이라도 시간이 감에 따라 점차 희미해지고 언제인가는 결국 잊혀져버린다는것도 생활에서 흔히 보게 되는 보편적인 사실이다.

이것이 어쩔수 없는 인간의 기억감퇴과정의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말할수 있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사회에서 세월의

루적과 더불어 있게 되는 망각현상이 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되고있는것만은 틀림없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잊혀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다운 생과 그 생을 비쳐준 은혜로운 광원에 대한 의미를 더더욱 부각시켜주며 시대를 아름답게 구가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김사량.

작가였던 그를 공화국인민들은 물론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도 알고있다.

세상에 태여나 서른일곱해밖에 살지 못한 김사량이 세상을 떠난지도 어언 70년.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일곱번이나 흐른 오늘에 와서 파란많았던 한 인간의 운명과 삶을 재조명해보게 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평양의 한복판에 자리잡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영웅홀에 공화국영웅 김사량의 사진이 있다. 풍치수려한 석박산기슭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생전의 자기 모습을 천연화강석에 새긴 김사량이 살아있다.

너무도 젊은 나이에 붓을 놓은 작가였어도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생의 노래, 그 생을 비쳐준 광원의 거룩함과 무정한

세월의 망각도 지울수 없는 광휘로운 빛발의 노래를 남긴 사람이 바로 작가 김사량이다.

해방전 리기영의 소설의 터전이 땅이고 김소월의 시의 샘이 향토였다면 김사량의 작품의 원천은 빛과 어둠이였다.

명암감각이 매우 발달된 작가였던 김사량은 빛과 어둠에 모든 사물현상들을 굴절시켜 감득할줄 알았고 자기의 정서적감정을 빛과 어둠의 형상으로 선명하고 다채롭게 드러내보일줄 알았다.

그는 운명직전에 이런 말을 남기였다고 한다.

《…빛을 찾아 방황하고 빛을 그리던 나에게 그 빛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의 생도 없었을것이다.》

한 인간이 생의 마감에 남긴 유언에는 그가 한생을 두고 품고있던 진심이 담기고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고싶었던 심장의 토로가 비낀다고 하였다.

김사량이 그토록 갈망하고 마침내는 받아안았던 그 빛, 그가 말한 나의 생이란 과연 어떤것이였는가.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생존조건은 공기와 물, 빛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의 충족에 만족되여 생존하는 인간은 동물적인 존재로밖에 될수 없다.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것으로

하여 육체적생존조건만의 충족으로 살수 없다.

하기에 김사량이 말한 그 빛은 자연계의 태양이 쏟아내는 그런 빛발을 념두에 둔것이 아니였다.

인간을 인간으로 되게 하는 고귀한 생명은 정치적생명이다. 그 생명의 기원으로, 그 생의 활력으로, 그 삶의 영원으로 되는 근원은 사랑과 정, 믿음과 의리의 자애로운 빛발이다. 바로 이것이 그가 말한 빛이였다.

그렇다면 그 빛은 누가 비쳐주는가.

김사량은 길다고 볼수 없는 창작생애에 소설과 연극, 수필, 기행문과 종군기 등 자기의 작품들에서 빛을 그리고 빛을 찾았으며 빛을 노래하였다.

그는 처녀작인 《토성랑》과 《빛속에》라는 소설들에서 하늘중천의 해가 아무리 빛을 주어도 가난과 몽매, 학대와 억압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짓밟히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을 주는 빛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고 피타게 절규하였다. 그리고 《노마만리》와 《소년고수》를 비롯한 작품들에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태양의 빛발을 찾았다고 격정을 담아 썼으며 《뢰성》과 같은 공화국에서의 첫 수령형상작품에서 만민에게 사랑의 빛발을 비쳐주는 태양의 모습을 훌륭히 창작완성하였다.

김사량자신도 절세위인들의 자애에 넘치는 사랑과 정, 믿음과 의리의 빛발속에서 참다운 인간으로서 벅찬 삶을 누렸으며 세월의 망각도 지울수 없는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게 되였다. 인간에게, 인민에게 비쳐지는 사랑과 정, 믿음과 의리의 빛발속에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주적삶을 누릴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은 사랑과 정의 그 빛발이 펼쳐준 락원에서 생의 희열을 마음껏 터치고있다. 이것이 바로 김사량이 그토록 웨치고싶어한 위대한 태양의 빛이였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물론 온 겨레는 또 한분의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이 땅에 생을 둔 그 누구에게나 골고루 비쳐지는 뜨거운 사랑과 정, 숭고한 믿음과 의리의 위대한 빛발은 영원하다는것을 페부로 절감하고있으며 그 빛발속에 사는 사람들의 생도 줄기차고 영원하다는것을 절대의 진리로 새겨안고있다.

력사적사실이 이러함에도 한때 해외의 일부에서는 가렬처절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 그처럼 자애로운 생의 빛, 삶의 위대한 빛발을 우러르면서 《**김일성**장군 만세!》를 웨치며 생의 마지막을 빛나게 장식한 김사량을 두고 《실종》이니 《매장》이니 하는 랑설이 나돈적도 있다.

력사의 진실은 누구도 외곡할수 없고 지울수도 없다.

진리로 가득찬 아름다운 이야기는 후세에 영원토록 전해져야 한다.

김사량이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 그의 삶과 그에 비쳐진 위대한 사랑의 빛발을 찾아 독자들과 함께 추억의 노를 저어보고저 한다.

# 차 례

# 1. 빛을 찾아

## □ 방황과 번뇌속에 몸부림치며

### 부귀영화가 전부였던가

갈이 지내보지 못한 사람, 더구나 세상을 떠난지 오랜 인간의 한생의 초엽에 대해 이야기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복잡한 인생행로를 걸어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이제 말하려는 작가 김사량의 소년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그 누구도 그와 소년시기의 행로를 함께 걸어본 사람이 없다.

하지만 당시의 그의 삶의 구간구간마다에서 남겨진 흔적들, 단편적이나마 그의 생활을 목격할수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 시기뿐아니라 작가 김사량의 삶의 모든 행로에 대해 참으로 쉽지 않게 알게 되였다.

김사량의 본명은 김시창이다.

그는 민족수난의 비운이 칠칠이 드리웠던 망국초엽인 1914년

3월 3일 대동문대밑인 평양부 륙로리에서 태여났다.

그가 세상에 태여나기 전에 우리 나라는 이미 일본의 독점적인 식민지가 되였다. 황제의 통치권은 벌써 왜왕에게로 모조리 넘어갔고 이 나라 백성들은 《총독제령》에 따라 움직이는 현대판노예가 되였다. 유구한 력사와 풍요한 자연부원과 수려한 산천경개를 자랑하는 이 강토는 일본제군화와 대포바퀴밑에서 짓이겨졌다.

민중이 국권을 강탈당한 슬픔과 분노에 치를 떤 《시일야방성대곡》의 여운이 사라지지 않고있던 이 땅의 초야와 지붕밑에서 수많은 충신들과 유생들이 망국의 한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름없는 백정까지도 칠성판에 오른 국운을 통탄하며 죽음으로써 치욕의 《한일합병》에 항거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경찰들과 일반문관들은 말할것도 없고 보통학교 학생들까지 금테를 두른 양복을 입고 정모를 쓰고 칼을 차고 다니는 야만적인 헌병경찰제도가 수립되였다. 왜왕의 칙령에 따라 왜놈총독은 조선에서 륙해군의 통솔권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귀와 입을 틀어막고 수족을 얽어맬수 있는 무제한한 권한을 가지였다. 조선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정치단체들과 학술단체들은 해산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조선의 애국자들은 구류장과 감옥에서 연덩어리가 달린 소가죽채찍에 얻어맞았다. 도꾸가와막부시대의 고문방법을 그대

로 이어받은 교형리들이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조선사람의 살을 마구 지지였다.

날마다 쏟아져나오는 《총독제령》에 의해 조선사람의 흰옷마저 먹물을 들쓰지 않으면 안되였다. 현해탄을 건너온 일본의 재벌들은 무슨 《회사령》이니 《조사령》이니 하는 법령들의 그늘밑에서 우리 조국의 보화와 재부들을 무데기로 실어갔다.

당시의 세계에는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이 적지 않았지만 조선에서처럼 다른 민족의 말과 성까지 빼앗고 밥그릇까지 략탈해간 그렇게 지독한 제국주의는 없었다.

조선은 말그대로 사람 못살 생지옥이였다. 조선사람들은 살아도 죽은 목숨과 같았다.

김사량이 태여난 시기는 다른 대륙들에서도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각축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던 때였다. 국내에서는 《토지조사령》이 실시되여 민심을 뒤숭숭하게 하였다.

그는 이러한 어수선한 동란의 시대에 태여났지만 호구지책은 전혀 걱정없었다. 그의 가정적배경이 그렇게 만든것이였다.

김사량이 생의 고고성을 터친 륙로리라고 하면 지금의 중구역 경림동지구에 속한다.

륙로리와 그와 이웃한 박구리, 아청리, 리문리, 죽전리 등 종로와 대동강사이의 넓은 지대를 차지하고있는 이 지역은 평

양의 노란자위로서 부호들이 많이 살던 곳이였다.

김사량네도 부유한 집안이였다. 아버지 김태순은 부자라도 막벌이군이라는 별명이 붙어돌아가는 사람이였다.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한 그는 돈을 벌어 대동강아래 장광섬부근(지금의 남포시 천리마구역 고창리일대)에 적지 않은 땅을 사놓고 땅임자가 되였다. 시내에 철공소도 차려놓았다.

어머니 리정근은 쌀 한섬은 제손으로 들어이는 힘장사였다. 미국에 가 신식교육을 받은 독실한 그리스도교신자로서 왜놈경찰에 검거된적도 있었다. 잘살았지만 티를 내지 않고 내외가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도와주기를 좋아하였으며 식모네 식구하고도 한집에서 허물치 않고 다정하게 살았다.

다른 집 솟을대문들은 누가 엿볼세라 언제나 무겁게 닫겨 있어도 김사량네 집 대문은 닫겨있는 법이 없었다. 지나가는 걸인들이 들어와 밥을 먹고 가라 해서였다.

동냥군이 동냥하러 찾아들어오면 마루바닥에서 밥을 먹여 보내지 않고 반드시 대청에 올려다 상에 받쳐주었으며 돌아갈 때에는 동냥주머니에 식은 밥이 아니라 쌀을 넣어주었다. 그러다나니 동냥나그네의 발길이 그치는 날이 없었으며 인심 좋은 부자로 소문이 자자하였다.

린색한 이웃부호들은 별것들이 같잖게 동네에 거렁뱅이들만 끌어들인다고 김사량네 집쪽에 대고 침을 뱉았다.

이에는 꼬물만치도 개의치 않는 김태순이였지만 그에게는

좀 괴벽한데가 있었다.

슬하에 딸 다섯에 아들형제를 두었는데 녀자들에게는 절벽처럼 완고하고 보수적이였다. 계집애들에게 신식교육이 필요없다면서 딸들을 전혀 공부시킬 생각을 안하였다.

딸들의 이름을 지은것을 봐도 도저히 성의가 느껴지지 않았다. 녀자는 덕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덕》자 돌림을 하였는데 딸 다섯을 낳은 순서대로 《일덕》, 《이덕》, 《삼덕》, 《사덕》, 《오덕》 하고 적당히 이름을 달아 불렀다.

김사량은 아들로서 둘째였고 7남매의 차순으로 다섯째였다. 그의 밑에 두 녀동생 사덕, 오덕이 있었다.

김태순은 아들들에게는 끔찍하였다. 그 덕에 김사량 남자형제는 어렵지 않게 대학까지 나왔다.

김사량이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한것은 8살때였다.

총명하고 머리가 좋은 그는 공부를 잘하였다. 크면서 체격도 좋고 다리가 긴 그는 달리기를 잘하여 교내체육경기때는 학급선수로 뽑혔다. 책읽기도 좋아하였다. 학급에서는 물론 학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수한 그를 선생들도 학부형들도 신동이라고 하였다.

인정있고 대바른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동무들이 있었으며 집에서도 누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하지만 집안의 생활환경과 주위의 현실은 어린 사량이에게 많은 의문부호를 달아주었다.

어떤 사람은 먹을것이 남아돌아가게 뚱땅거리며 비단을 걸치고 거들먹거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주린 창자를 달랠길이 없어 동냥과 구걸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되는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누구나 꼭같은 운명을 타고나지 않았던가. 부자와 가난한자는 타고났단 말인가.

유년시절의 그가 끼마다 마주앉은 식탁은 푸짐하였어도 마음은 공허하였다. 사람을 차별하는것을 싫어한 그는 공정치 못한것에 대하여 참지 못하였다.

어느해 겨울이였다.

평양의 대통로라고 하는 종로로 구슬프게 쏟아져내리는 눈을 맞으며 정처없이 걸어가는 아이가 있었다. 그애는 마주 오는 한 신사를 보자 손을 내밀었다.

초라한 거리에 어울리지 않게 잘 차려입은 신사는 흠칫했다. 더러운 손이 제 옷자락에 닿을듯말듯했던것이다. 분노의 눈길이 아이의 아래우를 샅샅이 훑고있었다.

그 눈길이 무서운지 아이는 맥없이 손을 떨구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또 걸어갔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어린 김사량은 이 광경을 보면서 생각하였다.

저애는 이제 가면 어디로 갈가? 집에? 강가로?

아이의 정상을 보면 집은 고사하고 당장 목구멍에 넣을 죽물 한숟가락도 있을것 같지 않다. 한겨울인데도 무릎이 드러

난 다 꿰진 바지를 걸친걸 보면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사량은 긴 다리를 재게 놀려 앞서가는 신사를 따랐다. 그리고는 먼발치에서 그를 바라보다가 점점 다가오며 커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람같지 않은 역겨운 몰골이였다.

그 얼굴이 어린 마음에 이름모를 충동을 일으켰다.

김사량의 눈에 제 주먹보다 큰 길가의 돌이 띄였다. 자기도 모르게 모가 난 그 돌을 움켜쥔 그는 신사가 굽인돌이를 지나려는 순간 뒤통수에 날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여서 오가는 길손들이 어벙벙해하며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신사는 피가 쏟아지는 머리를 싸쥐고 전주대에 기대여 모지름을 쓰고있었다.

그 무엇에 대한 반감의 표정이 력력했던 어린 사량의 얼굴에 속시원한 쾌감의 빛이 넘쳐흘렀다.

어느새 달려갔는지 김사량은 동냥을 거절당한 아이앞에 서 있었다.

《내게 이게 전부야. 자, 받어!》

어머니가 학교로 오갈 때 맛있는 사탕을 사먹으라고 넣어준 세개의 엽전이였다.

동냥아이의 큰 두눈이 엽전이 아니라 사량의 정깊은 눈에 가닿았다. 웃지 않고있는데도 량볼에 보조개가 곱게 패여 귀엽게 보이는 아이는 푼돈이 아니라 그 정이 더 그리웠

던가싶었다. 아이가 엽전을 쥐려고 훌렁한 팔소매속에서 손을 내미는 순간 사량은 흠칫 놀라고말았다. 손과 팔이 온통 불에 데여 온전한 자기 모양을 잃고있었다. 아마도 큰 불상사를 당한것 같았다.

《너 집이 어디니?》

사량의 물음에 아이가 고개를 푹 떨구며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럼 엄마는?》

또 도리머리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엉엉 소리내 울며 제또래의 사량을 꽉 껴안았다.

순간 사량의 가슴에 이름모를 련민의 정이 찡하며 쭈르르 흘러들었고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가랑가랑 고여올랐다.

그는 엽전을 바지주머니에 넣어주었다. 그리고는 자기가 썼던 털모자를 벗어 동냥아이의 머리에 씌워주었고 털신도 그애의 다 해진 신과 바꿔신었다.

사량의 두손을 꼭 잡은 아이의 얼굴로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내렸다. 인정에 주리였던 어린 마음에 정의 보뚝이 터진것이였다.

다 꿰진 팔소매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뚜벅뚜벅 어디론가 걸어가는 동냥아이, 그를 바라보는 사량의 얼굴에도 온통 눈물범벅이였다.

이 하나의 일화에서도 김사량의 됨됨과 성격의 일면을 엿볼수 있다.

한때 도꾜제국대학에서 김사량과 함께 지낸적이 있는 일본 작가 스즈끼는 이렇게 말하였었다.

《무엇 하나 부족한것이 없이 유족하기만 했던 김사량의 유년시절이였다. 그는 가정출신으로 보아 평생 호의호식할수 있었다. 그런데도 유아의 시각으로 사물현상의 옳고그름에 대한 나름의 표상을 가진 그가 그때 벌써 생존의 보금자리라고도 할수 있는 량반가문에 대한 미련을 털어버리고 타매해나서지 않을수 없었던것을 보통의 사람들은 리해할수 없다. 그만큼 김사량은 성격도 독특했고 인생의 출발도 남달랐는바 오늘에 와서 보면 그에겐 부귀영화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였던가싶다.》

사실이 그러했다. 너무도 어린 김사량이였지만 그는 그 시절에 부귀영화의 길을 택하지 않았으며 또 택할수도 없었다.

김사량으로 하여금 생의 첫걸음을 떼고 유년시절을 보내야 했던 가정적울타리와 부귀영화의 유혹에 환멸을 느끼게 한것은 무엇이였던가.

후날 서울거리의 한 서점에서 문학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든것이 불공평한 생활의 어둠은 나에게서 환멸을 불러일으켰고 그속에서 어린 나였지만 방황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실토한바와 같이 김사량은 너무도 일찌기 생활과 사회현실에 눈이 텄고 그리하여 철부지시절이라고 하는 그 유년시절에 정신적방황에 모대기였었다.

민족수난의 소용돌이속에, 갈래가 하많은 인생길의 초엽에 자기를 둘러싼 주위세계의 어둠을 감득하고 일신의 부귀영달이 아니라 고행스러워도 의로운 그 무엇을 찾기 시작한 김사량.

아직 어린 김사량은 자기가 찾는 그 의로운것이 어둠을 불사르는 빛이라고 정의할수 없었다.

## 어둠 또 어둠

김사량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몹시 따르고 존경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았지만 어머니와는 서신거래를 많이 하였다.

《…고창리에 나갔을 때 농군들의 그 인상을 영원히 잊을수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나는 어쩐지 많은 사람들앞에서 상을 탈 팔자가 아닌것 같애요. 소학교를 나올 때 일이 생각납니다. 졸업식련습을 할 때는 우등상을 타게 되여있었는데 막상 졸업식날에는 타지 못했지요.》

일본 도꾜에 있을 때 김사량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다.

편지는 일제가 일일이 다 뜯어보는 사정으로 하여 여기에 그의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적혀질수는 없었지만 그 기저에 흐르는 김사량의 강한 반항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고 볼수 있다.

편지에 그가 말한 고창리의 농군들 인상, 소학교때의 일이란 무엇인가.

10대의 나이에 들어선 김사량은 독서에 열중하거나 거리를 오가다가도 그 무엇인가에 골몰하군 하였다. 특히 곡식들이 한창 무르익는 계절의 농촌풍경을 바라보며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깊은 상념에 잠기기를 좋아하였다.

어느해 가을이였다.

김사량은 아버지를 따라 고창리일대로 가는 마차에 몸을 실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땅임자로 되여있는 토지가 여라문 정보 있었는데 김태순은 해마다 수시로 그 땅을 돌아보러 가군 하였다. 행차때는 의례 딸들은 제쳐놓고 아들들만 데리고 갔었는데 김사량은 여느때는 각종 구실을 붙여 동행을 안하다가 가을철에만 자진 따라서군 하였다. 그 리유를 당시에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후날 단편소설 《물오리섬》을 쓰고난 후 편집후기에서 《나는 가을풍경을 직시하며 그것으로 인간사회를 투시해보군 하였다.》고 토로한것처럼 가을풍경은 사회의 온갖 부조리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한 어린 김사량의 사색을 낳는 원천이였다.

《아버지, 나 내려서 여기서부턴 걸어가겠어요.》

사량이 마차에서 훌쩍 뛰여내리며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였다.

눈을 끔뻑이는 아버지에게 한손을 높이 들어 흔들어보인 그는 몇보 걷다가 눈앞의 논두렁에 걸터앉았다. 그리고는 이내 말라버린 논바닥에 내려앉아서 논두렁에 몸을 기대였다.

시야에 눈뿌리 모자라게 펼쳐진 누런 벼바다가 안겨들었다. 그우로 태양에서 떠나 땅우에 와닿기까지 얼마만한 시간이 걸렸는지 알수 없는 빛발들이 쏟아져내려 이삭들을 따뜻이 어루만지면서 애무하고있었다.

하늘을 머리에 이고 땅에 뿌리를 박은 황금색이삭들이 미풍에 설레이며 사락사락 소리를 내고있었는데 사량에게는 그것이 자연의 무수한 생명체들이 합창하는 노래가락으로 들려왔다.

(분명 저 소리는 태양이 어디에든 골고루 부어주는 빛속에서 하나로 통하는 공기와 호흡하며 생존하는 자기네들은 똑같이 자유롭고 똑같이 평등하다는 자유의 노래, 평등의 노래이다. 무심한 저것들이 그러할진대 만물의 령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째서…)

사량의 생각은 끝이 없게 깊어만 갔다. 곬따라, 길따라 흐르고흘러 언제인가는 대하에 이르는 시내물처럼 그의 생각도 곬따라 흐르다가 마침내는 어디엔가에 가닿아 끝을 볼것이다.

《시창아, 너 여직 여기 있니? 일이 터진것도 모르고!》

형 김시명이가 등뒤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고함치듯 내뱉

았다.

둘이 엎어지듯 하며 달음질쳐가니 밭가운데서 아버지 김태순을 둘러싸고 사내 여럿이 서성거리고있었다.

사내들이란 모두 왜놈들이였다.

사연인즉은 이러했다.

아버지 김태순이 시명과 함께 여러 작인들을 데리고 한창 벼포전을 돌아보고있는데 마을쪽에서 신통히도 하나같이 기름쥐처럼 생겨먹은 일본인들이 쓸어올라왔다.

《이 토지나 당신것이나?》

맨앞에 선 놈이 제법 조선말을 번지며 수다를 떨었다.

좋은 일은 아니라는것을 직감한 김태순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의 관자노리에서 신경이 곤두설 때 항용 그러군 하는 피줄이 푸들 떨었다.

《입이나 꿰맸는가? 건방진 조선놈의 두상태기다!》

쪽발이놈의 아가리에서 뱀의 독소가 뿜어나왔다. 김태순을 노려보는 다른 놈들의 눈에서도 독기가 이글거렸다.

《너거 토지를 몽땅 내놔야겠다. 여기에다 공장이나 세워야 한단 말이다!》

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여러 놈이 가지고 올라온 패말을 박아나가기 시작했다.

이때에야 김태순이 꾹 다물고있던 입을 열었다.

《뭣이 어쨌다구? 천하에 없는 이 날강도같은…》

판이 크게 번지리라는것을 예감한 시명이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생각했는지 사량을 찾아 달려갔는데 그들형제가 당도했을 때가 바로 이때였다.

《뭐 날강도라고?!》

째는듯 한 고성이 터지는것과 동시에 각이 난 패말이 김태순의 머리에 날아들었다. 머리에서 선지피가 흘렀다.

사량은 아버지의 피를 보자 전률이 온몸을 휘감는것을 느꼈다.

그런 속에 한 작인이 근엄한 표정으로 왜놈들앞에 나섰다. 사량이도 여러번 이곳에 와 면목을 익힌 농군이였는데 대바르고 인정이 깊어서 사람들속에서 평판이 좋았다.

강씨성을 가진 농군의 식구는 8명이나 되였는데 집살림은 째지게 가난하였다. 집밖을 벗어나 장마당이나 동네집들에 갈 때 걸칠 변변한 옷 하나 없어서 제일 해지지 않은 토스레옷 한벌을 가지고 번갈아 입군 했다. 한해농사를 힘겹게 지었다 해도 소작료로 거의다 바치고는 일년 내내 풀죽먹기도 힘겨워했다.

하지만 강씨가정엔 남다른것이 있었다. 비록 못살아도 인정이 넘쳤고 돈 한푼 없어도 대발랐으며 쌀독은 비였어도 언제나 화목했다. 온 가정이 집의 가장인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이웃들을 제살붙이처럼 대하고 도와나섰다.

《네놈들은 무슨 심보로 여기 나타나 이래라저래라하는가?

이 땅이 내 나라 땅이지 섬나라건가? 농사를 거두면 인간들은 뭘 먹고 산다는건가? 경을 치기 전에 썩 사라지지 못하겠는가!》

죽기를 각오하고 대드는 강씨농군의 손에는 큼직한 쇠스랑이 으스러지게 쥐여져있었고 두눈에선 시퍼런 불이 펄펄 일었다. 그 주위로 많은 농군들이 모여와 합세했고 대노하며 기세를 돋구는 그들의 서슬푸른 기상앞에 왜놈들은 기겁했다.

한동안 팽팽한 공기가 흘렀다. 그러는 속에 갑자기 《땅!》하는 총소리가 울리더니 강씨농군이 비칠거렸다. 등뒤에서 장총을 들고있던 왜놈이 쏜것이였다.

잔등에서 피가 쏟아져나왔으나 강씨농군은 쓰러지지 않고 몸의 균형을 유지했다. 그러더니 몸을 억세게 뒤로 비틀며 장총을 쥔 왜놈의 면상에 쇠스랑을 힘껏 박았다.

그것이 용기를 더해준듯 농군들이 쪽발이놈들을 향해 《이놈들아, 해볼테면 해보자!》고 으르렁대며 놈들을 둘러쌌다. 이제 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장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혈투가 벌어질것이다.

땅임자인 김태순이, 그 피줄인 시명과 사량이는 일이 더 크게 번지지 않길 바라는양 겁에 질린 눈길로 량쪽을 번갈아 보며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하고있었다.

죽기를 각오한 농군들을 물리칠 자신이 없었는지 왜놈들이 먼저 급기야 줄행랑을 놓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사량은 밥술을 뜨다말고 늘 공부하던 방에서 허공만 바라보았다. 낮에 있은 일이 떠오르면서 종잡을수 없는 오만가지 생각에 빠져버렸다.

농군들은 토지를 지키자고 하나같이 항변하고 목숨도 내댔다. 소작을 부치는 처지임에도 강씨농군은 이 땅이 내 나라 땅이라고 울부짖었고 총탄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기어코 왜놈의 면상에 복수의 날창을 박았다. 그 모습엔 배달민족의 존엄이 비껴흘렀다.

원체 성격이 사납고 잃을것이 전혀 없어서 그들이 그처럼 용감했을가?

그런데 아버지는? 처음엔 강기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자 우유부단한것이 틀림없다. 땅임자가 소작인들보다 못한것은 무엇때문인가? 형도 나도 무엇이 두려워 주춤했던가? 강권에 도전했다가 이미 차지하고있는 부의 요새마저 위태로와질수 있다는것을 내심 우려해서가 아니였던가?

가진자와 못 가진자, 유산자와 무산자의 계급적차이는 민족의 존엄을 놓고서도 그처럼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낳는것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의문의 세계는 커만 갔고 공허한 마음은 이리저리 방황하며 안정을 찾지 못했다. 그속에서 벗어나려는듯 사량은 전날 밤에 보던 책을 펼쳐들었다. 눈길이 글줄에 박히기도 하고 다시 허공을 맴돌기도 하면서 회전을 하였다.

이때 인기척이 나더니 누군가 들어왔다.

어머니 리정근이 불켜진것을 보고 방에 들어왔는데 그는 푸념조로 조용히 말했다.

《아니, 너 아직 자지 않니?》

사량은 《이걸 마저 읽고 자요.》 하며 어줍게 대답했다.

손에 쥐여져있는것은 17세기말—18세기 중엽의 진보적문인이였던 김리만의 문집인 《학고선생문집》 2권이였는데 며칠째 그는 밤새도록 꼼짝 안하고 그 책 독서에 열중하였던것이다.

어머니는 사량에게서 책을 빼앗아 펼쳐진 대목에 눈길을 주었다.

김리만의 시 《고달픈 추위》였는데 이렇게 씌여져있었다.

가랑잎을 긁어다가 언몸을 녹이려는데
아전들은 문닳도록 조세독촉 하는구나
아, 고달픈 추위는 어찌 이리 길다더냐

부자집은 술과 고기로 배불리며 겨울도 따뜻한 봄날처럼 보내는데 그렇지 못한 가난한 집들은 추위에 떨며 고달프게 산다는데 대해 노래한 시였다.

《자거라. 래일 졸업식련습을 또 한다던데.》

김사량은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 어머니가 말하군 했지요. 돈으로도 시간만은 사지 못한다고. 내가 이제 자면 꿈만 꾸고 내가 이제 공부하

면 꿈을 이루어요.》

이제 자면 꿈만 꾸고 이제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외국에서 고등교육까지 받은 어머니였지만 애어린 아들애의 입에서 튀여나온 이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들애가 너무도 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도로 책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다음날 사량은 학교에서 소학교졸업식련습을 세번째로 또 하였다. 련습이란것은 학습과 체육 등 모든 면에서 최우수 학생인 그가 교직원, 학생들이 전부 모인 졸업식에서 1등상을 받아안고 연단에 나가 토론하는것을 미리 해보는것이였다.

드디여 졸업식날이 왔다. 사량은 부푼 가슴으로 어머니와 함께 아침일찍 학교로 향했는데 벌써 좁은 길에 아이들과 어른들의 물결이 꽉 차서 교문쪽으로 흐르고있었다.

《저애가 1등상을 받는 시창이라지.》

《시창이 어머닌 좋겠어요. 애가 공부도 잘하고 모든데서 제일이니까.》

사량이와 어머니를 보며 학부형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모두가 조선학생의 부모들이였다.

학교운동장안은 사람들로 붐비였다. 졸업생들이 학급별로 정돈하자 연단에 교장이 나섰다.

조선아이들과 일본아이들이 섞여 공부하는 공립보통학교에

는 교장이 일본인이였는데 이자는 말끝마다 공정성을 지껄이면서 학생들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것이 제놈의 장끼인듯이 표방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였다.

교장은 일장연설을 마친 후 최우수학생들에 대한 등수를 발표하고 시상을 하였다.

그런데 어이하랴. 교장의 아들인 다다 스스무가 1등상을 받았다. 김사량에겐 2등상이 차례졌다.

졸업식련습을 할 때에는 사량이가 1등상을, 스스무가 3등상을 받게 되여있었는데 하루밤사이에 등수가 달라졌다.

운동장의 여기저기에서 반감의 목소리가 울려나왔지만 졸업식행사는 예정대로 끝나고말았다.

사람들이 다들 헤쳐갔다. 텅 빈 운동장 한가운데서 사량이와 그의 어머니만이 자리를 뜨지 않고 못박힌듯 서있었다.

학급담임인 조선인교원이 교장방에 항의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두들겨맞은듯 후줄근해서 그들의 곁으로 다가왔다. 교원은 한마디도 못하고 사량의 두어깨를 꽉 잡았다.

사량의 눈길이 갑자기 학교건물쪽으로 향했다. 얼굴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그 어떤 비장한 빛이 흘렀다.

사량은 누가 어쩔 사이도 없이 상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리고는 교사를 향해 힘껏 던져버렸다.

공부를 잘해도 우등상을 주지 않고 자기보다 못한 왜놈의 자식만 내세우는데 대한 분노와 저주였다. 일찌기 사회적불

평등과 모순에 눈이 튼 사량이가 일제의 민족적차별에 침을 뱉는 무언의 항거였다.

어머니도 교원도 그의 돌발적인 행동이 자기들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었는지 이름할수 없는 미소를 짓고있었다.

사량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땅만 보고 걸으면서 한가지 생각에만 골몰했다.

(이 땅은 어둠에 또 어둠이 덮쳐든 그야말로 암흑세계이다. 이 칠칠야밤을 밝혀줄 한줄기의 빛이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환멸, 그 어둠속에서 방황하며 가지게 된 김사량의 반항의식, 반일의식은 소년시절의 생활속에서 싹이 터 굵은 줄기로 자라면서 세계관형성에 작용을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 그 무엇에 대한 갈망도 우후죽순처럼 커만 갔다.

## 처녀작 《토성랑》이 찾는 빛

김사량의 본명이 김시창이였다는것은 알려져있다. 그러나 언제부터 그의 이름이 사량으로 불리워졌고 거기에 어떤 뜻이 담겨져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국내와 중국, 일본 등 타국에서 김사량과 함께 문학의 길을 걸었던 몇몇 안되는 생존자들이 남긴 증언자료와 그 후손들의 말에 의하면 사회의 부조리와 가문의 계급적처지에 대해 너무도 일찍 깨닫기 시작한 김시창은 문학에 뜻을 두고 붓을 달리기 시작한무렵에 자기의 필명을 정하면서 한생토록 력사앞에 량심적으로 살 의지를 담아 사량(력사 사, 어질 량)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처럼 김사량이라는 필명에는 그의 웅심깊은 뜻과 대바른 성격이 비껴있다.

방황과 번뇌속에 몸부림치던 김사량은 14살 나던 1928년에 평양고보(평양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어질고 착하기만 하던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그 무엇에 대한 갈망과 지향으로 태질하던 어제날의 소학생은 사색하는 형, 고민을 아는 지향적인 중학생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경향적인 소설들을 읽으며 점점 말이 적어졌다. 많은 중학생들이 련애소설책을 끼고 모란봉이며 반월도로 녀학생

들을 달고 다닐 때 김사량은 민족적, 계급적색채가 짙은 소설들을 심독하며 자기 주위를 살펴보았다. 카프작가들의 작품은 그에게 현실을 꿰뚫어보는 눈을 틔워주었다.

외국의 플로베르, 스땅달, 모빠쌍의 작품들을 좋아하면서도 우리 나라의 라도향, 최서해의 작품들에 심취한것은 당시 사회의 어두운 현실이 그 책들의 주인공이 처한 환경과 너무나도 흡사했기때문이였다.

1929년 여름방학의 어느날이였다.

덩실한 대청마루에서 7월 17일부 《동아일보》를 보던 김사량은 큰 충격을 받았다. 신문에 자기가 사는 곳에서 지척인 어느 한 지역의 비참상이 크게 실렸기때문이였다.

《평양은 공업도시… 라고 누구나 하는 말이다. 우뚝우뚝 아방궁같은 벽돌집, 즐비한 일인(일본인)의 상점, 하늘을 찌를듯싶은 공장굴뚝, 신선루각같은 례배당은 나날이 늘어간다. 그러나 이 반면에 살길을 잃고 집은 헐리워 뒤로뒤로 돌려 더 갈 곳이 없는 보통강일대에 빈민촌을 이룬 서성리, ㅇㅇ리의 그 참혹한 생활에 죽지 못해 사는 천 오백여호에 륙천 팔백여인구를 우리는 볼수 있다.

…

두 동리를 합한 호수는 1 360여호인데 그중에 생활이 다소간 나은 사람은 겨우 150여호에 불과하고 1 210여호는 부대 곳곳으로 다니면서 찬밥을 얻어먹으며 좀 나은 사람은 지

게, 로동, 공장일, 사환 등의 일감이 바로 생기면 조밥술이나 먹고 그렇지 못한 때는 굶지 않으면 밥빌러 떠나야 할 처지이다. 대평양에서… 밀리여 사는 서성리, ㅇㅇ리의 참경을 가보지 않고 누가 알랴!》

(아니, 그곳이 내가 몇번 지나간적이 있는 토성랑일대가 아닌가.)

김사량은 서성리, ㅇㅇ리가 바로 토성랑이 있는 곳이라는것을 제꺽 알아차렸다. 그가 태여난 륙로리에서 서문고개를 넘어서면 곧바로 토성랑이였던것이다.

토성랑은 평양의 가장 비참한 빈민촌의 대명사였다. 보통문에서 안산에 이르는 긴 구간에 쌓아놓은 고구려의 옛 흙성자리에는 소작전을 빼앗기고 살길을 찾아 도시로 밀려든 리농민들, 실직자들과 거지들 등 시내에 들어와 살수 없는 사람들이 토성에 의지하여 거적으로 움막을 지어놓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었다.

신문을 본 김사량은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신문을 손에 쥔채 안절부절 못하는 그를 보고 어머니가 말을 건네였다.

《너 신문에서 무얼 큰거라도 발견했니?》

아무 대꾸도 없이 마루를 내려 신발을 신는 사량을 어머니는 바라보기만 했다. 아들이 무엇에 집념하거나 무엇을 행할때 그것을 막아본적이 전혀 없었던 어머니였던것이다.

김사량은 대문을 나서자바람으로 뛰다싶이 하여 서문고개

를 넘었다. 얼마 안 있어 토성랑에 당도한 그는 새로운 시각으로 곳곳을 꿰뚫어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소학시절 장광섬쪽으로 시집간 맏누이를 보려고 어머니를 따라 몇번 보통강을 건느면서 지나가본적은 있어도 이렇게 비참한 곳인줄은 몰랐다.

옛 싸움터인 토성랑은 집짐승들을 도살하는 곳을 지나 구불구불 끝모르게 뻗어갔는데 비탈면에는 나무토막과 벼짚 같은것으로 웃설미를 한 수백을 헤아리는 움막들이 기여가듯 어깨를 붙이고 련달렸다.

군데군데 토성우에는 움집사람들이 시들하니 둘러앉아 바람을 쏘이고있고 거적문을 들추고 맨몸뚱아리 아이들이 달려나올 때마다 움막에서는 퀴지근한 악취가 물씬 코를 찔렀다.

사량은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프렸다. 하지만 악취를 막자고 코를 감싸쥐지는 않았다. 여기에 삶의 터를 잡은 사람들이 늘쌍 들이키는 그 악취를 자기라고 순간이나마 들이킬수 없다는 법은 없지 않는가.

키꼴이 잡힌 말쑥한 중학생이 나타나자 멀리에서 웃통이 드러나보이는 아낙네들이 점직한듯 손으로 가슴을 가리며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그들을 짓눌러버릴듯 토성 동쪽 낮은 지대에는 《다까지상회 기와제작소》라는 흰 간판이 나붙은 왜놈이 경영하는 큰 기와공장굴뚝이 우뚝 서있었다. 대조되는 두 정경은 깊은 생

각을 불러일으켰다.

이 땅의 백성들은 어둠속을 헤매며 언제까지 그것을 감수해야만 하는가. 사람들이 그처럼 그리워마지 않는 어둠을 밀어낼 빛, 삶의 진정한 빛은 언제야 도래하는가.

이때부터 김사량은 종종 토성랑을 찾아보군 하였다.

그러던중 어느해 장마때 본 토성랑은 김사량에게 너무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거침없이 흐르는 탁류는 무서운 기세로 토성에 밀려들어 흰 거품을 일으키며 맴돌아치고 물에 잠긴 움집은 한순간 움찔움찔하다가 와르르 무너져 떠내려갔다. 벼짚이영을 한 지붕이 탁류속에서 거꾸로 일어서는가 하면 기둥, 서까래, 집짐승 같은것들이 떴다가라앉았다하며 사정없이 흘러갔다. 신음소리, 아우성소리,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녀인들의 통곡소리…

어느날 김사량은 국제렬차가 제방앞을 지나가는데 도시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하여 토성랑집들에 일제히 철거령이 내렸다는 소식도 들었다.

(아, 헐벗고 짓눌리고 천대받다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죽어가는 토성랑사람들! 그들에게도 저 하늘에서 쏟아지는 해빛이 비쳐들건만… 저들을 돌봐줄 손길은 과연 없는가.)

생각이 깊어지는 사량의 뇌리에 불현듯 소학시절 아버지를 따라 고창리에 나갈 때마다 하염없이 바라보군 하던 포전, 무연하게 펼쳐진 그 논밭의 벼이삭들이 따가운 해빛속에서

미풍에 설레이던 광경이 불쌍한 토성랑사람들의 참경과 대조를 이루며 떠올랐다.

마지막 현지답사로 토성랑을 돌아보던 김사량은 감탕판에 미끄러지면서 더벙게한테 물렸는데 집에 돌아올 때 그걸 가지고 왔다.

그가 어머니에게 이런것도 먹을수 있는가고 묻자 리정근은 《그 게에는 병균이 많아 먹을수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김사량은 《아, 어머니! 토성랑사람들은 먹을것이 없어 이런것을 잡아먹어요. 정말 토성랑사람들이 불쌍해요.》 하며 서글프게 울부짖었다.

김사량은 손에 든 게를 높이 쳐들고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그의 눈앞에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의 비참상이 환영처럼 비쳐들었다. 다음순간 이러한 토성랑의 실상, 참혹한 조선의 현실을 추호의 꾸밈도 없이 적라라하게 써보고싶은 격렬한 의욕이 불타올랐다.

(쓰자. 아니, 써야 한다! 써야 한다!)

후날 그가 《제방》이라는 잡지의 창간호에 발표한 수필 《잡음》에서 《조선의 현실을 충실하게 써보고싶다… 감탕, 오막살이, 토성랑, 백성, 학생청년 무엇 하나 묘사하지 않을수 없는것이 없다.》고 쓴바와 같이 김사량은 토성랑을 휩쓰는 탁류속에서 백성들, 아니 민족의 비참상을 보고 붓을 든 문인으로 한생을 살 결심을 굳히였다.

그는 곧 펜을 들고 책상에 마주앉았다. 며칠밤을 새우다싶이 하는 펜끝에서는 불꽃이 일었고 그 불꽃이 피여올린것이 처녀작으로 된 단편소설 《토성랑》이였다.

고등보통학교 2학년 재학중인 15살 중학생이 쓴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있는 작품이였다.

김사량은 소설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의하여 생지옥으로 변한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토성랑사람들의 최하층의 생활과 비극적인 운명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하였다.

인물관계설정과 사건묘사를 치밀하고 진실하게 하려고 하였으며 토성랑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이 왜놈들때문이라는것을 밝혀내려고 하였다.

가깝게 알고지내는 상급생들은 소설을 보고 다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사량은 이 작품을 내놓지 않았다. 무엇보다 언어에 자신이 없었으며 현실에서와 같은 극적인 격렬성이 보이지 않는것이 불만이였다. 그는 수필 《잡음》에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는가. 어느 정도 진지하게 형상화할수 있는가. 나에겐 전혀 자신이 없다. 그저 힘껏 노력해볼뿐이다.》고 고백하였다.

일본으로 건너간 김사량은 단편소설 《토성랑》을 규슈의 사가고등학교를 다닐 때 다듬어서 도꾜제국대학에 입학한 1936년 그해 10월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오래동안 고심하며

정하여두었던 김사량이라는 필명을 처음으로 썼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의하여 생지옥으로 화한 1920년대 말엽—1930년대 초엽의 조선현실을 평양 토성랑인민들의 비참한 생활, 그들 최하층의 비극적인 운명을 통하여 잘 보여주었다.

50이 넘도록 지주집 머슴을 살며 장가도 못 들고있다가 도시에 흘러와 토성랑움막에서 외토리로 살다 홍수에 빠져죽는 불쌍한 원삼령감, 왜놈에게 소작권과 안해의 정조마저 빼앗기고 리농하여 생활난과 병고에서 시달리다 못해 로동현장에서 쓰러져죽는 선달이, 아들을 감옥에 빼앗긴 덕일로인과 아들때문에 실성한 로파, 밀주건으로 류치장에 끌려가 50원 벌금에 가장집물을 몽땅 팔고 거덜이 난 말더듬이, 한장의 거적때기를 쓰고 비내리는 길가에서 죽어가는 절름발이…

이들은 일제의 학정에 의하여 인간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한 조선인민의 비참한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군상들이다.

헐벗고 짓눌리고 천대받다가 이래 죽고 저래 죽는 이들의 운명은 그 얼마나 애처롭고 불쌍한가.

여기에는 당시 조선의 현실을 충실히 써보고싶어한 김사량의 창작적지향과 사회의 어둠을 파헤쳐보려는 그의 격렬한 의욕과 정열이 어느 정도 생동하게 비쳐지고있다.

소설은 조선의 가난한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신음을 진실하게 그리고있을뿐아니라 그 고통과 신음이 바로 왜놈들의

식민지통치와 략탈에 기인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에는 철길이 토성랑앞을 지난다고 국제적인 체면과 도시미관을 구실로 움막집들에 대한 철거령을 내리고 인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움막집들을 닥치는대로 시궁창에 처넣는 부청의 횡포며 관권에 의거하여 토성랑일대의 토지를 몽땅 수탈하여 토성랑사람들에게서 지대를 받아내고 움막에 사는 그들을 동구밖으로 정처없이 떠나게 하는 다까기란 왜놈자본가의 악독한 수탈행위 등이 그려져있다.

하늘에 우뚝 솟은 다까기란 놈의 기와공장의 높은 굴뚝, 새로 늘어나는 양철지붕들과 쓰러져가는 토성랑의 움막집의 대조속에 왜놈이 판을 치는 조선의 현실이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작품에는 가난한 조선사람들의 고통과 탄식만이 아니라 왜놈들에 대한 불만과 울분, 소극적인 반항도 묘사되여있다.

선달이가 소작권과 안해의 정조마저 떼운 그밤에 소작부치던 논에 뛰여들어 여물지 않은 벼를 몽땅 베여눕히고 물고를 터뜨려놓는데서와 기차를 전복하기 위해 철길우에 돌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죽은 임생원의 죽음은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여준다.

비록 일제에 대한 우리 인민의 반항심을 적극적으로 묘사하지 못하고 또 가난한 가운데서도 서로 도우며 남의 불행을 자기의 불행처럼 가슴아파하는 우리 인민들의 아름다운

인정세계와 고상한 민족적기풍을 잘 그려내지 못한 제한성은 있어도 일제통치하의 그 준엄한 시기에 이 정도나마 일제에 대한 반감과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뜨거운 동정을 표시한것은 조국에 대한 김사량의 사랑과 민족적감정이 얼마나 깨끗하고 열렬한가 하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독자들은 이 작품을 읽으며 비분과 반감의 세계에 끌려들어가면서도 글줄에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한 갈망, 비참한 인간사회를 아름다운 세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피타는 절규를 듣는다.

그 갈망, 그 피타는 절규가 바로 김사량이 찾고찾는 빛, 처녀작 《토성랑》이 소리없이 찾는 삶의 빛이였다.

당시 김사량과 친교가 깊었던 진보적인 한 일본인작가는 《토성랑》에 진하게 채색된 감정은 빛에 대한 그리움이였다고 하면서 사량의 애타는 심정을 이렇게 쓴바 있다.

《…현실의 무거운 고통에 짓눌리여 그의 눈길은 아직도 어둠에만 쏠리는듯싶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빛과 어둠속을 헤매고 긍정과 부정사이를 누비면서 휘황히 타오르는 빛을 찾으려고 모대기고있다.

빛속으로 어서 나가고싶다. 그것은 그의 희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빛을 우러르기 위하여 그는 혹시 아직도 더 오래 어둠속에 몸을 움츠린채 눈만 반짝이고있어야 할는지도 모른다. 이후의 작품들에도 로골적이든 은폐된 형식이든 이 빛에

대한 강한 갈망이 어려있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장차 김사량의 한생을 관통할수도 있다고 보아진다.》

자기가 그처럼 그리워하고 찾던 빛을 아무 표현도 쓰지 않고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애타게 찾게 한 단편소설 《토성랑》은 김사량의 고단수의 창작기교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의 문학창작의 앞길과 애국적성격을 특징지어주는 의의있는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김사량은 1936년 10월부터 몇달동안 일본경찰서에 미결수로 구류된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토성랑》이 극으로 각색되여 재일조선인들의 극단인 조선예술좌에서 상영되였고 더우기는 극작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빛, 압제자들이 제일 싫어하고 피압박인민들이 명줄처럼 고대하는 생명의 빛이 강하게 발산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이것은 그가 창작의 첫출발을 옳게 내디디였다는것을 반증해주는것이였다.

## 《길림바람》에 돛을 달고

김사량이 문학에로의 첫걸음을 량심적으로 떼게 된것은 일제의 가혹한 민족적억압과 이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거세찬 반일투쟁의 혁명적영향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로 하여 그는 창작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면서 사상적으로, 인격적으로 원숙해지기 시작했으며 점차 사회현실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되였다. 그것은 그에게서 사랑과 증오의 대상이 명백해지고 그로부터 발로되는 정의의 충동을 억제할수 없었던 사정과 관련된다.

김사량이 평양고보에 재학할 당시 일제의 광란적인 침략전쟁책동은 극도에 달하였고 그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과 항거 역시 폭발직전에 있어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반일투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었다.

1928년 한해가 다 저물어가고있던 어느날이였다.

저녁무렵 학교에서 돌아와 대청마루에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한동네에 사는 문행이라는 청년이 대문짬사이로 사량을 불렀다.

《시창아, 밖에 좀 나와.》

문행은 사량이보다 나이가 두살 우이고 같은 고보에 다니지만 학년도 2년 우였다. 하지만 그는 자기 학급의 같은또래

아이들보다 사량과 자주 만나고 함께 있으면서 대화하기를 좋아했는데 그 리유는 비록 나이와 학년은 아래였어도 사량이가 생각하는품이나 행동거지에서 어른스러웠기때문이였다.

사량이가 들어오라고 소리치는데도 문행은 막무가내였다.

어머니 모르게 할 말이 있는가부다고 짐작한 사량은 문행을 따라 인적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따라갔다.

문행이가 뒤따르던 사량을 향해 몸을 홱 돌리며 웨치다싶이 말했다.

《시창아, 바람이 불어오고있어. 그것도 세차게!》

문행의 얼굴은 상기되여있었다. 커다란 흥분이 온몸을 휩싸고있는것이 분명했다.

바람? 무슨 바람이 분다는건가?

영문을 몰라하는 사량에게 문행이 불을 토하듯 내쏘았다.

《저 머나먼 만주 길림에서 일본쪽발이들을 전률케 하는 항거의 선풍이 무섭게 불고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막 들고일어나 싸우는데 굉장하대.》

《너 그걸 어떻게 아니? 누가 그러던? 정말이가? 좀 자세히 말해줄수 없니?》

귀가 버쩍 열리는 소리인지라 사량은 단숨에 많은 물음을 연방 들이댔다.

그제서야 문행은 한숨을 돌리며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사량도 그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의 입이 열리기를 기

다렸다.

《너도 아는 우리 삼촌말이야. 만주에 가있던 그 삼촌이 어제 밤 집에 불쑥 나타났는데 온밤 웃방에서 아버지와 열띤 이야기를 하더라. 난 귀동냥해 엿들었지 뭐.》

사량은 생각났다. 문행은 짬만 있으면 자기 삼촌이 만주의 어느 독립군무장대에서 일제와 싸우고있는데 체구가 웅장하고 힘이 장사같아 웬만한 쪽발이놈은 감히 덤벼들념을 못하고 도망친다는 자랑을 늘어놓군 했었다.

《일본놈들이 철도를… 거 뭐라더라… 옳지, 길회선철도라는것을 부설하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투쟁이 길림에서 맹렬히 벌어지고있고 또 그 <길림바람>이 온 만주땅을 매섭게 휩쓸고있다고 했어. 조만간 여기 조선땅에도 그 바람이…》

《길림바람?》

사량의 입가에서 이 말이 조용히 흘러나오는데 문행은 이번에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힘주어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그 <길림바람>은 10대의 젊은분이 선두에서서 대오를 이끌면서 몰아오고있는데 성함은 김성주라고 부른대. 삼촌은 그러면서 이젠 자기네 독립군 같은것으론 승산이 없다면서 길림청년들을 따라야 할것 같다고 말하더구나.》

사량의 크지 않은 눈이 여느때없이 광채를 뿌렸다. 딱히 찍어 말할수 없지만 그 《길림바람》따라, 김성주라는 그 존함과 더불어 이 땅에 비상한 빛발이 조만간 비쳐들지 않겠는

가 하는 예감이 그의 뇌리를 꽉 채웠다.

바로 그 《길림바람》을 일으켜 광활한 만주대지와 조선의 팔도강산에 반일의 소용돌이를 몰아온 김성주란분이 미구하여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고 지지리도 억눌리고 짓밟혔던 조선사람들에게 재생의 빛, 삶의 봄빛을 안겨주신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이시라는것을 김사량은 그때는 알수 없었다.

문행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김성주란분을 찾아 국내와 일본, 연해주와 만주 각지에서 정견과 소속, 생활경로가 서로 다른 수많은 청년들이 길림으로 모여들고있다는것, 그분께서는 인민들속으로 깊이 들어가시여 대중을 계몽시키고 조직화하여 묶어세우신다는것, 청년학생들과 광범한 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결속되는데 따라 그들을 일제와 반동군벌을 반대하는 실천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신다는것, 그분의 조직령도하에 1928년 여름 일제와 중국반동군벌들을 반대하는 길림육문중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이 일어났고 그 흐름을 타고 여러 학교들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으며 각종 투쟁이 모두 승리로 결속되였는데 이것을 계기로 청년학생과 대중은 김성주란분을 더욱 신뢰하고 따르게 되였다는것, 그분의 직접적인 조직지도에 의해 그해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며 일본상품을 배척하는 보다 큰 규모의 대중투쟁이 전례없는 격렬성을 띠고 완강하게 벌어졌으며

길림에서 불기 시작한 《길림바람》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세차게 고조되여 온 만주지역에로 번져가고있다는것, 그 《길림바람》은 국내깊이에까지 미치여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추동하고있다는것, 문행의 삼촌은 자기가 속한 독립군 두령으로부터 비밀리에 특령을 받고 바로 이 《길림바람》의 실상을 날날이 파악하기 위하여 길림에 파견되였었고 근 한달나마 그곳에 체류하면서 모든것을 죄다 알게 되였다는것, 그리고 삼촌은 독립군의 일때문에 평양으로 왔던 길에 형을 비롯한 혈육들과 친지들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이 소식을 한시바삐 전해주고싶어 들렸다는것 등 문행의 열띤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

그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사량은 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그 《길림바람》이 그의 온몸을 휩싸며 무엇인가 웨치고있었다.

김사량, 너는 무엇을 하고있는가! 책더미속에서 빛과 어둠사이를 오가며 아직도 방황하고있는가!

사량은 문득 생활에서는 관조자가 없다는 어느 한 경구가 생각났다. 이 땅에 사는 조선민족의 일원으로서 현실의 관조자가 되여서는 안된다는 강한 충동이 온넋을 사로잡으면서 몸을 벌떡 일으키게 했다.

《지금이 몇시게 일어나니?》

어머니의 잠기어린 목소리였지만 사량은 듣지 못했다. 온

밤을 꼬박 새운 그는 밥술을 드는둥마는둥하고는 등교길에 나섰다.

어느새 뒤따라서 왔는지 문행이가 사량의 어깨를 툭 치더니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너 눈에 피발선거 보니 밤을 밝힌거로구나.》

말없이 머리만 끄덕이는 사량의 눈빛은 여느때와 달랐다. 꼭 다문 입술과 함께 충혈된 눈빛은 그가 무엇인가 결심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어느새 1928년도 저물었다. 새해에 들어서면서 조선국내에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쪽발이들을 전률케 했다.

《길림바람》의 영향하에 1929년 광주학생사건이 일어났고 이 거세찬 흐름속에서 평양고등보통학교에서도 일본인교장이 실토한것처럼 《란》이 일어났다. 바로 그 《란》의 배후에 언제나 사량이 있었다는것은 해방후 그가 자기의 자서전에서 《나는 평양고보재학시에 문학에 뜻을 두었지만 책상물림으로만 있지 않았다. <길림바람>에 돛을 달고 행동하고싶었다. 그러면서도 선두주자가 되고싶었다. 이러한 나의 충동은 당시 교내의 반일적인 항거들에서 언제나 주모자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쓴것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정의감이 강한 그는 학교에서 문제아로 주목되였다.

군국주의열기에 들떠 대륙침략을 꿈꾸던 일제는 조선청년

들을 대포밥으로 내몰기 위하여 새 학년도부터 고보이상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강제적인 군사훈련제도를 내왔다.

평양고보에는 일본현역장교가 배속되여 교련을 강요하였다. 횡포하고 무지막지한 그놈은 쩍하면 학생들을 구타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였다. 더욱 참을수 없는것은 일본인교원들이 포악무도한 왜놈장교를 두둔하며 항의하는 학생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것이였다.

어느날이였다. 사량은 문행을 비롯한 뜻을 같이하는 학생들과 미리 짠대로 군사교련시간에 일본장교의 구령소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그것이 신호가 되여 학급전원이 학교마당 한가운데서 요지부동으로 서있었다.

《반항인가? 이래도 움직이지 않을텐가?》

장교는 허리춤에서 군도를 빼들었다. 시퍼런 긴 칼날이 해빛에 반사되여 더 무섭게 보여졌다.

하지만 학생들이 일치하게 놈을 둘러싸며 집단적으로 항거해나섰다.

이를 기화로 왜놈장교와 교원들의 잔혹한 폭력행위를 반대하는 전교적인 동맹휴학이 단행되였다. 단순히 몇몇 폭압적인 왜놈교원들의 횡포에 대한 항거가 아니였다. 일제의 노예교육제도와 식민지통치자체를 부정하는 조직적인 집단투쟁이였다.

평양시내 청년학생들의 반일시위에도 적극 참가한 김사량은 이듬해 가을 광주반일학생운동기념일을 계기로 해주, 평

양, 신의주에서 동시에 들고일어난 청년학생들의 조직적인 항의투쟁에서도 지식청년으로서의 자신의 면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일제가 그것을 모를리 없었다. 사건을 중대시한 놈들은 동맹휴학의 조직자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눈이 벌개 돌아쳤다. 학교측에서는 5학년 2학기 수료를 앞두고있는 김사량을 주모자의 한사람으로 지목하고 즉시 퇴학처분하였다.

수재로 인정되고있는 김사량의 재능과 장래를 아수히 여긴 량심적인 교원들이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애썼으나 사량의 도고한 자세를 굽힐수 없었다.

쭉 빠진 키에 높은 이마밑에서 예지롭게 빛나는 작을사 한 김사량의 눈매에는 범접할수 없는 기상이 어려있었다. 반성은 커녕 오히려 강렬한 반항의 불꽃을 보였을뿐이였다.

경찰측에서는 동맹휴학건을 퇴학처분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았다. 놈들은 구속기도를 드러내고 김사량에 대한 감시추적을 시작하였다.

더는 집에 있을수 없게 된 사량은 눈내리는 12월의 어느날 경계가 심한 평양역을 피하여 교외의 자그마한 역에서 남행렬차에 몸을 실었다.

모교동창들의 바래움도 받지 못하고 조용히 떠나는 그를 어머니 한사람만이 역에 나와 전송하였다. 쫓겨다니느라 모자도 쓰지 못한 맨머리바람에 단추마저 다 떨어져버린 교복

하나를 걸친 아들을 쓰라린 마음으로 바라보던 어머니는 쓰고 나온 목수건을 벗어 목에 감아주었다.

김사량은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눈물에 젖은 어머니와 작별하였다. 가닿은 곳은 부산역이였다.

낯선 고장에서 뒤골목하숙집에 몸을 숨긴 김사량은 급히 일본에 있는 형에게 전보를 쳤다.

당시 사량의 형 김시명은 도꾜제국대학 학생이였다. 그 역시 머리가 좋다고 소문났으나 성격은 동생과 판판 달랐다.

며칠안으로 시명은 도항증명서와 규슈 사가고등학교의 학생제복과 모자, 학생증, 그밖에 필요한 수속을 해가지고 나타났다.

당시 관부련락선을 타려면 일본수상경찰청의 엄격한 조사를 받아야 하였다. 도항증명서도 검인을 받아야만 효력을 가지게 되여있었다. 경찰은 거동이 약간만 수상해보여도 트집을 잡고 문초를 하였다. 조선사람의 경우 놈들의 시비는 더욱 혹심하였다.

그것을 보는 김사량의 가슴에서는 불이 이는듯 하였다. 가는 곳마다에서 일제에 대한 반항심만 커질뿐이였다.

다행히 제국대학 사각모를 쓴 형의 동행으로 사량은 무난히 검문을 통과할수 있었다.

김사량의 일본행, 그것은 조국의 현실에 대한 기피가 아니였다. 《길림바람》에 돛을 단 성숙기의 청년이 걷는 뜻있

는 길이였다. 또 후날 그자신이 일본의 문학동료가 왜 일본으로 건너오게 되였는가고 물었을 때 《그 길이 빛을 찾아서 그 빛결으로 더 빨리 가기 위한 의로운 길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대답한것처럼 김사량은 목적지향성있게 한걸음한걸음 내짚어 걸어갔다.

## 저항작가의 이모저모

해방후 어느때부터였던가 남조선의 진보계층속에서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복무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갈라놓는 운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말하자면 일본놈들의 압제에 순종하여 그들의 주구로 굴러떨어진자들을 협력분자로, 식민지통치기구나 각종 업종에 종사는 하였으나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 일제의 통치에 반항한 사람들을 저항분자로 정해놓고 전자들은 숙청대상으로, 후자들은 보호하고 내세우는 대상에 놓는다는 민족적인 운동이였다.

문인들의 부류에서 김사량은 저항작가에 속하였다. 남조선의 어느 한 대학교수 김재용은 《김사량은 엄혹했던 시기 몸으로 부딪쳐 직접 일제와 맞선 대표적인 저항작가》였다고 말한바 있다.

그렇다면 전대미문의 가장 악독하고 야만적인 파쑈통치,

일제의 조선인민에 대한 식민지통치하에서 그는 어떻게 저항하였는가. 특히 일본에서 공부할 때의 그의 사고와 활동의 이모저모에서 저항의식, 저항하는 행동방식은 어떻게 표현되였는가.

현해탄을 넘은 김사량은 1933년 4월 일본 규슈의 사가고등학교 문과에 입학하였다.

작가로 지망을 확정한 그는 공부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작품창작에 바쳤다.

평양에서 고보를 다닐 때인 15살에 썼지만 《언어와 형상에 자신이 없어 책상서랍깊이 묻어두었》던 단편소설 《토성랑》을 손대여 완성한것은 사가고등학교 2학년 재학당시였다.

사량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반감과 고통받는 겨레에 대한 사랑과 동정이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진하게 표현되고있는 작품들을 련이어 써냈는데 그중의 하나가 단편소설 《짐》이였다. 1936년 2월 사가고등학교 졸업기념지에 이 소설을 낸 김사량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4월 도꾜제국대학 어문학부 도이췰란드문학과에 입학하였다. 벌써 이 시기부터 포부가 크고 정치적일가견을 가진 김사량은 지면상으로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자신의 작가적면모를 널리 드러냈을뿐아니라 일본의 진보적문학예술계와 교포사회의 많은 활동가들과 교제의 폭을 넓혀나갔다.

대학입학후 몇달 지나지 않은 1936년 10월 대학내외의 진

보적청년들과 동인지 《제방》을 간행한 김사량은 자기의 첫 창작품인 《토성랑》을 거기에 실었다. 수필 《잡음》도 함께 실었다.

동인지 《제방》은 선진적인 문학도들이 자신들의 주의주장을 전개하며 창작품들을 발표하기 위하여 만든 간행물로서 5권까지 발행되였다.

김사량이 문학동료들과 함께 동인지의 이름을 《제방》이라고 단데는 당시 유럽중심부와 아시아 섬나라에서 광란하던 파시즘의 파급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었다.

동인지 《제방》의 발간에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주동인물의 한사람이였던 김호영의 영향이 컸다.

후날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서 국가일군으로 사업하였던 그는 경상남도 밀양군출신으로서 《동경조선신보》를 발행하여 광범한 동포계층들을 집결시켰다.

김사량은 《동경조선신보》에 글을 내고 동인지도 발간하면서 김호영과 깊은 친교관계를 맺었으며 신보주위에 있는 동포활동가들과 접촉하였다.

원래 《동경조선신보》는 김호영이 류치장에 있을 때 시바우라부두 로동자들이 차입해준 돈과 유지들의 의연금으로 광범한 동포계층의 찬동밑에 1934년 《동경조선민보》로 창간된 재일조선인들의 대중신문이였다. 그해 10월에 발행된 창간준비호에서 《재일조선인대중의 공동적인 여론기관으로 이 신

문을 창간한다.》라는 요지의 취지서와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발기인명단을 발표한데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재일교포사회의 전반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대변지였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의 거듭되는 발행금지조치, 일본경찰의 간섭과 탄압으로 1년도 못 가서 페간상태에 이르렀다.

신문관계자들은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최승희와 그의 측근들, 《조선중앙일보》, 《동아일보》 지국장들, 기타 상공업자들로 운영진을 개편하고 리사회가 그것을 주관하는 형식으로 재출발하였고 이때부터 신문제호도 《동경조선신보》로 하였다.

《동경조선신보》는 동포류학생들의 대변지 《청년시대》를 발간하였으며 과학기술잡지 《기계공의 벗》, 예술잡지 《막》도 만들었다. 각 대학동창회보도 찍었다.

글쓰는 사람이 발표할 지면을 가지지 못한다면 날개없는 새와 같다. 김사량에게 있어서 동포출판물의 간행은 마음껏 날아볼수 있는 날개를 달아준 격이였다.

골격이 굵고 성격이 시원시원한 다혈질의 김호영은 류학생들의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도와주었다. 그는 김사량과 같은 젊은 재사를 알게 된것을 매우 기꺼워하였으며 그를 주요필진이자 소통이 잘되는 편집요원으로 대해주었다.

김호영의 주변에는 주목되는 인물이 많았다.

작품투고와 류학생동창회의 출판물인쇄발행관계로 동경조선

신보사출입이 잦았던 김사량은 김호영의 주위에 있는 인물들과 깊은 뉴대를 가지게 되고 공동행동도 하게 되였다.

특히 백두산쪽에 줄을 두고있는 김태한과 접촉하게 된것은 반일적인 사상동향을 가진 김사량의 정치사상적성장에 커다란 흔적을 남겼다. 김태한은 주필인 김호영에게 《동경조선신보》가 반일애국적인 출판언론활동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김사량은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후날 김사량이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참군을 시도한것은 이때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김사량은 《동경조선신보》와 관계하면서 김호영의 주변에 있는 진보적인 일본인사회계인사들과도 련계를 가졌다.

시인 나까노 쥬지는 일본프로레타리아문예련맹 성원으로서 재일조선인들의 활동에 깊은 동정과 련대감을 가지고있는 사람이였다. 후에 창작된 그의 유명한 시 《비오는 시나가와역》은 일본에서 추방되는 김호영을 비롯한 조선사람들을 역에서 전송하고 지은 작품이였다.

나까노 쥬지를 통하여 일본의 진보적인 작가들과 통성하고 련대하게 된것은 일본땅에서 창작활동을 시작한 김사량에게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였다.

그는 연극평론가이며 연출가인 센다 고레야와도 인연을 맺었다.

센다 고레야에게는 조선사람들에 대한 남다른 동정심과 애착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 간또대지진때(1923년) 그는 센와이에서 조선사람으로 몰려 일본깡패들에게 무고하게 맞아죽을번 한 일이 있었다. 더우기는 간또대지진을 기화로 조선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과 략탈을 감행하던 일제의 야만적인 행위를 현지에서 똑똑히 목격한 그때부터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의 처지에 대하여 각별한 동정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들을 박해탄압하는 정부와 우익반동들의 부당한 처사에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재일조선인들과 련대하기 위한 사회적활동을 벌렸다.

그가 자기의 이름을 센다 고레야(조선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음)로 고친것도 그때부터였다.

《동경조선신보》에 출입하면서 김사량은 《불가사리》라는 연극대본을 썼다. 작품에서 그는 로동운동출신으로서의 김호영의 전투적기질과 드센 성격을 토대로 굴할줄 모르는 완강한 인간의 형상을 창조하고싶었다.

이 연극의 연출을 센다 고레야가 맡아하였다.

이때를 전후하여 김사량은 연극활동에 적잖은 관심을 돌렸다.

재일조선인들속에서 벌어진 진보적연극운동은 일본에 류학하고있던 고학생들에 의하여 개척되였는데 김사량은 진보적인 연극인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연극운동을 발전시키기 위

하여 노력하였다.

해방후 공화국의 초대영화동맹위원장이였던 공훈예술가 강홍식은 김사량과 관계가 깊은 예술인이였다. 그는 해방후 우리 나라의 첫 예술영화 《내 고향》을 연출한 공로자였다.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영화를 만들라면 영화를 만들고 연극을 하라면 연극을 하는 다재다능의 소유자였던 강홍식은 강직하고 겸손한 성품을 소유하고있어 12년이라는 나이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김사량의 작가적재능에 깊이 탄복하고있었으며 그의 의견을 많이 따르군 하였다.

김사량의 연극활동에서 주목되는것은 재일조선예술인들의 연극단체인 조선예술좌에 관계한것이였다.

1931년 6월 도꾜에서 창립된 조선예술좌는 와세다의 풍설관에서 시연회를 가진 후 조선시극단으로 출발하였다. 후에는 3.1극장으로 개칭하고 본격적인 연극창조활동을 벌렸다. 대표적인 작품이 리기영의 소설 《쥐불》을 각색하여 무대에 올린것이였으며 김사량의 처녀작 《토성랑》도 각색하여 공연하였다.

조선예술좌는 창립취지서에서 극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중의 계몽과 조선해방을 목적하며 진보적민족연극을 통하여 재일조선민중으로 하여금 비판정신을 지도앙양시키고 그들을 해방투쟁에 유도한다고 한것은 이 단체가 민족해방을 지향한 예술단체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조선예술좌에 관계하였다는 사실에서 당시 김사량의 민족정신, 반일애국정신을 명백히 찾아볼수 있다.

김사량은 조선예술좌의 지도급인물들과 가까이 지냈다. 그들은 진보적이며 적극적인 김사량의 견해와 사람됨됨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그를 학생신분으로가 아니라 재능있는 작가로, 자기들의 창조활동의 미더운 동반자로 환영하였다.

조선예술좌가 김사량의 《토성랑》을 연출하여 무대에 올리자 은밀히 조선예술좌의 경향적인 창조활동에 독을 품고있던 일본경찰은 김사량에게 주목을 돌리였다.

《토성랑》의 공연을 트집잡아 일제는 조선예술좌에 대한 일대 탄압을 가하였으며 김사량은 일제경찰에 구속되여 류치장에서 설을 맞으며 2개월간 감방생활을 하였다.

추운 겨울날 난방도 없는 감방에서 가혹한 심문을 받으며 고생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정의감이 강한 그의 가슴속에 일제에 대한 반감만 커지게 하고 꺼지지 않는 항거의 불씨를 안겨주었을뿐이였다. 증거불명으로 경찰서에서 풀려나오자 평양의 집에서는 큰 변이 난것처럼 소동을 피우고 형은 대학기간 헛눈을 팔지 말고 공부를 착실히 하여야 전도가 트인다며 진부하게 설교하였지만 김사량은 자기에게 잘못한것이 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동안 부친이 도꾜로 와서 돈깨나 쓰면서 석방운동을 한데 대해서도 김사량은 민망하게 생각하였을뿐이였다.

그는 기가 꺾이지 않았을뿐아니라 더욱 불타는 적개심에서 반항적인 작품창작에 돌입하였다.

1937년 3월 20일부 대학신문에 소설 《집》을 개작하여 《윤참봉》이라는 제명으로 발표한것이 그 하나였다.

김사량은 소설에서 조선적인 모든것을 짓밟아버리는것을 국책으로 삼고 날뛰던 일본식민주의자들에 대해 과감히 도전하였고 조선적인 모든것은 일본의 그것에 대비할수 없이 우월하다고 인정하였으며 또 알게 모르게 그것을 말하고 주장하였다. 단순한 자존심의 표현이 아니였다.

조선의 문화와 전통이 그렇듯이 조선사람은 인격적으로 일본사람보다 월등하다고 보았기때문에 모든 면에서 일본사람들을 누를수 있어야 한다는것이 그의 지론이였다.

그가 류학생들을 휘동하여 최승희의 공연을 요란스럽게 응원하고 그의 성공을 열렬히 축하하군 한데는 이 미모의 민족무용가가 일본의 모든 무용가들이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누르며 섬나라를 조선열기로 휩쓸어버렸기때문이였다.

김사량은 일본녀자들이 시샘하리만큼 인물 잘나고 피아노를 잘 치는 윤선호나 노래 잘하는 왕수복에 대하여 일본동료들과 문화계인사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내세우군 하였다.

김사량은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과 매국역적들에 의하여 조선이 비록 일본에 먹히웠지만 조선사람은 절대로 왜놈의

노예가 될수 없을뿐아니라 모든 점에서 야마도족보다 우월하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야심먹고 공부면에서나 창작면에서나 품행면에서 항상 일본학생들의 우위에 서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의 높은 실력과 고상한 품격에 교수들도 일본인동급생들도 머리숙였다.

어느해 가마꾸라해안의 해수욕장에서 있은 일이였다.

그날 김사량은 학급 대학생들과 함께 수영을 하고는 술마시기를 하게 되였는데 한 일본인학생이 큰 사발에 술을 부어 내밀면서 그에게 마셔보라고 하였다. 그러자 사량은 《너희들은 조선속담에 주량이 도량이라는 말있는걸 모르지. 군들이 못 마시는걸 내가 어떻게 마시는가 보여주지.》 하며 쭉 단번에 들이키고도 끔쩍 안하였다.

일본학생들은 《야, 대단한데! 장군이다, 장군!》 하고 감탄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장수는 백두산에서만 나와. 난 보통사람이다.》라고 말하며 김사량은 그들을 눈아래로 굽어보는 시늉을 했다.

어느날 강의가 끝난 후 김사량은 운동장밖에서 일본망나니패가 한 학생을 가운데 놓고 모두매를 안기는것을 보았다. 늘 있는 사실이여서 못 본체 하고 지나가려다가 뭇매를 맞는 청년이 어딘가 낯익어 다가가보니 상급반조선학생이였다. 길가던 사람들은 피투성이된 청년을 보고 아부재기만 칠뿐

깡패들이 무서워 말릴 생각을 못하였다.

김사량은 무작정 싸움판에 뛰여들어 피해자를 막아섰다. 그는 류창한 일본말로 사리를 가려 싸움군들을 꾸짖었다. 어깨가 넓고 키가 장승같은 젊은이가 힘꼴이나 쓸것 같은데 행패는 하지 않고 떡 버티고 서서 말로 옳고그름을 강변하는데 위압된 망나니패는 기가 죽어 슬금슬금 꼬리를 사렸다.

김사량은 배우자선택에서 자기식의 기준이 있었는바 우선 학식이 있어야 하고 다음 인물이 있어야 하였다. 이 량면에서 일본녀자들보다 월등해야 한다는 기준에서 합격, 불합격을 놓았다. 그가 부친의 고집을 꺾고 누이동생을 기어코 도꾜에 데려다 공부시키려고 한것도 남자나 녀자나 다 섬나라 왜인들보다 못해서는 안된다는 자기류의 주장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러한 관점이 배우자선택에서도 작용하였던것이다.

방학기간 서울에 들린 김사량은 품을 놓고 리화녀전 정문밖에 지켜서서 드나드는 녀학생들을 주시하였다.

학교적으로 제일 똑똑하고 인물 잘난 상대를 자기 눈으로 골라보자는 목적에서였다. 조선에서 한다하는 녀걸들이 모인다는 곳인데 마땅히 으뜸가는 인물을 골라잡아야 한다는것이 김사량의 야심이고 배짱이였다.

마침 눈에 든것이 최창옥이였다. 그는 리화녀전 가사과에 다니는 평양녀자였다. 방학으로 집에 가는 그 녀자를 서울에서부터 추적한 김사량은 평양역에서 인력거를 타고 달리

는 그를 수옥리(지금의 평양시 중구역 중성동)까지 뒤쫓았다.

커다란 양옥, 두터운 벽돌담장안으로 사라진 처녀를 다시 볼수 없게 된 김사량은 서울에서부터 가지고 온 트렁크짐을 건사할데 없어 그냥 든채로 대문을 두드리고 낯선 집마당에 들어섰다.

일시에 뭇시선이 불청객에게 집중되고있음을 감촉하였으나 개의치 않고 주인으로 보이는 풍채좋은 중늙은이에게로 곧바로 다가가 꾸벅 절을 한 다음 《댁의 따님이 마음에 들어 서울서부터 뒤쫓아온 걸음이니 내쫓지 말아주시오.》 하고 떡심좋게 말하고는 평양 륙로리 몇번지에 사는 도꾜제국대학 졸업반의 아무개올시다라고 공손하게 자기소개를 하였다.

한발 먼저 마당에 들어선 당자는 삽시에 얼굴이 앵두빛처럼 되여 어쩔바를 몰랐으나 자매들과 어머니인듯 한 나이든 부인은 신기해하는 표정을 숨기지 않고 젊은이를 뜯어보았다.

청년의 름름한 자세와 대담한 행동에 마음이 동한 처녀의 아버지는 손님을 안으로 청하여 장시간 담화하였다. 나중에 《우리 집 딸을 택하려는 리유가 한마디로 뭐요?》 하고 묻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사량은 이렇게 말하였다.

《일본녀자들을 압도해야 하겠기에…》

채 맺지 못한 그의 대답에서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강하게 느낀 처녀의 아버지는 마음이 흐뭇해져 딸을 달라는 그의 요구를 승낙해버렸다.

흥분한 김사량은 장모될 부인과 자매들에게 일일이 인사하고 나오다나니 트렁크짐을 감감 잊고말았다. 트렁크안에는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맛보일 사과가 들어있었다. 그걸 찾겠다고 다시 들어가기는 무엇하였다. 가족들에게 주자던 사과가 결국 처가집에 주는 과일로 되고말았다.

김사량이 일본류학시절에 보여준 생활의 이모저모는 알게모르게 그에게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 반항의식이 거세할수 없게 강하게 자리잡고있었음을 보여주고있다.

## 보천보총성

1930년대 후반기 특히 중일전쟁이 일어날무렵 조선민족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더욱 우심해졌다. 일본국내에서도 조선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 불온분자들에 대한 감시와 체포구금이 극도에 달하였다.

일제경찰은 해마다 《한일합병》과 3.1인민봉기, 6.10만세시위투쟁같은 날들이 올 때는 대학구내에 경찰들을 더 들이밀어 조선인학생들의 일거일동을 주시하면서 생트집을 걸어 련행해가군 하였다. 그속에서 김사량도 자기의 작품들에서 진하게 풍겨오는 민족적색채와 반일요소로 하여 엄중시되는 요시찰인으로 주목되였다.

어느날에는 사량의 하숙집에 형사와 경찰이 달려들어 그가

쓴 소설의 내용을 자자구구 걸고들면서 몇달동안이나 품들여 쓴 살붙이같은 소설원고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는 남아있던 원고지며 필기도구를 몽땅 불태우고 사라져버렸다.

대학교내에서 다소 자유롭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교정은 파쑈경찰들의 란무장으로 변해버린듯 하였다. 학생들은 매일같이 운동장에서 대학에 배속된 장교가 휘두르는 격검채와 일본도의 칼날에 위협을 당하면서 군사교련을 받아야 했다.

그야말로 칠칠야밤의 지속과 같은 어둠속에서도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김사량과 같은 진보적인 청년학생들은 빛을 그리며 빛을 찾았다.

그러던 1937년 6월 어느날이였다.

김사량이 하숙하는 방으로 자정이 훨씬 넘은무렵에 한학년의 일본인문학동료 둘이 그를 찾아왔다.

《사량군! 들었나? 보천보총성말이야! 자네네 조선땅에서 변이 났네. 자 보게나.》

보천보총성?!

그들이 내미는 신문을 펼쳐든 사량의 얼굴에 금시 격동의 빛이 피여올랐다.

《보천보에서 군경전멸》, 《맹렬한 사격이 들씌워진 주재소 탄알자리는 벌둥지와 같도다.》…

심장이 쿵쿵 뛰며 방망이질을 해댔다. 이러저러한 소식통

으로 듣군 하던 백두산일대에서의 항일무장투쟁전과가 그의 눈앞에 현물로 펼쳐진것이였다.

사량을 더욱 놀라게 한것은 보천보를 들이쳐 대일본제국을 전률케 한 항일빨찌산의 대장이 20대의 청년 **김일성**장군이시라는 사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7년 6월 4일 22시에 울리신 보천보의 총성!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그 총성에는 10여년세월 조국의 동포들에게 말하고싶었던 모든 사연들이 다 담겨져있었다고, 그 총소리는 어머니조국앞에 드리는 상봉의 인사였고 강도 일제를 징벌의 마당으로 불러내는 호출신호였다고 뜨겁게 술회하시였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소식은 일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주었고 조선인민에게는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었으며 국내외의 중요신문들과 출판물을 통하여 널리 전해진 그 전과소식은 각계 인사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그때 려운형은 조선인민혁명군이 보천보를 들이쳤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한 나머지 그달음으로 전투현장인 보천보로 달려가보고 《이제는 됐구나, 단군조선이 살아있구나!》 하며 무릎을 쳤다. 상해림시정부의 김구는 보천보전투소식을 듣고 어찌나 흥분했던지 창문을 열어제끼고 배달민족은 살아있다고 몇번이나 웨쳤다. 그는 이제는 림시정부가 **김일성**장군을 후

원해야겠다고 하였으며 백두산쪽으로 사람을 보내여 위대한 수령님과 련계를 맺으려고까지 하였다.

비좁은 하숙방을 좌우로 왔다갔다하는 김사량을 두 일본인동료가 넋없이 바라보았다. 여태 함께 지내오면서 사량이 저렇게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흥분에 빠진것은 처음 보았기때문이였다.

사량은 지금 자기가 느끼고있는 감정과 끓어오르는 격정이 평양에서의 고보시절 《길림바람》에 접하였을 때의 그 감정, 그 격정과 꼭같은것이라고 생각되였다. 하지만 그 《길림바람》을 일으킨 김성주라는분이 오늘의 민족사적장거인 보천보총성을 울린 **김일성**장군이시라는것을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다.

그에게 문득 오래전에 본적이 있는 로씨야 재정성에서 발행한 1900년판 책자에 씌여져있던 《조선군대의 특징—훌륭한 지휘관을 만나면 무서운 힘을 낼수 있다.》는 문구가 떠올랐다. 그러면서 출중한 인물이 없었던 조선군대가 일제에 의하여 백주에 해산당해야만 했던 쓰라린 력사도 뇌리에 다시금 되살아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날이 밝아오는무렵에는 사량의 얼굴에 지친 기색은 전혀 없고 희망찬 밝은 빛만이 차고넘쳤다.

(아, **김일성**장군! 그이는 나에게, 조선사람들에게 삶의 빛, 민족재생의 빛을 뿌려주실 천출위인임이 분명하다.)

이때로부터 조선국내는 물론 일본땅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무장투쟁소식이 매일처럼 신문과 방송으로 대서특필되고 특별뉴스로 전해지군 하였다.

일제는 악의와 중상으로 가득찬 허위선전으로 《황군》이 승리한듯이 사람들을 기만하려 하였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건재하고있으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일제에게 일대 타격을 주고있다는것은 결코 숨길수도 가리울수도 없었다.

일제의 허위선전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그들자신이 스스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조국해방을 위한 성전의 위대한 승리를 선전하는것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해내외의 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해 머지않아 조국의 해방이 이룩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을 밀영에서 만나뵈온 김정부로인의 《**김일성**청년, 지리에 통달하고 신출귀몰》이라는 회견기제목 그리고 《**김일성**공산군 함남에 잠입, 우리 경비대와 교전중》, 《천여명 련합공산군 무송현성을 습격, 일부는 달려온 경비대와 교전, 일부는 무송현을 점령》, 《**김일성**의 근거지 용의주도한 월동대책》 등의 제목들만 보아도 항일유격대의 투쟁규모와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전술의 탁월성을 절감할수 있었으며 일제는 불원간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

는 유격대에 의해 격멸소탕되고 조국은 해방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이러한 때 중일전쟁이 발발하였다.

당시 신문깨나 보는 사람들중에는 중일전쟁이 심화되고 일본군의 전과가 확대되여가자 조선독립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비관론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해 8월초부터 최남선, 윤치호, 최린 등 민족반역자들은 내외신문들에 일제와의 타협을 설교하는 글들을 련속 발표하였다.

최남선은 일본의 존재와 그 발흥은 곧 아시아의 기운이고 동방의 빛이라고 하면서 동방 제 민족은 일본을 맹주로 하여 《대동단결》하여야 한다고 썼다. 3.1독립선언문 기안자의 한 사람인 최남선은 일찌기 백두산을 동방만물의 최대의지, 동방문화의 최요핵심, 동방의식의 최고연원이며 동방대중의 원적이며 그 활동의 주축이라고 하면서 동방의 풍운치고 그 기류의 동원이 백두산에서 발하지 않은것이 없다고 하였다. 언제 아무데서고 이마를 스치는것은 백두산의 바람이요, 목을 추기는것은 백두산샘물이요, 갈고 심고 거두고 다듬는것은 백두산의 흙이라 하던 사람이 돌변하여 일본의 존재가 아시아의 기운이고 동방의 빛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최린은 《내선일체》로 《국민적적성》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3.1독립운동발기자 33인에 속하는 사람의 발언치고는 너무도 배신적이고 매국적이였다.

김사량은 절대로 동요하지 않았다. 대세처럼 보이는 와류속에서도 그밑에서 조용하나 거세차게 흐르는 진짜 대세를 그는 보고있었다. 민중의 마음속에 새겨진 보천보의 총성이 절대로 사라질수 없다는것이 그의 확고한 믿음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김사량은 동인지 《제방》에 글을 싣군 하던 조선인친구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9월호소문내용을 듣게 되였다.

중일전쟁에 대처하여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보내는 9월호소문에서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는 중일전쟁과 조선혁명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우리 인민이 신심을 잃지 않고 반일투쟁을 강화해나가도록 하는것이였으며 다른 하나의 문제는 전민항쟁준비의 전략적방도를 밝혀주는것이였다.

김사량에게 있어서 일제가 중일전쟁까지 일으키고 전체 아시아를 지배하고 세계를 제패할듯이 떠들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해 멸망하고 우리 조선이 독립되는것이 시간문제라는것은 너무도 확정적이였다.

(조선에 비범출중한 영걸이 나타난것은 민족사의 더없는 행운이다. 바야흐로 삼천리조국강산에는 어둠이 밀려나고 동이 트일것이다. 조선사람 누구에게나 희망의 빛이 찾아들고 그 빛속에서 생의 희열을 맘껏 터칠 날은 머지않아 오고야 말것이다.)

실로 보천보총성은 김사량에게 있어서 조국이 해방되리라는

신심을 안겨주고 생의 끝까지 추호의 흔들림없이 희망의 빛, 삶의 빛, 재생의 빛을 그리며 거기에 심신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여준 더없는 등대였다.

그러하기에 김사량은 해방후 조선에서의 첫 수령형상작품으로 연극 《뢰성》을 창작할 때 한시도 잊은적 없는 보천보총성을 재현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구세주로 형상하였던것이였다.

이에 대하여 김사량은 1948년에 쓴 수기 《빛을 찾아 걸은 34년의 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방황과 번뇌속의 나를 완전히 끝장낸것은 보천보총성이라고 찍어 말할수 있다. 왜냐하면 그 총성이 울린 시점을 기화로 하여 나의 생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기때문이다.

이때부터 나의 심장에는 절대로 흐려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해발이 비쳐들기 시작하였다. 나와 조선민족에게 존엄을 주고 민족의 얼을 되살려주고 참된 삶을 준 그 해발은 재생의 은인 **김일성**장군이였다.》

# □ 재생의 빛을 찾아

## 빛을 그리며 태동하다

남조선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의 조선동포들에게서 김사량 하면 그의 단편소설 《빛속에》를 떠올린다. 그만큼 이 작품은 김사량의 야심작이며 그의 창작생활에서 무시할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빛속에》와 함께 그 시기에 김사량이 창작한 작품들은 빛을 그리며 태동하는 그의 내면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소식에 접한 당시의 사람들과 더불어 김사량에게도 보천보에서 울린 총성은 크나큰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보천보에서 타오른 불길은 그의 심장에 삶의 해빛에 대한 보다 강렬한 지향, 그 빛을 향해 한시바삐 마중가고싶은 억제할수 없는 충동을 지펴올렸다. 그 지향, 그 충동으로 써낸것이 단편소설 《빛속에》와 그 시기의 작품들이다.

1939년 3월 김사량은 대학을 졸업하였다. 졸업생전원이 졸업식에 참가하는것이 관례였으나 그는 졸업식에 참가하지 않고 약 한주일간 중국 베이징에 다녀왔다.

이미전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무장투쟁에 깊은 동경심을 품고있던 동경조선신보사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에 대한 물심량면의 지원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지면을 통한 항일유격대의 활동보도, 조국광복회10대강령인쇄배포, 일제의 정치, 군사정보의 제공, 조선북부지대의 수재민구제명목으로 유격대에 보내는 다량의 자금과 물자를 백두산, 두만강지구에로 반출하는 사업 등이 극비밀리에 진행되였다. 김호영과 백두산쪽에 줄을 두고있는 김태한 등은 항일유격대참군론의까지 진지하게 하였었는데 김사량도 여기에 뜻을 같이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김사량이 졸업식도 보류하고 급기야 압록강을 건너간데는 항일유격대행처에 대한 확실한 정보, 정확히는 그처럼 고대하는 빛을 찾아가는 길을 탐색하자는 의도에서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보천보총성이 자리잡고있었다.

베이징에서 도쿄로 가지 않고 서울로 곧장 돌아온 그는 《조선일보》의 학예부 기자로 취직하였다. 당시 많은 작가들이 신문에 글을 내는것에 생계를 걸고있었는데 김사량이 그곳으로 사회의 첫걸음을 정한데는 생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조선국내에서 발간되는 신문으로서는 《조선일보》가 《동아일보》와 더불어 민족지라 불리우면서 친일어용신문들인 《매일신보》(총독부기관지), 《시사신문》과 대치되여 민족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하였다.

민간 3지의 하나라고 하던 려운형에 의하여 발간된 《조선중앙일보》는 이른바 일장기말소사건으로 1936년 9월초에 일제에 의하여 페간되고 동아, 조선 2개 신문이 민간지의 명맥을 이어가고있었다.

생계가 담보되여있는 김사량으로서는 굳이 취직을 할 필요없이 작가로 독립하여 전문창작만 할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료들의 권고와 명망있는 작가들을 인입하여 필진을 꾸림으로써 신문의 위신을 높이려는 신문업자들의 강경한 요청을 무시할수 없었으며 김사량자신이 《동경조선신보》를 통해 맛본 신문에 대한 미련을 버릴수 없었다. 더우기는 가슴에 깊이 묻어둔 뜻을 따르지 않을수 없었다.

평양태생인 김사량에게는 김성수 등 호남출신재벌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동아일보》보다 방응모 등 서북출신재벌들에 의하여 발행된 《조선일보》가 더 가깝고 기분에도 맞았다. 실업신문임을 표방하고 발간된 《조선일보》는 리상재, 안재홍 등에 의하여 《조선민중신문》이라는 표어를 달고 《동아일보》와 경쟁하고있었다.

김사량은 조선일보사에서 사회생활의 첫발을 뗐다. 그는 처음부터 신문사의 도꾜지국근무를 희망하였다.

도꾜에 무슨 애착이 있는것은 아니였다. 일본에 끌려가 갖은 고역을 당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의 가혹한 처지를 외면할수가 없었다. 일본땅에 건너간 조선사람들의 비참한 처지와 어

려운 속에서도 서로 도와주고 힘을 합쳐 역경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중편소설 《무궁일가》를 창작한것을 봐서도 재일동포들에 대한 그의 관심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수 있다.

《동경조선신보》의 사람들도 잊을수가 없었다. 류학생동창회간행물인쇄를 위하여 제 집처럼 드나들던 신보사는 일제의 탄압으로 존재를 마쳤지만 그들은 남아있었다.

《동경조선신보》창간자 김호영이 공화국에서 1956년에 쓴 자서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것은 신문의 결말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1938년말경에 이르러서는 상기한 류학생동창회들의 출판물들까지도 페간되고 일본경찰은 동경조선신보사인쇄소라는 간판마저 철거해갔다.

이 시기까지에 이 인쇄소를 리용하여 출판물을 발간하였거나 인쇄소에 출입한 사람들중에서 현재 북반부에 있는 동무들로서는 정진석, 윤선호, 윤근 등이 있다.》

주되는 출입자, 동반자였던 김사량이가 김호영이 자서전을 쓴 1956년에도 살아있었다면 그 명단에 이름이 올랐을것은 물론이다.

김호영의 자서전에서 명백한것은 김사량이 도꾜지국으로 가려고 했을 때 《동경조선신보》는 이미 존재를 마쳤다는것이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과 다시 일해보고싶었다.

거처지가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며칠간 김사량은 서울의 합

숙에 붙박혀 소설을 썼다. 걷잡을수 없는 창작적흥분속에 멈출래야 멈출수 없는 기분에 쫓기우다싶이 하면서 단숨에 써낸것이 단편소설 《빛속에》였다.

일제가 《내선일체》를 부르짖으며 조선인민에 대한 《황민화》를 그 어느때보다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던 때였다. 조선어교육의 금지, 창씨개명, 언론에 대한 가혹한 통제 등으로 민족적인 모든것을 모조리 짓밟고 말살하던 암담한 시기였다.

이러한 때 김사량은 조선사람은 결코 일본사람으로 될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의 《황민화》정책은 파산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말하고싶었다.

김사량은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수 있는 주인공 《나》(대학생)의 시점에서 형상된 4명의 주요인물을 작품에 등장시켜 자신의 주장을 대변하였다.

소설에서 작품의 중심에 서서 사건들을 끌고나가는 《나》는 대학생들이 중심을 이루고있는 빈민구제협회의 기숙인으로서 공장거리에서 배우러 오는 로동자들에게 밤마다 두시간정도 영어를 가르치는 조선청년이다.

자기의 조선성을 따서 《남선생》이라 불리우지 않고 일본식으로 《미나미선생》이라 불리우는데 대한 《나》의 변명과 반성, 거기에는 일본에 사는 조선사람들의 내면적고민과 민족적자의식이 반영되여있다. 《나》가 보는 리군은 일본에

살면서도 조선사람이라는것을 감추지 않았을뿐아니라 동포들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는 성실하고 대바른 청년으로서 작가인 김사량의 민족의식을 뚜렷이 체현하고있다.

한편 작품에 등장하는 야마다는 추악하고 무도한 인간으로 단지 무지막지한 불량배일뿐아니라 조선녀성인 자기의 안해마저 칼로 찌를 정도로 조선사람에 대한 멸시사상이 꽉 들어찬 흉악배로서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야만성, 반동성을 집중적으로 안고있다.

야마다의 처는 조선사람이라고 하여 왜놈남편한테 얻어맞고 칼에 찔리우면서도 그와 갈라지지 않으려는 몽매하고 가련한 녀성으로서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조선민족의 비참상과 식민지노예근성, 순종의 비극을 가슴아프게 보여주는 인물이다.

소설에서 《나》와 직접적으로 대치된 인물은 혼혈아인 하루오소년이다.

야마다의 아들인 하루오는 포악무도한 아버지의 조선인멸시사상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며 조선사람이라는 한가지 리유로 사랑하고싶어도 사랑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어머니를 배척하는 이지러진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의 괴벽한 성격에는 조선적인것과 일본적인것의 모순과 상극이 체현되여있다. 그러한 그가 나중에 때리겠다는 아버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조선사람인 《나》를 따르게 되고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

는 극적인 심리적변화를 일으키는것은 일제의 조선인멸시사상에 대한 작가 김사량의 전면 부정이며 《내선일체》, 《황민화》정책의 종국적파산에 대한 대담한 선고였다. 꾸밈새가 치밀하고 형상이 선명하고 진실하며 전반양상이 잔잔하고 그윽하면서도 내부에 무서운 힘을 안고있는듯 한 느낌을 주는 소설은 발표되자마자 커다란 사회적반향을 일으켰다.

도꾜의 어느 한 신문은 광고란에 《민족의 비통한 운명을 잘 엮은 작품》이라고 대서특필했는가 하면 일본의 진보적작가, 평론계는 저마다 김사량을 민족작가, 저항작가로 떠올리며 《빛을 찾아 태동하는 그의 마음을 한껏 터쳐》 자기의 《잠재력을 과시》했다고 평하였다.

그에 반하여 김사량자신은 《내가 정말 그와 같은것을 쓴것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작품에 불만이 있었다.

김사량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저는 본래부터 자기의 작품이면서도 <빛속에>에는 아무리 해도 꼭 맞지 않는것이 있었습니다. 거짓이다. 아직도 나는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저는 이 작품을 쓰고있을 때에조차 자신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꼭 맞지 않는것인가? 무엇이 거짓이라는것인가?

그것은 일제의 조선인멸시사상을 비판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옳은 길을 밝히

지 못하는 불만, 야마다의 처가 칼에 찔리워 얼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으면서도 술집에서 자기를 《자유로운 몸으로 만들어주었》기때문에 그 남편없이는 살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불만, 보다는 이렇게밖에 그려낼수 없는 자기자신에 대한 불만족이였다. 당시 일제의 감시와 통제가 극도에 달한 엄혹한 조건하에서 그 불만족이 없는 작품을 쓸수는 없었다. 그 불만족이 있어야 통과되고 출판을 실현할수 있었다. 출판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의 작품원고는 천, 만이여도 의의가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였고 현실적으로 사량의 작품들은 불만족스러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비참한 현실을 따뜻하게 비쳐줄 희망의 빛을 강렬하게 갈구하도록 추동하고있었다. 이것은 빛을 그리며 태동하는 김사량이 노리는 의도적인 목적이기도 하였다.

소설을 쓴 때로부터 몇달후인 그해 6월 김사량은 안해를 데리고 도꾜에 도착하였다.

일본의 예술계와 교포사회에서는 새로운 눈으로 김사량을 환영하였다. 오직 경계의 눈초리를 돌린것은 일본경시청관계자들뿐이였다. 다루기 말쨴 어제날의 조선인대학생이 기자의 명함장을 가지고 나타난것이 아무래도 반갑지 않았던것이다.

일각에서 어떻게 보건말건 조선인친지들과 일본의 문학동료들의 도움으로 처와 함께 거처를 잡은 김사량은 적극적인 사회적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집필에 몰두하였다.

당시 도꾜에서는 최승희의 야심적인 유럽미국원정공연성과에 언론의 초점이 모아지고있었다.

최승희가 조선사람으로서 무용으로 일본판도를 내리깔고 올라섰을뿐아니라 전세계에 조선무용, 조선의것을 펼쳐나가는데 대하여 김사량은 대단히 장하게 여기고 신문지면으로 적극 응원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였다.

최승희가 무용으로 왜놈들을 셈세기시켰다면 자기는 문학으로 일본의 문단을 뒤흔들어놓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이 《빛속에》를 야심차게 쓴 진짜 리유였고 빛을 찾아 태동하는 불타는 마음의 뜻이였다.

1940년의 일본문학계는 김사량판으로 되였다. 잡지 《문예수도》에 평론 《조선문학풍월록》을 낸 후 련이어 종합잡지 《아사히》에 첫 장편소설 《울타리》를 련재하기 시작한 김사량은 6월에는 소설 《천마》를 《문예춘추》에, 《기자진》을 《문예수도》에 발표하였으며 7월에는 소설 《풀이 깊다》를 《문예》지 조선문학특간호에, 8월에는 소설 《현해탄밀선》을 《문예수도》에, 9월에는 중편소설 《무궁일가》를 개작하고 평론 《조선문학통신》에, 10월에는 《세시간》을 조선잡지 《구천》에 실었다.

12월에는 《빛속에》라는 표제를 단 김사량의 제1소설집이 발행되였다.

대단한 풍작이였다.

량적면에서만 아니라 사상예술적면에서도 크게 진보한 작품들이였다.

조선의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한 단편소설 《천마》와 《풀이 깊다》는 일제식민지통치자들과 그에 아부하는 민족반역자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풍자한 작품들이였다.

《천마》는 일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날치는 어용작가의 노예적근성과 파렴치성을 희화하여 신랄하게 풍자하면서 그런자들을 조종하는 일제에 대한 참을수 없는 증오를 표현하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젊은 평론가가 《일본어로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붓을 꺾으라고 하는 패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언어도단》이라고 부르짖는것은 일제의 조선어말살정책에 대한 작가의 항거정신을 반영한것이였다.

단편소설 《풀이 깊다》에서 그 항거정신은 더욱 강렬하게 표현되였다.

이 소설은 김사량이 1940년 4월 홍천군 두촌면 가마년봉을 중심으로 하는 강원도의 화전민부락들의 실태를 직접 현지에서 조사하고 창작한것이였다.

그곳에서는 도꾜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형 시명이 군수를 하고있었다.

형의 힘을 빌어 김사량은 산골화전민들의 생활을 비교적 깊이 파볼수 있었으며 동정하게 되였다. 소설은 화전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묘사하고있을뿐아니

라 일제사환군들의 역겨운 모습과 비렬성을 풍자한것으로 하여 주의를 끌었다.

일본말을 알턱도 없는 산골사람들을 모여놓고 통역까지 끌고 나와 가련할 정도로 서툰 괴상한 일본말로 연설하는 군수의 희극적인 형상은 어찌도 생동한지 웃음을 금할수 없다.

그러한 형상에서 일제의 민족어말살정책과 놈들의 사환군들에 대한 작가의 조소와 불타는 증오, 규탄을 읽을수 있다.

작품은 백의민족인 조선사람들의 흰옷에 마구 먹칠을 하는 왜놈들의 색의 정책의 야만성과 무도성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폭로하였다.

일제의 강도적인 식민지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성으로 하여 《풀이 깊다》는 김사량의 첫 작품집에 수록될수 없었다.

일제가 김사량을 곱게 볼리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문학계는 작가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어 소설 《빛속에》를 그해 아꾸다가와상후보작으로 선발하였으며 《일본소설대표작전집》에 실었다.

아꾸다가와상은 일본의 문학상이였다. 그해 창작된 신인들의 작품중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작품 한편씩을 골라 시상하는 아꾸다가와상은 일본문학계에서 노리는 경쟁자들이 많았다. 《빛속에》가 후보작으로 추천되였다는것은 작가로서 김사량의 확고한 지위가 확보되였다는것을 말해주는

것이였다.

1940년 3월 6일 김사량은 안해와 함께 문예춘추사가 주최한 아꾸다가와상수상식에 참석하였다.

거기서 김사량은 커다란 모멸을 당하였다.

뜻밖에 상은 《빛속에》가 아니라 일본작가의 작품에 수여된것이였다. 최우수작으로 2편의 소설이 인정되여 아꾸다가와상후보작으로 입선되였는데 최종심의에서 2편의 작품에 상을 줄수 없다고 하여 《빛속에》가 락선되였다는것이였다. 시상결과가 발표되자 여론이 물끓듯 하였다. 심의가 공정치 못하다는것이 사회계의 정평이였다. 아꾸다가와상파문으로 《빛속에》는 오히려 더 유명한 작품으로 솟아올랐다.

《빛속에》가 심의에서 보류된것은 일본작가의 작품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작가가 반도인이라는 관점이 작용하였기때문이였다. 이에 대하여 최종심사에 참가하였던 일본문단의 거장이라는 기꾸찌강자신이 인정하였다.

그는 후날 이때를 회상하면서 김사량의 소설 《빛속에》가 락선된 리유는 작품이 추구한 주제가 태평양전쟁준비에 광분하던 일본의 국시에 어긋났으며 더우기는 저자가 조선사람이라는데 있었다, 두편의 작품에 상을 수여하는것이 관례에 어긋난다고 한것은 김사량을 밀어치우기 위한 억지론이였다, 그전에도 두편의 작품에 상이 수여된 전례가 없었던것은 아니였다고 실토하였다.

최종당선에서 밀려난것으로 하여 김사량은 다시한번 쓰거운 체험을 하였다. 민족적차별과 멸시는 지성의 상류계라고 하는 문단에서도 횡행하고있음을 다시한번 실감하였다. 체질적으로 고약하기 그지없는 왜놈근성이 어디 가랴는것이 그의 속대사였다.

그는 일본이라는 섬나라에 2개밖에 없다는 요란한 금반지를 사서 보란듯이 안해에게 선물하였다. 2개중의 하나는 일본내각의 수상 부인이 끼고있다는것이였다.

무서운 반항이였다. 너희들이 준 모멸과 멸시의 이날을 두고두고 새기면서 쪽발이들과 기어이 결산하겠다는 말없는 항변을 그 반지는 말하고있었다.

소학시절부터 생긴 왜놈들에 대한 반감은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작가가 된 그날까지 해소된것이 아니라 뼈저린 체험으로 하여 더욱 확대되여 투철한 반일애국사상으로 굳어졌다. 그 반일애국사상은 빛을 찾아 태동하는 김사량이 앞으로의 과감한 행동을 하게 한 바탕으로 되였다.

## 평양에서 그리고 태행산까지

예로부터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다. 상대를 잘 알고 자기를 잘 준비하면 언제나 이긴다는 뜻에서 전해오는 이 말은 김사량의 언행에 잘 어울린다고 볼수 있다.

김사량은 자기의 발언뿐아니라 창작실천에서 부닥치는 모든 장애들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피타게 쓴 작품들을 어김없이 출판케 하였는데 이는 그가 일제의 속내를 잘 알고 그 탄압과 마수에 정면 도전하지 않으면서 그를 능숙하게 업어넘기는데 능통했기때문이였다. 힘겹지만 보람에 넘친 빛을 찾아가는 그의 행군길도 마찬가지였다.

임신한 안해를 데리고 평양에 머무르고있던 김사량은 뜻밖에 삼덕누이가 사망하는 바람에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묵고 있었다. 그 기간에 자기의 첫 소설집 《빛속에》를 묶었는데 김사량은 편집후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매 작품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현실의 무거운 짐에 눌리워 나의 눈은 아직도 어두운 곳에만 향해져있는것 같다.

하지만 나의 심장은 언제나 명암속을 헤엽치며 긍정과 부정사이를 누비면서 그 언제나 희미하게 밝아오는 빛을 얻으려고 모대기고있다.

이것이 나의 희망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빛을 바라기 위

하여서 나는 어둠속에 오래도록 몸을 웅크리고 눈을 번쩍이고있지 않으면 안될지도 모른다.》

억제할수 없는 반일감정이 빛을 찾으려는 모대김으로 승화되였다.

그 빛, 《희미하게 밝아오는 빛》, 《오래도록 몸을 웅크리고 눈을 번쩍이고있지 않으면 안될지도 모르》면서도 그리도 열렬히 희망한 그 빛은 몇해후 그가 태양부대라 우러러 칭송해마지 않은 항일빨찌산의 대장인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의 빛이였다. 그 빛을 찾아가 그 빛속에 안기려고 그는 모대기고있는것이였다.

김사량은 도꾜로 돌아왔지만 조만간에 여기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다. 그때부터가 그의 방황과 번뇌로부터의 탈출기라고 볼수 있다.

1941년 2월 그는 잡지 《문장》의 특집칸에 소설 《류치장에서 만난 남자》를 발표하였는데 이 작품에는 빛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진하게 깔려있었다. 일본반동들에게는 그러한 김사량이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으로 보였다.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그 이튿날인 1941년 12월 9일 도꾜의 하숙방에 있던 김사량을 《사상범예방구금법》에 걸어 가마꾸라경찰서에 구금하였다. 당시 그는 일제의 신문지통제방침에 의하여 《조선일보》가 《동아일보》와 함께 폐간된 후 직업이 없는 상태여서 누구의 보증도 받

을수 없었다. 합법적인 창작활동을 하는 죄없는 작가에 대한 검거는 교포사회는 물론 량심적인 일본사람들속에서도 응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많은 진보적인사들이 재일동포들의 항의투쟁과 석방운동에 협력해나섰다.

김사량의 검속으로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은 일제는 석방조건으로 그에게 남방으로 진군하는 《황군》의 보도기자로 종군할것을 강요하였다. 하나의 화근을 없애여 두세가지 리득을 보자는 왜놈특유의 간특한 계산과 교활성의 발로였다. 만약 김사량의 동의를 얻는다면 처리곤난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대상을 눈앞에서 제거해버리는것으로 될것이요, 항간에는 《명망있는 반도출신작가의 참전》이라는 요란한 선전간판을 내세울수 있게 되는것이다. 잘되는 경우에는 그의 미끈한 《승전》기사로 《대동아전쟁》에 총력을 동원하는데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수 있고 한걸음 나아가서 반일감정이 록록치 않은 이 저명작가의 사상에 균렬을 일으켜 친일로 돌려세울수도 있다고 타산하게 된것이였다.

민족적자존심이 높은 김사량이 저들의 얕은수에 말려들 사람이 아니라는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몰랐다.

회유로도, 위협으로도 먹어들지 않게 되자 놈들은 더는 강요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구실로 괴롭히다가 해가 바뀐 1942년 1월 29일 50일만에 석방하였다.

김사량은 자기가 일본에 더는 머물러있을수 없다는것을 알

아차렸다.

일본은 《대동아전쟁》에 《국민총동원령》을 내리고 사회전반에 군국주의바람을 일으키면서 전쟁징발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한편 사소한 반항요소에 대해서도 가차없는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였다. 많은 진보적인사들이 지하로 들어갔거나 해외로 피신하였다.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 박해는 더욱 가혹하였다. 김사량이 마음을 헤쳐놓고 의사를 통하던 김호영도 추방되여 서울로 돌아갔다.

류치장에서 구상한 단편소설 《물오리섬》을 써서 발표한 김사량은 어느날 도꾜의 변두리에 있는 최승희의 집을 방문하였다. 아담한 정원이 달린 이 커다란 2층집에도 별로 너렁청하고 썰렁한 기운이 돌았다.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얻은 요란스러운 성공에도 불구하고 최승희의 신색은 밝지 못하였다. 그 역시 주위환경으로부터 엄습해오는 끊임없는 압박감에 숨을 크게 쉬지 못하고있었다.

공연때마다 헌병대가 립석하여 눈을 밝히며 무대우에서 조선절을 하는것도 독립운동자들에게 신호하는가 하고 시비를 걸었다. 조선춤을 줄이고 일본춤과 반반으로 하지 않을 경우 공연허가를 하지 않을 작정이라는 경시청의 공식통고도 받고있었다. 심지어 장고춤을 출 때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지 말고 일본기모노를 입으라고 하는가 하면 반주음악도 《군

함행진곡》, 《우미유까바》 같은 군가에 맞추어 춤을 추라고 강요하였다.

일본군부의 압력으로 쉴새없이 《황군》위문공연에 끌려다니는 최승희는 기를 펴지 못하였다. 남방전선으로 나가라는 것을 간신히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꾼 그는 베이징에 연구소를 차려놓고 아예 중국쪽으로 돌아앉을 궁리를 하고있었다.

그것도 하나의 상책이 되리라고 생각한 김사량은 《최녀사가 그쪽으로 옮겨앉으면 내가 첫번째 방문객이 되겠지요.》라고 은근히 지지를 표시하였다. 김사량은 주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 자신의 처지를 더욱 똑똑히 깨달았다.

살벌한 섬나라땅과 결별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평양의 자택에서 조용히 근신하며 소설이나 쓰면서 기회를 보려고 하였다. 이때 쓴것이 해방전 그의 창작계렬에서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두번째 장편소설 《태백산맥》이였다.

《총동원령》의 회오리바람은 일본땅에서보다 조선에서 더 기승을 부렸다.

조선의 인적, 물적자원을 모조리 략탈하여 전쟁에 총동원하고있던 일제는 김사량이라고 하여 제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놔두려 하지 않았다.

소설을 써도 비상시국에 맞는것을 쓰라고 간섭하였고 끊임없이 전쟁선동강연과 연설무대에 나서라고 강박하였다.

《국민총력조선련맹》놈들은 무슨 해군견학단이라는것을 꾸려

가지고 김사량을 진해, 사세보 등 군사기지들과 해군성으로 끌고 다녔다.

김사량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사량의 재능과 이름이 필요하여 그를 앞세우고 다니려고 하였고 그 방향에서 지면을 제공하고 무대를 열어주었다.

그러한 중압속에서 창작하자니 때로는 심각한 정신적고뇌와 자기모순에 빠지는 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곤난앞에 좌절되거나 어둠속에서 통탄만 하는 의지박약한 우국형의 인간이 아니였다. 어둠너머 저쪽 어딘가에는 반드시 빛이 비치고있음을 확신하고 그 빛을 향하여 만난을 헤치며 돌진하는 그러한 행동형의 인간, 지향적인 인간이였다.

김사량은 일제가 열어주는 합법적인 공간과 무대를 적극 활용하였다.

그무렵 김호영과 김사량 등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백두산의 항일빨찌산과 련계를 가지기 위한 각방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백두산과 련계를 가지고있는 줄을 잡으려고 여러곳에 사람도 파견했으며 또 국경부근에도 직접 도보행군을 하군 했다. 그러던중에 김사량이 **김일성**장군부대와 직접 련계를 맺을데 대한 임무를 맡게 되였다.

1942년 4월초 그는 합법적으로 특파기자신임장을 받아가지고 평양을 떠나 베이징으로 향하였다. 떠나면서 그는 《내가 **김일성**장군을 찾아 백두산으로 가다가 만일 잘못되면 가족

을 부탁한다.》고 유쾌히 말하였는데 그때 당시 그에게는 안해 최창옥과 어린 맏아들 김량림이 있었다.

안해 최창옥은 쩍하면 멀리로 떠나군 하는 남편의 발목을 언제 한번 잡은적이 없다. 김사량이 가는 길이 그토록 몸부림치며 그리는 빛을 찾아가는 의로운 길이라 생각했기에 그의 말은 매번 부드럽고 겸손했다. 하지만 단호했고 울림이 있었다.

《어서 떠나요. 주저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김사량은 베이징을 거쳐 백두산쪽으로 향하는 려정을 이미 알고있던 중국의 녀류작가 로천명과 함께 하였는데 후날 백인준의 회상에 의하면 로천명은 중국인으로 가장하고 활약하는 관록있는 조선인녀류작가라고 한다.

힘겨운 려정에서 소득이 없이 돌아온 김사량은 창작에 몰두하였다.

김사량은 1942년 4월말 자기의 두번째 소설작품집 《고향》을 출판하고 8월에는 단편소설 《벌레》를 창작발표(《일본소설대표작전집》 제8권에 편집발행)하는 긴장한 속에서 장편소설 《태백산맥》을 전격적으로 구상집필하였다.

김사량과 관계가 깊었던 잡지사 주임인 일본작가 호다까 도꾸조가 《그가 항상 조선민족의 운명우에 사색을 달리고 가난한자, 억눌린자의 편에 서서 쓰고있다는것을 나는 알았다.》라고 회상한바와 같이 그는 살길이 막혀 풀뿌리를 캐먹

으며 살아가는 화전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운명에 사색을 달리며 그들의 편에 서서 소설을 썼다.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에 대한 심심한 동정으로부터 그들이 어둠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어이 밝아올 서광을 향해 불굴의 의지로 살아나가도록 깨우쳐주고 고무하자는데 김사량의 의도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그러한 의도를 현실생활로 묘사할수 없는 조건에서 갑신정변후의 력사적이야기로 소설을 꾸몄다. 력사를 빌어 자기 시대를 말하려고 한것이였다. 작품이 력사소설로 된 리유가 거기에 있었다. 작품에는 갑신정변도 동학사건도 구체적으로 묘사되였다. 그것을 배경으로 인물관계가 얽혀지고 사건이 전개되였다.

땅은 살지고 물이 맑고 숲이 우거지고 해별이 따스한 산속의 분지, 뭇짐승도 접근 못하는 칼벼랑에 둘러싸인 《신역》, 그러한 곳에 《동방 암흑의 땅에 있어서의 하나의 리상》, 《꿈꾸는듯 한 락토》를 꾸리려 하는 주인공들의 강렬한 지향과 투쟁에는 일제통치의 암흑사회에서 절망하지 않고 밝아오고야말 해방의 앞날을 내다보며 억세게 살아나가도록 인민들을 불러일으키려는 작가의 뜨거운 애국애족의 사상, 열렬한 인도주의정신이 맥박치고있었다.

《이 나라자체를 락토로 세워나가야 한다.》, 《때를 놓치지 말고 나라를 일으켜 우리의것으로 만들라.》, 《사람을 만

들라. 그리고 유사시에 함께 데리고 떨쳐나라.》…

등장인물들이 각이한 정황에서 하는 이 말들에는 비록 막연하고 추상적이긴 하지만 독립조국의 앞날에 대한 작가의 리상과 확신이 상징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이같은 형상으로 소설은 랑만적인 색조를 진하게 띤 력사소설로서의 풍격을 돋구어주고있었다.

장편력사소설 《태백산맥》은 1943년 2월부터 《국민문학》 지면에 련재되기 시작하였으나 인차 중지되였다. 친일적인 《국민문학》이 소화하기에는 너무나도 반일기운이 세찬 작품이였다.

새 작품을 쓰기 시작한 김사량은 그해 12월 14일부터 《바다의 노래》를 《매일신보》에 193호에 걸쳐 련재하였다.

다음해인 1944년 1월초에는 서울중앙공회장에서 자기의 새 연극을 발표하였다.

그의 작품중에는 일제의 강요로 마음에 없는 글도 쓰지 않으면 안되는 작가의 말 못하는 고민과 저조한 기분상태를 반영한 작품도 없지 않았지만 그런 작품에서조차 밑바탕에는 민족정신, 애국정신이 사라지지 않고있었다.

1944년 4월 김사량은 붓을 꺾고 평양대동공업전문학교 교원으로 취직하였다. 여기에는 민족재생의 위대한 빛을 찾고 그 밝은 빛속에서 참다운 문학을 하려는 작가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

얼마전이였다. 그는 서울로 가서 종로구 혜화동에 사는 김호영을 찾아갔다.

명성약품주식회사의 간판을 내걸고 비합법적인 지하활동을 하고있던 김호영은 연희전문학교동우회를 통하여 청년학생들속에서 의식화사업을 하고있는 정진석과 돈암동에 아지트를 정하고 비밀공작을 하는 서원석 등 《동경조선신보》시절의 뜻을 같이하였던 여러 사람들을 불러 동석식사를 조직해주었다.

사량은 김호영이 정말 고마왔다. 일본에 있을 때에도 번뇌와 방황속에 헤매는 자기를 기꺼이 맞아주고 혈붙이처럼 대해주었는데 그 진실한 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었던것이다.

김호영은 평양서 서울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김사량의 속마음을 죄다 읽고있었다. 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앉도록 속깊은 궁냥을 했던것이였다.

한참 술 몇잔씩 하고나니 도꾜시절의 옛일이 더 감회깊이 추억되였다. 깊어가는 추억의 심연에 빠져있던 김사량은 또랑또랑 울려오는 김호영의 목소리에 눈을 크게 떴다.

《세계의 대세를 보면 일본은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멸망한다고 보우. 이 한성판에도 **김일성**장군의 명령일하에 폭동으로 들고일어날 준비를 하고있는 항쟁그루빠들의 움직임이 암암리에 벌어지고있소. 우리는 동경시절에 품은 뜻을 버릴수가 없소. 각자가 조국해방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고 보네.》

성격이 괄괄한 김호영은 내놓고 말하였다. 그는 아귀센 손으로 김사량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평양으로 돌아온 김사량은 모든것을 다시한번 면밀히 타산한 후 결심한바를 실천에 옮기기로 작정하였다. 그 결심, 그 실천이 바로 조선에서 탈출하여 빛을 찾아가는것이였다.

6월 중순 그는 조선경내를 벗어났다. 그리고 서주, 숙현, 상해를 거쳐 베이징으로 갔다. 중국의 광대한 지역을 돌면서 자기의 의도를 실현할 방도를 찾으려 한것이다.

김사량은 중국의 서주에서 일본에서 공부하다가 징용으로 끌려간 문학청년 백인준을 만났다. 일본에 파견된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의 지도밑에 동창생인 윤동주 등 애국적청년학생들과 반일운동을 하다 징병에 걸린 백인준은 탈출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뜻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항일의 의지를 간직하고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백인준과의 상봉은 김사량으로 하여금 자신의 결심이 옳았으며 그것을 반드시 성사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시금 굳게 하는 계기로 되였다.

해방후 백인준은 어느 한 기회에 김사량을 회상하면서 《내가 징용에 끌려가 베이징에 있을 때 나의 안해는 김사량에게 베이징에 가는 길이라면 남편에게 데려다달라고 간청하였다. 결혼한지 한달만에 징용에 끌려나온지라 나를 보고

싶은 안해의 심정은 간절하였을것이다. 김사량은 기꺼이 응하였다. 그 먼먼길을 자기의 로자를 써가면서, 그것도 몸이 불편한 안해가 조금이라도 상할세라 애지중지하면서 무사히 데리고 내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김사량의 인간성에 탄복하여 소리없는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말했다.

김사량은 베이징에 들려 최승희를 만났는데 1941년 4월부터 끊임없이 《황군》위문공연에 끌려다니던 그는 끝내 결심대로 1944년에 《지나파견군위문공연 및 동방무용연구소개설》이라는 명분아래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본을 빠져나와 북평(베이징의 당시 이름)의 북해공원부근에 최승희동방무용연구소간판을 내걸었다.

김사량이 최승희에게서 듣고싶은것은 중국 동북지방의 소식이였다. 그의 말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무슨 단서라도 잡을수 있을가 해서였다.

여러차례 동북지방에 공연갔던 최승희는 1943년 7월에도 단동으로부터 무순, 봉천(심양), 대련, 길림, 장춘, 할빈, 치치할, 목단강의 도문에 이르기까지 남만, 북만, 동만 등 전동북땅을 일주하였다. 그러나 김사량이 바라는 소식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활한 지역에서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시며 눈부신 소부대활동을 벌리고계신다는것, 때로는 부대들을 집결시켜 조국해방의 최후결전을 위한 집중적인 군정훈련을 조직하고계신다는것을 그들은 알수 없었다.

평양으로 돌아온 김사량은 자기의 계획을 수정하였다. 말하자면 조선인민혁명군의 조직선을 찾지 못한 조건에서 중국적색구역으로 탈출하자는것이였다.

대내외정세의 흐름은 아시아에서도 조만간에 일제가 멸망하리라는것을 예고하고있었다. 패전을 만회하려는 일제의 최후발악이 극도에 이르리라는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일본제국주의에 당당히 맞서 민족의 얼과 지조를 끝까지 지키는 길은 한시바삐 놈들의 손아귀에서 벗어져나와 반일항쟁세력에 합류하는것이였다.

1945년 봄, 일제는 어리석게도 《국민총력조선련맹 병사후원부》의 명의로 이른바 《조선의 녀류명사》라고 하는 친일적인 녀성문사, 연예인, 유한부인들을 모아 《대외조선출신학도병부인위문단》이라는것을 조작해가지고 중국의 내륙전선으로 끌고 다니면서 절망에 빠진 《황군》의 저락된 사기를 추세워보려고 책동하였다.

퇴폐인물들이 과반수를 차지한 여기에는 전쟁터에 끌려간 남편이나 자식들을 만나보려는 일루의 희망을 안고 찾아온 순진한 녀인들도 더러 있었다.

평양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김사량도 특파원의 자격으로 동행하게 되였다. 탈출의 기회를 노리고있던 김사량으로서는 합법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갈수 있는 길이 열린셈이였다.

때가 왔다고 생각한 그는 가족과 가산을 은밀히 만누이

의 시집이 있는 장광섬으로 옮겼다. 김사량은 떠나기 앞서 만날 사람은 다 만나면서도 서울에 사는 형 시명은 찾아가지 않았다.

어렸을 때와는 달리 친일적인 형과 엄연히 계선을 긋고있었다. 형이 군수를 하는 홍천에 가서 소설 《풀이 깊다》를 쓰면서 군수를 일본놈의 앞잡이로 공개적으로 풍자한것을 봐도 형에 대한 그의 회의적인 립장과 감정을 알수 있었다.

홍천, 평창군수를 거쳐 황해도 도청농상부장 겸 참려관벼슬을 한 김시명은 이때에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인 총독부에까지 등용되여 조선사람으로서 최초의 총독부 전매국장이라는 고등관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친일을 하는 자식이 곱지 않아 모친도 맏아들인 그를 따라가지 않고 평양에 눌러살았다.

형하고 마지막일수도 있었던 상면의 기회를 굳이 만들려하지 않은것은 그들형제의 리념상대립이 이제는 인정선을 넘어섰다는것을 보여준것이였다.

출발은 서울에서 하게 되여있어 김사량은 그곳으로 갔는데 그때 그는 조용히 김호영을 다시 만나 중국적색구역으로 들어가려는 자신의 의도를 알려주고 만약을 생각하여 가족들을 부탁하였다.

일행이 압록강을 건너 멀리 중국 서남쪽 서주방면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베이징으로 돌아나온것은 5월 20일경이였다.

이때부터 김사량은 단독으로 행동하였다.

베이징에는 중국팔로군의 해방지구와 련결된 비밀통로가 있었다. 최승희의 측근을 통하여 그 선을 탄 김사량은 5월 23일 연안해방지구로 탈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5월 31일에는 조선인집결부대에 도착하였다.

팔로군에는 조선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공산당이 령도하는 로농홍군주력부대가 장개석국민당군대의 포위공격을 분쇄하며 일제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하여 중국남방 강서성 서금으로부터 북방에로의 장거리행군을 단행한것은 1934년이였다. 력사에 2만5천리장정으로 기록된 이 간고한 행군으로 중국혁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으며 1937년에는 제2차 국공합작을 실현하고 홍군주력을 국민혁명군 제8로군으로 개편하여 전면적인 항일전쟁을 벌렸다. 남부 및 중부중국의 8개 성, 변강지방에서 활동하던 홍군유격대는 신4군으로 개편되였다.

김사량이 연안으로 들어갈 당시에는 팔로군과 신4군력량이 100여만으로 장성하였으며 19개의 해방지구를 가지고있었다. 그중에서 연안해방지구는 중국공산당의 중심적혁명근거지였으며 령도거점이였다.

연안에도 조선사람들이 많았지만 태행산혁명근거지에도 조선사람들이 많이 집결되여있었다.

김사량은 7월초에 태행산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는 혁

명군정학교도 설립되여있었다. 연안에서와 마찬가지로 태행산에서도 김사량을 이름난 작가로서만 아니라 일제와 싸우려고 신분적울타리를 박차고 나온 동지로 환대하여주었다.

도꾜로부터 평양을 거쳐 중국의 태행산까지에 이르는 김사량의 려정, 이 간고하고도 힘겨운 고행길은 결코 헛된것이 아니였다.

그 길은 민족재생의 위대한 빛을 찾아 태양가까이에로 가는 길이였다.

## 장편기행문 《노마만리》

태행산의 여기저기에 자리잡은 숙영지들에서 들려오는 희열에 넘친 사람들의 목소리는 골짜기마다에서 흘러내리는 유정한 물소리와 한데 어울려 김사량으로 하여금 깊은 정서에 빠지게 하였다.

이목구비가 각이한 사람들이였지만 모두의 심장이 하나의 지향, 하나의 숨결로 고동치고있었다. 투쟁의 첫걸음은 달리 떼였어도 종당에는 한길을 걷게 된 수많은 조선의 애국투사들이 태행산기슭의 깊은 수림속에서 고국산천을 그리며 조국해방의 그날을 당겨올 일념으로 고군분투하고있었다.

김사량은 조선사람이건 중국사람이건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태행산기슭의 사람들모두가 서로를 동지, 동무라고

부르며 위해주는데서 참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자신도 그렇게 불리웠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다.

그가 연안의 해방지구와 태행산의 조선동지들에게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것은 그들이 일치하게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 **김일성**장군을 백두의 천출명장, 조선의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태양으로 열렬히 흠모하고있는 사실이였다.

어느날이였다. 개울가에서 흐르는 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김사량은 누군가가 조용히 자기 이름을 부르며 찾는 소리에 상념에서 깨여났다.

녀인이였다. 그는 《제 이름은 허정숙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했다.

(허정숙? 그렇다면 《동아일보》 기자로 맹렬한 문필활동을 하던…)

사량은 그녀를 신비스럽게 바라보았다. 녀성으로서 보통의 강단이 있는 사람이 아니였다.

허정숙은 연안에서 항일군정대학을 나오고 팔로군에서 활동하는 열렬한 조선의 녀류투사였다. 주은래의 관심속에 군대내에서 상당한 신임을 받고있던 그는 팔로군 부총사령 팽덕회와도 깊은 련계가 있었으며 하룡과는 직속상하관계에 있으면서 아주 자별한 사이였다. 1936년 11월 조선인민혁명군에 참군하기 위하여 동남만으로 다니면서 조직선을 찾다가 일제의 추격으로 중국관내에 피신한 후 연안으로 들어간 그

는 한때 《동아일보》 기자로 문필활동을 한바도 있어 김사량의 창작동향에 남다른 관심을 돌렸었다.

《제가 감히 권고하건대 사량동무는 그 깊은 지식과 능란한 필력으로 많이 쓰고 또 쓰세요. 비록 몸은 여기 중국의 태행산에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을, 그 조국과 조선백성들을 구원하실 항일빨찌산의 **김일성**장군에 대해 쓰세요. 조선의 문인이 이를 외면한다면…》

**김일성**장군! 보천보총성으로 암흑의 장막을 깨며 민족의 가슴마다에 재생의 희망을 안겨준 민족의 구세주! 바야흐로 조국해방의 서광은 **김일성**장군에 의해 밝아오고야말것이니 내 무딘 붓으로나마 찬란한 해빛과도 같은 그이를 노래하지 않는다면 어찌 민족의 구성원이라 하랴!

조용하나 박력있게 울리는 허정숙의 말은 사량의 가슴에 전류처럼 흘러들며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사량을 만나면 꼭 써야 한다고 신신당부하며 자기가 알고있는 **김일성**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군하였는데 그때면 사량은 끝없는 감격으로 격정이 터져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는 그에게 허정숙 못지 않게 관심을 돌리는 조선인지휘관이 있었다.

그도 김사량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일찌기 1920년대초에 중국으로 망명하여 공산당에 입당하

고 홍군포병창시자의 한사람으로 전장에서 이름을 떨친 그는 2만5천리장정에 참가한 후 팔로군 포병사령, 총사령부 작전과장 등 고위군직을 력임하였다. 그는 당시 태행산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직속 조선인총지부 서기를 하면서 군정학교 교장, 팔로군내에서 골라 따로 편성한 조선인부대 사령을 겸하고있었다. 조선민족으로서 조국해방의 날을 열렬히 고대하고있던 그는 김사량을 반갑게 맞이하고 대해주었다.

전장에서 개가를 올린 한 중대의 시국강연에 출연했던 김사량이 숙소로 돌아올 때였다.

그의 련락병이 마주 향해 달려오더니 그를 불러세웠다.

《사량동지, 사령동지가 부릅니다. 곧장 오시랍니다.》

사량은 련락병을 따라 사령이 거처하고있는 곳으로 갔다.

방에 들어서니 작전지도앞에 끔짝 안하고 서있는 그가 보였는데 인기척을 못 느꼈는지 반응이 없었다. 그때문인지 사량의 마음은 자못 긴장해졌다.

얼마 안 있어 몸을 돌리며 사량을 알아본 그가 입을 삐쭉 내밀면서 눈짓으로 의자에 앉으라는 시늉을 했다. 그러고는 주전자의 더운물을 고뿌에 붓고는 그걸 사량에게 내밀었다.

《짬내여 한번 만나본다 하면서도 이피탈저피탈하며 지내다 오늘 이렇게…

뭐 불편한 점이 있으면 기탄없이 여쭈어주오. 자라는껏 해보겠으니.》

사량은 앞에 서있는 무관형의 사나이가 외형과는 다르게 세심하고 살뜰하다는것을 인차 알아차렸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의 얼굴에서는 진심의 감정이 뜨겁게 흐르고있는 것이 확연했다.

고맙다는 사량의 대답에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띠웠다. 그 미소를 바라보는 사량의 긴장했던 마음이 가뭇없이 풀리는 듯싶었다.

둘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고갔다. 평양의 친인척들에 대한 사말사며 일본에서의 류학시절에 대하여, 도꾜를 떠나 태행산에 들어오면서 겪은 가지가지의 희비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사량은 죄다 터놓고 이야기했다. 사령도 자기의 곡절많은 과거사를 손금보듯 자상히 기억하고있었는데 그것을 말하며 어떤 때는 눈물을 머금군 했다.

대화가 거의 끝나갈무렵이였다.

그가 무척 큰 두손으로 사량의 어깨를 툭 치더니 친근하나 명령조로 말하였다.

《이젠 본론을 말합시다. 당신이 작가라니 글을 써야겠소. 누구에 대해 써야 하는가? 백두산의 김대장에 대하여 써야 하오. **김일성**장군빨찌산은 세계굴지의 빨찌산이며 우리 부대는 그 한개 전초선에 불과하오. 조선사람으로서 백두산에서 일본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고있는것을 응당 자랑해야 한다고 보오.》

그가 쏟아내는 말 한마디한마디는 무게가 있었다. 위엄있는 자세에서 뿜어나오는 그 무관다운 기백이 그의 말을 더 장중하게 울려주는것 같았다.

김사량이 그의 이야기에서 특히 감명깊었던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에 견주면서 **김일성**장군빨찌산은 태양부대라고 호칭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서북에 있는 팔로군의 우리 조선인부대도 한때 동북으로 가 **김일성**태양부대의 휘하에 합류하려고 한적도 있었다.》고 찍어 말하였다.

왜놈들의 감시와 통제속에서 하고싶어도 하지 못하던 말을 가슴을 열어젖히고 마음껏 말하고 듣게 된 김사량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감개무량하였다.

(아, 내가 이걸 쓰지 않으면 무얼 쓴단 말인가! 써야 한다! 써야 한다! 빛을 찾아 방황하며 빛을 그리던 이 붓대로 태양의 해발을 노래해야 한다!)

그는 끓어오르는 창작적충동을 누를수 없었다. 그 충동은 같은 문예인, 창작가로서 연안에서 알게 된 사람들가운데서 특히 관심되는 인물이였던 작곡가 정률성을 만나게 되면서 더한층 고조되였다.

정률성(본명 정부은)은 상해로 망명하여 성악공부를 한 사람이였다. 타고난 성악적재능이 인정되여 전문가들로부터 이딸리아류학을 권고받았으나 항일을 하겠다고 19살때 연안으로 찾아들어간 열혈의 청년음악가였다.

벌써 20살에 《연안송가》라는 아름다운 선률의 혁명적인 노래를 지어 해방지구에서만 아니라 국민당통치구역과 해외화교들속에서 널리 불리우게 한 그는 이어 《팔로군군가》를 대합창곡으로 창작하여 중국사람들속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

대합창곡인 《팔로군군가》도 소문났지만 《팔로군행진곡》은 박력있고 감칠맛있는 선률적우아함과 행진곡적인 전투적기백으로 하여 즉시 전군적인 지정곡으로 보급되였고 정률성은 그 일로 모택동주석을 비롯한 중국혁명지도자들의 감사를 받았다. 정설송이라는 23살의 항일군정대학 중국인녀성이 민족적장벽을 뛰여넘어 주동적으로 그에게 열렬한 사랑을 고백하게 된것이 우연하지 않았다.

그러한 정률성도 김사량을 만나자 《남의 나라 군복을 입고 있는 내가 제 나라 군가를 지을 날은 과연 언제일가?》 하고 마음속진정을 터놓았다. 음악으로 조국을 받들겠다고 이름도 률성으로 고친 그였건만 조만간에 자신이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가 조선인민군군복을 입고 조선군대의 노래들을 창작하게 되리라는것을 그때로서는 물론 알수 없었다.

김사량은 정률성과 더불어 조국과 문학, 음악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해방지구에 들어와 고도로 앙양되고있는 자신의 창작적흥분상태에 대해서도 기탄없이 고백하였다. 그 고백속에 이미 심장속에 자리잡은 **김일성**장군에 대한 절대

의 흠모심이 첫자리를 차지한것은 물론이였다.

태행산속의 수수한 숙소에서 김사량은 즉시 집필에 착수하였다. 《백두산에서는 **김일성**장군부대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옆구리에, 심장에, 미간에 불덩어리를 퍼붓고있다.》고 하던 지휘관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후에 김사량자신이 회고한것처럼 그는 《끓어오르는 감개로 하여 눈굽이 뜨거워오는것을 어찌할수 없어》 붓을 든것이였다.

적의 항시적인 공격과 포위속에 있는 근거지의 집필조건은 말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모든 곤난을 박차고 낮과 밤이 없이 높은 열정으로 글을 썼다. 이렇게 완성한 작품이 해방을 한달 앞둔 1945년 7월에 탈고한 장편기행문 《노마만리》였다.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서 창작하였는가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썼다.

《종이가 없었다. 있다는 펜을 대기도 전에 잉크가 퍼져 알아볼수 없고 연필로 쓰면 한페지를 쓰기도 전에 끝이 다 닳았다. 더구나 그렇게 쓴 원고지마저 배낭에 간수할수 없었다. 그것이 제일 걱정이였다.

애용하던 회중시계를 주고 두책의 편지용지를 바꾸었다. 거기에 보고 느낀바를 깨알같이 박아썼다. 기행문 <노마만리>를 마음놓고 쓸수 있는것이 문필가인 나에게 커다란 기쁨이였다.》

《노마만리》란 걸음이 느린 말로 만리를 간다는 뜻이였다. 김사량이 도꾜를 떠나 태행산으로 오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태행산속에서 항일의 전우들로부터 전해들은 감명깊은 이야기, 부대정치부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보고들은 이야기들을 엮은 그 글에 그토록 흥분하고 정력을 들인것은 오래도록 가보고싶었고 듣고싶었던 전설적인 **김일성**장군과 그이께서 인솔하시는 빨찌산에 대한 소식을 바로 자신이 드디여 마음놓고 쓸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기때문이였다.

김사량은 《노마만리》에서 위대한 **김일성**장군을 민족의 태양이라 칭송하면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을 정식 태양부대라고 명기하였으며 《**김일성**부대는… 국경 한복판에서 후방기지도 없이 그 활동의 력사가 오랜것이라든가 활동과 조건의 가혹한 점으로 보아 세계에서 굴지의 빨찌산》이라고 소리높이 자랑하였다.

그는 이렇게 썼다.

《**김일성**부대를 우리들의 조국을 빠짐없이 비치는 태양계에 비교한다면 이들 수많은 빨찌산은 그야말로 그 태양계를 도는 위성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태양과 위성, 사상과 혁명적동지애로 일심단결된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유격대원들간의 혈연적관계를 생동한 표상으로, 감동적으로 서술한 문장이였다. 계급적출신이 다르고 자본주의사회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김사량이 중국적색구역에 들

어가있는 조건에서도 벌써 해방전에 스스로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르면서 이처럼 격조높이 글을 썼다는것은 당시 수령님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으며 **김일성**장군 항일빨찌산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말해주는것이였다. 동시에 이것은 김사량자신의 높은 애국적열의와 열렬한 흠모심을 보여준것이였다.

해방후 다년간 김사량과 창작생활을 같이하였던 공화국의 극작가 박혁은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일제의 악랄한 파쑈폭압도 민족의 참된 빛을 그리는 그 하나의 강렬한 열망만은 김사량의 가슴속에서 지워버릴수 없었으니 복잡한 생활경로를 거쳐 마침내 그의 발걸음은 빛을 찾아 중국땅으로 옮겨지게 되였다.

거기서 그는 여기저기 널려져 떠돌아다니던 우국지사들도 여러명 만나보았고 조선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독립운동자들속에도 들어가보았지만 자기가 바라는 빛을 찾을수 없었다.

빛에 대한 그리움은 그럴수록 더욱 강렬했다.

그러던중 마침내 태행산에 가닿은 그의 시선은 조국의 북변에 민족의 기상을 담아 거연히 솟은 백두산으로 쏠리게 되였다. 순간 섬광처럼 번쩍이는것이 두눈에, 뜨거운 가슴에 어리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조종의 산 백두산! 바로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참된 희망의 빛이 온 조선에, 온 누리에 발산되고있음을 발견

했을 때 그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른 활화산과 같은 격정의 분출을 무엇으로 누를수 있었으랴!

이제야 김사량은 그처럼 그리고그리던 민족의 참된 빛을 발견하고 격동에 휩싸이게 된것이였다.

그는 장편기행문 <노마만리>에서 **김일성**장군부대는 백두산 밀림을 꿰뚫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오르내리며 일제의 후방을 교란하고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할뿐아니라 한편으로는 국내인민들을 더없이 고무하고 지도하고 영향을 주고있다, 이와 함께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조직력, 거기에 군중에 대한 헌신적복무를 다하여 그 은위를 국내에까지 뻗치고있다고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김일성**장군찬가를 마음껏 터친 김사량은 드디여 빛을 찾은 안도감과 행복감에 휩싸여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여 울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카프출신의 문인들이 감옥에 끌려가거나 산간벽지로 쫓겨가고있을 때 항일혁명대오안의 지식인들과 함께 북부국경지대의 작가들과 중국본토의 적색구역, 사회주의쏘련에서 활동하던 우리나라의 망명작가들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위업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참신하고 전투적인 혁명문학을 창조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은 백두의 험산준령과 만주광야에서 혈전에 혈전을 거듭하고있는 항일투사들을 민족의 총아로 높이 내세우고 찬양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아낌없이

표시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기천, 리찬, 김람인과 함께 그들이라고 일러주신 작가의 한사람이 김사량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성과에 고무되여 참군을 시도한 작가들도 있었다. 소설가 김사량은 참군을 결심하고 만주광야를 헤매다가 우리 부대를 종시 찾아내지 못하고 연안에 가서 장편기행문 <노마만리>를 썼다.》

회고록의 이 구절에 작가로서, 인간으로서의 김사량의 면모가 압축되여있다.

조선인민혁명군에 참군을 시도했던 작가, 이 한마디의 말에서 그의 전체를 볼수 있다.

김사량, 그는 진보적이였을뿐아니라 전투적이고 혁명적이였으며 일단 옳다고 생각하면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고 뚫고나가는 성미의 열혈작가였다.

## 《소년고수》

남조선에서 발행되였던 《자유신문》 1945년 12월 11일부는 해방직후 고향 평양으로 돌아온 김사량의 사진을 싣고 《태행산서 삼천리를 보행》이라는 제목아래 그의 귀국로정에 대해 상세히 전하였다.

그렇다면 이 《자유신문》이 김사량작가가 태행산에 들어가 있었다는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왜 그의 조국행 행보를 신문을 통해 세상에 알렸는가.

오늘도 사람들은 70여년전 한 문학가가 해방의 기쁨에 벅차오르는 마음을 진정하며 귀국길에 오른것에 대해 쓴 기사를 명망높다는 신문사가 사진을 받쳐서까지 게재한것은 전례없는 일이였다고 하고있다.

하지만 그때 김사량이 걸은 귀국의 려정을 놓고보면 그 리유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태행산에서 장편기행문 《노마만리》를 쓰고난 후 김사량의 마음은 언제나 백두산쪽으로 달리였다. 글로써 **김일성**장군에 대하여 노래하는것만이 아닌 그 영용한 항일빨찌산대오에 참군하고싶은 불같은 욕망이 나날이 더욱 거세차게 불타올랐다. 그가 오매불망 바라는것은 오직 하나 **김일성**항일빨찌산대오에 참군하는것이였으며 그를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것은 여러가지로 설명할수 있으나 주요하게는 인위적인 장애때문이였다. 후날 해방된 조국에서 그가 회억한바와 같이 태행산의 조선인부대에서 주요위치에 있던 일당이 집요하게 김사량의 백두산행을 반대했고 음으로양으로 막아나섰다.

그러는 속에 김사량은 10여명의 무장소조와 함께 태행산에서 멀리 떨어진 적강점지역으로 선전공작을 나가게 되였다. 그때가 1945년 8월 14일이였다.

김사량과 일행은 출발지를 떠난지 5시간이 되여서야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주위는 온통 어둠뿐이였고 방금 토기를 구워낸 가마속처럼 따갑던 대기도 어느덧 시진하여 건들바람이 불어오고있었다.

11명이나 되는 소조일행이 이미 정해놓은 집(지하조직성원의 집)에 배낭을 풀어놓는 그 시각에 김사량은 왜왕 히로히또가 도꾜궁내성의 집무실에서 다음날 정오에 도꾜방송으로 날릴 항복선언을 록음하고있는줄은 꿈에도 알수 없었다.

《교전을 계속한다면 마침내는 민족의 멸망을 초래할뿐아니라 나아가서 인류의 문명까지도 파괴하게 될것인즉 이리되면 짐은 무엇으로써 억조의 적자를 보하고 황조황종의 신령에 사하겠는가. 이것이 짐이 제국정부로 하여금 공동선언에 응하도록 한 까닭이다.》는 그럴듯한 감언리설로 항복행위를 미화분식한 그 결정에 따라 8월 14일 23시 정각에 일본외상

은 포츠담선언수락에 관한 조서의 원고전문을 스위스와 스웨리예정부에 발신하였고 그 전파를 잡은 《동맹통신》본사에서는 즉시로 경성(한성)의 지사에 전문으로 날려보냈으며 경성지사에서는 지사대로 지체없이 조선총독부에 전달하였다. 하여 총독부에서는 총독과 정무총감, 총독비서를 비롯한 거의 모든 관리들이 왜왕의 항복선언원고를 놓고 육성록음을 하기도 전에 항복이 확정되였음을 알았으며 그 순간부터 저들도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더럽고도 비렬한 궁리를 짜내고있었다.

잠간 눈을 붙이였던 김사량과 일행은 날이 밝아오자 각기 맡은 임무를 수행하려 담당한 곳으로 나갔다. 사량은 혼자서 행동하였는데 점심이 가까와올무렵에는 숙소로 돌아와 다음번에 리용할 선전문을 준비하고있었다.

이때 집주인이 들어오더니 오늘 정오에 중대방송이 있는데 라지오가 있는 집에 모여 모두 들으라는 파출소의 훈시가 있었다고 이르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중대방송?!)

무엇인지 알수는 없지만 중대방송이라니 어쨌든 큰 사변이 생긴것만은 틀림없었다.

이슥하여 점심을 먹으려 숙소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일행은 제나름으로 환상을 날리였다. 제2의 태평양전쟁의 폭발인가 아니면 식민지를 더 말리려드는 새로운 법령이라도 선

포되는가, 그것도 아니면 지구와 달이 부딪쳐 깨지기라도 하는가?

숙소로 정한 집에는 마침 라지오가 있었다.

12시가 되자 일본의 유명한 방송원이 《지금부터 중대방송이 있겠습니다.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일어서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찍찍거리는 잡소리와 함께 섞여나왔다.

그리고는 《기미가요》가 울리더니 갑자기 째지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궁내에서만 쓰는 어려운 말인데다 잡음까지 섞였으니 보통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가려듣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일본말에 정통한 김사량만은 귀를 바싹 도사리였다.

왜왕의 방송이였던것이다.

난생처음 왜왕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귀신이라던 왜왕이라는것이 저런 목소리로 주절대는것인가 하는 모양으로 어리둥절해하였다.

《짐(왜왕자신을 말함)이 깊이 세계의 대처와 제국의 현상에 비추어… 아메리카합중국, 영국, 중국 및 쏘베트련방정부에게 이들 여러 나라 정부의 공동성명의 조건을 수락할것을 통과시켰노라. …》

일본말깨나 안다는 사람들조차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 어려웠다.

그러나 김사량만은 라지오에 귀를 강구느라 굽혔던 허리

를 천천히 펴며 얼이 나간 모양 눈을 크게 뜨고 일행에게로 돌아섰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낮게, 다음에는 크게 부르짖었다.

《망했소. …》

일행은 어안이 벙벙해서 사량을 쳐다보았다.

《?!…》

《일본이 망했소! 왜왕이 항복선언을 했소. 조선은 독립되였소. 동무들! 우리 다같이 조선독립만세를 부릅시다!》

너무나도 뜻밖이고 너무나도 벅차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소식에 일행은 그만 어리둥절하여 잠시 아무 말도 못한채 서로의 얼굴을 놀란 눈길로 마주보기만 하였다. 하지만 그 눈들에서는 인차 뜨거운것이 돋아 번쩍이고있었다.

금시 몸이 허궁에 둥 떠오르고 온 천하가 몽땅 우리 세상, 조선사람들의 세상으로 돼버린듯 한 환각에 사로잡힐만치 가슴벅찬 희소식이였다.

김사량이 먼저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다가 흠칫 멈춰섰다. 여기가 태행산의 해방지역이 아니라 적구라는 생각이 불쑥 떠오른것이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생각을 고쳐먹었다. 일본이 다 망한 판에 어느 놈이 우리의 행동거지를 걸고든단 말인가.

모두가 조선사람인 일행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누가 선창을 뗐는지 《조선독립 만세!》, 《**김일성**장군 만세!》의 웨침

이 울려퍼졌다.

너도나도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집집마다에서 사람들이 쏟아져나왔다. 또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김사량이네가 있는쪽으로 만세를 부르며 물결쳐왔다.

사량은 사람들속에 섞이여 만세를 목청껏 웨치고 또 웨치였다.

별안간 울려퍼지는 만세소리에 제일 당황한것은 일본순사놈들이였다.

도이췰란드의 위성도시인 포츠담에서 어떤 선언이 발표되였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들은 방금 제귀로 듣고도 정말 《천황》이 항복성명을 했는가고 저희들끼리 따지며 야단이였다.

일본의 1억 국민이 모두가 구슬처럼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용맹하게 싸워 《대동아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1억옥쇄》를 노래처럼 고창하던 놈들이였다.

중국땅의 곳곳에서 만세의 함성이 터져오르는 시각과 때를 같이하여 조선국내에서도 지지리도 짓눌렸던 사람들이 쩍가슴을 펴고 거리로 떨쳐나와 조선독립만세를 목이 터지도록 합창하고있었다.

도처에 신궁과 신사를 만들어놓고 조선사람들에게 일본정신을 주입하려 하면서 일제가 명승절경인 모란봉에 지어놓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신사는 그날 저녁으로 하늘에 치솟는 불길에 휩싸여 흔적도 없이 불타버렸다. 전국적으로 제

일먼저 신사를 불태워버릴만큼 평양사람들의 반일기세는 높았던것이다.

파쑈도이췰란드의 괴멸이 일본의 패망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것은 누구나 예상해온바이지만 오매불망으로 고대하고 고대하던 해방의 날이 이렇게 급작스레 닥쳐오리라고야 누가 상상이나 했던가.

조선해방!

조선인민과 전세계 진보적인류는 환희에 넘치였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께서 령도하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 의하여 조국은 근 반세기에 걸치는 일제의 통치를 짓부시는 해방의 새날을 맞이하였다.

왜놈들이 그렇게 우상화하던 왜왕 히로히또가 창피를 무릅쓰고 만천하에 항복한다는것을 라지오로 방송한것도, 일본침략군이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며칠어간에 물거품 사라지듯 한것도 꿈아닌 현실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함께 조선의 방방곡곡에 타번진 전민항쟁의 거세찬 열풍에 의하여 일제침략군은 사면팔방에서 얻어맞고 비참하게 시들어버리였다.

사량은 두팔로 무장소조의 책임자를 와락 그러안고 목쉰소리로 부르짖었다.

《자, 어서 태행산으로 달려갑시다. 조국으로 나갈 행장을 꾸려야지요.》

무장소조책임자라는 사람은 남조선의 《자유신문》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탈출하여 태행산으로 들어왔었는데 사량과는 특별히 각별하였다. 그는 년장자였지만 사량을 이름있는 작가로 높이 존경하고있었다.

사량과 소조책임자는 서로 어깨겯고 푸른 하늘을 끝없이 우러렀다.

조국으로 나갈 행장!

얼마나 소박하면서도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 심장의 토로인가.

사량의 청높은 소리에 일행모두가 눈시울을 적셨다.

하나의 민족이 사는,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진 삼천리강토는 해방만세의 환호성으로 진감했고 단군이래 처음 보는 환희와 격정의 해일에 산천초목도 춤을 추었다. 조선사람이라면 누구의 가슴에서나 기쁨의 눈물이 샘줄기가 되여 터져올랐다.

망국의 설음속에 조상의 땅을 떠나갔던 수백만의 동포들이 나라의 해방과 함께 귀국하고 이 나라의 항구와 철도역들은 날마다 귀국, 귀향의 길에 오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징용, 징병에 끌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통통배를 타고 귀국의 길에 올랐다.

40여년동안 줄곧 조국을 떠나 해외로 흘러나가던 조선사람들이 홀연 발걸음을 돌려 제땅으로 물밀듯이 돌아오기 시작

하였다. 수십년동안 역홈에서, 부두에서, 동구길에서 눈물을 뿌리며 리별에 리별을 거듭해온 마을과 거리에 상봉의 감격이 차넘치고있었다.

북간도에 갔던 사람들, 일본에 끌려갔던 사람들, 군대로 강제징집당했던 청년들, 억울하게 가족과 생리별을 하며 《보국대》로 갔던 장정들이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과 정든 사람들을 만나고있었다.

태행산으로 돌아온 김사량은 격동된 심정을 안고 환희속에서 조국에로의 귀환을 서둘렀다. 부대의 모든 조선사람들이 조국에로의 귀환을 열렬히 바라면서 귀국순서를 기다리고있었다.

김사량은 선견대와 함께 태행산을 출발하였다. 그가 탄 렬차는 장가구, 열하를 거쳐 조국을 향해 속력으로 내닫고있었다.

렬차안은 온통 조선판이였으며 발을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찬 그속에서도 사량은 희열에 넘친 눈빛으로 무엇인가 생각하고있었다. 일반평백성들도 끓어오르는 격정으로 달아오른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있을진대 사변적인 현실을 눈앞에서 목격하고있는 작가의 심장이 불타오르지 않을수 없었다.

렬차가 승덕을 향해 달릴 때였다.

방송에서 또 하나의 격동적인 소식이 전해지고있었다.

민족적영웅으로 흠모하여마지 않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침내 조국에 개선하여 40만 평양시민과 뜻깊은 인사를 나누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이였다.

(아, 민족의 재생을 안아오신 **김일성**장군께서 드디여 조국에 개선하시였구나!)

사량은 뿜어오르는듯 한 환희에 진정할수 없었다.

반만년 오랜 력사에서 우리 민족이 그토록 그리고그리던 민족의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모란봉공설운동장(지금의 **김일성**경기장)에서 수십만 평양시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속에 개선연설을 하셨다는 희소식은 작가 김사량의 가슴에 류다른 감흥과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고향집이 바로 그 모란봉공설운동장근처에 있었던것이다.

그는 저도 모르게 두볼로 흘러내리는 감격의 눈물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달리는 렬차안에서 수첩을 꺼내여 격동된 자기의 감정을 글로 써내려갔다.

일필휘지로 써내려가는 김사량에게 주위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였다. 책장에 눈길을 박고있던 량옆의 두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고는 닫을념을 안했다.

김사량이 이렇게 자신의 격앙된 심정을 피력하여 렬차안에서 써낸것이 유명한 수필 《소년고수》였다.

그는 수필에서 《짓눌렸던 울적한 가슴속에 휘황한 해발이

비쳐옴을 느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장군이 계시여 신음의 대지도 노래를 잊지 않았고 원한에 잠겨 오열하는 거치른 밤도 빛을 섬기였고 그이의 걸음발과 숨길이 미치는 곳마다 산하초목도 너울거렸다. 우리의 장군님께서 돌아오셨다는 보도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희망과 기쁨과 힘을 퍼부어주었다.

<장군께서 돌아오셨다!>

<령수께서 나타나셨다!>

장군의 이야기로 차안이 흥성거렸다. 해방의 기꺼움이 더욱 가슴속에 벅차오르는듯 하였다.

위대한 령수를 모실수 있다는것은 참으로 행복하고도 영광스러운 민족이기때문이다.》

글은 길지 않았지만 김사량의 전모를 보여주는 짧고도 주장이 강한 맵짠 글이였다.

수필은 민족을 옳바른 길로 이끌어줄 령도자가 없었던탓으로 이 나라가 겪었던 피눈물의 력사를 누구보다 예리한 작가적안목으로 가슴아프게 체험하였던 김사량이 벌써 그 시기에 누구보다 그 문제에 대하여 예민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나라가 해방되여 새 조국건설의 력사적위업이 절박하게 나서고있던 초시기 장군님의 개선을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게 된 민족의 영광과 행복으로 열렬히 노래한것은 작가 김사량의 높은 정치사상상태를 보여준것이였으며 피어린 장구한 투

쟁으로 나라를 찾아주신 민족적영웅을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그의 인간적순결성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의 표현이였다.

식민지백성의 뼈저린 생활체험은 그에게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며 기초적인 관점인 민족의 령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립장을 세워주었다.

그의 이러한 관점과 립장은 심양에 도착하여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8.15해방후 그곳은 중국내륙 각지에 있다가 귀국하기 위하여 모여든 각계각층 조선동포들의 림시집결처였다.

그는 허정숙도 여기 와서 다시 만났고 정률성부부와도 만났다. 그밖에 제노라 하는 적지 않은 정치망명객들도 알게 되였다. 그런데 이들, 정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문제였다. 남의 나라 해방지구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실속없는 말공부질만 하던 이들은 조국이 해방된 이 기회에 저마다 귀국하여 한자리하겠다고 아침저녁으로 무슨 내각이니 각료명단이니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쑥덕공론을 벌렸다.

평생 탐위와 파쟁으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해방된 조국에까지 종파의 보따리를 메고 가려는것이였다.

여기에 제일 반발해나선 사람이 전장에서 총을 쥐고 싸운 허정숙과 같은 사람들이였다. 그는 파쟁군들과 정면에서 대결하는 한편 진정한 애국인사들을 각성시켜 그들의 정체를 발가놓았다.

불과 두석달밖에 해방지구에서 생활해보지 못한 김사량은 종파군들의 악습을 깊이 몰랐지만 허정숙의 말을 듣고는 참을수 없었다.

나라의 해방을 누가 시켰는데 남의 집에서 식객노릇이나 하던자들이 감히 주인행세를 하려드는가? 대바르고 정의감이 강하며 언변이 좋은 김사량은 가차없이 음모군들과 론전을 벌렸다.

《해방대업을 이룩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시여 건국의 기틀을 쌓고계시는데 여기서는 무슨짓을 하자는것인가?》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난데 당황한 종파놈들은 음으로양으로 바른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물어메칠 기회를 노렸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는 오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련락원을 보내시여 심양에서 대기하고있는 재중인사들을 귀국하도록 부르시였다.

김사량은 허정숙, 정률성 등 여러 사람들과 일행이 되여 그날중으로 단동을 거쳐 압록강을 건너 조국땅에 들어섰다.

신의주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특별히 파견하신 일군들이 영접준비를 해가지고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의 안내를 받으며 렬차를 타고 평양에 도착한 김사량의 감회는 류달리 컸다.

왜놈이 없는 조선! 민중이 주인된 나라!

평양이 고향인 김사량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르시여 귀국

한 일행의 한사람이라는 가슴벅찬 감격을 안고 그립던 가족들을 만났다. 로모와 처자들은 왜놈들이 쫓겨가자 인차 장광섬에서 평양으로 올라와있었다. 모두 무사한것을 보니 숨이 활 나왔다.

김사량은 그 드바쁜 속에서도 렬차안에서 쓴 수필 《소년고수》를 출판물에 내는것을 잊지 않았다. 해방의 환희로 설레이는 민중의 가슴에 **김일성**장군찬가를 어서빨리 들려주고 싶었다.

수필은 나가자마자 온 북녘땅을 열정의 도가니로 더 세차게 끓게 했다. 38°선을 넘어 남녘땅에도 김사량의 글이 파다하게 퍼졌으며 바로 그래서 남조선의 《자유신문》도 김사량의 귀국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던것이다. 태행산에서 김사량과 함께 있었던 기자출신의 그 무장소조책임자가 여기서 기본역할을 놀았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태행산기슭의 김사량항일문학비

력사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내여 세인들에게 알린다는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하지만 묻혀져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 실재한 력사적사실을 끝끝내 찾아내여 세상에 알리는것은 참으로 의롭고 가치있는 일이다.

국내외에서 김사량과 함께 문학운동도 하고 항일운동에도

동참했던 몇몇 안되는 연고자들의 추억에 의하면 해방전 일본과 중국에서 김사량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한다. 물론 그것은 주요하게 그의 문학작품들에 기인된것들이며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가 서슴없이 항일전장에 뛰여들어 목숨을 내대고 불굴하게 싸웠던 사실에 기인된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리유는 당시의 엄혹한 조건에서도 철두철미 **김일성**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랐으며 그이를 조선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과감히 칭송한 바로 여기에 있다.

전해지는바에 의하면 일본에 김사량의 문학과 그의 활동을 연구하는 전문연구소가 있었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이 실재한것인지 아니면 있었으면 하는 희망적인 말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어쨌든 김사량의 문학이 일본에 영향을 준것만은 틀림없다.

한편으로는 중국땅에 김사량의 기념비가 세워져있다는 말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전해졌는데 이것 역시 그의 문학과 항일전에서의 뛰여난 활약이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보통사람들과는 달랐다는것을 보여주는 더없는 증거로 된다.

김사량은 중국의 연안과 태행산 등 해방지구에서 맹활약을 하였는데 기본은 문필활동이였지만 일제와의 치렬한 전투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그가 쓰는 하나하나의 격문, 선동문들은 원쑤에 대한 적개심으로 심장이 부글부글 끓게 하

였으며 적들에게는 무서운 비수가 되여 놈들을 전률케 하였다. 조선사람이건 중국사람이건 항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김사량의 글에 감복하여 더더욱 투쟁열에 불타올랐고 어떤 치렬한 전투에서는 쓰러진 용사가 숨을 거두면서 김사량의 피를 끓게 하는 글줄을 외우며 눈을 감았다고 한다.

김사량의 창작활동에서 두드러진것은 조선인부대의 전체 전투원들에게 백두광야에서 일제를 무자비하게 쳐부시고있는 항일빨찌산 특히 그 태양부대의 사령관 **김일성**장군에 대하여 높이 칭송하고 그이를 따를 때만이 조국이 무조건 해방된다는 호소성이 강한것이였다. 그리고 직접 전장에 뛰여들어 일제와 판가리혈전을 벌릴 때에는 억대우같은 체격으로 놈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고 동지들의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서슴없이 내대는 무한한 희생성을 보여준것은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이러한 사실은 한입, 두입을 건너 사람들속에 파다하게 펴져갔으며 부대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크게 표창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인부대와 중국인부대의 경내를 벗어나 수많은 민간마을들에서 화제거리로 꽃펴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발자욱은 그 인간을 보는 가장 맑은 거울이다. 력사의 대하에서 한사람의 공적과 그 이야기는 보잘것없는것이라 할지라도 그 숭고함과 아름다움으로 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조선이 해방되고 중국도 광활한 대륙의 해방이라는 력사적위업을 이룩했지만 태행산유격부대들의 전투담과 김사량의 눈부신 활약에 대한 이야기는 중국사람들과 중국에 사는 조선사람들속에서 세월과 더불어 계속 전해져내려왔다.

이러한 속에 남조선의 어느 한 잡지도 김사량항일문학비가 중국에 세워져있다고 전하였다.

김사량항일문학비는 베이징 남쪽의 하북성 성도인 스자좡에서 서남쪽으로 49㎞ 떨어진 태행산기슭에 세워져있다. 태행산기슭의 오지마을에 김사량항일문학비가 세워졌다는것은 김사량, 그의 발자취가 지워지지 않았으며 현재는 물론 먼먼 래일에도 세월의 눈비와 풍랑에도 끄떡없이 영원하리라는것을 보여준다.

하다면 김사량항일문학비, 이 조선인작가의 기념비가 어이하여 머나먼 이국땅 중국의 태행산기슭에 새겨지게 되였는가. 여기에는 그 어떤 사연이 있는것인가.

김사량이 조국이 해방되기 전날인 1945년 8월 14일 선전공작임무를 받고 적강점지역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일제의 패망소식을 라지오를 통해 알게 되였다는것은 우에서 언급된바있다. 바로 그날로부터 3일전에 사량은 조선인전투원 여럿에 목적지의 지형을 잘 아는 중국인전투원 2명으로 구성된 무장소조에 망라되여 전투지역으로 떠났다. 달빛이 유유히 흐

르는 한적한 수림속으로 대오는 묵묵히 걸어만 갔다. 목적지까지가 200㎞도 넘는지라 온 하루를 내처 걸었는데도 길이 험해서인지 절반길도 축내지 못했다.

《쉬였다 또 걷기요. 요기도 좀 하고.》

목이 남보다 두배나 되게 긴 앞서 걷던 조장의 거쉰 목소리였다. 그 소리에 모두가 배낭을 멘채로 풀밭에 벌렁 나가너부러졌다. 요기할 기운도 없는듯 하였다. 하지만 사량만은 배낭에서 공책을 꺼내여 펼쳤다. 그리고는 웃주머니에서 빼든 연필로 무엇인가 적어나갔다.

언제부터인가 써오던 중국관내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한 일본인부대를 요정내던 전투에 대한 종군기였는데 전투장에서 철수한 후 또 다른 전투가 있어 그 종군기를 매듭 못 짓고 있었던것이다.

그가 한창 열이 올라 써내려가는데 옆에 누워있던 조선인 전투원이 헛기침을 하며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사량동지, 혹시 사량동진 고향이 평양이 아니나요?》

문바우라고 하는 그의 뜻밖의 물음에 사량은 머리를 돌려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자기 나이또래의 30대청년이였는데 언제 한번 따로 만나 진지하게 속을 터놓고 말한적은 없었어도 어디선가 본적이 있어보이는 인상적인 청년이였다.

사량은 그가 옆에 온것이 싫지 않았다.

《평양이 옳소. 헌데 건 왜 묻소?》

사랑의 대답을 듣자 문바우의 얼굴에 금시 홍조가 피여올랐다. 그러더니 머리를 푹 숙이고 《옳아! 내 짐작이 옳았소.》 하며 무엇인가 연방 중얼거렸다.

사량은 그러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즐거워졌다.

(혹시 나와 면목이 있는 고향친구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사량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자기가 평양을 떠난지가 언젠데 알아볼 평양친구가 있단 말인가.

사량은 집필에 열중하였다. 잠간나마 휴식하는 시간마저 그에게는 아까왔다.

마지막문장을 끝맺고 책장을 막 덮으려는데 문바우가 《절 정말 모르가시요?》 하며 사량의 곁으로 더 바싹 다가와 앉았다. 그러면서 군복 오른쪽웃소매를 쭉 걷어올리며 손을 그에게 내밀었다.

《엉?! 불에 덴 손팔이?》

사량은 깜짝 놀라며 문바우의 얼굴을 새겨보듯 세세히 들여다보았다. 뜯어보면 볼수록 놀라움이 더 커갔다.

어른이 되였음에도 량볼에 패인 보조개며 정이 그윽하게 넘치는 큰 눈.

《엽전이 생각 안 나요? 엽전이 세개였지요.》

엽전이라는 말이 울리는 순간 사량의 심장은 후두둑 뛰였다. 세상은 이렇게 우연과 필연으로 가득차있단 말인가. 아

마도 그게 20여년전의 일일것이다. 정확히는 겨울철의 어느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오는 종로거리에서일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털모자를 씌워주고 나중엔 털신까지 벗어 신겨주었지요.》

사량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앞에 선 문바우를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는데 그는 20여년전의 일에서 기억되는것들은 죄다 거침없이 쏟아내고있었다.

(아, 생활은 얼마나 많은 우연과 필연으로 가득차있는가! 한번 만났던 사람을 언제인가는 꼭 만나게 되는것이 생활의 필연인가.)

《그때가 1924년이였지. 내가 소학 4학년때인것 같은데… 헌데 그새 어데 가있다가 이 태행산에 들어오게 되였소?》

김사량은 문바우와 헤여진 후의 기나긴 세월 그의 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누를수 없었다. 마음이 백지장같은 시절에 서로 이름도 모르고 정을 나누었던 그들이 아닌가.

문바우는 눈물이 그윽한 눈가에 엷은 미소를 띠우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량한테서 엽전을 받은데다 머리에 그가 씌워준 털모자를 쓴 문바우는 씨엉씨엉 걸어갔다. 그런데 한겨울이라 길바닥에 눈이 더부룩이 쌓였는데도 발이 시리지 않았다.

(아차, 내가 그의 털신까지 받아 신었구나. 그는 이 얼음판에 다 꿰진 신발로?)

문바우는 오던 길을 되돌아서 냅다 뛰였다. 맘씨고운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였다.

허나 그 자리에는 그의 발자욱도 없었다. 어디 가서 찾아 낼수 있을지 도무지 떠오르는것이 없었다. 한참이나 우두커니 서있던 문바우는 다시 가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문바우가 태여나 몇해 안있어 왜놈들과 싸우러 간다고 하면서 마을의 여러 청장년들과 함께 만주쪽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해에 어머니마저 시름시름 앓다가 그의 곁을 떠나가버렸다.

한마을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주어 멀리 회령에 사는 외할머니가 평양에 와서 문바우를 데려갔다. 할머니손탁에서 바우는 고삐풀린 송아지처럼 자랐다. 학교문턱에는 가보지도 못했다. 하는 일이 있다면 파종날이 다가올 때 할머니를 도와 소작지에서 가대기를 메고 밭을 뚜져주군 하는것이였다. 그러다가 힘에 부치면 밭가운데 가대기를 내동댕이치고 어디론가 달아나버리군 하였다. 차마 파파 늙은 할머니를 영 떠나지 못하겠는지 며칠 있다가는 돌아오군 하였다.

그러던 1937년 6월 어느날이였다.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호미자루를 맵짜게 놀려대는데 마을쪽에서 동갑내기 총각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밭쪽으로 뛰여오고있었다.

《바우야! 바우!》

막 숨이 넘어갈것처럼 헐레벌떡 달음질쳐 바우곁에 와닿은

동갑내기는 바우를 바라볼뿐 입을 열지도 못했다.

《어서 입을 열어. 뭐길래 그래?》

이윽하여 한숨을 돌린 동갑내기가 뜨직뜨직 입을 열었다.

《저 아래쪽 보천보에서 어제 터졌어!》

《뭐, 보천보에서? 근데 뭐가 터졌다는거야?》

《**김일성**항일빨찌산이 일본쪽발이들을 족쳐댔대. 대장이 쏜 총성이 천지를 들었다놨대!》

문바우는 호미자루를 집어던지고 동갑내기의 손을 꼭 잡은채 마을쪽으로 내달렸다. 마을에서 제일 학식있다는 좌상어른네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대문을 두드렸다.

《너희들, 무슨 일이냐?》

찾아온 리유를 안 좌상어른은 입가에 대통을 붙여물더니 뜨직이 말했다. 얼굴엔 희색이 만면했다.

《옳다, 어제 밤에 그곳에서 총성이 터지고 온 보천보시가지가 불길에 휩싸이고… 왜놈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녹아났지.》

문바우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이 깊어졌다. 혹시 아버지가 보천보를 들이친 **김일성**항일빨찌산에 들어가 왜놈들과 싸우고있지 않을가?

그에게는 조만간 아버지를 뵈올것 같은 환각이 들었다. 아니, 환각이라기보다 꼭 만날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바우는 그날 밤 할머니에게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집을 나

셨다. 일행은 그 동갑내기였는데 보천보에 가서 눈으로 직접 왜놈들이 녹아난 광경을 보자는것이였다.

우편국이며 주재소 등 좁은 골안에 온통 총탄자욱이였다. 아직도 총탄이 뿜어낸 화약내가 시가지를 감도는것 같았다. 그렇게 떵떵거리던 왜놈들이 졸지에 녹아난걸 보면 그놈들은 분명 종이범이 틀림없었다.

(이렇게 족쳐대면 종당엔 왜놈들이 망하겠구나! 아버지를 찾아 나도 강을 건너가자. 그러면 나에게도 희망의 빛이 흘러들것이다!)

문바우는 보천보에서 동갑내기와 헤여졌다. 같이 가겠다고 생떼질을 해대는걸 겨우 따돌렸다. 그에겐 팔다리 못쓰는 어머니와 동생 넷이 달려있었다.

문바우는 항일유격대의 행처를 찾으려고 갈수 있는데는 다 가보았다. 할빈과 돈화며 길림과 목단강류역 그리고 울루무치며 치치할까지…

이렇게 몇년을 헤맸지만 헛공사였다. 백두산과 줄이 있는 정확한 조직선을 찾기 전에는 유격대의 행방을 알수가 없었다.

나중에 어느 한 역에서 그와 같은 뜻을 품은 은인을 만나 오게 된것이 태행산이였다. 태행산의 조선인부대에서 왜놈들과 싸우면서 아버지의 소식을 알기 위해 무척 애를 썼지만 종시 알수 없었다.

그러던중에 밤에 있게 될 일본군경들에 대한 습격전투를

앞두고 40여명정도의 무장부대가 모임을 가지였다. 그때 한 사람이 자기를 김사량이라고 소개하며 격동적인 연설을 짤막하게 하였는데 문바우는 하마트면 소리를 지를번 하였다. 그 김사량이 바로 20여년전 길가에서 헤매는 자기에게 엽전을 주고 털모자를 씌워주고 털신까지 신겨준 그 아이가 아닌가.

그때부터 문바우는 김사량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분명 그때의 그 마음씨고운 아이였다. 하지만 말은 건네지 않았다. 만나서 속을 터놓고 통성할 시각이 꼭 올거라고 생각만 하였다. 그러다가 마침 김사량과 함께 여러명으로 조직된 소조에 망라되여 전투지역으로 떠나게 되였던것이다. …

《고생을 많이 했구만. 그래서 그런지 몸이 단단해보이는데. 그땐 이름도 모르고 헤여졌었는데… 바우, 그러고보면 나나 자네나 다 삶의 빛, 조국해방의 빛을 찾아 광야를 헤맸구려. 온 민족이 그 위대한 빛을 애타게 찾았고 그 빛속에 살기를 소원했지.》

사량은 온 조선민족이 일구월심 재생의 은인을 피타게 찾으며 그 자애로운 해발속에 사람답게 살기를 그 얼마나 학수고대하고있는가를 바우의 운명을 통하여 다시한번 통절히 절감하였다.

해방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조국에로의 귀국을 재촉했고 또 김사량도 평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문바우는 돌아가면 혈육이란 아무도 없을거라며 아버지를 꼭 찾아

함께 귀국하겠다고 태행산일대에 떨어졌다.

여러해가 흘렀다. 중국내에서 발행되는 가지가지의 신문들에 광고도 내보았지만 아버지를 찾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 아버지를 찾는 일에 신경을 쓰면서도 그는 태행산일대에서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중국인부대에 소속되여 국민당놈들과 치렬하게 벌리는 전투들에서 용감히 싸웠다. 일본이 패망한 중국땅에 국민당패거리도 망하여 공산당이 령도하는 인민의 세상이 왔다.

아버지를 끝내 찾지 못한 문바우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조국에로 귀국하지 못하였다. 그런 속에 태행산에서 함께 싸우던 중국인들과 그 후손들이 **김일성**장군에 대해 격조높이 노래한 장편기행문 《노마만리》를 쓴 김사량작가의 항일문학비를 세우려고 모금운동을 한다는 소식이 문바우의 귀에 들려왔다.

문바우는 귀국할 때 쓰려고 모아두었던 려비까지 다 내놓았다. **김일성**장군에 대한 명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태행산기슭의 중국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김일성**장군을 그토록 우러르며 따른 김사량의 비를 세우는데 아끼는것이 없었다. 그들의 총의에 의하여 김사량항일문학비는 모금시작부터 몇달이 안되여 크지는 않지만 뜻이 깊게 자그마한 언덕에 세워지게 되였다.

조선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의 한 성원으로 출병했던 문

바우는 김사량이 종군작가로 남진의 길에 올랐다는것을 알고는 전선길에서 혹시 그를 만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미련을 가지고 그를 만나려고 무진 애를 썼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지원군이 철수할 때까지도 끝내 만나지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후 다시 조국으로 나왔었는데 김사량이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행방불명되였다는 소식을 알고는 크게 실망하였다. 하지만 그는 조국의 일군들에게 《김사량은 그 신념과 불굴의 의지, 강직한 성격으로 보아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변절할 사람이 아니다.》고 단호하게 아뢰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사량항일문학비에 씌여진 비문은 항일전에 나섰던 사량선생의 문학적공로를 빛내이려는 의미에서 씌여졌지만 보다는 김사량은 물론 태행산기슭에 사는 조중인민들이 일제를 때려눕히고 조선을 해방시키신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 터치는 절대적인 찬가라고 절절히 말하였다.

그로부터 세월은 흘러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참전기념일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하였던 전 중국인민지원군 로병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나서자란 태행산기슭에는 김사량항일문학비가 있다. 사람들이 그 비를 왜 세웠는가. 그것은 김사량이 조선민족의 위대한 령수인 **김일성**장군을 누구보다도 열렬히 흠모하고 누구보다도 격조높이 칭송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작가였기때

문이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 비를 보며 일본놈들이 말만 들어도 벌벌 떨던 **김일성**이라는 존함을 떠올리며 만주광야를 주름잡으며 왜적을 족치시던 **김일성**장군의 불굴의 영웅상을 회억하군 한다.》

# 2. 신념의 빛을 따라

## □ 인생의 봄빛을 노래하다

### 해빛을 보다

김사량은 조국을 해방시켜주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 먼저 귀국의 인사를 올리고싶은 소망이 간절하였으나 감히 입밖에 내지 못하였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그이께서 마주하실 일감들이 그 얼마나 많을것인가. 또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주어야 할 사람들은 그 얼마이며 더우기는 해방과 함께 그어진 38°선은 그이의 마음을 그 얼마나 아프게 하였을것인가. 삼천리 이 강토에 인간은 수백수천만이여도 **김일성**장군님을 대신할 그 누가 과연 있을것인가.

문학가로서, 인간으로서 김사량은 그 모든것을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넓게 헤아리고있었다. 40여년간이나 일제의 식민지쇠사슬에 매여있던 조선이 다시 재생하여 동방의 찬란한 빛으로 우뚝 솟구치는가 하는 민족사적인 문제는 오로지

**김일성**장군님께 달려있었으니 참으로 그이께서 걸머지신 중하는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거리와 마을들은 밝고밝았다. 왜놈들이 망한지 석달도 안되였지만 해방된 조국은 산천초목마저 환해진듯 하였다.

새 조선의 거창한 현실을 써야 한다는 작가적사명감과 창작적충동이 김사량으로 하여금 평양의 동료작가들을 찾게 하였다.

평양에는 원래 작가적지반이 비교적 갖추어져있었다. 해방전에 서울작가들의 평양출입이 잦았던것도 문화의 중심지인 이곳에 이름난 작가들이 많았던것과 관련된다.

해방이 되자 진보적인 견실한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로선을 받들고 새 조선의 문화건설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있었다.

소설가 최명익, 시인 김조규와 같은 중견들이 새로운 작가들을 키우며 문화건설일선에서 분투하였다. 평양에 문화인협회를 꾸리고 창작사업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활동으로 인민대중을 건국사업에 불러일으켰다.

최명익은 원래 평원사람이였다. 평양에 올라와 고보를 졸업하고 친척들과 함께 유리수공업을 하며 문학공부를 하여 이름있는 소설가가 되였다.

김사량은 문학선배이며 지우인 최명익이 평양에서 건국사업에 헌신하고있는데서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와 손잡고 새

문화건설을 위한 투쟁에 적극 뛰여들었다.

드디여 그처럼 고대하던 날이 왔다. 김사량의 생애에서 운명적인 구획을 짓는 력사적인 날이 그에게 닥쳐왔다.

주체34(1945)년 11월 2일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저택에서 김사량과 함께 평양문화인협회 회장 최명익을 만나주시였다.

작가들로서는 해방후 처음으로 되는 영광이였다.

최명익도 그랬지만 태양의 빛발을 그리며 오래도록 해외에서, 전장에서 우러러마지 않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직접 만나뵙게 된 김사량의 감격은 이를데없었다.

태양의 밝기를 다 헤아릴수 없는것처럼 우러러 그 위대하심을 다 가늠할수 없는 숭고하고도 거룩하신 모습, 한없이 크고 넓으신 도량이 엿보이는 안색과 서글서글한 웃음, 이 세상의 모든것을 다 꿰뚫고계시는듯 한 영채도는 안광.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운것은 그로서는 해빛을 보는 순간이였다. 김사량은 이 한순간에 평생을 통하여 당해보지 못한 성스러운 정의감에 사로잡히는듯싶었다.

그는 자신의 경력과 지나온 생활에 대하여 숨김없이 말씀드렸다.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일제의 식민지탄압속에서도 량심과 지조를 지킨 애국적지식인이라고 평가하시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손잡고 일하자고 고무해주시였다.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인민이 일치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은 물론이지만 그중에서도 로동계급과 근로농민, 문화인들이 세개의 큰 기둥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문화인들중에서도 특히 작가들은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 혁명투쟁에서 선전교양자적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좌석의 일행은 그이를 우러르며 자자구구를 심장에 새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자신께서는 동무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일성**장군님의 믿음!

사량은 심장이 터져나가는것 같은 강한 충격을 느꼈다. 이 나라 초야의 일개 초목에 불과한 자기가 민족의 태양, 민족의 대성인의 믿음을 받아안았으니 그 믿음은 앞으로의 김사량이 영원히 간직할 마음의 기둥이였다. 그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아서인가 사량은 위대한 수령님께로 자신의 마음이 통채로 끌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사람들의 마음이라는것은 지시나 강요에 의해 끌어당길수 없으며 예속과 억누름으로는 더더욱 틀어쥘수 없다.

만민이 흠모하며 따르는 위인은 사람들의 심혼을 틀어잡는 최고로 정화된 인간다운 풍모를 지니고있으며 대중을 위해 자신을 바침으로써 대중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되는것

이다. 사심이 없이 인민대중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령도자는 자연히 의리의 힘으로 대중의 마음을 끌어당기기마련이다.

김사량이 벌써 일제의 암담한 식민지통치시기에도 희망의 빛을 주는 태양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따르게 된것은 누구의 강요나 지시에 의한것이 결코 아니였다.

그는 비록 유족한 가문의 지식인이였지만 식민지민족의 뼈아픈 노예살이속에서 자기의 실지체험을 통하여 이 짓밟힌 민족을 구원하실분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밖에 없으며 민족의 희망, 밝은 앞날은 오직 그이께서 비쳐주시는 그 찬란한 빛발속에 있음을 심장으로 공감했기때문에 스스로 그이를 우러러따르게 되였으며 마침내 그이께서 개선하신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였던것이다.

하기에 김사량은 조국에 돌아온 첫 순간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희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쏠리는 그의 마음은 너무도 강렬한것이여서 일각이 천추같았고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장군은 강철같은 의지의 사람인 동시에 태양같은 정열의 사람이다. 처음 대할 때 아무 수식도 없는 덤덤함에서 장군의 인간성의 순진함을 느꼈다.

그이는 말하자면 명예에 의하여 행동의 자유를 구속받는 사람도 아니요, 또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러 겸손을 꾸

미거나 또는 그와 반대로 위세를 부리는 사람도 아니다.

장군은 무인으로서는 강직한 한편에 비상히 능란한 수완과 지론을 가진 사람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순진한 한편에 팔면령롱한 재기를 가진 사람이다.

또한 리론적전개는 한결 더 빛나는바가 있었지만 그 인간적광휘는 영채를 돋우는 찬란한 빛발이요, 아니 태양이라 함이 천만지당하다. …

장군의 성격이 비상히 넓은 포옹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그 과단성이 정의와 선이라는 심리미에 의하여 화응화되여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운 김사량이 쓴 이 글은 그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준다.

작가적인 통찰력과 투시력으로 전설적위인의 거룩함과 숭고함을 순간에 포착하고 꾸밈새없이 솔직한 문장으로 재현한 이 글은 신문에 발표되여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하여 알고싶어하는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해방전 《노마만리》에서도 그랬지만 해방후에도 수령님을 태양으로 높이 숭상하고 칭송한것은 작가로서는 김사량이 첫 사람이였다.

진실로 매혹된 인간만이 읊을수 있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가식없는 심장의 노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후 김사량은 지체없이 차비해가

지고 서울로 나갔다.

서울에서 옛 친지들을 만났으며 장막희곡 《호첩》을 공연하는데 관계하였다.

평양에서는 김사량과 함께 중국에서 귀국한 사람들이 모두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새 조국건설의 중요직책에 파견되여 중임을 수행하고있었다.

허정숙은 당보 《정로》 기자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정률성은 황해도당 선전부장으로 파견되였다.

그러한 배경에서 서울에 나간 김사량도 새 조선의 문화건설사업에 절실히 요망되는 주요한 임무를 수행했으리라는것은 들어올 때 배우들을 데리고 온데서도 알수 있다.

김호영과 그 주변인물들의 회상에 의하면 김사량은 서울에 나가 북조선의 새로운 건국기상에 대하여 많은 선전을 하였으며 특히 남조선의 동료들과 예술인들속에서 첫째가는 관심사로 되고있던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과 혁명활동소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8.15해방후 서울에서 **김일성**장군지지동맹을 결성하고 남조선인민들속에 해방조선을 이끌어가실분은 오직 백두산천출명장이신 절세의 민족적영웅 **김일성**장군님뿐이시라고 선전하고있던 김호영이나 동맹의 적극적인 핵심성원들인 김태한, 정진석, 서원석, 김재선 등은 김사량이 제공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자료를 가지고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군중과

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렸으며 출판보도물을 통한 선전을 하였다.

1945년 서울에서 발족한 **김일성**장군지지동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조직의 강령이 실현된것으로 보고 조직을 발전적으로 해산한 후 그 핵심성원들이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왔는데 그들모두가 서울에서 활동한 김사량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던것이다.

평양으로 돌아온 김사량은 여러 작가, 예술인들과 함께 북조선예술총련맹을 조직하기 위한 사업에 몰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가, 예술인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우선 해방전부터 창작활동을 하여오던 진보적인 작가, 예술인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새로운 문학예술창조사업에 적극 참가시키도록 하는 한편 로동자, 농민 등 근로인민출신의 작가, 예술인들을 빨리 키워내는데 커다란 힘을 돌리도록 하시였다.

그 주요한 사업의 하나로 북반부의 모든 작가, 예술인들을 망라하는 북조선예술총련맹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김사량이 서울에서 돌아왔을 때는 전국각지에 흩어져있던 많은 작가, 예술인들이 평양에 집결되여 건국사업에 분투하고있었다.

일제강점말기에 민족적량심을 지켜 붓을 꺾고 내금강의 산골에 들어가 농사를 짓던 리기영이 철원에서 평양으로 올

라왔고 함흥에서는 한설야와 리면상이, 신의주에서는 박팔양과 김우철 등이 올라와 평양에서 활동하고있던 최명익, 김조규, 남궁만 등과 합류하였다. 남조선의 진보적인 작가, 예술인들도 38° 선을 넘어 속속 북으로 들어왔다.

정열적이고 투신력있는 김사량은 그들과 함께 밤잠을 잊고 사업하여 3월 중순쯤에는 기본적으로 련맹의 기틀을 보게 되였다.

북조선예술총련맹은 주체35(1946)년 3월 25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평안남도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결성되였다.

리기영이 개회사를 하고 한설야가 일반보고를 한 결성대회에서 김사량은 경과보고를 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김사량은 편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항일혁명위업을 개괄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열렬하였고 또 조선민족을 위한 혈성에서 나온 투쟁이였는가를 초립목동이라도 장군님의 이름을 모르는이 없다는 사실로써도 넉넉히 증명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유사이래 최악의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항전의 빛나는 영예는 마땅히 장군님께로 돌아가야 할것입니다라고 정당하게 지적하였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로 쏠리는 작가, 예술인들과 전체 인민의 간절한 심정과 소망을 가식없이 진실하게 대변한 글이였다.

결성대회에서는 김사량을 만장일치로 집행위원으로 선거하였다. 15명으로 된 집행위원중에는 리기영, 한설야, 남궁만(극작가), 박팔양 등 당대 조선문학의 핵심인물들이 포함되여있었다. 리기영이 명예위원장, 한설야가 위원장, 박팔양이 부위원장 겸 출판국장, 안함광이 제1서기장 겸 조직국장이 된 중앙위원회에서 김사량은 상무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국장으로 되였다. 이밖에 김사량은 리기영, 한설야, 박팔양, 안함광 등과 함께 7명 예술위원의 한사람으로 천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예술총련맹이 결성된 그날에 집행위원으로 된 김사량을 만나주시고 문화건설에서 견지해야할 원칙과 련맹의 사명 및 임무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석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사량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축하한다고, 그동안 건강했는가고 하시면서 이번 대회준비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과분하게 치하해주시였다.

북조선예술총련맹은 그해 10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종래의 각 부들을 각각 문학, 연극, 영화, 음악, 무용, 미술, 사진동맹들로 발족시켰다.

김사량은 예술총련맹을 문예총으로 개편, 강화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면서 긴장한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고 로동계급의 참된 로동생활을 소재로 한 장막희곡 《더벙이와 배뱅이》를 창작하여 문예총기관잡지 《문화전선》에 발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문학예술을 빨리 발전시키며 근로자들의 장성하는 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문학예술단체들을 조직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중앙예술공작단을 내올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에 따라 1946년 국립연극단의 모체인 중앙예술공작단이 창설되고 뒤따라 각 도에 예술공작단이 나왔으며 김사량은 중앙예술공작단 단장으로 임명되였다. 김사량이 그 단장으로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터운 신임을 말해주는것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처음으로 만나뵙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그날로부터 그의 운명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수 있다.

이에 대하여 김사량은 어느 한 회상실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태고의 인간들이 불을 발견한 그날도 외관상은 평범한 날일수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그 평범한 날이 있은 다음부터 인류의 생활은 거대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내가 나의 생애에서, 나의 창작생활에서 그러한 불을 발견하게 된 그날도 아무런 예고없이 그리고 외관상 매우 조용하게 찾아왔던것이다. 그날은 내가 해빛을 본 첫날이였다.》

작가의 이 말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자기 운명이 찬란한 태양의 빛을 따라 전환점을 이룩한데 대한 환희와 격정의 토로이다.

## 평양을 뜰수 없다

40여년이라는 기나긴 망국사가 끝장나고 하나의 민족이 사는,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진 삼천리강토는 해방만세의 환호성으로 진감했다. 단군이래 처음 보는 환희와 격정의 해일에 산천초목도 춤을 추었다. 조선사람이라면 누구의 가슴에서나 기쁨이 차고넘쳤다.

하지만 8.15해방의 환희가 남기는 여운은 북과 남이 각기 달랐다.

아는것처럼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구상하신 항일대전의 승리적인 결속과 함께 안아올 해방이라는 대사변은 전조선적인것이였다. 그러나 외세에 의해 그어진 38°선이라는 그 저주로운 경계선에 의하여 비통하게도 그 구상이 남쪽땅에는 펼쳐질수가 없었다.

결과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손길이 미친 북반부에서는 해방의 환희가 건국부흥의 새 력사로 이어졌지만 38°선이하 남쪽 절반땅에서는 공백상태에서 며칠간을 보낸 후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탈바꿈을 한 미군정통치가 군림하는 비극적현실이 펼쳐졌다.

바른대로 말하면 외세의 바르지 못한 처사로 우리 민족이 그리도 애끓이며 학수고대하던 해방은 이렇게 본의아니게 국

토랑단, 민족분렬이라는 가슴저미는 비극의 력사와 손을 맞잡았다.

북과 남의 정국은 판이해졌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하나로 뭉쳐 새 조선건설의 길로 약진하는 북반부는 해방의 새 봄빛아래 만발하는 꽃동산이요, 외세의 오라를 진 남녘땅은 말그대로 조금 남은 민족의 얼마저 완전퇴색되여가는 음지, 파쟁군들의 란무장이였다.

퀴퀴하고 침침한 음달에서 돋는것은 곰팡이뿐이듯이 혼란된 정국과 사회적무질서속에서 남조선에서는 매일같이 각양각색의 새 정당, 새 단체가 속출되였다. 입깨나 놀리는 사람은 저마다 애국자로, 정치가로 자처하면서 민중을 우롱해나섰다.

남녘땅은 좌파요, 우파요, 중간파요 하는 파벌세상으로 화했다.

이러한 때인 1945년 9월 8일 미군이 남조선에 상륙하였고 이어 친미망명객 리승만역도를 실어오는가 하면 상해림정을 날라오는 놀음도 벌어졌다.

해방년의 민심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로 쏠리였건만 친일반역자, 반일애국자, 숭미분자, 반미정객, 친공세력, 반공세력 등 형형색색의 정객들과 사회운동자들은 저저마다 자파세력확대와 집권욕에 불을 달았다.

좌파요, 우파요, 중간파요 하는 여러 갈래의 주의주장과 파벌들을 따지고보면 크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대하는 립장과 태도를 가진 두가지 부류로 갈라볼수 있었다.

반공우익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인사들도 어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가에 따라 진짜 극악한 우익과 련공적인 우익으로 갈라지는가 하면 반미좌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짜공산주의자들, 반공적좌익의 모자를 쓴자들과 진짜공산주의자들로 갈라보아야 할 판이였다.

이때 남녘의 민심에는 미국이나 리승만역도에 대한 환상이 거의 없었다. 절대다수 인민들의 가슴은 20성상 백두산에서 항일의 결사혈전을 벌려오신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그러나 렬강들에 의해 그어진 38°선이라는 경계선으로 하여 민족이 인위적으로 둘로 갈라진데다가 미군이 틀고앉은 남녘땅에서 사상과 리념이 다른 형형색색의 정객들과 사회운동자들이 머리를 내민것으로 하여 민족의 분렬은 장기성을 띠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게 되여 둘로 갈라진 국토안에 한가정, 한혈육도 갈라져 살아야 하는 민족사의 가장 큰 비극도 생겨났는데 바로 김사량의 형제도 그러한 운명을 피할수 없었다.

해방후 어느해 여름이였다.

이날도 늦게까지 창작사업에 열중하던 김사량은 자정이 다

된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늦게 퇴근하는것이 습관처럼 돼버린 그여서 안해인 최창옥도 귀국한 처음에는 마중을 나오군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없어버린지 오래다.

그가 집에 다달아 대문을 열려고 할 때였다. 안에서 청높은 말소리들이 오고갔다.

(온 평양이 잠들어버렸겠는데 이 집에선 웬 일인가?)

다급한 걸음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 방문을 열려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나왔다.

《어머니가 정 말 안 들으면 사정보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시켜 강제로라도 끌고 가겠어요.》

서울에 사는 형 김시명의 목소리였다.

일제강점시기 총독부관리를 하던 김시명은 8.15해방후 미군정이 실시되는 남조선에서 전매청장을 하면서 동생 김사량과는 판판 다른 길을 걷고있었다. 일제때는 왜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온갖 벼슬을 따내고 치부에 미쳐돌아치더니 미군정하의 남조선에서는 그와 조금도 다를바없이 또 다른 상전할애비의 턱밑에서 주구로 군림하고있었다.

아버지 김태순도 그랬듯이 어머니 리정근도 맏아들인 시명을 곱게 보지 않았으며 그와 함께 살기를 꺼려했는데 리유는 간단했다.

그의 행동거지가 정의롭지 못하고 모든것을 권력과 금전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자기 리익의 증대와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그의 가치관의 중심에 있는것이였다. 말하자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라는 거대한 실체를 외면하고 대세에 따라 돛을 달면서 부유한 삶만을 추구하는것이 바로 김시명이였다.

그렇다면 김시명은 38° 선을 넘어 평양에 왜 왔는가. 맏자식으로서 어머니를 데려다 봉양하려고 철조망을 넘어왔는가.

사량이 벌컥 문을 여니 시명이가 와뜰 놀랐다. 이미 동생이 평양에서 문화분야의 간부를 하고있어 밤늦게 집에 들어온다는것과 한달치고 지방에 출장나가있는 날이 더 많다는것을 알고있은 시명은 그가 없는 짬에 어머니를 서울로 데려가려고 작정하고 왔었다.

《오, 사량이로구나. 그간 무고했니? 헌데 퍽 축갔구나. 일이 힘에 부친 모양이지?》

사량은 입에 침발린 그 소리가 전혀 들려오지 않았다. 속에 없는 소리가 막 역겨웠다.

《그런데요, 대낮에 뻐젓이 오지 못하고 왜 아닌밤중에 뛰여들어 야단이요? 뭐가 켕겨서 그러오? 어머니를 강제로라도 끌고 가겠다는건 무슨 소리요?》

이렇게 말하는 사량의 얼굴색은 어둡다 못해 새까맣게 죽어보였다. 그 무엇인가를 각오하고 결사의 판결을 내려야 할 때 그의 인상은 이렇게 되군 하였다.

《말을 곱게 해라. 7년이나 아래인 동생의 말버릇이 그게 다냐?》

시명은 형이랍시고 대를 세우려 기를 돋구었다. 하지만 어딘가 그의 어조에는 기가 한풀 죽어있었다.

사량이 형을 쳐다보지도 않은채 방안의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그래 어머닌 모셔다 어쩌자는거요? 어머니가 여기가 싫대요?》

《싫다고는 안했다. 그러나 나에겐 맏아들로서 어머니를 봉양할 도리가 있지 않니.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실거고.》

사량의 두눈이 어머니에게로 돌려졌다. 시명도 역시 어머니를 애원이 비낀 눈길로 주시했다.

어머니는 방바닥만 내려다볼뿐 입을 열지 않았다. 자기의 말에 따라 두 자식의 옳고그름이 판가름나고 자칫하다가는 큰 싸움이 벌어질것이였다.

방안에 팽팽한 공기가 흘렀다. 한점의 불꽃이 일면 순간에 다 타버릴것 같이 바싹 달아올라있었다.

《가고 안 가고 하는건 너희들이 상관할바가 아니다. 이 어밀 잘 알지? 나도 너희들처럼 일류급대학을 거친 녀자다. 다들 썩 물러나거라!》

어머니는 배포유한 자세였다. 아직은 오륙을 쓰지 못해 자식들이 하자는대로 이리저리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가긍한 처지가 아니였다. 젊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는 대가 센 녀성이였다.

시명이 급해났다. 목적한바가 뒤죽박죽이 되는거라고 짐작했는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서울서 숱한 돈을 들여 호송인원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38°선을 넘기가 집담장을 넘는거나 같은줄 아세요? 어서 짐을 꾸리자요.》

시명이 어머니의 옷가지들과 사품이 들어있는 장농쪽으로 다가갔다.

이때였다. 방바닥에 묵묵히 앉아만 있던 어머니가 노기가 어린 눈길로 시명을 쏘아봤다. 그러더니 《이녀석, 이젠 한다는 수작이?!》 하며 벌떡 일어섰다.

찰싹!

시명의 뺨에 어머니의 손이 날아들었다. 어찌나 힘을 가해쳤는지 육중한 몸이 흠칠했다.

《이놈아, 거기 앉아라! 그리고 말 좀 해봐. 날 봉양할 도리가 있다구? 내 네놈의 속심을 모를줄 아니?》

어머니의 말엔 일리가 있었다. 해방되기 전날까지도 서울에서 시명의 편지가 한달이 멀다하게 평양으로 날아들었다.

편지내용들에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시창이도 없는데 어머니 혼자서 할머니를 어떻게 모시겠는가, 여기 서울엔 평양것보다 몇배나 크고 정원도 있는 제 집이 있다는것, 손자들이 할머니를 몹시 보고싶어하고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싶어하니 이제는 여기 서울에 내려와 손자들과 세상구경이나 다니

시라는것 등 달콤한 말들로 수다를 떠는것들로 가득차있었다. 그런데 편지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꼭 강조하는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울로 오시되 집을 헐값으로 팔지 말며 증조할아버지대부터 내려오는 재산정리를 잘해가지고 오셔야 한다는것이였다.

어머니는 시명의 속심을 알아도 너무도 잘 알았다. 어머니를 모셔간다는 명분으로 집안에 장자상속의 대를 세우려는것이였다. 말하자면 모든 재산의 상속을 제가 받으려는것이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사량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것이다.

시명은 나날이 속이 새까맣게 타갔다. 해방이 되면 사량이도 돌아오겠는데 그때면 그가 없을 때보다 더 힘들것이였다.

해방이 되여 시창이가 고향에 돌아왔다는 소식이 서울에 사는 시명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거기에다 38° 선까지 그어져 마음대로 다니기조차 어려워졌다.

생각다 못해 시명은 마지막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평양행에 올랐다. 어머니를 강제호송할 여러명의 인원까지 사가지고.

김사량은 이 모든것을 단순히 집안의 일로 보지 않았다. 한집안일인데도 여기에는 분렬된 민족의 비극이, 정의와 불의의 계선에서 어느쪽을 택해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사상문제가 있었다.

《쪽발이왜놈들의 앞잡이로 행세하다가 이제는 양코배기들

한테 가붙은 신세에 어머니를 서울로 끌고 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오!》

김사량은 단호하게 일축하였다. 형제들사이에 모셔가느니 못 가느니 열띤 언쟁이 벌어지다가 나중에는 주먹싸움으로 번져졌다. 시명의 코에서 시뻘건 피가 쏟아져내렸다.

이렇게 되자 강제호송인원으로 데리고 온 시명의 노복 여럿이 방에 뛰여들어 흉기로 위협하였다.

김사량은 품에서 권총을 꺼내여 보란듯이 천정에 대고 뒤방 갈겼다.

잠자코 지켜보고만 있던 어머니가 문짝을 걷어차며 《이놈의 자식들, 무슨짓들이냐? 썩 물러가지 못해!》 하며 집이 떠나갈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서울에는 못 간다. 아니, 안 가겠다! 나는 해방전에도 평양서 안 떠났는데 더구나 오늘엔 더 떠날수가 없다. 평양엔 해빛이 넘친다! 해빛은 돈으로도 살수 없다!》

평양엔 해빛이 넘친다!

해빛은 돈으로도 살수 없다!

짧은 말이였어도 수난많던 한 인간의 마음이, 아니 망국노의 피눈물나는 노예살이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한 민족의 체험이 함축되여있는 말이였다. 이것은 김사량이 짧았어도 곡절많았던 생애에 늘 마음속으로 웨치던 말이기도 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서먹서먹하였던 형제간의 간격은 이 사건으로 하여 심연으로 더욱 깊어지고 시명은 간다온다는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들사이의 관계는 이것으로 끝났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형제간의 의리도 칼로 베듯 잘라버리는 날카로운 성미의 김사량이였다.

## 연극 《뢰성》이 태여나기까지

1946년에 들어와 김사량은 창작과 사업에 열중하다가도 그 무엇엔가 집념에 사로잡히는 때가 많았다. 언제나 창작적열정에 불타 낮과 밤을 모르고 무섭게 일하는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뇌리에 새겨진 김사량의 보통모습이였다. 그러한 사량의 모습이 새해에 들어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으니 주위의 사람들이 의아해한것은 당연한것이였다.

김사량선생이 요새 무슨 생각에 빠졌길래 저러는가. 그의 마음에 혹시 알지 못할 동요가 일고있는것이 아닌가. 일본이나 남조선에 있는 문학지우들에게서 그 무슨 편지라도 받지 않았는가. …

일터와 집주변의 사람들속에서 별의별 말들이 조용히 나돌았다. 그것이 나중엔 안해를 통해 김사량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였다.

《옳소! 정확히 맞혔소. 난 몇달째 큰 고민거리에 빠져 집념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있소.》

안해는 그 말에 너무 놀라 턱까지 떨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가는 차마 묻지 못했다. 그처럼 희열과 랑만에 넘쳐 창작밖에 모르던 남편에게 고민거리라니 과연 이게 웬 말이란 말인가.

최창옥은 남편이 모르게 사량과 함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모두가 오히려 최창옥에게서 영문을 알려고 했다는것이였다.

가정과 일터의 사람들이 풀지 못하던 그 영문은 5월이 되여서야 풀렸다.

이해 5월 7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새 조선건설의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김사량을 비롯한 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시여 담화하시였다.

저녁무렵 김사량과 작가, 예술인일행은 당중앙위원회청사의 아래층 한방에서 대기하고있었다. 이제나저제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는데 그이께서 진회색중절모에 봄외투를 입으시고 김책, 안길 등 항일혁명투사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오시였다. 사량뿐아니라 장내의 모두가 일어서서 열렬한 박수로 위대한 수령님을 정중히 맞이하였다.

사량에게는 수령님을 뵈옵는것이 처음이 아니였지만 만나

뵈올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것이 있었다. 꼭 짚어 말할수는 없었지만 작가적안목으로 볼 때 그것은 그이의 온몸에서 세차게 발산하는 신비로운 빛이였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빛은 참으로 눈부시였다.

(아마도 그것은 이 나라 인민, 이 조선민족의 오늘과 래일을 위해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비범출중한분이시기에 그렇게 느껴지는것이리라.)

사량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옷매무시를 바로잡으며 주석단쪽에 눈길을 주었다.

이윽하여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장군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인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싶어합니다.》 하고 말씀올리고는 오늘 여기 모인 작가, 예술인들에게 좀 자세히 이야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아뢰였다.

장내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숭엄하게 빛났다. 그 어떤 책자나 그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항일혈전의 빛나는 력사를 직접 듣게 된다고 생각하니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가 없었다.

한동안 방안이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다.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것 같았다.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내를 부드러운 시선으로

굽어보시며 내가 혼자서 싸운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무들의 영용한 투쟁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속에서 일제와 싸워 이겼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에게 애국주의사상과 혁명의식을 넣어주자면 항일빨찌산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빛나는 투쟁업적에 대하여 많이 써내여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보천보전투진행과정에 대하여 대표적실례를 드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1937년 6월 4일 우리는 보천보를 쳤습니다. 이날은 력사적인 날이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인민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것을 실지전투를 통하여 보여준 날이였으며 조선인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었고 일본놈들의 아성을 뒤흔들어놓은 날이였습니다. …

(아, 그때의 보천보총성! 내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잠 못 이루며 격정에 넘쳐있었던가.)

김사량은 도꾜에서 대학을 다닐 때 보천보전투소식을 일본의 문학동료들에게서 들었고 구체적인것은 신문에서 읽었다. 그때의 감격이 다시금 되살아난 김사량은 번개치듯 눈앞에서 번뜩이는 새로운 창작적섬광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23시가 되여서야 담화는 끝났지만 김사량은 그동안 내내 새 작품의 장면장면들이 떠올라 진정할수 없었다.

(보천보전투, 이것을 기본으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작품화하고 장군님의 위대한 형상을 무대에 모셔 장군님을 뵙고싶어하는 인민들을 기쁘게 하자!)

김사량은 즉시 장막희곡 《뢰성》의 작품창작에 들어갔다. 언제 날이 밝고 언제 날이 저무는지 알수 없었다.

그러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그제서야 고민거리를 안고있다던 김사량의 고충을 리해하였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노래하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는 커다란 고민에 빠져있었던것이다.

태행산의 조선인부대에서 그곳 생활을 몇달동안 해보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령도하시였던 항일유격대의 생활을 못해본 김사량으로서는 생소한 작품이 아닐수 없었으며 따라서 고충이 없지 않았다.

누구를 만날것인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하여, 그이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에 대하여 그 누가 잘 알것인가?

김사량은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모시고 싸웠다는 항일혁명투사들을 한명한명 꼽아보았다. 이렇게 며칠을 보내며 두명의 항일혁명투사들을 만나보았지만 그가 알고있는 내용과 별반 차이없는 사실자료였다. 흥분과 열정으로 불타던 심장이 막 아파났다. 사량은 지금껏 이렇게 창작에서 애를 먹은적이 있는것 같지 않았다.

그날도 밤을 꼬박 지새운 새벽무렵이였는데 갑자기 김사량

이 두손으로 방바닥을 탕 치며 일어났다.

《찾았다! 바로 그분이다. 그분만이 제일로 잘 알것이다.》

안해 최창옥도 곁따라 좋아하며 어쩔줄 몰라했다. 남편이 기뻐하면 자기도 좋은것이다.

온밤을 밝힌 김사량은 아침식사도 잊고 장군님의 저택으로 찾아갔다. 찾아가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를 만났다.

이미 김사량을 량심적이고 열정적인 작가로 알고계신 김정숙녀사께서는 그의 마음속고충을 자상히 들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힘자라는껏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여주시였다.

그때부터 사량은 자주 저택으로 찾아가 김정숙녀사의 조언과 지도를 받았다. 녀사께서는 일단 창작에 불이 달리면 앞뒤를 재지 않고 밤낮이 없이 검질기게 달라붙는 김사량의 성미를 오히려 훌륭한 작가적기질로 보시고 너그럽게 대해주시면서 대본단계에서 자료상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였다.

대본이 성공적으로 완성된것을 놓고 문학지우들이 사량을 극구 찬양하였다.

《정말 대단하네. 그렇게 짧은 기간에 해제끼다니. 역시 사량선생은 달라.》

《빛을 본 사량의 심장이 저렇게 짧은 시간에 기적을 낳았지.》

그러나 사량은 사람들의 말에 매번 긍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때는 역정을 냈다.

《아니네. 우리 장군님의 혁명력사가 너무도 격동적이고 위대하여서 그렇게 된거네. 그리고 김정숙녀사의 지도방조가 없었더라면 꿈도 꾸지 못하였을거네.》

김정숙녀사께서는 대본단계에서만 아니라 형상단계에서도 여러차례나 극장에 나오시여 작품내용은 물론 배우들의 연기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장막희곡 《뢰성》은 훌륭히 창작완성되였다.

당시 《뢰성》의 창작집단에 속하였던 공화국의 이름난 연극인인 인민배우 리단은 이렇게 회고하였다.

《작가 김사량동무가 해방된 조국땅에서 쓴 첫 작품인 희곡 <뢰성>을 무대에 연극으로 올릴 때 제가 바로 그 주인공역으로 출연했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남달리 컸던 김사량동무는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자마자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항일무장투쟁사적을 열심히 연구하였지요. 그는 항일혁명투사들을 찾아다니며 검질기게 이야기를 듣군 했다고 합니다. 당시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던 한 항일혁명투사는 지금도 작가 김사량이 자기의 사업일지까지 빼앗아가며 여러날 찾아와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사적을 묻군 했다고 회상하고있습니다. 특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각 방면의 격려와 고심어린 지도는 희

곡의 운명을 결정지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태양의 불멸의 력사는 작가를 흥분시켰고 마침내는 작품으로 쓰지 않을수 없는 세찬 충동을 받아안은 김사량동무는 밤을 밝혀가면서 짧은 기간에 전 4막 6장으로 된 큰 작품인 희곡 <뢰성>을 써냈습니다.

당시 중앙예술공작단에 망라되여있던 우리 창조집단은 희곡대본을 받자 대환성을 올렸습니다.

작품은 력사적인 서강회의이후시기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활동내용을 담은것으로서 영웅적인 항일혁명전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보천보전투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형상을 직접 모신것이였습니다. 한마디로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을 전면적으로 작품의 중심에 높이 모신 대작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해방후 어중이떠중이들이 <혁명가>라고 저마다 떠들던 그 복잡한 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로 형상한 작품을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하게 창작한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참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있는 재간과 열성을 다하여 연극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는데 작가 김사량도 창조성원의 한사람이 되여 늘 극장에 나와 배우들의 연기형상을 도와주면서 연출가와 공동작업을 했습니다.

드디여 영광의 날이 왔습니다.

1946년 8월 28일 력사적인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가 열린 이날 저녁 19시 평양 3.1극장에서 당대회를 축하하여 연극 <뢰성>이 공연의 막을 올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저녁 친히 극장에 나오시여 이 공연을 보아주시였습니다.

우리 창조성원들의 감격은 비길데 없이 컸습니다. 김사량동무는 어린애처럼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그날 공연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관중들은 크나큰 감동속에 연극을 보았으며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날 공연이 끝난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휴계실에서 일군들과 함께 작가 김사량을 만나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사량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시를 주시였다.

중앙예술공작단이 조직된지 얼마 안되는데 그사이 연극을 빨리 창조하였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진실합니다.

…연극은 굴할줄 모르는 강의한 의지와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운 항일빨찌산들의 투쟁정신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의의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공연에 출연한 배우들과 창작가들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시는 분에 넘치는 치하의 교시를 받아안으며 김사량은 저도 모르게 두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다.

그 언제 그 누가 그의 작품을 살틀히 보아준적이 있었던가. 량심적인 글을 쓴것으로 하여 원쑤들의 박해를 받아야 했던것은 얼마였으며 늘 놈들의 감시속에 행동의 자유마저 빼앗기고 살지 않으면 안되였던 일들은 그 얼마였던가.

글다운 글을 쓰고도 시비중상속에 괴로움을 당하고 멸시를 받아야 했던것이 그의 쓰라린 과거였다. 그런데 바로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그가 쓴 작품을 그처럼 높이 치하해주시고 그의 작가적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신것이였다. 그는 처음으로 작가로 된 영광과 행복을 심장깊이 느꼈다.

김사량의 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차넘쳤다. 작품이 이렇듯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명작으로 훌륭히 창작될수 있은것이 과연 어느 일개 작가의 재능때문이란 말인가. 아니였다. 작품의 종자를 안겨주시고 형상방향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스승의 가르치심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의 성과를 기대할수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수령형상창조의 새 력사가 펼쳐질수 있으랴.

그후 연극 《뢰성》은 처음에는 평양시에서, 다음은 청진과 신의주와 해주 등 전국각지 시, 군들에서 대성황리에 공

연되였다.

연극의 제4막에서 보천보전투가 승리로 끝난 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인민들앞에 나서시여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연설을 하시는 장면에 이르러서는 무대의 등장인물들과 함께 온 장내의 관객들이 모두다 일어나서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군 하였다.

**김일성**장군 만세!

무대와 관객들속에서 터져나와 하늘땅을 진감한 **김일성**장군 만세!

이는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받아안은 한 인간이, 태양의 빛발속에 복된 삶을 누리게 된 인민이 터치는 생의 메아리였다.

## 각별한 신임과 보살피심속에

인간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자연계의 동식물처럼 물과 공기 그리고 저 하늘의 태양이 쏟아내는 해볕만 있으면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저절로 성장하는가.

물론 육체적성장은 할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사회정치적생명체로서의 인간성장은 그것만으로는 이루어질수 없다.

인간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은 인간에게 정치적생명을 주며 그 생명을 지켜

주고 빛내주는 정치적수령의 손길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해방전 젊은 나이에 하많은 우여곡절을 누구보다 많이 겪은 김사량이 문학창작활동에서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눈부신 두각을 나타내고 일군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낼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각별한 신임과 뜨거운 보살피심이 있었기때문이다. 말하자면 위대한 태양의 해빛속에서 참된 인간으로 성장하고 보람찬 삶의 영광도 누릴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사량이다.

창작사업과 행정실무를 통하여 김사량을 더욱 성장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그를 만나주시였다.

1947년 1월 5일이였다.

이날 김사량을 비롯한 4명의 작가들을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주제의 작품에서 군사적측면만 강조하고 정치적의의를 소홀히 하는 현상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항일유격투쟁에 대하여 쓴다면 력사적사실들을 충분히 탐구하여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으로 후세에 전해질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김사량은 생각이 깊어졌다. 자신뿐아니라 태반의 작가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고질적인 약점을 이미 위대한 수령님께서 꿰뚫고있었던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사업과 창작실천의 지침으로 철저

히 삼은 김사량은 해방후부터 지금껏 자신이 쓴 작품들을 예리한 안목으로 검토후열하였다. 그 결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적이 천만번 정당하고 반드시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었다. 교훈속에서 앞으로의 출로를 찾은 김사량과 작가들은 분발하여나섰다. 성과는 실로 컸다. 김사량은 물론 모든 작가들도 작품뿐만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성장이 몰라보게 커가는것이 놀라울 정도였다.

이러한 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참석하에 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가 열리였다.

수령님께서는 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동무들은 문화전선에서 싸우고있는 투사들이다, 동무들에게는 동무들의 입으로, 붓으로 조선사회를 뒤걸음치게 하려는 반동세력을 쳐야 할 책임이 있다, 반동세력을 분쇄하고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동무들이 문화전선에서 잘 싸우는가 못 싸우는가에 크게 달려있다고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대회에 참가한 김사량은 다시금 자신과 작가들이 든 붓대의 사명, 붓대의 무게를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러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예지에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아, 그이는 정녕 찬란한 해발이시다! 그이의 위대한 해빛에 의해 어둠은 가셔지고 정의의 목소리는 보다 더 거세질것이다.)

당시 일부 지방들에서는 한줌도 못되는 부르죠아문예인들이 《응향》이니 《문장독본》이니 《예원써클》이니 하는 부르죠아적출판물들을 발간하고 《순수문학》의 구호밑에 건국사상과 배치되는 문학의 《무사상성》, 《무계급성》을 은밀히 퍼뜨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견실한 작가, 예술인들이 대렬의 사상적순결성과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며 부르죠아반동문예사상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부하여 강하게 벌려나갔다.

함흥에서는 일제시기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평론가 엄호석이 건강치 못한 몸임에도 잡지 《문장독본》의 사상독소들을 폭로규탄하는 장문의 론설을 밤을 새워 써서 도당기관지에 발표하였다. 변명할 여지없이 반동적정체가 드러난 모 아무개라는자는 복수하겠다고 야밤삼경에 흉기를 들고 엄호석의 집 창문을 뛰여넘어 들어간 사건까지 일어났다.

진보와 반동, 애국과 매국간의 치렬한 사상투쟁이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벌어지고있을 때 김사량은 백인준, 최명익과 함께 원산으로 내려가 반동적사상독소를 청산하기 위한 사업을 하였다.

백인준은 일제가 패망하자 중국에서 남조선으로 갔다가 38°선을 넘어와 민주건국에 이바지하는 몇편의 참신한 시들을 발표하고 전도가 양양한 젊은 시인으로 두각을 나타낸지

얼마 되지 않았다. 새시대의 맛이 나는 그의 시들은 삽시에 시단의 주의를 끌었다.

김사량과 일행이 원산에서 주목을 돌린것은 시집 《응향》이였다. 이 시집은 원산문학동맹에서 출판한 책이였는데 일제강점때 썼다는 《파편》이라는 제목의 시 18수를 비롯하여 부르죠아적이고 형식주의적인 불건전한 시들이 적지 않게 편집되여있었다.

김사량은 예리한 당적안목과 반박할수 없는 정당한 미학적 분석으로 《응향》의 반동적본질을 까밝혔다. 백인준은 당보 1946년 12월 25일부에 《문학예술은 인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라는 론설을 발표하였다.

그들의 분석비판이 얼마나 예리하고 정당했는가는 《응향》의 주필자이며 발행자였던자가 항변 한마디 못하고 남조선으로 달아난 사건을 놓고 잘 알수 있다. 그놈은 평양에서 김사량이라는 꺽두룩한 젊은이가 백인준, 최명익을 데리고 내려와 시집에 칼질을 했다고 볼부은 소리를 했다고 한다.

김사량은 행정실무적인 사업이 중첩되는 속에서도 작품을 썼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격류속에 뛰여든 그는 그속에서 새 조선의 새형의 주인공들을 만났으며 그자신이 벅찬 현실에 흥분되여 군중대회나 선동모임의 연설자로, 선동원으로 되였다. 이 과정에 그의 손에서는 해방된 새 조선의 눈부신 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한 소설과 희곡들, 시극형식의 합창시

와 수필들이 련이어 탈고되였다.

단편소설 《마식령》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에 몸을 잠그고 함경북도로 출장가는 길에서 창작한것이고 단편소설 《차돌이의 기차》는 로동법령이 발포되자 그에 감동되여 쓴것이였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장막희곡 《복돌이의 군복》은 신문 《민주조선》에 게재되였었는데 남조선에서도 그 작품을 전재하였으며 합창시 《무쇠의 군악》은 온 나라를 창조의 열정으로 들끓게 하였다.

해방후 《소년고수》로부터 시작한 김사량의 작품들은 그 어느것이나 고요한 서재속에서 집필된것이 아니라 민주개혁의 위대한 전진에 대한 누를길 없는 감동과 뜨거운 열정을 안고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에서, 달리는 렬차칸에서 또는 문화공작의 다망한 짬시간에 씌여진것들이였다.

현실속에서 소재를 잡았으므로 주제분야도 다양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을 그린 작품이 있는가 하면 해방후의 새로운 북반부현실을 그린 작품들이 있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봉건투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들도 있었다.

단편소설 《남에서 온 편지》, 《대오는 태양을 향하여》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이였다. 《대오는 태양을 향하여》에서 그는 조국전선호소문을 받들고 일어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영광스러운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한것으로 묘사하였다.

단편소설 《칠현금》과 같이 제철소에 파견된 한 작가가 왜놈들때문에 불구자가 된 로동자에게서 문학적재능을 발견하고 그를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는 주제의 작품도 있었다.

해방후 5년도 안되는 기간에 5편의 장막희곡과 1권의 소설작품집을 비롯하여 10여건의 소설, 희곡, 수필, 합창시들을 창작발표하였다는것은 새로운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한 그의 드높은 창작적열도를 보여준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신임과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서평양의 인흥동에 있던 그의 집으로는 자주 김책, 허정숙 등 당과 국가의 간부들이 찾아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배려를 전달하고 창작과 생활문제를 료해해가군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에게 백세루양복지를 보내주신것도 그무렵이였다.

김사량이 작품창작을 위해 양덕에 나가있다가 평양에 돌아왔을 때인 1947년 어느날이였다.

김사량이 저녁늦게 사무실에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모친 리정근이 대문밖에 기다리다가 마중하였다. 그가 문안을 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웬 간부어른이 말달구지를 대문앞에 세워놓고 나를 찾더구나. 내가 마당에 있는데 달구지군이 쌀가마니를 지고 들어와 마루에 조심히 내려놓지 않겠니. 내가 간부어른보

고 <뉘신지요?> 하고 물으니까 <김사량선생님댁이 옳습니까?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시는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더구나. <**김일성**장군님의 선물이라니?> 하고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더 말을 못하고있으니까 <백미입니다. 자, 여기에 받았다는 인증글을 한자 적어주셔야겠습니다.> 하더구나. 나는 <**김일성**장군님, 쌀 세가마니를 고맙게 받았습니다. 김사량의 모 리정근.>이라고 썼다.

장군님께서는 네가 글쓰러 양덕에 간것을 알고계신다고 하더라.》

대문을 열고 들어가 쌓아놓은 쌀가마니들을 본 김사량은 가마니에 손을 얹은채 아무 말이 없었다.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

부엌에서 식사를 차리려던 안해와 어머니가 그러는 그를 보고 달려나와 사량을 불렀다.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사량은 울고있었던것이다. 알게 모르게 받아안는 고마운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 뜨거운 은정이 깃든 쌀가마니에서 차마 손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1947년 4월 2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작가들과 함께 김사량을 또다시 댁으로 불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산에서 싸울 때 가끔 민가에 들리면 언감자로 농마를 내서 누른 국수를 대접받군 했는데 그게 빛갈이 검고 볼품은 없어도 참 별맛이여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시며 김정숙녀사께서 손수 차리신 국수상에 작가들을 앉혀 주시였다. 그리고 문예총산하 작가들이 현실에 나가 근로자들속에서 선전전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는데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 사량동무도 흥남지구에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작가들이 로동계급속에 들어가야 현실을 알수 있다고, 그래야 우리 로동계급이 요구하는 좋은 글을 쓸수 있다고 격려해주시였다.

이날 김사량은 밤늦도록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문학예술창조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과 작품소재로 될수 있는 고귀한 말씀들을 받아안았다.

이 시기 김사량은 창작을 하는외에 자신의 사회적지위에 상응한 사회정치활동에도 정력적으로 참가하였고 조국통일과 관련한 사업과 대외사업에도 관계하였다.

그는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1948년 4월남북련석회의사업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중요한 문건작성사업에도 기여하였다.

남북련석회의가 끝난 직후인 1948년 5월 9일부 중앙신문들에는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하지중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 공화국북반부의 이름있는 작가, 예술인 13명의 련명으로 발표되였다.

이 서한을 쓴 사람도 김사량이였다.

그때로부터 며칠 지난 5월 중순의 어느 일요일 평양에서 멀지 않은 북쪽교외 마람유원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가분들과 함께 한 작가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였다.

금잔디가 푸근히 깔린 호수가에는 골짜기와 산자드락에서 풍겨오는 정향나무꽃향기에 취할듯 하였다. 멀고가까운 산들은 청신한 신록으로 단장하여 이른봄의 꽃철은 한물 지나가고있었지만 자연의 생기와 화려함은 오히려 성숙미를 보이는 계절이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어리신 자제분과 함께 아늑한 잔디밭우에 차려놓으신 갖가지 음식상에 둘러앉은 작가와 부인도 그랬지만 그의 어린 아들딸들도 감격에 겨워 수저를 들지 못하였다.

그들이 김사량과 그 가족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동안 긴장하게 일한 김사량을 휴식시키려고 모처럼 기회를 마련해주신것이였다.

친히 작가를 곁에 앉히고 어서 들라고 음식을 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사량동무가 수고가 많았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발표된 미군사령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도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아주 신랄하게 폭로단죄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그동안 장군님께서와 녀사께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인사는 제가 올려야 합니다.》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는 작가를 말없이 바라보시는

김정숙녀사께서도 저으기 기쁘신 표정이시였다.

점심식사가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김정숙녀사께서는 아이들을 위하여 여러가지 오락을 조직해주시였고 작가의 아들을 목마에 태우고 저수지가 시원히 바라보이는 언덕에도 오르시였다.

여기서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실탄사격이 있었다.

어버이장군님과 김정숙녀사께서 몸소 어느 한 곳에 설치한 목표를 향해 사격을 하시였던것이다.

두분의 사격술은 백발백중이였다. 참으로 놀라운 경지에 이른 뛰여난 사격술이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것처럼 백두산위인들의 사격술은 실로 신령스러운것이였다.

봄날의 하루를 작가와 가족들은 평생 잊을수 없게 그야말로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다.

김사량은 전쟁전까지 해방후 5년간을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신임과 보살피심속에서 생활하고 사업하고 창작하였다. 이 5년간에 해방전 30여년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벅차고 고귀하고 위대한것을 체험하였으며 작가로서만 아니라 당원으로서, 일군으로서,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하였다.

김사량은 어느 한 작품의 후기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어버이장군님의 신임과 은덕을 누구보다 많이 받은 사람이다. 대해와 같은 그 사랑, 그 신임속에서 나는 혁명

적인 작가로 자라났으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장군님을 받드는 신념이 변해서는 안된다는 참된 인간의 넋을 지니게 되였다. 사람들은 내가 언제 깨고 언제 잠자리에 들고 언제 글을 쓰는지 알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태양의 빛발을 가슴에 안은 나의 열정은 시간과는 관계없이 왕성한 창작적결실을 가져오는 모양이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의 광휘로운 해빛은 김사량과 같이 복잡한 우여곡절의 길을 걸어온 지식인도 순결한 혁명가로 키우는 은혜로운 자양분이였다. 상상할수 없는 열정과 힘을 발휘하게 한 거대한 원천이였고 다시는 변치 않을 신념의 넋을 키우는 기름진 토양이였다.

## 김사량의 일화 몇가지(1)

### ㅇ 《본래대로 되였지요 뭐.》

어려서부터 정의를 사랑하며 대바르게 살아온 김사량은 해방후 조국에 돌아와서 북반부의 정의로운 사회제도에 뜨거운 사랑과 애착을 느꼈다. 무엇이나 다 인민을 위하고 모든 것이 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참으로 인민이 주인이 된 이 사회제도를 그는 열렬히 긍정하며 혼신을 다하여 받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마음 한구석을 언제나 속박하고 괴롭

히며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는 골치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대부터 내려오며 소유하고있는 땅이였다.

김사량도 어릴적에 아버지 김태순을 따라 마차를 타고 그 경작지를 돌아보러 여러번 다녀온적도 있었고 그 땅때문에 왜놈들과 결사전을 벌리는 광경을 목격한적도 있었다.

어느날 여느때없이 일찍 집에 들어온 그는 어머니 리정근과 안해 최창옥과 함께 한식탁에서 식사를 한 후 마주앉게 되였다. 심각한 표정을 한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얼굴은 갑자기 어두워졌다. 안해도 근심어린 눈길로 남편이 말을 떼기만을 기다렸다.

《어머니, 제 요새 깊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소유하고있는 땅을 나라에 바치자요. 마음편하게.》

어머니의 얼굴이 금시 굳어졌다. 안해도 어머니의 얼굴을 살피며 어디다 눈길을 둘지 몰라했다.

《생각들 해보시라요. 원래 이 세상에 땅이 생기고 인간이 발생한 처음엔 네 땅, 내 땅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계급이 생기고 빈부가 생기면서 가진자들이 땅을 나름대로 독차지하게 되였지요. 그래 이게 공평한가요? 세상에 부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들에겐 제땅이란것이 전혀 없어요.》

어머니나 안해나 다 고등교육을 받은 녀인들인지라 리치에 닿게 말하는 사량의 말에 당치않은데란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다음날 김사량은 정권기관에 찾아가 장농속에 깊숙이 보관하고있던 땅문서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영문을 몰라 의아해하는 일군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며 가슴후련함을 느꼈다.

퇴근후에도 급히 처리할 문제가 있어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사량을 어머니와 안해가 말없이 마중했다. 그에게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기다릴뿐이였다.

《어머니, 아수해하지 마세요. 우리 가문의 첫 조상들도 제땅이 없었겠는데 본래대로 되였지요 뭐.》

어머니와 안해도 언제나 정의감에 불타있는 김사량을 대견스럽게 바라보았다.

## ○ 이름난 무용가의 《시샘》

정의를 위해서라면 형제간의 관계도 칼로 베듯 잘라버리는 날카로운 성미였지만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을 위해서라면 한없이 너그럽고 뜨거운 사람이 김사량이였다.

평양에 있던 무용연구소의 한 방에는 서울에서 북으로 들어와 직총중앙위원회 과장을 하는 김호영이라는 일군이 림시 기숙하고있었다.

김호영으로 말하면 김사량이 일본에서 류학할 때 그를 사심없이 많이 도와주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준 선배였다. 김사량이 서울에 여러번 체류할 때도 친형인 시명이 아니라 바로 김호영의 집에서 먹고 자며 지냈고 그의 방조밑에 백두산에

로 갈 결심도 가졌던것이다.

김사량은 옛 선배이며 동지인 그가 가족도 없이 불편하겠다고 생각하고 그의 생활상편의를 위하여 온갖 시중을 다하였다. 처음에는 그를 집에 데려다 함께 살려고 했지만 김호영의 고집을 꺾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량은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그를 집에 데려다 식사도 같이하고 어머니와 안해더러 빨래도 해주게 하였다. 어떤 때는 늦게 퇴근하여 집에 가다가도 도중에 기숙방으로 와서는 앓는 호영의 시중을 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세심하고 사심없는 일은 김호영이 집을 마련하고 기숙방에서 나갈 때까지 한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였다.

당시 무용연구소 소장이였던 최승희는 김사량의 따뜻한 동지적방조에 감탄하여 이렇게 실토하였다고 한다.

《녀자인 나도 무색케 할 정도로 극진한 김사량선생을 보니 막 시샘이 난다.》

## ○ 색시감에다 결혼식과 집까지

김사량이 중앙예술공작단에서 단장으로 사업할 때 공작단에는 그보다 8살이나 아래인 박혁이라는 작가가 있었다. 박혁은 평남도 평원군출신의 극작가였는데 젊은 작가인 그에 대한 사량의 관심은 각별하였다.

김사량이 그를 알게 된것은 중앙예술공작단이 발족해서였다.

인민극단 예술부에 있으면서 연극 《눈보라》를 창작연출하

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공연한바 있는 박혁은 중앙예술공작단에 소속되면서 단장인 김사량의 주의를 끌었다.

김사량은 박혁의 작가적재능도 소중했지만 그의 남다른 경력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부유한 환경에서 금전의 결핍을 모르고 대학을 나온 자신과는 달리 박혁은 고학으로 푼전을 벌어 대학을 다니며 문학공부를 한 청년이였다. 그나마도 도중에 왜놈군대에 끌려나갔다가 최홍희 등과 반일학도병무장대사건으로 평양 륙군감옥과 서울 서대문형무소로 전전하며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고난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끝내 꿈을 실현한 굳센 의지와 방장한 혈기는 그의 작가적장래를 기약하고있었다.

김사량은 행정적으로는 상급이지만 같은 작가로서 그와 문학에 대한 일상적인 상담으로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인간적인 뉴대를 두터이 하였다.

25살의 총각인 박혁은 그때로서는 《늦서방》이였다. 그래서 사량은 그에게 처녀를 소개하였다.

김사량이 대상으로 골라준 처녀는 해방전부터 같이 살면서 누님으로 섬기던 녀성의 딸이였다. 오홍숙이라는 그 처녀는 김사량을 《삼촌, 삼촌》 하며 따랐지만 그가 소개한 남자의 나이가 7살이나 우라고 딱 잘라맸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두사람이 천상배필이라고 생각한 김사량은 물러서지 않았다.

좋은 사람이라느니 앞으로 큰 작가가 될 전망있는 사람이

라느니 하면서 어떻게 늘어지게 설복하였는지 새침한 처녀는 끝내 《삼촌》의 권고에 항복하고말았다.

살구꽃같이 아릿답고 마음 또한 서글서글하고 착실한 녀인을 안해로 맞아 좋아하는 박혁을 보고 김사량은 만족해마지 않았다. 그는 결혼식을 차려주고 경상골에 신혼살림을 펼 집까지 마련해주었다. 색시감에다 결혼식과 집까지 자기에게 마련해준 사량을 박혁은 더욱 존경하고 따랐다.

동지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마음이 크고 후한 김사량이였다.

### ○ 사람은 교양하기에 달려있다

언제인가 김사량의 집에 도적이 든 일이 있었다. 안해와 어머니가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장마당에 장보러 간 짬에 벌어진 일이였다.

얼마후에 그 도적이 다른 곳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잡히였는데 그때 사량의 집을 털어낸것도 불었기때문에 우연히 도적을 잡게 되였다.

사량은 그 도적한테 떠들썩하며 죄를 따지지 않았다. 나이는 몇살이며 집은 어디인가 등을 다정히 물어보던 그는 직업은 있는가고 물었다. 직업을 잡을 나이의 청년이였기때문이였다.

청년은 자기는 고아로서 해방전에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했으며 까막눈인 자기를 그 어디에서도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가 없다고 말하면서 흐느껴울었다.

생각이 깊어진 사량은 안해더러 한사람분의 식사를 더 준비하라고 이르고는 점심시간이 되자 식구모두와 나란히 식탁에 앉아 그와 함께 밥을 먹었다.

식사가 끝난 뒤였다. 사량은 담배 한대를 꺼내 입에 물며 그 도적에게 《보아하니 자네는 고생을 많이 하면서 속상할 때는 담배를 피웠을거야.》 하며 담배를 권하였다. 그는 고맙다고 여러번 중얼거리면서도 권하는 담배를 감히 받아쥐지 못하고있다가 사량이 내뿜는 담배향내를 맡자 더는 참지 못하고 담배를 받아쥐고서 피워물었다.

사량은 픽 웃으며 그의 잔등을 두드렸다.

《그럴테지. 나도 여러번 담배를 끊으려다가 남이 피우는 담배향내에 못 참아 끊지 못했어.》

그는 오래동안 나돌다가 제 집에 돌아온듯 평온한 안색을 하며 사량과 집식구들을 죄송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러는 도적을 정겨운 눈길로 주시하던 사량은 그에게 사람은 정직하게 량심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한동안 일깨워주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 청년이 도적질을 그만두고 새 출발을 하자면 직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 이불을 깔아주어 한밤을 푹 재운 그를 데리고 이튿날 김사량은 친구를 찾아갔다. 그 친구란 어느 건설장의 책임자였다.

책임자에게 전후사연을 다 이야기하고난 김사량은 《본태는 좋은 사람이야. 두고보게. 건설장적으로 소문난 혁신자가 되지 않나.》 하고 조용히 말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로부터 넉달이 지난 어느날 깊은 밤이였다.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깨여난 김사량이 문을 여니 그 청년이 대문가에 서있었다. 그의 손에는 일을 잘해서 받은 혁신자표창장이 쥐여져있었다.

그를 미덥게 바라보는 사량의 입에서 이런 말이 조용히 새여나왔다.

《사람은 교양하기에 달려있다.》

### ○ 남을 위하는 미덕

세살때 어머니를 잃은 김사량의 조카(삼덕누이의 딸)인 리응선이 그의 집에 와서 몇년째 살고있었다.

김사량은 그를 자기 친자식 못지 않게 아끼고 사랑해주었다. 어머니없는 설음을 모르고 자라라고 리응선에게 베푸는 그의 따뜻한 손길은 친아들인 김량림도 부러워할 정도였다.

어느날이였다. 김량림과 리응선은 집에서 눈감고 사람잡기라는 재미나는 놀이를 함께 하고있었다. 시간이 가는줄도 모르고 놀음에 정신이 팔린 이들은 점심을 먹는것도 까맣게 잊고있었다.

이때 무섭게 생긴 가면을 쓴 웬 사람이 문을 벌컥 열고

다급하게 집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그애들을 덮치려고 달려들었다.

깜짝 놀란 그들이 달아나기 시작했는데 김사량의 아들은 이방저방을 재빨리 뛰여서 왔다갔다하며 요리조리 피하였다. 그러다가 가면을 쓴 사람이 볼수 없을 때 응접실의 옷장안에 감쪽같이 들어가 숨었다.

조카애도 잡히지 않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였다. 하지만 량림이처럼 재빠르지 못한지라 그만에야 가면을 쓴 사나이한테 잡히고말았다.

리응선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슬프게 엉엉 울어댔다.

그때에야 가면을 쓴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놓았는데 그는 다름아닌 김사량이였다.

잠시후 두 아이를 불러다 세운 김사량이 자기 아들의 종아리를 아프게 쳤다.

《동생이 위험에 처했는데 넌 오빠라는게 저만 살겠다고 숨어. 이 덜된 자식!》

량림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다.

사량은 그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며 말하였다.

《사람은 남을 먼저 위할줄 알아야 해. 남을 위하는 미덕은 인간에게서 제일가는 품성이야.》

## ○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김사량은 심장병이 심했다. 그 병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머니 리정근은 사량이 심장을 싸쥐고 동통을 이겨내느라 비지땀을 흘리며 방바닥에서 대굴대굴 굴 때마다 《내 심장을 떼서 너에게 달아줄순 없니?》 하며 온밤을 그옆에서 꼬박 새웠다고 한다. 안해는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야밤이건 새벽이건 마을은 물론 주변일대의 의원들을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러던 그들에게 어느날인가는 심장병에 닭의 배설물을 우려서 마시면 낫는다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

온 식솔이 환희에 넘쳤다. 심장병만 고친다면 닭배설물이 대수인가. 이 땅이 아니라 세계를 일주해서라도 닭의 배설물이란 배설물은 다 가져다 사량의 약으로 쓸판이였다.

드디여 그날이 왔다. 김사량이 닭배설물을 마시는 날이.

어머니와 안해가 정성스레 우려낸 닭배설물을 놋그릇에 담아 한방울이라도 쏟아질세라 조심조심하며 방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누워서 독서에 여념이 없는 사량의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자, 이젠 희망이 보이는가부다. 눈을 쭉 감고 마셔봐라. 그것도 단숨에.》

어머니가 사량을 어린애다루듯 하며 곰살스럽게 굴었다. 안해도 《그럼요. 의지가 기본이지요 뭐.》 하며 픽 웃었다.

김사량은 그들이 시키는 그대로 해보기로 하였다.

생각만 해도 역스러운 물그릇을 마주한 그는 수건으로 눈을 싸맸다. 보기만 해도 구역질나는 배설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다.

김사량은 놋그릇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대업을 눈앞에 둔것처럼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며 숨을 세번씩이나 깊이 내쉬였다.

놋그릇이 천천히 사량의 입가로 올라갔다. 입에 닿으려는 순간 놋그릇이 멈춰섰다.

사량은 수건으로 싸매여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사방을 두리번 살피는 흉내를 내더니 이렇게 장중하게 말하였다.

《내가 이것을 마시는것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후세들을 위해 더 많은 글을 쓰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이다.》

무엇인가 더 중얼거리던 사량은 퍼그나 큰 놋그릇에 담긴 닭배설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 ○ 버릴수 없는 《길동무》

김사량은 지독한 애연가였다.

그가 언제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아는 친구들이나 문학동료들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담배없이는 창작을 할수 없는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김사량이였다.

그는 대체로 새벽시간에 글을 쓰군 하였는데 아침에 안해가 서재에 들어서면 그야말로 담배연기로 꽉 차있군 했다고 한다. 너무도 자욱한 담배연기에 눈이 시려 안해마저 식사하라고 알리러 들어왔다가 기겁하여 내뺄 정도였다.

어느날 새벽이였다.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안해가 눈이 시릴가봐 눈에는 시어머니의 안경을 끼고 역한 냄새를 막는다면서 손수건으로 코주위를 둘러막아가지고 사랑의 방에 들어섰다.

사량은 그런 차림의 안해를 처음 본것인지라 깜짝 놀랐다.

그러거나말거나 안해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는 넓다란 보자기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담배연기를 내몰기 시작했다.

사량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우습강스러워 소리내여 한바탕 웃어댔다. 그리고는 정색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들도 나를 사모해서 내곁을 떠나기 싫어하는데 그다지 모지름을 쓰면서 털어 내쫓을 필요가 있겠소. 그 연기도 밤새 나와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사색의 파도를 헤치며 창작의 길동무를 해주었는데… 그 연기는 버릴수 없는 나의 길동무요.》

그가 이렇게 말할 때면 훌륭한 작품이 나오군 했다고 한다.

# □ 신념의 종군

## 폭풍속에 다져진 의리와 신념

1950년 6월에 들어와 김사량의 정치적감각은 더 예민해졌다. 외세에 의해 갈라진 조선반도의 하늘가에는 평화의 푸른 구름이 아닌 전쟁의 검은구름이 시시각각으로 뒤덮고있었다.

1950년 6월 11일부 《로동신문》 2면을 보면 전쟁을 앞둔 준엄한 그 시각의 김사량의 심정을 읽을수 있는 담화문이 실려있다.

그는 담화에서 《세계제패를 흉상하고 새 전쟁을 도발하여 인류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으려는 미국의 식민지정책과 그의 주구 리승만매국도당의 반역행위때문에 우리 조국은 해방 5주년을 목전에 둔 오늘까지 통일되지 못하고있다.》고 절규하면서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자들을 용감히 소탕하며 평화적조국통일방책의 실현을 위해 내가 지키는 창작의 초소에서 모든 힘을 다할것을 조국앞에 맹약한다.》라고 결의하였다.

6월 24일 밤이였다. 이날도 사량은 하루일을 긴장하게 하였지만 늦게야 사무실을 나설수 있었는데 뒤에서 자동차전조등이 비쳐오더니 멈춰섰다.

《사량동무 아니요?》

《아니 리극로선생이 이 밤중에 어떻게 된겁니까?》

서울에서도 여러번 만난적이 있었던 이들은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구세주로, 민족재생의 해발로 숭상하고 그이의 뜻을 따르는데서 한치의 간격도 없는것으로 하여 서로 마음이 통하였었다.

《예견되지 않았던 내각비상회의가 이제 있게 되네.》

리극로의 말은 사실이였다. 그날 회의에서는 조성된 준엄한 정세가 세세히 통보되고 정세를 극도의 대결분위기로 몰아가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였다.

리극로를 통하여 회의정신을 전해들은 김사량은 좀처럼 진정할수 없었다.

보천보총성을 들었을 때도, 태행산기슭에서 장편기행문 《노마만리》를 쓰면서 항일빨찌산 그 태양부대의 대장 **김일성**장군을 노래할 때도 그는 높뛰는 심장을 진정할수 없었지만 전쟁을 앞둔 이 시각 **김일성**장군님앞에서 자신을 검증받을 때는 왔다는 생각이 갈마들며 더더욱 진정할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곡절많은 길을 걷고걸어 빛을 찾아왔던가. 민족해방의 대성인, 민족재생의 은인이신 **김일성**장군의 자애로운 해발속에서 공화국의 인민들은 그 짧으나짧은 5년에라도 얼마나 벅찬 행복스러운 삶을 누렸던가. 또 나 김사량은 그 위대한 해발속에 안겨 인간으로, 작가로, 일군으로

얼마나 몰라보게 성장했고 얼마나 빛나는 생을 살았던가.

그런데 그 자애의 빛발, 민족재생의 해발을 원쑤들은 이 땅에서 거세하려고 칼을 빼들었다. 우리의 생이고 삶 그자체인 그 해발을 떠나 인간의 존엄도, 민족의 륭성발전도, 통일조국의 미래도 생각할수 없지 않는가.

사량의 뇌리에 위대한 장군님을 직접 만나뵈옵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던 잊을수 없는 나날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마람유원지에서 아들애를 목마태우시고 즐겁게 놀아주시며 천금같은 시간을 바쳐주시던 어버이 그 모습이 눈에 삼삼해 그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머금었다.

(내 정녕 그 품을 떠나 살수 있단 말인가. 그늘 한점 없는 해빛을 떠나 이 김사량의 존재가 무엇이란 말인가. 폭풍이 몰아칠 때 나에게 생의 희열을 주고 재생의 빛을 안겨준 은인을 더 높이 우러르고 따라야 한다. 그게 인간의 의리가 아니겠는가.)

의리란 인간이 인간으로 되게 하는 참된 기준의 하나이다. 의리가 없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바가 없다.

더구나 령도자께 향한 전사의 의리는 참된 인간의 기본속성의 하나이며 이것을 떠나 인간의 량심을 말할수 없다. 그러나 그 의리란 저절로 생겨나는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가지게 되는것도 아니다. 자각과 공감이 없으면 의리가 없고 의리가 없으면 신념이 없다. 이 의리와 신념이 체질화될 때

그것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공고한것으로 되는것이다.

준엄한 시기에 이것은 더욱 여실히 실증되여 그 한계선은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 닥쳐온 조국해방전쟁은 모든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나 김사량의 의리와 신념의 농도를 재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김사량은 제일먼저 전선종군을 탄원하였다. 이것이 폭풍속의 김사량의 의리와 신념이였다.

## 특별신임장과 보신용권총

1950년당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문화부문의 과장사업을 하였던 리북명은 1982년 4월 함흥의 자기 집에서 김사량의 맏아들 김량림을 만나 이렇게 말하였다.

《전쟁이 일어나자 위대한 수령님의 6월 26일 방송연설에 접한 사량동무가 원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안고 문예총에 제일먼저 달려왔소. 그는 책임일군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전선에 탄원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것이였소.

그때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어온 사량동무는 어찌나 흥분되였던지 얼굴근육이 푸들푸들 떨렸고 두눈은 충혈졌댔소.

문예총일군과 함께 있던 내가 사량동무의 열정넘치는 성격을 잘 아는지라 우선 그의 흥분을 안정시키려고 하였소.

그런데 그는 나의 손을 꽉 잡더니 <과장동지, 전선에 내보내주십시오. 이 한몸 바칠 때는 왔습니다.>라고 말하는것이였소.》

그날 오후였다.

수많은 문화인들이 전선탄원을 절절히 희망하며 원쑤격멸의 의지를 불같이 표명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1분1초가 초긴장속에 흐르는 그 분망한 속에서도 김사량과 여러 인원들을 친히 불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한사람한사람을 따로 만나시여 안부도 물어주시고 동무들이 전선에 나가면 후방에 있는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제기될것은 없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제일먼저 전선에 탄원한 사량을 미덥게 바라보시면서 격식없이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시간이 퍽그나 흘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사량에게 전선파견장을 주시였다. 최고사령관의 존함이 새겨진 특별신임장이였다.

신임장을 받아쥔 김사량은 그것을 펼쳐들었다. 전선에 파견되는 자기의 이름이 적혀있고 그 중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쓰신 **《김일성》**이라는 불멸의 존함이 새겨져 빛을 뿌리고있었다.

사량은 심장이 후두둑 높뛰는것을 느꼈다. 평생 자신이 언

제 한번 받아본적 없는 최상최대의 신임이였다. 이 신임이야말로 인간사랑의 최고정화가 아닌가.

정치적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인간에게 있어서 수령이 베푸는 신임은 사랑중의 가장 큰 사랑이다. 이 신임이 있어 전사들은 배심이 든든하고 두려움을 모르며 언제 어디에서나 확고한 주견과 자신심을 가지고 신념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수 있는것이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신용권총을 김사량에게 선물로 주시였다. 그리고 대위의 군사칭호를 주시고 군복을 입혀주시였다.

권총을 받아든 사량은 그것을 쓸고 또 쓸어보며 뜨거운 감회에 잠겼다. 태행산에 들어가 중국사람들의 군복을 입고 싸울 때에도 총을 들었댔지만 이때의 감정은 그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위대한 백두령장이 직접 안겨주는 혁명의 권총! 이것은 단순히 호신용이 아니였다. 준엄한 전선길에서 총대처럼 영원히 변심을 모르고 충신으로 살라는 말없는 고무와 격려가 그 권총에 담겨진것이였으니 사량은 그 사랑과 믿음이 어린 권총을 목숨처럼 꽉 그러안다싶이 하며 몸에 깊숙이 간수하였다.

격정에 젖어있는 사량을 다시금 정겹게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종군작가로서 전선과 전선들에서 적들과 용감히 싸우고있는 영웅적인민군군인들의 불멸의 위훈을

종군기에 담아 당보인 《로동신문》에 보내주어 널리 소개하도록 과업을 주시였다.

무엇을 더 해줄것이 없는가 생각하시며 사량을 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포탄이 울부짖는 전선에서 활동할 그의 신변이 걱정되시였다. 그리하여 김사량에게는 특별히 호위성원까지 붙여졌으며 그는 호위원의 동행하에 전선으로 나가게 되였다.

이에 대해 김사량과 함께 창작생활을 한바 있는 공화국의 한 로시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얼마나 크나큰 행운을 지닌 김사량이였는가. 좁은 안목으로 볼 때 당시 김사량처럼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아안고 종군의 길에 오른 사람은 없었다고 본다. 해방후부터 전쟁전까지 수령님과 사량동무사이에 맺어진 수령과 전사간의 숭고한 의리관계가 바로 그 신임을 낳았다고 확신한다.》

6월 26일 제1진으로 전선에 파견될 작가, 기자, 영화촬영가들이 어느 한 장소에 집결되였다.

《로동신문》, 《민주조선》, 《민주청년》(《청년전위》의 전신), 조선중앙통신사의 날파람있는 젊은 기자들, 영화촬영가들과 함께 작가로서는 김사량과 김조규가 제1진에 포함되였다. 모두가 분담된 전선지역으로 떠나게 되였는데 렬차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선중부에서 활동하게 된 김사량

은 특별히 군용자동차로 김조규와 함께 평양을 출발하게 되였다.

시인 김조규는 녕원사람이였지만 평양에 나와 숭실중학교에서 문학공부를 하였고 나이도 동갑이였거니와 성격이 온화한 반면에 문학적열정이 대단하여 김사량은 평시에 그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다. 해방후 예술총련맹 국제문화국장을 할 때부터 김사량은 조기천과 같이 일하는 김조규에 대하여 관심이 컸다.

로동신문사 종군기자 송학용, 주창준이 그들과 같은 일행이 되여 전선으로 떠나게 되였다.

늦어서 평양을 떠난 김사량과 일행의 목표는 서울이였다. 신평, 곡산, 신계를 바람같이 지난 그들이 다음날 철원에 도착했을 때였다. 새벽무렵인데 군복을 입지 않은 청장년 10여명이 갑자기 어딘가에서 나타나 그들이 탄 차를 에워쌌다.

《당신들은 누구요? 이 고장 사람들이요?》

제일 젊은 《로동신문》의 송학용이 무엇인가 이상하여 고함치듯 큰소리로 물었다.

상대쪽에서 아무 응대도 안했다. 차안을 두리번거리며 인원이 몇명이나 되고 무슨 물자라도 실었는지 내탐할뿐이였다. 아무래도 수상쩍다고 생각한 키큰 김사량이 차안에서 훌쩍 뛰여내렸다.

그러자 상대패들은 차에서 물러나 이번엔 사량을 둘러쌌

다. 견실치 못한자들이 분명했고 보매 만만치 않은 놈들이였다. 무직건달군들이여서 강탈이나 도적질을 전문으로 하는 놈들 같지도 않았다.

(반동놈들이 틀림없다. 전선에 당도하기 전에 이런 놈들과 맞다들다니…)

이렇게 생각하며 사량은 점잖게 말했다.

《우린 군인들이요. 보아하니 뭘 노리는것 같은데 큰 랑패를 보지 않으려거든 빨리들 사라지라!》

그래도 놈들은 꿈쩍 안했다.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접어든 반동놈들이였다.

《사라지겠다. 헌데 요구가 있다. 총이 있으면 다 꺼내놔. 그리고 차가 필요한데 너희들은 다들 걸어서 가고싶은데로 가라.》

흉물스럽게 생긴 두목놈이 지껄여댔다.

《뭐, 총? 게다가 차까지?!》

사량의 분격은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랐다. 일행의 분노도 극도에 이르렀다. 이제 더 말 몇마디가 오가면 사생결단이 날 판이였다.

여러 놈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 손에 들고 높이 쳐들었다. 완전한 무력시위였다.

이때였다. 땅! 하는 소리와 함께 한놈이 찍소리도 못하고 푹 꼬꾸라졌다.

《이놈들아! 너희들도 다 아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직접 주신 총이다. 미국놈이 아니라 네놈들이 먼저 이 총맛을 보게 될줄은 몰랐다. 자, 이래도 덤벼들텐가? 썩 사라지지 못해!》

김사량의 불호령에 놈들은 흠칫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총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고보면 보통사람들이 아니라는것을 느꼈는지 놈들은 뒤걸음치기 시작했다. 생각 같아서는 다 쏴갈기고싶었지만 저놈들도 추호의 량심이 있다면 감성의 문이 열릴것이라고 보아졌다.

《누구의 추동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 몸에 조선사람의 피가 흐른다면 **김일성**장군님만을 따르라. 그 길만이 정의의 길이고 인간답게 사는 길이야.》

일행은 더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놈들이 가지고있던 총들을 다 걷어서 차에 실은채 서울을 향해 떠났다. 얼마 안 가서 차창밖으로 뒤돌아보니 놈들은 흩어져가지 않고 길우에 그냥 서있었다. 사량의 호령에 넋을 잃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선것을 뉘우치는지…

차안에서 주창준이 우스개소리를 하였다.

《저놈들이 사량동무말에 마취된것 같소. 혹시 사량동무의 말에 독침이 있는게 아니요?》

또 한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다.

《난 총소리가 처음이여서 처음엔 막 떨리였소. 헌데 사량선생은 끄떡없더군요.》

사량이 근엄한 안색으로 일행을 둘러보며 조용하나 힘있게 말을 뗐다.

《**김일성**장군님이 주신 담력과 배짱이 있는데야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우리 가슴에 지닌 장군님존함이 새겨진 특별신임장과 이 권총이 그 담력이고 배짱이 아니겠습니까.》

일행모두가 사량이 높이 쳐든 권총을 우러렀다. 목숨과도 같은 귀중한 권총이였고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가 비껴있는 숭엄한 무기였다.

차는 철원고개를 넘어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어둠속이여서 사방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자동차의 고르로운 발동소리만이 대기를 흔들며 정적을 깨뜨렸다.

고개를 다 내려선 찰나에 길옆에서 인민군대렬의 한 대오가 머무르고있는것이 눈에 띄였다.

일행이 탄 차가 멈춰섰다. 앞에 한 인민군군관이 떡 버티고 서있었던것이다.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그 물음에 누군가 《우리는 전선으로 파견되는 종군기자, 종군작가들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군관은 좀 기다리라고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윽하여 장령의 령장을 단 풍채좋은 한사람이 그들쪽으로 성급히 다가왔다.

《신분을 확인할수 있습니까?》

그 말에 운전칸에 탔던 사람이 전선파견장을 내밀었다.

《아니, **김일성**!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수표가 있는 특별신임장이로구만요!》

장령의 입에서 탄성이 울려나왔다. 눈가에는 이름할수 없는 부러움과 존경의 빛이 력력했다.

《어서 가십시오. 그 어디서든 무조건 통과할것입니다.》

또다시 달리는 차안에서 김사량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든 **김일성**, 이 위대한 존함을 대할 때면 그처럼 숭엄해지고 그처럼 경건해진다. 그토록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그토록 자애로운 사랑의 해발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생을 받아안고 인간으로서의 참된 삶을 누리였으니 어찌 그렇지 않을수 있으랴.

사량은 가슴속에 품은 특별신임장에 저도 모르게 손이 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리고 무한히 행복했다.

사량은 이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특별신임장과 권총을 가슴에 품고 서울, 부산을 거쳐 저 남해끝 제주도까지 달려갈것이다. 그 사랑과 믿음의 보검만 있으면 남진의 길에 설사 천지풍파가 가로막아나선다 해도 추호의 공포도 비관도 없이 과감히 돌진할것이다.

## 포로된 《국군》종군기자의 놀라움

김사량은 민족보위상 최용건을 만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최용건이 6월 25일부터 어느 한 장소에 나와 서울해방작전을 지휘하고있었던것이다.

최용건은 김사량과 일행을 만나보고난 후 독촉을 하였다.

《동무들! 빨리 달려가시오. 그래야 서울해방기사를 제때에 쓸수 있소.》

사량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인민군대가 벌써 서울에 접근했다는것을 포착하였다. 그는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력사에 남을 서울해방전투에 대한 종군기를 쓸수 없을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래서 최용건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한채 지휘소를 나오려고 하였다. 그런데 소위견장을 단 한 군관이 그를 불러세웠다. 강건총참모장이 급히 찾는다는것이였다.

김사량은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일에 부딪쳤다.

그때 강건총참모장도 전방지휘소에 나와있었다. 그는 전방지휘소의 자기 방에서 호송되여온 포로 한사람을 심문하던중 전화로 김사량일행이 도착한것을 평양에 보고하였다.

전화가 끝나자 포로되여온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서며 《이거 실례되는 말씀이올시다만 방금 김사량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다.

강건은 포로에게 눈길을 주었다. 뭔가 짚이는데가 있었는지 입가에 알릴가말가한 미소를 띠웠다.

《그래 잘 아는 사이인가요?》

강건이 넌지시 하는 말에 포로가 《네, 조금…》 하더니 말을 얼버무렸다.

궁금증이 더 커진 강건은 포로에게 바싹 다가가 앉으며 자세히 말해보라고 일렀다.

포로의 대답인즉 이러했다.

포로는 남조선의 신문 《동아일보》에 적을 두고 리승만역도의 수행기자를 하던 라영이라는 사람이였다. 라영은 같은 대학에 다니던 1936년에 자기보다 한해 하급생인 김사량이 《토성랑》이라는 소설을 발표하여 지면에서 알게 되였다는것과 그 소설을 보고 조선류학생들이 왜놈통치하에서 생지옥으로 변한 조국의 비참한 현실과 민족의 비극적운명을 두고 모두 통탄했다고 말하였다.

그는 리승만역도의 《북진통일》바람에 들떠 《국군》 제7보병사단을 종군하면서 동두천에서 한탄천을 건너 가좌미쪽으로 하여 전곡, 철원방향으로 침공하는 련대지휘부에 있다가 반공격으로 넘어간 인민군대에 의하여 사로잡혀왔다.

리승만역도의 수행기자였다고 하기에 총참모장이 직접 만나보고있던 참이였다.

라영은 자기가 신념이 없었던탓에 황금의 노예가 되여 돈

벌이를 목적으로 기자신분을 가지고 대학졸업후 지금껏 《토핑뉴스》(인기있는 소식)를 찾아 헤매였다고 실토하였다. 그러면서 김사량이 걷고있는 정의의 길을 긍정하면서 그에게 머리가 숙어진다고 진지하게 이야기하였다. 민족적량심은 살아있는 포로였다.

강건총참모장은 라영에게 작가 김사량에 대하여 알고있는것을 죄다 말해주었다.

그리고나서 김사량의 처녀작 《토성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작품은 작가의 애국적성격을 특징지어주는 소설이였소. 물론 소설에서 주인공의 일제에 대한 반항심을 대담하게 묘사하지 못하고 또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인간성과 고상한 민족적기풍을 잘 그려내지 못한 제한성은 있어도 그 폭정시기에 그 정도나마 인민에 대한 뜨거운 감정을 반영한것은 조국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작가의 민족적감정이 얼마나 열렬한가를 말해주는것이 아니겠소.》

강건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여있었다.

《옳은 말씀입니다.》

라영은 긍정해나섰을뿐아니라 경탄을 금치 못했다.

《무관이신데 한 작가의 작품에 애착이 강하시군요. 무슨 연고라도…》

《아니요. 나는 그 작가선생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공산주의자로서 남다른 애국심을 품고있는 열

혈작가인 그를 사랑하고 존경해마지 않소.》

라영은 머리를 끄덕거렸다. 알고도 남음이 있는 진심이였다.

강건의 말은 계속되였다.

《그는 1939년 봄 일본에서 서울로 돌아와 조선일보사의 기자로 있었댔소. 그때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태양과도 같으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장군님을 마음속으로 흠모하게 되였고 마침내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국해방을 위한 항일대전의 기치를 필봉으로 적극 지지옹호할 굳은 결심을 품고 중국의 동북지대에 들어와 사실에 기초한 좋은 글을 썼소.

그때부터 우리들은 그를 잊지 않고있을뿐아니라 혁명의 수레바퀴를 함께 떠밀고나가는 동지가 되였소.》

《동지로요?!》

라영의 놀라움은 더더욱 커만 갔다.

《그렇소. 애국적인 문필가인 그는 벌써 1945년 11월 2일에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옵는 영광을 지니였소.》

《예?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옵다니요?! 아, 열정과 예지로 빛나는 눈길로 한번 노려보시면 마른나무에도 아름다운 꽃이 붉게 핀다는 전설적인 위인을 만나뵈옵는 영광까지…

반공을 자기의 주의주장으로 삼아오던 김구도 조선민족의 걸출한 령도자는 오직 **김일성**장군님이시라고 했는데 그이를

만나뵈웠단 말입니까. 아—》

라영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젖어올랐다. 심장의 토로는 계속 울려나왔다.

《정말 뼈저린 뉘우침으로도, 하많은 눈물로도 조국과 민족을 배신해온 죄책을 지울수 없는 저로서는 김사량을 대면하기가 부끄럽기 짝이 없고 두렵습니다만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온 선도자인 그를 한번 만나고싶습니다.》

강건은 김사량을 담화에 함께 참가시키기로 하였다. 그는 즉시 련락병에게 김사량이 전선으로 떠나지 않았으면 빨리 찾아오라고 하였다.

사량이 급히 방에 들어서자 강건은 물었다.

《김사량작가선생에게 문의할것이 있는데 여기에 앉아있는 라영기자를 압니까? 우선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김사량은 감사하다고 하면서 말을 받았다.

《전혀 알수 없습니다. 누구신지?》

강건의 얼굴을 살피며 라영이 입을 열었다.

《저 역시 지면을 통해 김사량선생을 알았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라영은 머리를 기우뚱거렸다. 뒤말이 있을상싶었다.

둘의 대화를 듣고있던 강건이 입을 열었다.

《라영기자는 <국군>의 제7보병사단을 종군했다고 했지요?》

《예. 앞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강건이 단도직입으로 또 물었다.

《당신은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봅니까?》

그 물음에 라영이 미국과 남조선호전분자들, 서방언론이 떠드는 전쟁설에 대해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이때였다.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던 김사량이 책상우를 주먹으로 꽝 내리쳤다.

《정말 파렴치한 강도적론리입니다. 실로 짐승도 낯을 붉히고 초목도 치를 떨 만행을 저들이 저질러놓고도 감히…》

라영이 축 늘어진 어깨를 펴지 못한채 중얼거렸다.

《방금 김사량선생이 격노해한 말씀도 있었지만 트루맨이 철면피하게 허위선전을 하느니만큼 말 못하는 산천초목도 치를 떨것입니다.》

강건도 사량도 라영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적군측에 섰다는 포로로서 그 악랄한 허위선전속에서도 전쟁발발의 진실을 알고있는것이 분명했다.

용기를 내여 앞에 서있는 두사람을 눈여겨보던 라영이 김사량을 향해 확신성없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혹시 대학시절 일본불량배들에게 모두매를 맞고있는 한 류학생을 구원해준 기억은 없으신지?…》

김사량의 뇌리에 번개같이 번쩍하는것이 있었다.

《그럼 당신이?!…》

10여년전 대학정문밖에서 왜놈들에게 피투성이되여 얻어맞

고있던 한 동포청년의 가긍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렇게 보니 어딘가 눈에 익은듯도 하였다.

…어느날이였다. 그날 강의는 오전에 끝났는데 학급의 동료들은 헤쳐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후에 끼리끼리 모여 오락을 즐길 궁냥들을 하고있었다. 기숙방에서 공부하는것밖에 모르는 사량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창문가에 눈길을 주었는데 운동장밖에서 일본망나니패가 한 학생을 가운데 놓고 모두매를 안기는것이 보였다. 그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늘 있는 사실이여서 못 본체 하고 지나가려다가 뭇매를 맞는 청년이 어딘가 낯익어 다가가보니 상급반 조선학생이였다. 길가던 사람들은 피투성이된 청년을 보고 아부재기만 칠뿐 깡패들이 무서워 말릴 생각을 못하였다.

김사량은 무작정 싸움판에 뛰여들어 피해자를 막아섰다. 그는 류창한 일본말로 사리를 가려 싸움군들을 꾸짖었다. 어깨가 넓고 키가 장승같은 젊은이가 힘꼴이나 쓸것 같은데 행패는 하지 않고 떡 버티고 서서 말로 옳고그름을 강변하는데 위압된 망나니패는 기가 죽어 슬금슬금 꼬리를 사렸다. …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김사량선생을 같은 문인으로서만 아니라 저의 구원자로 존경해왔지요. 신은 다시금 선생이 이 불미한 생명에 구원의 나래를 펴도록 기회를 주신것이 아닐가요?》

자기들이 독설을 퍼붓군 하던 인민군총참모장앞에 끌려온

그로서는 이미 생명을 포기하고있은듯 하였다.

《왜놈들에게 죽도록 수모를 당해온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미국놈들밑에서 글을 쓰다니…

쓰겠으면 이제라도 **김일성**장군님에 대해 쓰시오. 그이는 조선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시고 우리들에게 비치는 삶의 자애로운 해발이시오.》

김사량은 절절히 토로하였다. 그도 길을 찾으면 바른길을 갈것이였다. 그래서 헤여지기에 앞서 한번 더 그의 심장에 호소했다.

《참된 인생길은 신념의 종군길이라고 할수 있소. 신념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인생이고 삶이겠소. 사람은 신념이 있어야 하오.》

그들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듣고있던 총참모장은 호탕한 웃음을 터치고나서 《참 묘한 해후로구나!》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지극한 관심과 배려속에서 작가 김사량이 누리고있는 높은 사회적권위와 명예에 대하여 다시금 설명해주었다.

라영으로서는 눈이 휘둥그래질수밖에 없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김사량선생처럼 인민의 편에 서서 미국이 사촉하는 동족상쟁을 반대하고 민족과 통일을 위한 개심의 글을 쓰게 된다면 구원은 신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이 할수 있을것이요.》

강건은 빨찌산출신무관답게 통쾌하게 웃고 말도 시원스럽

게 하였다.

라영은 고개를 푹 떨구고 회개하는듯 하였다.

그때로부터 10여년이 지난 1960년대초 김사량과 함께 종군길에 올랐던 작가 김조규는 문학대학 학생들앞에서 창작강의를 하면서 우연이란 필연의 어쩔수 없는 결과이다, 그 우연적인 작은 세부의 리면에 깊숙이 파묻혀있는 두 인간의 운명의 극적교차점에서 커다란 사회적문제성을 운명발전의 필연적과정으로 그려낼줄 알 때에야 동무들은 작가적재기를 가졌다고 자부할수 있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라영은 비록 적측에서 종군하였지만 기자이고 사민인것으로 하여 인민군대의 관대정책에 의하여 석방되였다.

종군길에서도 김사량은 그가 누구이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은혜로운 해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 종군기에 비낀 영웅적위훈

김사량의 활동이 특별히 주목을 끌게 된 시기는 조국해방전쟁시기이며 그의 작가적명성을 두드러지게 해준것은 그 시기에 창작된 종군기들이다.

그는 종군작가로 맹렬한 활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1년밖에 살지 못하였다. 하지만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되여 9월 중순까

지 석달도 못되는 사이에 김사량은 첫 종군기 《서울서 수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작전에 따라 진행된 대전해방전투를 전면 취급한 《우리는 이렇게 이겼다》를 비롯하여 9편의 종군기를 집필하여 《로동신문》과 여러 정기간행물들에 게재하였다.

전시 어려운 환경에서, 더우기 끊임없이 류동하는 전선을 따라 수시로 기동하면서 짧지도 않은 글을 매달 평균 3편씩 발표하여 싸우는 인민군대와 후방인민들을 격동시켰다는것은 속필의 명수인 작가의 정열과 재능을 다시금 생각케 한다.

자료의 구체성과 진실성, 묘사의 선명성과 높은 선동성, 정론성으로 하여 그의 종군기들은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생명력을 가지고있다.

김사량이 남긴 종군기들에 대하여 한 력사가는 《진실한 종군체험과 우수한 형상력을 통하여 최전선의 가렬한 전투실정과 인민군전사들의 불굴의 강의성과 영웅성을 여실히 묘사함으로써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속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있는 작품일뿐아니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발휘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영웅적위훈을 후세에 전하며 우리 문학소재를 보다 풍부하고 다채롭게 하는 귀중한 문헌으로 된다. 이런 가치있는 종군기들을 유산으로 남긴것은 문필가로서 김사량의 큰 자랑이며 행복이 아닐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어떻게 되여 다름아닌 심장병을 가지고있던 김사량이 불비

쏟아지는 전선을 넘나들며 후세사람들의 가슴을 끓게 하는 이런 글들을 쓰게 되였는가.

김사량일행이 서울에 들어간것은 6월 28일 오후 느지막해서였다.

숙소를 한강가까이에 있는 소위 《유엔조선위원단》이 들어있던 건물에 배정받았다. 방에 들어가보니 놈들은 잠자다가 달아난듯 이부자리도 거두지 못하였고 사방에는 술병, 맥주병들이 지저분하게 널려져있었다. 타락한자들의 말기증상을 보는듯 했다.

로동신문사 종군기자 송학용은 못 볼것을 본듯 침을 퉤퉤 뱉으며 발로 그것들을 한쪽구석에 밀어버리고 취재하겠다면서 땅크부대로 갔다.

다음날 오후 김사량은 서울에 들어온 전방지휘소(전선사령부가 나오기 전까지 존재)에서 문화부(지금의 정치부) 일군으로 사업하는 리서영을 만났다. 그는 인민군연극단에서 일하던 사람으로서 전쟁전부터 안면이 있었다. 언젠가 그에게 요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더욱 분별없이 날치는데 인민군대와 경비대의 위훈을 주제로 한 희곡작품을 꼭 써주겠다고 약속한 일도 있었다.

《어서 써주시오. 우리 인민군연극단에서 공연하도록 합시다.》라고 하면서 그는 그때 매우 좋아하였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것이다.

리서영은 한창 바삐 보내고있었다.

《리동무, 서울해방을 축하하오! 허허허…》

누군가 키가 꺽두룩한 사람이 방문을 열고 큰소리로 무랍없이 말하기에 일손을 멈추고 쳐다보니 쾌활하고 서글서글한 성품그대로 긴 머리칼을 고개짓으로 훌쩍 뒤로 제끼고는 큰 손으로 썩썩 쓰다듬으며 방안으로 들어서는 김사량이였다.

머리숱이 진한 건장한 체격에 종군작가라는 완장을 끼고 두팔을 휘저으며 책상앞으로 다가오는 군복입은 김사량을 새삼스럽게 바라보던 리서영은 너무 반가와 급히 일어서는 바람에 앉았던 걸상이 뒤로 나자빠지는것도 모르고 마주 나가 허리를 끌어안았다.

《아,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만났구려!》

《부탁이 있어 왔소. 리동무, 속히 상부에 제기해서 나에게 최전선 아무데나 취재할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해주오.》

《아, 그것때문에. 내 곧 제기하리다.》

리서영은 쾌히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김사량이 제기하지 않아도 될 문제였다.

전쟁초기 인민군대의 전진속도가 빨라지고 전선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기동성과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전선보도사업에서는 일련의 문제점들이 생겼다. 종군기자, 작가들이 시간을 다투어 전과보도기사를 써도 송달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여 지면에 늦게 게재되는가 하면 중요한 보도감들이 기자

의 발길이 제때에 닿지 못하여 묻혀버리는 일도 있었다.

기사내용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일부 기사들은 개괄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였으며 생동하지 못하였다.

송학용기자가 쓴 서울해방 첫 보도 《영웅적인민군대의 맹진공에 반동의 아성은 무너졌다! 서울해방전투에서》는 일각을 다투는 문제성있는 기사였지만 7월 4일에야 《로동신문》에 발표되였다.

종군기자, 작가들의 글이 지면에 제때에 반영되지 못하고있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령부나 참모부만 아니라 최전연에도 자유롭게 출입하여 취재할수 있도록 모든 종군기자, 종군작가들의 사업을 잘 도와주어야겠다고 하시면서 그들모두에게 취재전용차와 호신용권총을 주고 련락병을 붙여주도록 하시였다.

특히 자신께서 친필수표하신 특별신임장을 모든 종군기자, 종군작가들이 휴대하고 사업하도록 특전을 베풀어주시였다.

《전선사령부와 후방사령부는 이 동무에게 식량과 피복, 수송수단과 통신기재들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줄것이며 가능한 모든 편리를 보장해줄것이다.》라는 글이 신임장에 기재되여있었다. 그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서와 같았다.

김사량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수표하신 최고사령부 신임장을 며칠후(전선사령부가 조직된 7월 4일) 서울에 나온 허정숙문화선전상으로부터 또다시 전달받았다. 그는 민주

조선사 사진기자 김인환과 함께 제105땅크사단에 소속되였다.

리서영을 만난 날 저녁 김사량은 그와 함께 한강철교복구장에 나가 온밤 복구사업에 동원된 인민군구분대와 서울시인민들의 전투적인 로력투쟁에 합세하여 취재도 하고 같이 일도 하면서 새벽을 맞이하였다.

날이 밝은 다음에는 곧 한강도하를 위한 로량진전투장으로 달려갔다.

로량진교두보가 확보되고 철교가 복구된 7월 4일 저녁 김사량은 한강을 도하하였다. 도하할 때 시간이 급하여 76㎜포차들을 만재한 렬차에 올라 한강철교를 건넜다. 여기서 인천방면으로 종군하는 송학용과 갈라졌다.

김사량은 7월 5일 새벽 한강반에서 76㎜포견인차의 운전칸에 올라 수원으로 내달리면서 로량진고지전투때 용감히 싸우다 부상당하여 적의 포위속에 들 위험이 조성되자 당원증과 군인증을 전우들에게 넘겨주고 수류탄으로 장렬하게 자폭한 석금송이라는 대대장의 이야기를 취재하였다. 그는 영웅적인 이 이야기에서 강한 충동을 받았다. 전쟁의 순간순간, 대소전투의 하나하나가 이런 영웅적인 사실들로 충만되여있는것이다.

김사량은 쓰지 않고는 못 견딜 강한 충동으로 또 붓을 들었다. 그의 머리우에선 적아간에 오가는 총탄들이 비발치듯하며 날아가고 날아오고있었다. 하지만 30분도 안되여 석금

송대대장의 영웅적장거에 대한 글을 써냈다.

적들은 패주하면서 교량이란 교량은 전부 지뢰로 폭파하여 대형포차들이 쉽사리 전진을 못하게 만들어놓았다. 그래서 사량은 시흥에 도착하여서는 로획한 적의 소형차를 갈아타고 달렸다.

달리던 도중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져 사량은 안양읍거리에 잠간 머무르면서 아침 겸 점심요기를 하고있었는데 인천해방전투에 참가했던 땅크들이 돌따서 질풍같이 내달려왔다.

김사량은 사진기자 김인환과 같이 이 땅크들중의 한대에 올라탔다. 땅크로 행군을 계속하기 위해서였다. 한참 그들이 질주하는데 포로들을 무수히 끌고 마주 오는 호송병이 보였다. 그 호송병의 말에 의하여 사량은 새벽에 수원시가지도 선두땅크부대에 의하여 해방된것을 알았다.

사실 김사량은 수원해방전투에 참가하려고 숨차게 달렸었다. 그런데 이렇게 맹랑하게 될줄은 상상도 못해보았다. 한발 늦었지만 수원 서문밖 도처에서 적들이 무고한 인민들을 수백명씩 쏘아죽이고 생매장하여 죽인 시체들을 보았다. 이미 안양을 지나가면서 녀인들과 어린이들의 원한에 찬 곡성이 가슴을 허비였고 땅크를 타고 오면서는 놈들의 인천학살만행소식을 듣고 치를 떨었던 김사량은 그때까지 애국자들의 시체를 거두지 못하고있던 수원경찰서의 처참한 학살현장까지 돌아보고 한낮이 지나서 리서영을 찾아갔다.

종군수첩을 쥔 그의 손은 떨고있었다.

《리동무, 놈들의 이 귀축같은 만행이야말로 인디안들을 짐승처럼 렵총으로 사냥하던 아메리카식인종들의 죄악과 무엇이 다르오. 력사에 길이 새겨두어 두고두고 인민들의 피값을 몇천배로 받아내야 하오.》

그는 그 자리에서 놈들의 치떨리는 살륙만행을 고발하여 《이놈들과 어찌 하늘을 같이 이고 살것인가?… 놈들이 호흡하고있는 한 인민들은 질식한다. 그렇다! 우리는 원쑤들을 이 땅덩어리우에서 자취도 없이 짓밟아버리기 위하여 지구의 끝까지라도 추격해야 한다.》라는 추상같은 글을 썼다.

이렇게 쓴것이 김사량이 전선에 진출하여 집필한 첫 종군기 《서울서 수원으로》였다.

그는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안고 7월 6일에는 평택, 7월 8일에는 천안을 해방하기 위하여 돌진하는 땅크부대의 선두땅크를 타고 남진하였다. 천안에 돌입하는 날에는 적의 반땅크포사격을 받아 탑승한 땅크에 불이 달리고 승무조원들이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하였으나 김사량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조종사의 어깨를 툭 치며 《주저하지 말고 빨리 앞으로 나가라!》라고 웨치면서 땅크병들을 고무하여 전진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두번째 조준사격태세를 취하던 적반땅크포를 순식간에 깔아뭉개버리고 일선참호를 돌파하였다.

천안전투에 참가한 후 김사량은 일단 후방에 떨어져 종군

기를 정리하여 평양으로 발송하였다.

이때 적들의 《제2의 수도》이고 《국군》사령부의 근거지이며 미제24사의 본거지인 대전을 해방하기 위한 금강도하작전이 급박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7월 15일 밤, 지체않고 전선으로 집중되는 사단포견인차를 얻어타고 캄캄한 조치원거리를 통과한 김사량은 포격전이 바야흐로 시작되는 금강계선에 도달하여 포차에서 뛰여내렸다. 보병들의 뒤를 따라 월하다리를 건너 최전연에 이르니 아군의 위력을 상징하는 수백문의 련대포, 사단포들이 적진지를 향하여 노호하듯 울부짖었다. 지상포의 사자라고 하는 군단포도 분노한듯 불을 토했고 땅크들이 내닫는 그뒤로 보병들이 산병선을 치며 전진하였다.

김사량은 사진기자 김인환과 함께 소속부대 지휘부를 찾으려고 도하를 준비하는 부대속을 헤매였다. 이때 금강연안 세거리에서 공주로 련락가던 모터찌클소대장을 만났는데 그는 지휘부는 대전을 측면에서 공격하려고 방향을 돌려 공주로 이동중이라는것을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사량일행을 태우고 금강줄기를 따라 하류쪽으로 내달렸다.

공주는 거기서 60리 서남쪽이였다. 그들이 지휘부에 도착하였을 때는 벌써 공주도 해방되고 부대는 대전측면타격을 준비하여 대기중이였다. 여기서 김사량은 적들이 인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아군의 진격을 막아보려고 2중, 3중으로 파놓은

원형전호의 엄페호에서 자료정리도 하고 원고도 썼으며 평양을 떠난 후 처음으로 귀밑을 덮게 된 머리도 깎았다. 또한 대전해방작전을 공중에서 엄호하려고 나오던중 수적으로 우세한 적기무리들을 만나 공중전을 하다가 적기를 추락시키고 자신도 기체에 불이 달려 락하산으로 탈출한 공화국영웅 리동규비행사를 만나 취재하였다.

대전정면 대평리쪽으로 금강을 도하한 아군련합부대가 곧바로 북쪽에서 압박하며 내리밀고 멀리 서남쪽 론산으로 우회한 부대가 대전후방에서 퇴로를 차단한 소식이 전해지자 마침내 측면타격부대에 공격명령이 내렸다.

7월 19일 밤, 어둠이 점점 짙어갈 때 김사량은 공주철교에서 1㎞ 반가량 떨어진 하류지점에서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전투원들과 함께 금강을 도하하였다.

계룡산목덜미를 디디고 가는 대전까지의 산길 80리를 김사량은 땅크부대지휘관의 야전차를 타고 순식간에 달렸다. 땅크를 타고 금강을 넘는 혼잡속에서 사진기자 김인환의 행처를 잃어버린 그는 언제 그를 찾아볼새도 없었다.

대전에서는 가렬처절한 시가전이 벌어졌다. 모터찌클을 타고 전투현장을 직접 목격하며 격전과정을 취재한 김사량은 대포위전이 아군의 승리로 끝나자 즉시 4사 제18련대 용사들이 적의 퇴로를 감쪽같이 차단하여 놈들이 대전시내에서 한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무리죽음을 당하게 한 금산가도

로 향하였다. 거기서 피난갔다 돌아오는 주민들로부터 멸망에 직면한 적들이 7월 3일부터 6일간 대전형무소에 갇혀있던 4 000여명의 애국자들과 3차에 걸쳐 새로 검거한 무고한 인민들을 자동차로 량울리고개에 실어내다 집단학살한 치떨리는 만행사건을 듣게 되였다.

너무나도 억이 막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글쎄, 7천명이 그냥 만세만 부르며 꾸벅꾸벅 죽고있단 말이요? 모두 단결해가지구 감옥을 깨치구서 쏟아져나올게지. 폭동을 일으켜도 다문 백명이라두 살았을게 아니요!》

김사량의 성격과 투지가 보이는 말이였다. 치가 떨린 그는 주민청년 한명을 데리고 놈들의 학살현장을 조사하러 떠났다.

도중에 미군포로들을 만나 너희들의 사단장 띤은 어데 있는가고 물었더니 포로놈은 어깨를 으쓱하며 《파라다이스(천국).》 하고 하늘을 가리켰다.

체포된 띤의 통역놈도 상전의 행처를 모르고있었다.

김사량은 인민군포화력에 얻어맞아 무참히 파괴된 미군땅크에 올라앉아 쓰기 시작했다. 직접 눈으로 본 모든것들이 글줄에 살아 움직였다. 영웅적인민군전사들의 위훈을 자신의 굴함없는 영웅적행동으로 목격한 체험자만이 터칠수 있는 신념의 웨침이였다.

이렇게 피의 체험으로 쓴 종군기 《우리는 이렇게 이겼다》

(ㅡ대전해방작전ㅡ)는 《로동신문》 1950년 8월 18일, 20일, 23일부에 세차례에 걸쳐 게재되였다.

남조선잡지 《민족21》 2011년 2월 1일호는 《최근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되여있다가 공개된 북조선의 신문에 김사량의 종군기 <우리는 이렇게 이겼다>가 게재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인민군의 남하를 따라나선 김사량이 종군실화를 중심으로 쓴 글들은 그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전쟁을 바라보고있었는지 충분히 가늠케 한다. 한자한자의 글발, 하나하나의 문장들에는 그의 피가 살아 태동하는듯 하다. 그 피가 무엇이겠는가 하는것이다.》

김사량이 전쟁을 보는 관점은 무엇이였던가.

그 관점에는 철저한 반미관과 함께 불타는 애국심, 높은 계급적안목이 놓여있었다. 그렇기때문에 그의 종군기들에는 전쟁도발자인 미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증오와 징벌의 불길이 펄펄 일었으며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활활 타오르고있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그는 그처럼 열렬하였고 바로 그것으로 하여 그는 심장을 끓게 하는 종군기들을 그처럼 빨리, 그처럼 격동적으로 써낼수 있었던것이다.

련락군관편으로 여러편의 종군기들을 평양에 올려보낸 김사량은 영동을 거쳐 추풍령을 넘어 8월초 락동강계선으로 진출하였다. 대전을 잃고 최후지탱점인 대구로 몰리는 적들을 아

군주력부대들은 계속 추격하고있었다.

도중에 그는 미군부대를 종군하던 영국 《옵써버》 기자 필립쁘 띤을 만났다.

영국기자는 7월 23일 영동을 떠나 미군땅크중대로 찾아가던 중 도로를 차단하고있던 인민군병사들에게 포로되였던것이다.

소좌를 단(김사량은 서울해방후 소좌로 됨.) 군관이 류창한 영어로 자유롭게 통역하는것도 놀라왔지만 그가 인민군종군작가라는것을 안 영국종군기자는 동업자라는 의미에서인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듯 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활기를 띠고 미군병종들은 싸울 의욕을 잃고 대단히 사기저락되였지만 인민군대는 미군들이 말하듯이 전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용감히 싸움으로써 대전을 방어하던 미군부대를 완전히 괴멸시켰다고 하면서 당신네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자신들의 행동이 정의의 행동이라는 신념을 가지고있으며 그 신념을 위하여 당신들은 단호히 투쟁하리라는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만약 내가 조선말을 할수 있다면 이 사람들과 직접 담화하고 그들에게서 인간성에 대한 인상깊은 보도를 얻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사량은 속으로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서방의 관점에 서있는 서방기자가 한 실토야말로 가장 객관성을 띤 정의로운 말이 아니겠는가.

김사량은 기자는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서 진실만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당신은 비전투원인 까닭에 국제법과 우리 공화국의 인도주의적조치에 따라 처리될것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는 영국기자의 말을 주제로 하여 또 글을 썼는데 이렇게 즉석에서 써낸 글은 아군부대의 전투원들에게는 필승의 신념을 더해주었고 적군병사들에게는 무서운 염전과 괴멸의 공포를 안겨주었다.

후날 적들까지도 김사량이 쓴 전선종군기들은 《포신이 없는 무서운 대포》라고 비명을 질렀다. 인민군장병들은 그의 종군기에서 언제나 새 힘을 얻었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여 전쟁은 반드시 공화국의 승리로 끝난다는 필승의 신심을 받아안았다.

이 모든것은 종군기들에 비낀 김사량의 무비의 헌신성과 영웅적위훈을 말해주고있거니 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그 종군기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사에 대한 연구에서 더더욱 큰 가치를 가지는것은 바로 그때문이다.

## 피젖은 락동강반의 전호속에서

락동강!

이 말을 조용히 외우면 삼천리강토의 남단을 흐르는 이 강이 전쟁을 겪은 모든 조선사람들, 조선전쟁사에 대하여 아는 세계의 량심들에 력력히 새겨져있는 1950년대 조선전쟁의

가혹성, 참혹성과 함께 빛나는 영웅성에 대한 추억도 뜨겁게 불러일으켜준다.

피가 흘렀던 락동강이여, 그대 70년이 지난 오늘에도 잊지 않았으리라. 바로 그대 품에서 얼마나 많은 인민군용사들이 한치한치의 땅을 위해, 한치한치의 전진을 위해 혈전에 혈전을 거듭했던가.

벌써 8월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작전적방침에 따라 남진하는 인민군용사들은 치렬하게 벌어지는 전투의 련속속에서도 진격속도를 높이여 드디여 조국의 마지막장강 락동강 대안에 이르렀다.

인민군전사들의 눈앞에 락동강의 유유한 흐름이 펼쳐졌다.

아, 락동강! 여기까지 오면서 승리의 계선을 향하여 달려온 나날은 그 얼마였으며 피흘리며 쓰러진 용사들은 또 얼마였던가.

인민군용사들의 가슴에는 격정이 끓어올랐다. 김사량의 심정은 그보다 더하였다. 피로 쓴 종군기들과 더불어 예까지 달려왔다는 생각에 그는 울먹이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압록강과 두만강, 대동강과 청천강을 비롯한 북녘의 물을 마시고 자라난 병사들로서 눈앞에 펼쳐진 조국의 남단을 꿰질러 부산을 거쳐 남해로 흘러드는 락동강의 풍경을 안아보는 감회는 참으로 류다른것이였다.

조국의 남단에 있는 강이였지만 북녘과 다른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무성한 갈발사이로 여기저기에 펼쳐진 참대숲뿐이였고 시원한 물맛이며 강기슭의 그윽한 목가적인 정서도 압록강이나 대동강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억양높은 령남과 호남특유의 사투리와 함께 어디선가 예로부터 전해온다는 이 고장의 구성진 민요가락이 시원한 강바람에 은은히 실려오는것만 같았다.

봄마다 봄마다 불어내리는 락동강물
구미벌에 이르러 넘쳐넘쳐 흐르네
흐르네 에 헤야
…

태백산줄기의 험준한 골짜기들에서 터진 무수한 샘줄기들이 한데 모여 이룬 사방 수십여개의 강흐름을 지류로 삼고 유구한 세월 령남벌을 적시며 남해로 흘러드는 우리 나라 3대 장강의 하나인 락동강은 《만목숨 만만목숨의 젖이 된다네》라는 남도민요의 구성진 가락처럼 령남벌의 젖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던 락동강이 이제 와서 침략자들과 판가름하는 가장 치렬한 대결장으로 화하여 불과 불이 맞부딪쳐 화염이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강이 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김사량은 해방전에 락동강일대를 와본적이 여러번 있어 이

지대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런데 락동강좌안의 깎아지른 듯 한 절벽이며 산봉우리들, 강뚝들은 모두 아군을 노린 적들의 거대한 불구멍으로 되여버림으로써 이제 와서는 강기슭의 고즈넉한 정서란 도무지 찾아볼수 없게 되였으니 그의 마음은 쓰리고 아팠다.

태평양을 건너온 양키무리들의 구두발에 어지러워진 락동강물결우에는 남녘땅인민들의 사무친 원한이 비껴흐르는것 같았고 강기슭을 스치는 물소리조차 눈물과 고통속에 참을 수 없는 수난을 어서빨리 끝장내달라는 남녘동포들의 피타는 절규와도 같았다.

시원한 강바람에 멀리 남해의 비릿한 바다향기가 물씬 풍겨오는듯 인민군전투원들가운데는 난생처음으로 바다와 맞다들게 된 산골내기들도 있었다.

아, 락동강, 이제 우리는 너를 건느리라!

김사량은 이렇게 소리치며 인민군전사들을 정겹게 바라보았다. 신들메를 조이는 인민군용사들은 락동강을 마치 힘겹게 달려온 마라손주로의 결승선으로 생각하며 도하준비를 다 그치고있었다.

락동강을 피로 물들이며, 아니 피가 흐르는 락동강을 드디여 도하하여 30리 떨어진 왜관을 해방하고 8.15를 맞게 된 인민군전사들과 더불어 김사량의 감회는 남달리 컸다.

8.15! 해방의 그날을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이 흘린 피는 그

얼마였던가. 헌데 오늘 또다시 그 8.15를 지키고 전 남녘땅을 해방하기 위하여 또 피를 흘리고있지 않는가.

명절을 계기로 김사량은 중좌로 승급되였다. 뜻깊게 8.15를 보낸 김사량은 성주, 고령, 합천 등 대구를 옆구리에서 압박하고있는 락동강대안의 인민군대부대들의 전투상황을 돌아보고 락동강도하작전을 취급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가 자기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쓴 종군기들중의 하나인 《락동강반의 전호속에서》였다.

아무리 락동강일대에서의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위훈을 잘 그려낸다 해도 김사량의 종군기 《락동강반의 전호속에서》를 대신할수 없다. 불과 불이 오가는 전장의 한가운데서 함께 피를 흘리며 쓴 종군기, 그 글발마다에, 그 글줄마다에 맥박치는 그 종군기의 숨결을 어떻게 오늘날에 그대로 재현한단 말인가.

아래에 《로동신문》 1950년 9월 3일부와 4일부에 실렸던 살아 숨쉬는것 같은 종군기의 전문을 전한다.

### 락동강반의 전호속에서

#### 1. 도하작전

개전이래의 처참가렬한 격전이 락동강반에 전개되고있다.

노도와 같이 내닫는 아군의 맹렬한 추격에 철교와 인도교

를 파괴하고 달아뛰던 미군과 《국방군》은 돌아서서 락동강 반에 대병력을 집결하고 최후적방어전에서 최후의 발악을 다하고있다.

대구서부의 《국군》과 미국놈들의 악마적인 인민도살과 초토전술은 더욱 발광상태에 이르고 적공군의 폭격과 기총과 로케트포의 사격은 문자그대로 발악을 다하고있다.

대구까지 떨어지면 전혀 살길이 없는 놈들이다.

대구를 중심하여 아군의 그물은 차츰 조여들고있다. 대구는 여기서 불과 100리다.

미군과 《국방군》의 주력은 지금 락동강대안고지에 총집중하였다. 우리 주타격방향에서 여직 자취를 감추었던 《국방군》까지 최후의 이 결전에 동원되여 미군과 협동작전을 전개하고있다.

대구의 방송은 넉두리처럼 《최후의 결전》, 《최후의 결전》하고 자기네의 장송곡을 부르고있다.

락동강대안에 집결한 적의 병력은 지금 미군 2개 사단으로 추정된다. 놈들은 지극히 유리한 지형을 리용하여 모조리 고지에 떼몰려 욱실거린다. 그리고 적의 방어선은 70리의 길이에 이르는 이른바 《철옹성》이다.

적공군은 밤낮없이 하늘우에 살고 대안으로부터 155㎜포를 위주로 하여 포는 있는대로 퍼붓고 총탄은 비오듯 한다.

놈들은 락동강을 포탄과 폭탄과 총탄으로 덮어누르고있다.

놈들은 락동강에 무쇠의 담벽을 내려씌우려 한다.

그러나 8월 ㅇㅇ일 밤 무쇠의 담벽은 드디여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밤 19시부터 이튿날 8시까지 아군전선부대들의 대규모적인 도하작전이 결행되였다.

아군진지로부터는 일제히 포문이 열리였다. 무쇠를 짓녹이는 불꽃이 대안일대를 휩쓸어덮는다. 공중에는 쌍방의 포탄이 그물을 엮듯 오가고 조명탄은 락동강의 흐름을 창백하게 전률시켰다.

이때 돌연 땅크떼와 씨마호트(자행포)떼가 강안에 나타나더니 갑자기 맹렬한 포화를 퍼붓기 시작한다.

적군 전선1대는 아연 급살맞게 헤덤비며 항공대는 공중을 가로세로 째며 미칠듯이 날뛰고 총포탄과 폭탄은 강우에 폭풍우를 일으켰다. 그러나 불을 퍼붓는 우리의 무쇠바위(땅크의 형상적표현)들은 꿈쩍도 않는다.

그런데 보라! 그것들이 갑자기 지동을 일으키더니 불속으로 기여들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움직이는 무쇠의 바위들! 우리들의 땅크떼가 왜관을 향하여 정면도하를 결행케 된것이다.

이와 거의 같은 순간이였다. 땅크떼의 도하지점에서 5～6㎞ 상류에서는 갑자기 산하를 뒤흔드는 함성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아군의 치렬한 포사격이 대안과수원일대의 적군들을 짓

조기는 가운데 우리 보병부대들의 장렬한 도하가 시작된것이다.

300～400m의 화광과 급류속에는 아군들의 철갑모가 새까맣게 범람하였다.

모두 높이 추겨든 한손에는 따발총, 보총, 경기 등 각종 무기가 번뜩인다. 어깨에는 중기며 박격포들을 떠지였다.

으와— 으와— 소리치며 풍우를 몰아가듯 물속을 내닫는 도하부대들의 함성—

도하는 삽시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였다. 한 부대의 도하소요시간은 1시간 반가량, 적군은 완전히 혼돈되였다.

불의의 지점에서의 대부대의 도하에 벌둥지를 쑤신듯 뒤끓기 시작하였다.

제1선에 내세웠던 《국방군》이 아우성을 치며 퇴각을 개시하여 제2, 제3선에 물러서자 치를 떨고있던 미군들이 황겁하여 퇴각부대에 총포탄을 퍼부어 한참동안 놈들끼리 맞총질이 벌어지는 대혼란이였다.

그러나 놈들에게는 진퇴량난간에 죽음이 있을뿐이다. 죽음의 구렁속에서의 놈들의 최후발악은 다시 계속되였다.

고지는 모두 놈들것이였다. 박격포탄과 각종 포탄이 쏟아져나오며 총탄이 콩볶듯 한다. 이속을 아군부대의 가렬한 진격이 강줄기를 타고 왜관쪽으로 개시되였다.

부대장동지의 진격명령이 전달된것이다.

전사들은 모두 철갑모끈을 고쳐매였다. 번쩍번쩍 포화가 튀는 가운데 전사들은 대렬을 정돈하였다.

서울입성때에 영웅적투쟁을 한 뒤 한강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입원치료중이던 군부대장이 이 도하작전을 지휘하러 엊그제 달려온것이다.

열네살부터 항일빨찌산에 참가하여 반생을 시종일관 조국해방투쟁에 종사해온 열혈애국지사! 아직도 상처가 채 낫지 않은 모양이였다. 다리가 약간 절름거리였다.

부대장동지의 명령을 엄숙히 전달한 뒤 짚고 다니던 막대를 높이 쳐들며 웨친다.

《나가자! 앞으로!》, 온몸이 모두다 빳빳이 굳어지는듯하였다.

군부대장은 선두에 서서 한다리를 끌며 내닫는다. 모든 전사들은 일시에 발사된 포탄처럼 몸을 치솟구며 그뒤를 내닫기 시작하였다.

그렇다. 우리 장병들은 모두가 다 포탄인것이다.

## 2. 336고지의 영웅들

락동강대안은 치마를 두른듯 첩첩 산이다. 도하지점에서 30리 하류의 왜관을 해방하고 대구에로의 대통로를 개척하려면 적군의 고지들을 점령치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적군부대와의 고지쟁탈전이 미증유의 가혹한 양상을 띠고 전개

되였다.

지형은 적에게 지극히 유리하였다. 매개 고지로부터 적군이 포탄을 우박처럼 퍼붓고 기관총탄은 장막을 두를 지경이다. 하늘에서는 적공군이 련달아 급강하를 하며 폭탄과 기총소사를 퍼붓는다.

1분1초도 숨돌릴 사이가 없는 순간들의 련속! 그리고 그것은 한치의 땅을 다투는 처참한 싸움이였다. 낮에 밤을 이어, 낮에 밤을 도와 처처에서 돌격전이 그냥 계속되였다.

적공군의 기총소사와 맹폭격을 피하는 길도 이 돌격이였다. 서로 섭쓸려 돌아가며 수류탄싸움과 창격전이 벌어질 때 하늘을 뒤덮는 적공군도 어쩔줄 모르고 태치듯 공중걸이를 할뿐이였다.

적군의 포들도 갈팡질팡거릴뿐 별도리가 없었다.

《돌격 앞으로!》의 구령소리가 여기저기에 비발치듯 하고 총창을 내두르며 돌격하는 만세소리가 골짜기마다 진동하였다. 적군을 쳐엎으며 진격하는 그 뒤자리마다 부질없이 적공군은 내달으며 빈 골짜기며 돌작지와 숲속을 가릴것 없이, 갈아엎듯이 맹폭으로 짓녹이였다.

도하점앞의 과수원들속에서는 첫날밤부터 가장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다.

과수원이 련달린 이 남률동일대는 적군들의 피로 물들고 시체로 키를 높이였다. 미국놈과 《국방군》놈과 우리 전사들

이 같은 나무에서 같은 과일을 같이 따먹으며 서로 총부리를 맞대는 그러한 육박전이였다. 서로 며칠씩 굶었기때문이다.

정신없이 쓰러졌다 일어나면 적들과 같이 누워있다. 먼저 일어나기내기였다. 캄캄한 속에서 같이 밥을 먹고 날이 밝고 보면 적이였다. 이러한 혼전, 란전이였던것이다.

이와 같은 전투환경속을 아군전사들은 맹호떼처럼 이리저리 날뛴다. 어둠속을 더듬어 하이칼라머리가 끌어잡히기만 하면 단도를 푹푹 찌르며 내달리기도 하였다.

새파란 눈알이 어둠속에 빛나기만 하면 날창으로 꿰뚫었다.

이러한 용맹들이 도대체 어데서 나오는건가?

남의 나라 통일싸움에 공중걸이로 뛰여든 미군야수떼들에 대한 불같은 적개심과 끝끝내 조국과 인민에게 칼을 들고 반역하는 《국방군》반역도당들에 대한 분격이 가슴속에 타오르며 이것들을 우리 국토에서 죽여없애지 않는 한 조국의 통일과 인민의 행복이 없음을 알기때문이다.

미국놈들의 총탄에 쓰러질 때 전사들은 억울해 차마 눈을 감지 못해한다. 《국방군》놈의 총탄에 쓰러질 때 전사들은 최후순간까지 이를 간다.

어느 누가 우리들의 진격을 감히 막을수 있을건가.

고지들을 향하여 아군은 불길이 타오르듯 펄펄 뛰며 달아올랐다. 적군고지가운데서도 락동강변에 깎아질린듯 솟아오른 336고지의 적들은 여기서 가장 완강하였고 또 그것은 가

장 높고도 적에게 유리한 고지였다.

거기로부터 중기와 경기가 비발치듯 퍼붓고 총탄이 폭포처럼 쏟아져내린다.

이 336고지 앞고지의 적이 전멸되자 그 고지를 사수할 중대한 임무가 고봉한소속군부대의 1개 중대에 내렸다. 이 중대에서는 일곱명의 결사대가 조직되였다.

그 이름 영원히 청사에 빛날 용사들의 결사대! 그들은 뒤고지 대부대적군의 맹렬한 집중사격과 적공군의 처참한 공습과 적군들의 반돌격속을 실로 련 사흘 그야말로 사수하며 아군부대의 진격을 지원엄호하기에 성공한것이다.

아직 그 동무들 매 개인의 이름과 영웅적인 전투모습은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들이 또한 나래를 편듯 산에서 내려와 진격부대와 같이 그냥 앞으로 진격하였기때문이였다.

중상을 당하여 산밑으로 끌려내려온 한 전사로부터 몇마디 그때의 정경을 들었을뿐이다.

모두 하나같이 빛나오르는 공화국의 영웅다운 모습들! 그 우람찬 용감성, 숭고한 전우애, 고귀한 희생정신!

리종렬군관의 지휘밑에 적들의 거듭되는 반돌격을 낮도 밤도 없이 격퇴하는 치렬한 전투속에 그들은 벌써 몇끼씩 먹지 못하였었다. 목이 찢어지게 타오르고 다리가 휘청거린다. 기관총신들은 불같이 달아오른다.

물, 물! 모두들 웨치였다. 물은 운반되였다. 그러나 그들

은 짐짓 놀랜듯 손을 당기고 그것으로 총신들을 식히며 마른침을 삼키였다.

번듯할 사이면 적군들이 또다시 밑으로부터 기여오른다. 그들은 중기와 경기를 틀어쥐고 적군에게 불벼락을 들씌우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그들을 배밀이로 찾아다니며 주머니속에 건빵을 한줌에 넣어주는 동무가 있었다. 그것은 민청위원 박호상전사였다.

이런 경우를 예상하여 그는 떠날 때 미리 건빵을 한자루 걸머지고 왔었다. 그는 우리들이 최후까지 싸우며 죽을 자리가 여기라고 웨치며 적군들에게 달려들며 총탄을 퍼부었다.

이때 경기수 한동무가 어깨에 적탄을 맞고 쓰러졌다. 그는 경기를 안아들고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불개미들처럼 기여오르기 시작한 적군놈들은 이번에는 수류탄을 던져왔다. 놈들의 새로운 《결사대》인것이다.

우리 용사들은 바위를 끼고 달려내려가며 기관총탄을 퍼붓고 또 수류탄을 던지고 부상자들은 잔등으로 바위를 떠밀어내렸다.

마침내 박호상동무도 왼손에 부상을 당하였다. 그 순간 총대가 풀썩 떨어졌다. 그 경기를 다른 동무가 잡았다.

한동무가 달려와 그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며 어서 후퇴하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그는 응하지 않았다. 이때 아군

의 탄약은 거의다 떨어졌다.

위생병 리종모동무는 간밤에 적군이 버리고 달아난 중기와 탄약 세상자를 어디에선지 주어메고 달려왔다.

전사 림치규동무가 그 중기를 그러안고 또 기여오르기 시작한 적군들의 머리우에 불을 퍼부었다.

박호상동무는 고지우를 두루 헤매며 탄창들을 가슴에 안고 팔에 걸고 입으로 물고 배밀이로 다가들며 《동무들, 탄약이 있다. 탄약있다!》고 웨치더니 그 자리에서 기진하여 쓰러졌다.

출혈이 심하였던것이다.

## 3. 전호속의 8.15

락동강전선일대에 13일 20시 정각에 총공격령이 내려 아군진지로부터는 맹렬한 포사격이 전개되였다.

도하부대와의 격렬한 전투끝에 퇴각을 개시한 적군부대들의 머리우에 아군의 포탄이 불벼락을 터치기 시작하였다.

우리들의 군단포도 계속해 울리였다. 물건너 산을 넘어 적진속깊이 포탄들이 날아가는 소리가 우렁우렁 이상한 공기의 진음을 일으킨다.

놈들은 우리 군단포의 포탄을 소리없는 비행기의 폭탄이라고 부르며 치를 떤다.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게 떠와서는 근 100m주위를 가뭇없이 쓸어엎군 하기때문이다.

간밤에도 군단포는 사위를 제압하며 울리였다. 중기도 쉴사이없이 밤새껏 덜거덕거렸다.

이 총공격가운데 우리는 8.15 5주년 기념일을 중부전야의 전호속에서 맞는다.

이날 4시 정각 우리 땅크부대와 기계화보병부대는 왜관을 완전히 해방시켰고 또 ㅇㅇ부대는 퇴각하는 적부대들을 추격하며 계속 산악전을 전개중이라는 회람판이 우리 전호속으로도 전달되였다.

우리들은 모두 벌떡 일어나 앉았다.

대통로로 내달리면 대구는 이제 60리, 70리이다. 적진영의 가슴패기에는 바람구멍이 뚫리였다.

얼마나 격렬하고도 엄혹한 전투가 계속되던 그날이였던가.

놈들이 손을 들지 않는 한 죽음은 눈섭앞에 있다. ㅇㅇ부대가 또 벌써 성주앞으로 곡선을 질러 과감히 락동강을 도하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다.

대구의 옆구리에 비수를 찌르는것이다.

멀리 동부와 남부전선에서도 인민군대가 대진출을 했다는 적들의 비명적인 보도가 대구방송으로도 나왔다. 놈들의 잔등을 지지며 발밑을 후비는 불찜질이 가까왔다.

놈들은 이제 어디로 갈것인가.

정찰대원의 보고가 또 지휘부로 들이닫는다. 미군놈을 70여명 포로했고 또 한 분대가량의 병력은 자진투항해왔다고

한다.

모두 총들을 던지며 옆차기에서 삐라를 꺼내여 펄럭거리며 우먹다리속에서 기여나왔다는것이다. 그것은 아군이 적진속에 뿌린 영문으로 된 투항권고문이였다.

우리들이 전호속에서 8.15축하의 오찬회를 열고 즐기고있을 때에도 이와 같은 미군의 투항소식은 계속해들어왔다. 놈들의 최후진영은 이제 와서 완전히 와해상태에 이르렀다.

패망당한 적들의 림시《수도》 대구방면의 이야기는 도깨비의 전설처럼 바람결에 들려온다.

서울서부터 도주한 류랑가족과 각처 연선에서 끌려간 난민들이 적군부대와 더불어 2, 3백만 대구시내에 들끓는다는 등, 《국방군》과 경관대놈들은 난민들을 앞줄에 내세우고 총알받이로 만들었다는 등, 쌀소두 한말에 2만 5천원을 한다는 등, 시내에 빨찌산이 쳐들어갔다는 등, 대량적인 인민학살이 시작되였다는 등, 부녀자들을 모조리 겁탈하며 사살한다는 등, 전염병이 만연중이라는 등, 아군부대의 일부가 시가전을 전개하는중이라는 등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린다.

이래저래 놈들의 최후가 재촉되는 소리뿐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미해방지구 선량한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우울한 근심속에 잠긴다.

그러나 해방의 거보는 이날, 이 순간에도 한걸음한걸음 내닫고있다. 참호속에서 맞는 력사적인 8.15 그 감개는 더욱

무량하다.

우리 전선장병들에게는 어제 새옷들이 나오고 오늘 담배가 공급되고 후방인민들로부터의 따뜻한 위문품이 전달되였다.

그리고 각 부대에서는 떡을 치고 소를 잡았고 참호속으로는 술까지 공급되였다.

후방에서는 군대와 인민들간에 경축오락대회가 조직된다고 한다.

오늘도 놈들의 항공대는 우리 전선일대를 헤덤비며 돌아간다. 이것은 남의 잔치를 방해하러 다니는 불망나니떼에 다름없다.

우리들의 대공화력이 일제히 불을 토한다. 포성은 그냥 요란하게 앞뒤에서 울린다.

전호속에서는 노래소리가 들린다. 싸움속에 승리를 축하하며 승리속에 싸움을 재촉하는 8.15!

우리들은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오늘의 조국과 이날의 승리를 있게 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최고사령관이신 내각수상 **김일성**장군의 건강을 위하여 전사들과 같이 축배를 든다.

또 최전선에서 이 순간도 쉴 사이없이 적을 쳐부시며 전진하고있는 장병들의 승리의 계속을 위하여 축배를 든다.

새로 해방된 인민들의 기쁨을 위하여, 아직도 해방되지 않은 지대의 인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

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하려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는 가운데 축배는 또 거듭되고 거듭된다.

래일의 대구에로의 진격을 위하여 우리들은 어느 누구의 기지에서 장만되였다는지 모를 대구어를 찢으며 임의의 적군 잔여부대들을 억센 기세로써 삼키고있다.

이때 여러 전호속에서 갑자기 와— 하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였다. 적공군의 습격기 한대가 불을 토하며 맞은편 산언덕 중허리를 향해 막 틀어박는중이였다.

그렇다. 고사포의 은은한 포성들은 이날의 축포다. 불을 쓰고 떨어지는 적항공기의 최후는 바로 놈들의 최후화상이다.

이날이 어두우면 우리 전선 각 구분대에서는 영예로운 훈장수여식이 열린다.

1950년 8월 15일

종군기는 여기서 끝났다.

구름너머 저 멀리 검푸른 남해바다가 바라보이는 락동강기슭에까지 달려온 인민군전투원들은 뜨거운 감격에 휩싸여 시원한 강바람에 땀젖은 모자를 벗어들고 얼싸안고 돌아갔다. 사량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웨쳤다.

《남해가 보인다!》

바다와 하늘이 맞붙은것 같은 수평선너머로 남해의 푸른

물결이 인민군용사들을 마중하듯 갈기를 쳐들고 밀려오고 또 밀려와 처절썩 기슭을 치며 어리광치듯 굼실댔다.

인민군전투원들은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웨치며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머금고 멀리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러 충성의 보고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조국땅에 기여든 원쑤들을 모조리 때려부시고 남녘땅을 완전히 해방할 때까지 우리의 승리적진군은 계속될것입니다.》

## 마지막종군기 《바다가 보인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초엽에 쓴 김사량의 종군기들과 정론, 수필, 선동글들은 조선문학사의 한 페지를 당당히 차지하고있을뿐아니라 조선전쟁사에 대한 객관적서술에서 자못 그 가치가 큰 사료로도 되고있다. 그중에서도 종군기 《바다가 보인다》는 김사량의 종군기들의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초급중학교 학생들의 문학교과서에까지 오른바 있는 종군기 《바다가 보인다》는 전후에 외국의 여러 출판물들이 엇갈아 실을 정도로 작가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난 애국적이며 전투적인 작품이였다.

바다가 보인다!

열혈의 심장만이 터칠수 있는 이 격동적인 종군기는 과연 어떻게 태여났는가.

남녘해방을 눈앞에 둔 그 력사적시기에 김사량의 심장은 매일이다싶이 크나큰 격정과 감격으로 달아올라있었다. 왜냐하면 바야흐로 온 조선땅에 **김일성**장군의 찬란한 해발이 속속들이 비쳐질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김사량은 8월 하순경에 서남전선을 휩쓸며 질풍같이 내달려 여러 지역을 해방하고 락동강을 도하하여 남해안의 마산, 진해, 부산으로 지향하고있는 사단으로 종군거점을 옮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락동강전선에 막대한 군수물자를 확보한 적들이 증강된 병력과 기술수단에 의거하여 최후의 방어거점인 《부산근거지》를 고수하려고 발악하는 조건에서 침략자들을 최종적으로 격멸소탕하기 위한 전쟁 제1계단 제5차 작전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하여 전선의 인민군련합부대들은 재편성되고 김사량이 속한 집단이 총공격으로 먼저 행동을 개시하게 되였다.

김사량이 거점을 둔 부대는 타격집단의 우익을 차지하고 광대한 지역에서 작전하며 남쪽끝인 마산, 진해, 부산으로 진공하게 되여있었다.

지휘부는 진주 개양에 있었다. 김사량은 거기서 여러 전우들과 반가운 상봉을 하였다. 인상깊었던것은 종군하던 날 같이 명령을 받았던 조선중앙통신사 종군기자 송영복을 만나고

문화부 일군 리서영과도 만난것이였다.

송영복은 평양에서 갈라진 후 평택전장에서 잠간 보고 남해전선에 와서 다시 만났다. 리서영은 수원에서 헤여진 후로 처음이였다.

사량이 창문에 모포를 친 련대문화부의 여윈 불빛밑에 돌아앉아 수첩을 뒤적이며 글을 쓰고있는데 문소리와 함께 웬 군관이 다가와 팔에 낀 그의 완장을 유심히 내려다보다가 《이거, 김선생 아니시우?》 하고 반색하였다.

《아, 리동무!…》

김사량도 너무 뜻밖이여서 일어서며 리서영을 와락 그러안았다. 수원에서 볼 때보다 얼굴이 새까맣게 탄것을 보고 지난 두달동안 얼마나 수고했겠는가를 짐작할수 있었다.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다 이렇게 만나는구만!》 하고 김사량은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부산, 제주도까지 가기 전에야 죽어서는 안되지요. 김선생의 신상이 좋지 않습니다.》

리서영은 전화에 그슬린 김사량의 구리빛얼굴에 가득 실린 피로와 몹시 부석부석해진 모상을 보고 걱정되여 말하였다. 김사량이 심장병을 앓고있다는것을 그는 알고있었다.

《일없소. 한번 푹 자고나면 부기도 빠지고 기운이 우쩍우쩍 솟는다오.》

그러면서 김사량은 수원에서 그와 헤여진 후 보고 겪은 수

많은 격동적인 전투실담과 함께 몇번이나 불속에서 살아난 기적적인 사실을 마치 남의 말을 하듯 싱글벙글거리며 이야기하였다. 숨이 찬듯 도중도중 헉헉하였다.

《제1선에서 그만치 산 체험을 했으니 이젠 후방에 들어가 치료를 받으며 글을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리서영은 그의 건강이 많이 악화되였다는것을 짐작하고 진심으로 권고하였다.

《리동무, 내 동무와 전쟁전에 작품을 써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아직 못했소. 이만한 종군밑천을 가지고는 안되겠소. 나는 마산, 진해, 부산까지 가려고 여기로 왔소.》라고 하면서 김사량은 자기도 방금 몇시간전에 락동강전선에서 가장 주요한 열점지대로 될 이곳으로 왔다고 하였다.

그가 쓰고있는것은 남반부인민유격대의 투쟁실기로 될 《지리산유격구를 지나며》였다. 이때의 김사량의 활동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다.

《사단지휘부와 행동을 같이하던 사량선생은 진주 개양에서 창작을 하였습니다. 밤새워 글을 썼는데 나는 그때 그에게 식사도 날라다주고 목달개도 달아주었으며 등불심지도 돋구어주었습니다. 락천가였지요. 전사들과 놀 때는 흠이 없었습니다. 말도 아주 잘해서 전사들과 친숙했고 롱담도 많이 했지만 글쓸 때는 누구와도 말을 안했지요. 한번은 미군장교 한놈을 잡아왔는데 영어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사단정찰조에서는

포로놈을 사량선생에게로 끌고 갔지요. 선생은 영어뿐아니라 도이췰란드어, 일어, 중어, 로어를 잘 알아서 전사들은 만능 통역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장교놈은 우리와 말이 통하지 않아 손발흉내를 내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하다가 영어를 류창하게 하는 사량선생을 보자 눈이 퀭해져서 하느님이라도 만난것처럼 좋아하였습니다. 선생이 그놈에게서 숱한 요긴한 비밀을 다 뽑아냈지요.》

이것은 6사 후방부사단장의 련락병이였던 주정길(회상당시는 외국문출판사의 번역원)의 회상이다.

사단이 새로운 공격준비를 하는 기간 지리산유격구종군기를 완성한 김사량은 그동안 볼새 없어 묵여두었던 문화부신문철을 들춰보다가 김조규의 종군시를 발견하고 기뻐서 어쩔줄 몰랐다. 《로동신문》 1950년 8월 25일부에 게재된 《이 사람들속에서》였다.

사량은 김조규를 다시 보는듯 하였다. 내친김에 그 종군시를 단숨에 읽어내려갔다.

내 어찌 비겁할수 있으랴?
이 싸움에서 우리 어찌 승리하지 않으랴?
원쑤를 쳐부시는데
스스로 몸이 지뢰가 되는
이 젊은이들속에서

내 어찌 비겁하랴
우리 어찌 승리하지 않으랴

오오, 이렇게 넘어온
승리의 첩첩준령이 몇몇이련고
이렇게 건너온
해방의 류류 장강이 몇몇이련고
이제 마지막
소백산줄기에도 갈령
저 마루 넘어서면
령남에도 상주 무연한 벌에
이랑마다 공화국기 꽂으며 내달으리니

울어라! 120미리
불을 내뿜어라!
사랑하는 내 따바리야
자빠지는 미국놈들의
주검을 차버리며
목포, 부산, 제주로 내닫자!

김사량이 시의 창작날자를 보니 《1950. 7》로 되여있었다. 그러니 소백산을 넘어오기 전에 쓴것이 분명하였다. 참

좋았다. 솔직하고 진실하면서도 시를 읊을 때는 정열에 못이겨 인상적인 조개턱을 부들부들 떨던 골격이 굵은 김조규의 소박하고 정다운 성품과 인격이 날날이 드러나보이는 훌륭한 서정시였다.

전선으로 나올 때 철원까지 동행하고 김조규는 제15보병사단을 따라 춘천쪽으로 나갔었다. 지금쯤은 어데 있는지? 시구절에 갈령이요, 상주 무연한 벌이요 하는 표현들이 있는것을 보면 그는 충청북도쪽으로 하여 령남으로 들어간듯 하였다.

김사량의 추측이 옳았다. 춘천을 해방하고 경기도로 들어가 려주, 장호원을 장악하고 차령산줄기를 넘어 충청북도 음성으로 곧바로 전진한 김조규는 여러 지역에서 발악하는 적들을 격파분쇄하는 부대를 따라 괴산, 미원리계선에 진출하여 이제 극복하여야 할 소백산줄기의 험준한 장벽들을 쳐다보며 이 시를 창작하고 괴산—상주사이의 갈령을 넘어 경상북도땅에 발을 디뎠다.

김사량이 시에 심취되여있는것을 보고 신문을 같이 읽던 송영복이 한마디 하였다.

《시라기보다 한편의 격동적인 정론입니다. 전사들이 많이 외우는 시지요!》

전투원들속에 들어가 정치선전사업을 많이 하고있는 송영복은 자신도 이 시를 가지고 선동연설을 한 일이 있다고 하였

다. 그자신이 《남해전선에서》라는 전투실기를 련재물로 쓰고있던 송영복은 경상남도의 라동면과 정촌면에 취재나갔다가 어린 학생들도 이 시를 암송하고있는것을 보고 감동했던 사실을 말하였다.

김조규의 시는 정열적인 문필가인 김사량에게 고무로 되였으며 새로운 창작적충동을 주었다.

《울어라! 120미리/ 불을 내뿜어라!/ 사랑하는 내 따바리야》 하는 대목이 특히 인상적이였다.

사단에는 드디여 마산으로 진격하기 위한 전투명령이 떨어졌다.

김사량은 작전상의 중요성으로 보아 가장 치렬한 전투가 예견되는 마산포위전의 우익을 담당한 부대에 편승하였다. 기본임무는 마산의 문턱이라고 할수 있는 서북산을 타고앉는것이였다. 해발고가 738m인 서북산은 마산, 진해, 함안일대의 지배적고지로서 마산으로 들어가는 도로들과 마산의 량옆 함안과 진동리를 련결하는 횡단로를 차단하는데서 관건적고리로 되고있었다. 지금 그 도로들로는 놈들의 기계화부대의 땅크들과 자동차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아군의 진격을 막아보려고 발악하고있었다. 서북산을 장악하면 그것을 제압할뿐아니라 진해항과 마산만으로 군수물자를 끌어들이며 아군진지들에 함포사격을 함부로 들이대는 적함들의 기를 꺾어놓을수 있었다.

부대에서 작전을 앞두고 결의모임을 할 때 많은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자진하여 돌격로를 열것을 결의해나섰다.

《부대장동무, 나도 돌격로를 여는 전투원명단에 넣어주시오.》 하고 김사량은 부대장앞으로 나서며 말하였다.

어둑시근한 등잔불에 김사량을 알아본 부대장은 《아니, 로량진에서 만났던 종군기자선생이 아니요? 어떻게 여기까지…》 하고 놀라와하였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지만 선생은 우리 부대의 군적에 없습니다.》라고 부대장은 말을 이었다.

《그러면 신입대원으로라도 내 이름을 꼭 넣어주시오.》

나이로 보면 부대장이나 김사량은 거의 동년배였다. 깊이 감동된 부대장은 존경어린 시선으로 작가를 바라보다가 근엄한 표정으로 천천히 그앞에 거수경례를 하였다.

《기자선생(그는 김사량을 종군기자로 알고있었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을 줍니다. 하지만 선생이 전투에 참가하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 부대에 주신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원들에 대하여 누가 글을 써주겠습니까. 우리는 위험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선생은 여기 남아주시오.》

부대장은 진심으로 말하였다.

김사량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참모장과 행동을 같이할수 있다는 승낙을 받아냈다. 그는 화선으로 나가는 참모장과 동행하여 달도 뜨지 않은 밤길을 불을 끈채

찌프차로 달렸다.

무수한 적자동차와 땅크들이 불에 타고 깨여져 길을 막고 있는 격전터를 간신히 빠져나가 부락에 도착하니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들과 문화부 일군들이 대기하고있었다. 구체적인 작전계획이 토의되고 전투임무가 하달되였다. 회의에 참가한 김사량은 참모장의 권고로 적후로 들어가는 습격조앞에서 선동연설을 하였다.

…동무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충직한 전사로서 혁혁한 승리를 이룩하며 여기 남해의 최남단까지 진격하였다. 오늘 밤 적후에 들어가는 동무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다. 부대의 승리, 아니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이 전쟁의 마지막승리가 동무들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돌아오는가에 달려있다. 조국은 동무들의 위훈을 잊지 않을것이며 승리와 더불어, 조국의 번영과 더불어 동무들은 영생할것이다. …

대대장 리기엽이 직접 인솔하고 떠나는 습격조원들은 중좌견장을 단 허우대큰 작가를 돌아보고 손을 흔들며 《거, 김사량이라는 사람이 대단하구만!》 하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김사량은 참모부성원들과 같이 골짜기아래 대발속까지 그들을 전송하였다.

날이 밝기 전에 김사량은 참모장과 함께 서북산 1㎞지점인 메기늙으로 은밀히 이동하는 지휘부를 따라 여항면 옥방

부락근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벌써 아군구분대들은 서북산잔등에 들어박혔다.

서북산공격전투는 오후 18시 30분에 시작되였다. 아군 사단포, 련대포, 박격포들이 서북산고지의 적군화점들을 까부시며 놈들의 머리우에 멸적의 불벼락을 쏟아붓고 보병들은 나무도 풀포기도 자라지 못하는 60° 경사의 깎아지른 돌박산으로 공격해올라갔다.

서북산을 잃으면 진동과 함안이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따라서 마산과 진해는 울바자없는 허청간으로 되고만다는것을 잘 아는 적들은 난공불락으로 요새화한 고지우에 숱한 미정예부대, 《국군》병사들로 진을 치고 최후의 발악적인 저항을 시도하였다.

지휘부 가까운 소나무밑 은폐호속에서 망원경으로 전투장면을 바라보던 김사량은 참지 못하고 지휘관들이 만류하는것도 뿌리치고 송영복과 같이 전투장으로 올라갔다. 천지를 진동하는 포성과 수류탄폭발소리, 놈들이 고지우에서 뿜어대는 기관총소리 그리고 화염방사기의 불길과 연기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길이 턱턱 막혔다.

오후부터 비가 내려 전사들은 웅뎅이와 은폐호속에서 군복을 벗어 쥐여짜고는 한뽐한뽐 배밀이로 전진하였다.

그 복새통에서도 문화부 군관들은 철갑모도 없이 대원들속을 돌아가며 우스운 이야기를 섞어 선동사업을 하였다. 비에

함뿍 젖은 리서영을 발견한 김사량은 손을 들어 격려하였다.

적들의 저항은 상상이상으로 완강하였고 우리 전사들의 투지 또한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자연 전투는 철과 철의 부딪침, 불과 불의 부딪침으로 가렬처절성의 최극점에 달하였다.

돌바위고지와 벼랑바위고지가 점령당했는데도 적들은 서북산 상상봉으로 쫓겨올라가 암굴과 암반을 리용하여 3문의 중기와 경기를 걸어놓고 저항을 계속하였다.

전투는 밤새껏 계속되였다.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올무렵에야 전투는 아군의 승리로 끝났다.

《아! 동무들, 바다가 보인다!》

《남해바다다!》

고지상상봉의 최선두에서 사자마냥 달려들어 비명을 지르는 적들을 닥치는대로 찔러넘기던 전사들이 허리를 펴고 웨치는 소리였다.

먼동이 트는 수평선이 아득히 바라보이고 남해바다의 섬들이 올망졸망 디딤돌처럼 널려있는것이 눈아래로 굽어보였다.

아, 남해바다!

김사량은 우뚝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38°선이 가슴답답하게 앞을 가로막고있을 때는 그렇게도 까마득한 남의 나라 땅처럼 멀어보이던 남해바다, 《마산으로, 진해로, 부산으로!》 이렇게 웨치며 전우들의 시체를 넘고넘어 걸음걸음 피로 적시며 달려올 때는 죽어서도 기어이 가닿으리라던 남해기슭,

사시장철 대나무숲이 설레인다는 그 마산땅이 부르면 달려와 안길듯 지척에 보이지 않는가!

세찬 충동을 걷잡기 어려웠던 김사량은 전투가방을 무릎우에 놓고 동트는 고지의 바위우에 앉아 떠오르는 생각을 즉흥적으로 적어나갔다.

《…이제 피에 굶주린 잔악한 적군놈들을 물깊은 저 바다속으로 쓸어넣을 때도 머지않았으며 또 동남쪽의 끝항구 부산항도 여기서 얼마 멀지를 않으니 우리들의 귀중한 조국땅을 고스란히 끌어안을 때도 거의 림박하였다.

저 아름다운 남해바다도 우리들의것이다.》

이렇게 글을 써나가던 김사량은 김조규의 인상적인 시결구가 생각나 힘있게 적었다.

《아메리카깽, 그들의 항공대들아! 하늘을 덮으려거든 덮어보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들의 마음을 놈들의 요란치는 기관포도 꿰뚫지는 못하고 불을 터치는 휘발유통도 태우지를 못하리라!

아메리카해적들의 군함들아!

산고지들을 무너치려거든 무너쳐보라! 자유와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들의 진지를 놈들의 천둥치는 함포사격도 무너치지는 못하리라!

알 카보네의 후예들아! 승냥이처럼 떼몰려 상륙하려거든

상륙해오라!

평화와 영예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들의 국토를 놈들의 불꽃튀는 화력망도 빼앗지는 못하리라!

아! 울려라 우리들의 군단포!

노래하라!

땅크들이여! 원쑤들의 가슴을 파라!

모터찌클들이여, 구름처럼 달리라!

동무들, 돌격 앞으로!!

우리들은 고기비늘같은 만신의 상처들을 더듬으며 거인과도 같이 산악에서 내려가리라!

올림푸스산을 내려가는 제우스처럼 만천하에 빛을 뿌리며 거동하리라!

오각별삼색기 펄럭이며 위대한 령수 노래부르며 바다를 향하여 전진하리라!

바다가 보인다. 거제도가 보인다.

바로 여기가 남해바다이다.》

이것이 《1950. 9. 17》이라는 날자가 기록된 김사량의 유명한 종군기 《바다가 보인다》의 마지막대목이다.

김사량이 열렬한 조국애와 최후승리에 대한 불타는 갈망, 문장가로서 김사량의 잔잔하다가도 바위를 차고 내닫듯 호호탕탕하게 뒤번져나가는 섬세하고도 격동적인 필체와 정론가적열정이 집대성된 종군기 《바다가 보인다》를 완성하여 련

락군관편에 평양으로 발송한것은 그날 오전이였다.

우리들의 조국땅을 통채로 고스란히 끌어안을 날도 머지않았다고, 저 아름다운 남해바다도 우리들의것이라고 그렇게도 승리를 락관하며 땅크들이여, 모터찌클들이여 구름처럼 내달리라고 열렬히 부르짖었던 김사량. 그런데 9월 17일자로 된 이 종군기가 그의 마지막유고작품으로 남게 될줄을 누가 알았으랴!

《바다가 보인다》를 최고사령부로 보낸 후 김사량은 더는 원고를 보내오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10월 19일에는 그의 당원증이 당중앙위원회에 전달되고 그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와 종군수첩, 신분증이 작가동맹에 당도하였다.

강계에서 웬 군관으로부터 김사량의 당원증을 접수한 한 일군은 《사람은 어디 가고 당원증만 왔는가?》 하고 비통하게 부르짖었다.

과연 사람은 어디 가고 당원증만 왔는가? 조국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그렇게도 높뛰던 그의 열렬한 심장이 고동을 멈추었단 말인가?

아직은 누구도 그것을 말할수 없었다.

## 열혈작가의 피로 물든 북행길

마지막종군기 《바다가 보인다》를 탈고하여 평양으로 보낸 1950년 9월 17일, 바로 이날에 김사량은 오후에 문화부사단장 김영준으로부터 급히 만나라는 련락을 받았다.

사량을 마주한 부사단장의 얼굴색은 좋지 않았다. 그는 사량을 불렀으나 무슨 말을 할지 꺼리는것 같았다. 사량이 먼저 말꼭지를 뗐다.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제야 부사단장이 힘들게 말을 뗐다.

《철수명령입니다. 종군기자, 작가들은 명령을 전달받는 즉시 중앙으로 출발하라는 상부의 지시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김사량은 조국에 준엄한 시각이 닥쳐왔다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는 즉시에 군용차로 평양을 향하여 떠났다. 일행은 중앙통신사 종군기자 송영복, 최고사령부 련락군관 류치종, 종군작가 오운성, 김사량의 련락병과 운전사였다.

사단지휘부가 자리잡은 마산지구의 남해기슭 진동리계선을 떠나 밤새 진주, 순천, 화순, 전주를 거쳐 다음날 대전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비로소 인민군대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진행된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과 함께 최고사령관동지

의 명령으로 전선에 나가있는 종군기자, 작가들부터 먼저 소환하게 되였다는것을 알게 된 김사량은 가슴이 무너지는듯 하였다.

한번만 더 용을 쓰면 마산, 진해, 부산에서 인민군용사들의 승전가가 울릴것이고 우리 전사들이 남해바다에 발을 잠그며 조국통일만세의 함성을 올릴 날이 오늘이냐 래일이냐 하던 때에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게 된 터지는듯 한 가슴을 부여안고 다시 차에 올라 북으로 달리는 김사량은 분하고분하여 마음속으로 울음을 금할수 없었다.

(아, 피로써 헤쳐온 남진길이여! 정녕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한단 말인가.)

그동안 헤쳐온 혈로들과 한치한치의 전진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친 전우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터져오는듯 했다. 하지만 명령은 거역할수 없었으니 사량은 애써 울분을 누르며 북행길을 재촉했다.

도중에 송영복은 통신사의 전선지사와 행동을 같이하기 위하여 떨어지고 오운성과도 갈라졌다.

사량은 조치원에 이르러 길을 막고있던 차단소 군인들로부터 인천에 상륙한 적들이 남하하여 천안에 들어왔으므로 이 이상 서울쪽으로 더 전진할수 없다는것과 도로로 차를 타고 갈수도 없다는것을 알았다.

차단소에 차를 인계한 김사량, 류치종, 련락병과 운전사는

그때부터 산악행군을 시작하였다. 개별적으로 후퇴하는 정치공작대원들, 내무원들, 군인들이 보충되여 대렬은 20명정도로 늘어났다.

9월 28일경 그들은 행군도중에 작은 산골마을에서 외딴집과 맞다들렸다. 일행은 그곳에서 잠시 휴식하면서 식사를 하였다.

이때 불의의 기습을 받았다. 집을 포위하고 앞뒤량면으로 달려드는 적을 맞받아내치며 일행이 산으로 올라 점명하여보니 도중에 편입된 한사람이 빠졌다. 적들이 기습하자 주인집 옷을 갈아입고 뒤문으로 빠져달아나는것을 봤다고 누군가 보고하였다.

《비겁한자는 아무때건 톡톡히 값을 치르게 될거요.》

김사량은 분노와 경멸감을 참지 못하고 부르짖었다. 그는 대오의 단결을 강화하고 정규군의 면모를 갖추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갈것이 아니라 대렬을 뭇고 정돈하자, 군사경험이 많은 류동무가 대렬을 책임지고 그가 지휘하는대로 하자고 제의하였다.

변절자가 생긴것으로 하여 빨리 이 지대를 벗어나야 했으므로 이날 하루저녁에 수림속으로 70~80리 강행군을 하였다.

포위를 뚫고나온 다음부터 김사량의 신상은 말이 아니였다. 심장병이 도져 얼굴은 눈을 뜰수 없게 붓고 숨이 차 말하기도 힘들었으며 기침이 시작되면서 각혈까지 하였다.

처음에는 옆에서 부축하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며 하다가 담가를 만들어 태웠으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여갈뿐이였다.

9월 30일경 원주가 내려다보이는 산정에 이르렀다. 이때 혼수상태에 빠졌던 김사량이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움직이면 각혈하였으므로 일행은 여기서 하루를 지체하였다. 자꾸 실신하여 동무들이 손발을 주물러주며 이름을 부르군 하였다.

밤새 비장한 생각을 가다듬은 김사량은 날이 밝자 대렬책임자인 류치종을 만났다.

《나를 두고 떠나시오. 나는 이제 더 못 가오. 이렇게 죽느니 싸우다 죽고싶소.》

사량은 이렇게 말하면서 각혈이 멎고 기운이 회복되면 지리산으로 내려가겠다, 거기는 싸우는 동무들이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지리산유격구는 남진의 길에 취재답사하여 지리를 잘 아는 곳이였다.

류치종은 사량이 힘들게 말을 뗐다는것을 알아챘는지 즉시 대답을 못했다. 한동안 깊이 생각하던 그는 사량을 똑바로 주시하며 이야기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합니다. 열흘이고 스무날이고 기다렸다 같이 갑시다.》

그러자 김사량이 펄쩍 뛰였다.

《아니, 나 하나때문에 길을 지체하지 마시오. 후퇴한다고 절대 락심하지 말고 어서 북으로 들어가시오. 한개 중대

가 희생되면 그뒤에 대대가 있고 련대가 있고 사단이 있소. 그리고 우리모두의 뒤에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오. 다시 돌아와 만나서 또 같이 싸우자구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영어를 잘 알기때문에 적진을 빠져나갈수 있다, 치안대 같은건 문제될것도 없다며 안심하고 떠나라고 거듭 말하였다. 김사량은 《당중앙위원회에 가거든 내가 부득이 이런 정황에서 떨어졌는데 절대로 변함없이 싸우겠다는 결심을 전해주오.》라고 하고는 가슴에 소중히 품고 있던 당원증도 꺼내놓았다. 이미 확고한 결심을 한것이 틀림없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있는데 사량은 이어 종군수첩과 신분증, 만년필도 내놓으면서 종군수첩은 채 정리하지 못한것이지만 작가동맹에 전달하고 만년필은 안해에게 전해달라고 하였다.

류치종은 받아쥐기는 하였으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오래동안 더 이야기하였다. 같이 가자니, 두고 가라니 하는 말들이였다.

작별에 앞서 김사량은 당조직에 보내는 마지막편지를 썼다. 후날 문예총에 전달된 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여있다.

《나는 최고사령부 련락군관일행과 함께 후퇴도중 원주계선에서 이 글을 쓴다.

26일 밤 조치원서부터 산을 타고 걷기 시작하였다. 천안에 미군땅크가 들어와 차길이 막혔기때문이다.

처음 최고사령부 련락군관일행과 동작을 같이하려 하였으나 나는 도저히 그들의 뒤를 따를수 없다. 고질의 심장병이 나를 여러 동무들과 섭섭하게도 갈라지게 한다.

지금 여기는 원주를 불과 20여리에 둔 북한강나루가이다. 진천의 미군을 피하느라고 차령산맥을 타는 바람에 나의 심장은 극도로 쇠약해졌다. 산을 넘을 때 동무들이 끌고 밀고 하였다.

나는… 작정하고 달라붙었다. 처음에 30보만에, 그러나 나중엔 다섯보, 세보만에 턱턱 쓰러진다. 심장이 파렬하는지 모른다. 가래에 피가 섞여나온다. 도중에 마비라도 일으켜 죽으면 무엇하랴.

나는 여기서 동무들에게 웃음으로…(뒤에 한줄은 보이지 않음.)

나의 당증은 당중앙위원회에, 종군수첩은 작가동맹에 전해다오.

승리를 위하여, 희망을 위하여,

**김일성**장군 만세!

1950년 10월 1일 김사량》

대오와 헤여질 때 김사량은 의용군출신의 자기의 련락병에게 자신의 군복을 벗어주고 서울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당

부하였다. 그리고 지도가 없었으므로 류치종에게는 북두칠성을 보고 행군하라, 그곳에 최고사령부가 있다고 자상히 알려주며 죽지 말고 승리한 다음 다시 만나 오늘을 옛말처럼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담담한 표정의 그의 행동에서는 추호의 동요나 공포감을 느낄수 없었다. 동지들은 그의 곁에 기관단총 한정, 탄창 셋, 수류탄 세알과 마대를 털어모은 1kg정도의 식량을 남겨놓고 거수경례를 하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대오가 조금 멀어지자 그들을 불러세운 김사량은 다시한번 당중앙위원회에 자신의 결심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리별하였다.

일행이 고개 하나를 넘어섰을 때 북쪽으로 통한 도로로 미군땅크들이 들어가는것이 내려다보였다.

그후의 김사량의 운명은 어떻게 되였는가? 그것은 적후에서 있은 일이니 누구도 알수 없었다.

그런데 다행히 지리산인민유격대에서 대대장으로 활동한 최상현(회상당시 형제산구역시설사업소 직맹위원장)과 여러 관계자들에 의하여 그후 소식이 알려지게 되였다.

최상현은 1950년 10월 지리산유격구에서 싸울 때 해방전에 도꾜에서 대학을 나온 북반부출신지식인이 지리산유격대에 들어온 사실이 있었으며 그해 겨울 그는 발에 심한 동상을 입고 전투행동이 곤난하여 경상남도당위원회로 후송되였다는것

을 회상하였다. 그와 여러 사람이 기억을 더듬어 형상한 그 지식인의 모상이 김사량의 인상과 일치하였다.

그후 김사량이 지리산인민유격대를 찾아가는데 성공한것으로 보고 행적을 더듬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되였다.

지리산인민유격대출신인 당중앙위원회 한 일군은 1982년에 이렇게 확정적으로 발언하였다.

《…우리가 행군도중 어느 산중벼랑밑에서 휴식을 하고있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자지러진 총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무장소조 10여명은 깜짝 놀라 정황을 살피면서 쌍안경으로 총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까 한 인민군군관이 적들의 포위속에서 필사적인 대응전을 벌리고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체없이 달려가 적들을 물리치고 인민군군관을 구원하였습니다.

바로 그가 북조선출신작가 김사량이라는것을 확인하고 태백산밀영아지트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다리에 부상을 당한데다 병까지 생겨 사경에 처한 순간이였습니다. 본인은 아마 자신의 몸상태로 보아 자기가 운명직전에 놓여있다고 생각하고있는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나의 손을 꽉 그러잡고 이런 유언 비슷한 말을 남기였습니다.

<난 죽는것을 무서워하지 않소.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처럼 갈망하던 빛을 찾고 그 빛속에서 내 존재가치를 빛내여왔는

데 이제 무주고혼이 된들 무슨 한이 있겠소.

…빛을 찾아 방황하고 빛을 그리던 나에게 그 빛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의 생도 없었을것이요.>

그후 우리는 임무수행을 위하여 그와 헤여졌습니다. 후에 인편으로 들은데 의하면 그는 기적적으로 소생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밀영아지트에서 지리산유격대 선전공작처책임을 맡고 일하였는데 힘있는 글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호소문, 공문, 삐라문 등 그의 글은 기운이 솟고 원쑤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김사량동지에 대하여 알고있는것은 이것뿐입니다.》

김사량이 기적적으로 구원되여 지리산인민유격대에 들어갔다는것은 확인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그의 운명에 대해 아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동지들과 그를 아는 사람들은 지리산에 찾아간 그가 절대로 값없는 죽음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믿었다. 그의 이름을 《전향》이나 《변절》 같은것에 대비시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1950년대초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였던 소설가 리북명은 전쟁이 일자 작가들중에서 제일먼저 전선으로 탄원하던 김사량의 격동된 모습과 그후 자신이 전선을 다녀올 때 땅크우에 올라앉아 원고를 정리하는 김사량을 만났던 일을 회상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한본새이니 가족들이 이제 기쁜 소식을 듣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전후 문예총에서 사업한적이 있는 한 일군은 어느 한 철궤속에서 우연히 봉투속에 보관되여있는 김사량의 최후의 편지와 그의 신분증을 보고 감동한 나머지 자신이 기어이 그의 행처를 찾아보리라 결심하고 청산리에 농촌지원나갔던 길에 전쟁시기 고창으로 피난갔다가 돌아와 청산협동농장 5작업반에서 일하는 김사량의 가족들을 만나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신 작가를 위하여 실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남모르는 고뇌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김사량과 함께 서북산전투에 함께 참가하였다가 함안이 해방된 후 새로운 임무를 받고 떠나면서 그와 헤여졌던 리서영은 그것이 김사량과의 마지막리별이 될줄을 어찌 알았겠는가고 하면서 생전에 《김사량과 나》라는 글(1989년 4월)을 내여 이렇게 자신의 심회를 전하였다.

《나는 지금도 서북산전투에 대한 회상과 함께 화염에 휘감기는 고지의 바위우에 앉아 종군기의 붓을 달리던 작가 김사량을 잊을수 없다.

제1차 남진의 길에서 불현듯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군 하던 일들과 함께 서북산마루의 돌바위우에 앉아있던 그의 모습은 지금도 청동조각처럼 나의 가슴속에 자리잡고있어 나에게

활력과 열정을 안겨주며 때로는 엄한 채찍이 되여 보다 보람있게 살라고 떠밀어주고있다. …

<리동무, 내 건강은 념려마오. 약속대로 소설로, 희곡으로 우리 인민군대의 위훈의 력사를 꼭 쓰겠소.>

이렇게 다짐한 작가 김사량은 지금 우리곁에 없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그의 말을 의심치 않는다. 그가 만약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는 종군체험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혁명적열정으로 우리 인민군대의 당과 수령께 바치는 무한한 충성심과 대중적영웅주의를 형상한 기념비적작품을 쓰고 썼으리라…》

전쟁이 발발하자 제일먼저 전선탄원을 하였던 김사량이 인민군대와 함께 남진한 그 길은 신념의 종군길이였다. 그리고 락동강가를 떠나 북행길에 올라서 지리산유격구에까지 이르는 피어린 고행길도 역시 신념이 가리켜준 의로운 길이였다.

신념의 종군길!

신념이 가리켜준 의로운 길!

이 길은 오직 **김일성**장군님을 생의 은인으로, 삶의 태양으로 우러르며 그 위대한 빛발아래서 오직 한길만을 걷는 사람들만이 걸을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 영생의 길이였다.

# 3. 빛은 영원하다

## □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의 빛발속에 꼭 찾아내야 한다

그처럼 가렬처절했던 조국해방전쟁은 조선인민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먹어치우려고 분별없이 덤벼들었던 미국은 패배의 쓰디쓴 고배를 마시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이때로부터 내리막길을 걷는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특별한 신임을 받아안고 성스럽고도 무거운 종군의 길에 올랐던 거의 대다수 작가, 기자들이 전승의 날과 더불어 전쟁전의 자기 일터, 자기 고향집으로 떳떳이 돌아왔다. 그들이 불타는 고지에서, 총탄이 비발치는 전장에서 쓴 하나하나의 글들은 그대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사가 되였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전승업적을 후대들에게 길이길이 전해가는 교본이 되였다.

하지만 멸적의 기상이 나래치고 승리의 섬광이 번뜩이는

유명한 종군기들을 써내여 인민군군인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적들에게는 무서운 죽음의 공포를 주던 종군작가 김사량은 돌아오지 못하였다. 오늘이면 올가 래일이면 올가 하루를 천날맞잡이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와 안해, 이제는 퍼그나 자란 그의 아들딸들이 낮이나 밤이나 사량아! 여보! 아버지! 지금 어디에 계셔요? 왜 아버지는 오시지 못하나요? 하고 몸부림치며 눈물로 날과 날을 보내였다. 김사량과 깊은 문학적뉴대를 맺고있던 많은 문인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그의 집을 찾아 소식이 없는가고 물었고 그가 속해있던 기관의 일군들과 동지들은 조직적인 선으로 김사량의 행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각 방면에서 노력하며 뛰고 또 뛰였다.

실로 가정은 가정대로, 친지들은 친지들대로, 조직과 동지들은 그들대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 사량을 찾고 또 찾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의 가슴뜨거운 사연이 있었으니 그것은 돌아오지 못한 김사량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고 괴로와하시는분이 절세의 애국자,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 사실이였다. 그이께서는 전승을 안아오신 그때로부터가 아니라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벌써 김사량을 두고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시였다.

하늘은 시간을 두고 변하고 사람은 일생을 두고 변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세월의 끊임없는 흐름속에서도 식지 않고 더더욱 그 뜨거움이 강렬해지는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한번 품어안으셨던 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과 의리의 빛발이다. 퇴색도 변색도 모르고 뜨거운 용암마냥 더더욱 그 진함이 강렬해지는것이 **김일성**장군님의 절대의 믿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사량이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서 당원증과 편지를 보내온 이후 일체 소식이 없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후퇴하는 인민군부대들의 지휘관들과 전선에 파견되였던 일군들에게 김사량과 관련한 소식을 알게 되면 즉시에 알려달라고 하시고 그의 행처를 알만 한 남조선의 혁명가들을 만나실 때면 먼저 김사량의 행적에 대해 아는것이 없는가고 물어보시던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시고 최전선을 수시로 찾으시는 그 분망하신 속에서도 적측지역에 나가는 정치공작대, 인민군정찰일군들에게 김사량의 생사여부를 알아보고 꼭 찾아내야 한다고 특별과업을 주시기도 하시였다.

꼭 찾아내야 한다!

저 멀리 적구의 이름없는 산야에 만약 김사량이 죽어 묻혀있다 해도 절세위인의 이 사랑의 부름만은 들을수도 있으

리라. 한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마지막 피 한방울이 남은 몸이여서 더는 말할수도, 들을수도 없는 몸이라 해도 위대한 태양의 빛발에 접하면 기적적으로 소생하여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한달음에 달려올수도 있으리라.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김사량의 행처를 알아내여 꼭 찾아내야 한다는 과업을 받은 정치공작대원들은 자기들의 파견지역은 물론 김사량의 철수로정을 따라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고 자그마한 실마리라도 쥐게 되면 적진을 피로 헤치며 뚫고들어가 추적에 추적을 거듭하였다.

인민군정찰병들은 김사량이 혹시 적들의 손에 잡혀있을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가는 곳마다에서 《혀》를 잡아 그의 생사여부를 확인하는데 심혈을 아끼지 않았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마산쪽으로 진출한 《북극성》이라는 대호를 가진 정찰조가 야간에 도로에 매복해있다가 《국군》의 륙전대장이란 놈을 생포하였다. 무고한 인민들은 물론 애국적인 《국군》사병들도 정체를 알기만 하면 즉석해서 총살해버리군 하던 이놈은 정찰병들이 김사량에 대해 묻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아, 소설 <빛속에>를 쓴 작가?》

놈은 제놈이 살아날수 있는 기회가 생긴것으로 짐작했는지 횡설수설 다하며 수다를 떨었다.

《그 작가가 종군했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와 같이 대학에

다녔던 사람도 제 부하로 있지요. 본인이 조금 노력만 하면 그의 행처쯤이야 알수 있지요.》

정찰조장이 따져물었다.

《우릴 업어넘길 생각은 꼬물만치도 하지 말라. 김사량선생의 생사가 확인되고 행처가 정확하면 당신 목숨이 담보된다. 그전엔 아무 기대도 가지지 말라.》

엄엄한 그 말에 륙전대장놈은 흠칠했다. 제놈의 속을 환히 꿰뚫고있는것만 같았다.

삼태성도 기운 캄캄한 밤이였다. 정찰조는 그놈을 앞세우고 은밀히 전진했다. 그들이 가닿은 곳은 야산기슭에 자리잡은 독립가옥이였다.

놈이 무슨 신호를 하자 집안에서 40대가량의 사나이가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제 매부이죠. 사량과 동창입니다. 사량의 마음과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 그가 가있을 곳을 잘 알것입니다.》

매부란 놈이 나와 정찰조원들보고 허리를 굽석했다. 그러더니 아낙네들처럼 재잘거리기 시작했다.

《사량은 책을 무섭게 좋아하지요. 죽지만 않았다면 아마 마산시내의 서점이나 책들이 쌓여있는 곳에 틀고앉아 독서에 미쳐있을것입니다.》

정찰조장은 그의 말이 김사량행처의 단서로는 될수 없지만

그밖에는 더 알수가 없는지라 한번 모험해보기로 작정했다.

3명의 정찰조원이 시내로 들어갔다. 정찰조장과 또 한명의 조원은 륙전대장과 매부란자를 가옥에 가두어놓고 떠나간 조원들을 기다렸다.

새벽녘에 정찰조원들이 독립가옥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어이하랴. 떠날 땐 3명이던 조원들이 돌아올 땐 2명이였다.

《어떻게 된거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한명은 희생된것이 분명했다.

륙전대장과 매부란자는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탕! 탕!

정찰조장은 하늘에 대고 총성을 울렸다. 동지를 잃은 원통함이 모두의 얼굴에 력력했다. …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고 하였지만 그처럼 불철주야의 심려를 거듭하며 펼쳐지는 사랑의 손길에 김사량은 화답하지 못하고있었다. 지리산유격구에 들어간 사랑이 알수가 없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사량을 그토록 애타게 찾고계신다는 것을 후날에 알게 된 김사량과 관계가 깊었던 한 이름있는 시인은 이렇게 격정을 터놓았다.

《세계<최강>이라는 미국과 그에 야합한 15개 추종국가의 군대를 격파하신 백전로장 **김일성**장군께서 한 인간의 생사여

부를 놓고 그처럼 고심하고계신다는것을 알면 세계는 조선의 전승에 놀란것처럼 또 한번 놀랄것이다. 동서고금 전쟁사의 갈피들에는 대소전투가 매일과 같이 벌어지는 대전쟁속에서 국가의 최고사령관이 한 종군작가의 행처를 찾기 위해 할수 있는 대책을 다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김사량! 당신은 살아있어도, 죽었어도 세상에 더없는 행복자다.》

김사량을 꼭 찾아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간곡한 말씀을 전해듣게 된 어머니 리정근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번도 터뜨린적 없는 오열을 끝내 쏟아냈다.

《사량아! 너 지금 어디 있니? **김일성**장군님께서 널 애타게 찾으신다. 벙어리도 자길 찾는 소리는 듣는다고 했는데…》

리정근은 사량이 절대로 죽었다고 생각지 않았다. 맘속에 생의 버팀목이 끄떡없이 그냥 서있는데야 어디 간들 잘못되랴.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리정근은 김사량을 너무도 잘 안다.

빛을 찾아 보천보로, 연안으로, 베이징으로 방황하며 죽을고비를 열두번도 더 넘긴 사량이였다. 동북산야의 중중첩첩으로 가로놓인 아아한 산악속에서 맹수를 만나고 토비들의 습격을 받았으며 때로는 일제의 총칼앞에 섰었어도 그는 죽지 않았다.

마음에 기둥이 있는 인간은 절해고도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 사량의 마음엔 삶의 해빛, 민족재생의 해발이신

**김일성**장군님이 계셨다. 비록 아직 만나뵈옵지 못한 때에도 온넋에 꽉 차있는 찬란한 그 해빛이 있어 김사량의 마음은 방황하지 않았고 고독하지 않았다. 끝내 그는 태양의 품에 안기였고 사랑과 믿음의 자애로운 해발속에 삶의 희열을 되찾았다.

이러한 내 아들이 죽을수가 있는가. 이러한 김사량이 그 누가 뇌까리는것처럼 다른 길을 갈수가 있는가.

어머니 리정근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다르게 생각해보려 하는 자신이 가엾어보였다. **김일성**장군님이 계시는데야 왜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겠는가. 비록 죽었다 해도 넋이라도 꼭 돌아올것이다.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뜨거운것을 보고는 안해 최창옥도 참지 못하였다.

《여보! 살아계신다면 왜 대답이 없나요? 그 인정엔 초목도 동이 닿겠구만요.》

할머니, 어머니를 번갈아 살피며 철없는 맏아들 김량림이 곡성을 토했다.

《아버지! 아버지! 어서 오라요. 다들 왔는데 아버진 어디서 뭘 하시나요?》

그 시각 김사량은 지리산 깊은 골안의 인쇄기지에서 유격대원들에게 배포할 **김일성**장군의 방송연설문에 대한 선전글을 쓰고있었다.

## 해빛 가득히 비쳐드는 창가에서

전쟁을 이기는것도 어려웠지만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는 전후의 복구는 더 어려웠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시고 비범한 백승의 빛발로 전승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끝난 후에는 페허로 된 도시와 산업시설의 복구를 위하여 전쟁시기보다 더 분망한 나날을 보내시였다.

위인은 사색의 폭과 깊이가 남다르고 실천의 폭은 그 넓이를 잴수 없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거창한 사색과 실천의 나날에도 언제나 전쟁시기처럼 김사량을 잊지 않으시였으며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하고계시였다.

전후의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당시 문화선전상 허정숙)을 부르시여 김사량의 행처에 대해 물으시다가 공화국을 위해 잘 싸운 그의 가족들을 직접 만나보아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그리시고는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잘 돌봐주어야 하겠다고 간곡하게 당부하시였다.

당시 김사량의 가족들로는 그의 어머니와 안해, 아들딸 네 남매가 있었다. 이들은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북쪽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김사량의 가족을 특별히 잘 보호하

기 위한 당과 국가의 조치에 의해서였다.

인민군대가 다시 재진격의 길에 오르자 가족들도 평양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하지만 폭격이 너무 심해 평양에는 떨어지지 못하였다. 그래서 강서군 고창리에 자리를 잡고 전쟁을 겪었는데 전쟁이 끝났어도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평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고창리에 눌러있었다.

전쟁시기 김사량의 집은 인흥동에 있었다. 그런데 일시적후퇴시기에 평양에 기여든 미군첩보계통의 놈들은 이 집에 둥지를 틀고 온갖 못된짓을 다 일삼았다. 그러다가 쫓겨갈 때 김사량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서재의 외국원서로 된 책들을 한 자동차나 싣고 달아나버렸으며 고약한 놈들은 집을 형체도 없이 파괴해버렸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김사량의 가족들을 잘 돌봐줄데 대한 귀중한 말씀을 받아안은 일군은 직접 고창리에 내려왔다. 그가 본 가족들의 살림은 말이 아니였다. 전쟁을 겪은 인민들의 생활이 다 그러하였지만 남자손이 없이 녀인들이 네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간다는것은 그야말로 악전고투였다.

일군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게 된 어머니 리정근과 안해 최창옥은 아무말없이 창문을 활짝 열어제끼였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창문으로 찬란한 해빛이 눈부시게 비

쳐들며 방안을 한가득 채웠다. 이제는 무서운것, 부러운것, 두려운것이 없었다. 해빛이 이렇게 온몸을 감싸며 따뜻이 덥혀주는데야 무엇이 걱정이랴.

안해 최창옥은 문득 남편이 전장으로의 종군을 앞두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인정은 시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있소. 시간의 힘앞에서는 모든것이 퇴색하고 조락해버리지만 인정 하나만은 매장시켜버리지 못하오. 내가 떠나도 장군님이 계시기에 당신이나 어머니, 저애들도 인정에 주리지 않을거요. 우리 장군님의 진실하고 열렬한 인정, 전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는 굴곡이라는것이 있을수 없소. 이것만은 꼭 믿소. 그러면 절대로 외롭지 않소.》

남편의 말이 현실로 증명되였다. 인생의 험로역경을 다 겪으며 너무도 젊은 나이에 생활의 진리, 생의 철리를 일찌기 깨달은 김사량이 있었으면 아마도 안해는 평양에서 내려온 일군앞에서라도 그를 와락 껴안았을것이다.

일군이 어머니 리정근에게 《우선 평양에서 김사량선생이 쓴 글들을 묶어 <김사량선집>을 출판했는데 그 원고료가 이거예요.》 하며 봉투를 내밀었다. 그때 돈으로 1만 4 000원이였는데 가족들로서는 정말 큰돈이였다.

정숙한 자세로 아무 말 없는 가족들에게 일군이 말하였다.

《**김일성**장군님의 배려에 의하여 가족모두가 국가공로자공

급대상이 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량의 식량을 백미로 공급받게 되며 부식물도 정상적으로 결따를것입니다.》

흐느낌소리가 방안에서 울려나왔다. 철없는 아이들의 동심도 친아버지의 사랑에 동한듯 별처럼 빛나는 눈가에 눈물이 고여올랐다.

일군은 가족들과 헤여지는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자신도 김사량을 너무도 잘 알고있고 그와 함께 손에 총과 붓을 들고 강도 일제와 싸우던 사람이여서 수령님의 뜻대로 가족들을 잘 돌봐주는것이 그와의 의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리고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어 물질생활상 안정시켜주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주는것이 보다 급선무라고 보았다.

《어머니와 가족들은 잘 모를수 있겠지만 전 사량선생과 중국의 연안과 태행산의 조선인부대에서 함께 싸웠어요. 해방후에 귀국길에도 함께 올랐구요.》

일군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리정근이 반색을 했다.

《아니, 모르다니요? 우리 아들은 평양에 돌아온 그날에 밤새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에 대해 얘기했수다. 세상이 좁다하게 종횡무진하며 항일의 전장에 섰던 녀걸과 함께 있었고 또 같이 조국에 나왔다구요. 거 뭐라드라, 아, 성함이 허정숙이라고 허헌선생의 따님이라면서…》

이렇게 되니 일군과 가족은 마치 한식솔처럼 되여버렸다. 일군은 김사량의 어머니와 안해가 다 고등교육을 받은 녀성들이라는것을 이미 알고있는터여서 이들이 자기와 어렵지 않게 대화할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량선생은 **김일성**장군님밖에 몰랐어요. 그의 마음에는 장군님만이 꽉 차있었어요.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던 그 시절에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민족재생의 해발로 칭송한 그 일이 어디 쉽나요. 그처럼 그는 자기가 옳다고 보는 견해는 서슴없이 과감히 붓대를 들고 주장했고 거기서 자기 생의 희열을 크게 느끼였어요. 태행산에 있을 때 어느날이였는데…》

…김사량은 조선인부대에서 일제와 싸우고 일제와의 항전으로 군민을 불러일으키는 맵짠 글을 많이 써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속에 아쉬운것이 있어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그는 언제나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빨찌산이 싸우고있는 백두산에 마음을 두고있었다. 이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던 사람은 허정숙이였다. 또 **김일성**장군님에 대하여 늘 이야기를 해주었던것도 그였다.

어느날 김사량이 깊은 밤에 허정숙을 찾아왔다. 그는 주저없이 속생각을 터놓으면서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갈 결심을 피력하였다. 허정숙은 절대찬성이였다. 자기도 언제나 그 마음을 안고 산다고 하였다.

김사량은 조직에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동지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지지해나섰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뜻을 실현할수 없었다.

사량은 통분하였지만 비관하지는 않았다. 해빛을 따르는 해바라기의 마음은 족쇄로도 묶을수 없다는 진리가 그의 마음을 달래주고있었다. 기회는 언젠가에 있을것이였다. 그러던중에 조국이 해방되였다. 이제는 그 누구의 승인이고 뭐고 없었다. 해방된 내 나라로,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는것은 시간문제였다. …

《그후 해방된 조국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 김사량선생을 얼마나 아끼고 믿음을 주셨나요. 지금도 장군님의 그 믿음,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없어요. 그러기에 사량선생은 꼭 가족의 품으로, 장군님의 품으로 돌아올것입니다. 아마 그날을 생각하면 가족들도 힘이 날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량선생이 장군님품에 다시 안길 그날을 기다리며 살자요.》

일군은 가족들과 헤여진 후 지역의 해당 조직들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사량의 가족들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하신 교시를 전달하고 대책을 취하도록 하였다.

날개라도 돋친듯 소식을 들은 마을사람들이 이들이 사는 집으로 매일과 같이 모여왔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그러는 속에 어머니 리정근의 생일날이 왔다. 마을에서 올

사람은 다 왔는지 방안이 꽉 찼다. 즐겁게 말들이 오가고 남정네들은 서로들 권하며 잔을 찧었다.

이때 마을에서 문장짓기를 좀 한다는 한 청년이 《아, **김일성**장군!》 하고 웨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더니 감정을 잡으며 누를길 없는 격정을 터놓았다.

《장군이 오시는것은 아, 아무도 몰랐으나
장군이 오신것은 누구나 알았다.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

아, 고창리사람들 누구도 몰랐다
이 집의 창가에 해빛 찬란히 비쳐들줄은
허나 해빛 가득히 넘쳐나는 오늘엔 알았다
**김일성**장군님의 해발 이처럼 따사로운줄
…》

시인 리찬의 유명한 즉흥시를 완전히 통달하고있었던 청년은 거기에 자기의 몇개 문장을 달아 자기의 즉흥시처럼 격동적으로 읊어대고있었다. 그래도 좋았다. 사람들이 와작 떠들어대며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오늘같은 날에야 유명한 시인의 유명한 시가 시골청년의 즉흥

시로 둔갑한들 누가 탓하랴.

얼마 안 있어 김사랑가족들은 새 집을 받고 이사했다. 그리고 생활보탬이 될만큼 논과 밭도 받아안았다. 거기에 옷감과 의약품도 정기적으로 보장되였다.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고마운 조치였다. 최창옥은 끝없이 이어지는 **김일성**장군님의 사랑에는 어제나 오늘에나 변함이 없다고 생각되였다.

언제나 예지와 자애에 빛나시는 눈, 인정미 넘쳐흐르시는 미소 그리고 마디마디 가슴속 밑바닥까지 텅텅 울려주시는 웅글은 음성, 안기고싶고 한껏 응석을 부리고싶은 넓으신 가슴.

이 모든 표상은 그이이시야말로 만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절세의 위인, 위대한 인간이시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그렇다. 그러하신 장군님이 아니시고서야 어찌 한갖 작가에 불과했던 남편과 그 혈육들에게 이처럼 크나큰 사랑을 한꺼번에 안겨주실수 있단 말인가. 아 우리의 장군님, **김일성**장군님!

온 가족이 활짝 열어제낀 창가에 섰다. 훈풍에 날려오는 꽃씨들이 꽃보라인듯 창가며 가족모두의 머리에 살며시 내려와 앉았다.

**김일성**장군님의 사랑의 해발이 펼친 아름다운 풍경이였다.

## 신념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어느때가 가장 행복한가. 또 어느때가 가장 불행한가.

사람마다 다 이에 대하여 나름의 견해를 가질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존재로서, 정치적생명을 지닌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행복은 자기에게 정치적생명을 주고 참된 삶의 활력을 준 수령으로부터 가장 고귀한 믿음과 크나큰 신임을 받아안게 되였을 때일것이다. 불행은 바로 그 믿음과 신임이 끝났을 때일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성스러운 항일전쟁과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이 두차례의 전쟁을 겪은 조선의 혁명가들은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수령의 믿음과 신임이야말로 전사의 무한한 긍지와 영광, 끝없는 행복이라는것을 절대의 진리로 절감하였으며 그 어떤 절해고도에서도 그 믿음과 신임을 지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였다.

주체43(1954)년 5월이였다.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내각전원회의가 진행되고있었다. 전쟁의 참화를 가시기 위한 본격적인 복구전투가 전국의 각 분야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던 시기에 소집된 내각전원회의는 토의내용의 성격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방대성으로 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있었다.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그 중하가 걸려있었으며 또 수령님으로부터 대책적인 결론을 기다리고있었다.

이처럼 중요하고도 긴장한 회의도중이였다.

전원회의를 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거의 1년이 되여오도록 행적을 알수 없는 김사량에 대하여 못내 걱정하시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너무도 뜻밖의 사실앞에서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이께서 전쟁시기는 물론 전후에도 김사량의 행적과 그의 가족들의 생활문제에 대하여 늘 관심하시고 걱정하신다는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이렇게 국가적인 회의에서까지도 그를 잊지 못해하시는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니 실로 사람들의 격정은 이를데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휴식시간에 문화선전상 허정숙을 부르시였다.

수령님의 부르심을 수시로 받아안으며 사업해오는 허정숙이였으나 중요한 회의의 휴식시간에 부르시는것으로 보아 그 어떤 중대한 문제로 부르신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어느 한 방에 당도했을 때였다. 그를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보시며 아직 작가의 소식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김사량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였다.

허정숙은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이께 만족

할만 한 대답을 드릴수 없었던것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경건히 우러르며 여러 통로로 그의 행처를 알아보고있다고만 말씀올렸다. 그리고는 나중에 일부 사람들속에서 그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억측이 돌고있는데 대해서도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심중한 안색을 지으시였다.

김사량,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해발을 찾아 현해탄너머에서, 만주광야에서 끝없이 방황하던 식민지지식인이였다. 비록 부유한 가정출신의 작가였지만 정의감이 강하고 일제의 강도적이고 야만적인 식민지통치하에서 민족이 해방되는 길은 오로지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에 있다고 일찌기 확신한 사람이였다. 수령님의 고결한 인간애, 민족애는 사람들에게 생의 활력과 참된 삶의 빛을, 전체 조선민족에게는 희망의 빛을 비쳐주는 민족재생의 해발이라고 격찬하면서 그처럼 암담하던 해방전의 그날에도, 해방된 그날에도 처음으로 수령님에 대한 작품을 쓰고 무대에서 형상하도록 한것이 김사량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한 김사량을 무척 아껴주고 내세워주시였다. 그가 자기의 창작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도록 언제나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으며 문예부문의 일군으로 사업하도록 크나큰 믿음과 신임도 안겨주시였다. 그런데 그러한 김사량이 전쟁이 일어나자 제일먼저 전선에 탄원하여 종군작가로 종횡무진하며 활약하다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행처가

끊어진 후 여직 생사여부조차 알려오지 못하고있다.

그렇다면 김사량이 죽었는가? 살아있다면 일부 사람들이 억측하고있는것처럼 그렇게 되였는가?

목숨으로 자기의 신념을 지키면 지켰지 절대로 다르게는 안될 김사량이였다. 마음의 기둥이 있는 사람, 신념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속에서도 지조를 버리지 않는다는것은 항일전쟁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사실들이 말해주고있었다.

항일혈전의 그날에 대오의 높은 지위에 있었고 투쟁년한도 짧지 않은 한사람이 있었다. 그는 대원들앞에서 연설도 곧잘하였고 돌격 앞으로라는 말을 전투마당에서 누구보다 크게 웨치던 사람이였다. 하지만 조국해방 하루를 앞두고 그는 투항변절하였다. 투쟁년한이 짧아서였던가? 머리에 지식이 없어서였던가? 아니였다. 그에게는 신념이 없었다. 마음속에 넋의 지탱점으로 되는 기둥이 없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또 어떠했는가. 한생 손에 낫자루밖에 쥐여본적이 없고 학교문턱에는 가보지도 못한 순박한 농민은 전쟁이 일어나자 손에 총을 잡았고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총탄이 우박치듯 하는 고지에 승리의 기발을 기어이 꽂기 위하여 불뿜는 적의 화구를 한몸으로 막고 영웅적인 생을 마치였다. 그에게는 해방전의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살이가, 해방후 5년간의 꽃피는 삶이 더없는 행복한 체험으로 뼈에 사무치게 새겨져있었다. 나라가 없고 주권이 없어 인간이하의 천

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인민들에게 새 삶을 주고 행복을 주신 **김일성**장군님이 그에게는 마음의 기둥으로, 신념의 기둥으로 자리잡고있었다. 이렇게 신념은 행복한 날이 아닌 준엄한 시기에 인간의 진가를 판가름하고 인간의 가치를 재는 척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허정숙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다가 그 동무가 마지막으로 당원증을 보낸 곳이 남강원도 원주계선이였다고, 그는 정의감이 강하고 량심적이며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신념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결연한 어조로 나는 그가 생명의 최후순간까지 견결히 싸웠으리라고 믿는다고 확언하시였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위대한 사랑과 믿음, 의리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얼마나 거창한 위업을 이룩하시였고 또 인류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숭고한 인간세계를 새롭게 창조해나가고계시는가. 천만사람의 심장을 순간에 틀어잡는 위대한 수령님의 특출한 인간적매력, 그이께서 지니신 특유의 이 인간적매력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인가.

그것은 인간에 대한 뜨겁고도 진실한 사랑이다. 위대한 그이의 인간애는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그 열도에 있어서 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잡는 은혜로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허정숙의 얼굴에는 이름할수 없는 환희의 격정이 비껴흘렀다. 수령과 전사간의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뉴대는 조만간에 기적을 낳을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허정숙을 미더웁게 바라보시며 공화국을 위해 잘 싸운 그의 가족들을 문화선전상이 직접 만나보고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잘 돌봐주어야겠다고 간곡하게 당부하시였다.

회의장을 떠나 사무실로 돌아오는 허정숙은 내내 뜨거운 감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사량이 걸어온 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김사량이 세상에 더없는 행복자라고 생각하였다.

이 땅에 작가, 예술인 등 문화인들은 수백수천을 헤아린다. 그들중에 김사량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여러차례 만나뵈옵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사람들이 몇이나 되며 그이의 저택에서 소박하게 차린 식탁을 마주하고 항일전의 력사적사실들에 대하여 수령님으로부터 직접 새겨안은 사람이 또 몇이나 되는가.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마람유원지에 작가와 가족들을 부르시여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같이하여주시고 철없는 김사량의 자식을 목마에 태우시고 재롱을 받아주신 수령님의 그처럼 자애깊으신 은덕을 과연 사람들이 다 알고나 있는가.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량심적이며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신념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신 절대불변의 믿음을 받아안은 김사량처럼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겠는가.

허정숙이 사무실에 당도하니 김사량의 가족들이 모두 와있었다. 수령님으로부터 김사량에 대한 믿음의 교시를 전달받았을 때 가족들을 부르도록 미리 조처했던것이다.

가족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뵈온것처럼 기뻐하고 행복해하였다. 자기들의 아들, 남편, 아버지가 그처럼 수령님의 특별한 믿음속에 있다고 생각하니 이 세상에 부러운것이 없어보였다. 아버지처럼 자기들도 무한히 행복하다고 여겨졌다.

## □ 어둠을 불사른 광휘로운 빛발

### 생사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세월은 멀리도 흘렀다.

김사량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그처럼 곱고 현숙했던 안해 최창옥의 귀밑머리에도 어느덧 흰서리가 내리였다. 그의 네 남매도 이제는 커서 학교에 다니였고 맏아들 김량림은 대학졸업후 소원대로 교원이 되였다.

조국땅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대진군의 나팔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고 온 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과감

히 떨쳐나서고있는 벅찬 현실속에서 김사량의 가족들도 자기들이 맡은 초소에서 조국을 받드는 일에 매진하고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무거운 납덩이가 매달려 남모르는 괴로움을 주고있었다. 30여년이 지나도록 종무소식인 김사량의 생사여부는 이미 작고한 어머니에게 아물수없는 한을 남기였고 안해에게는 밤마다 베개잇에 눈물을 동이로 쏟게 하였다. 네 남매는 아버지를 찾다못해 이제는 기운이 진하여 자기들의 일기장에 피의 자욱으로 심장의 토로를 적는 형편이였다.

《아버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대답해주세요!》

맏아들 김량림이 대학을 졸업하며 벽을 두드리며 토해낸 한스러운 목소리이다.

가족들이 안타까움과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나날을 보내고있을 때 외부에서는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다.

1980년대 남조선문단계의 시인이라는 한 작자는 남들이 말하는 그 무슨 《실종》을 받아외우며 이른바 《산문시》라는데서 김사량은 《죽은 혼마저 이 땅에는 위로해주는이 없다.》, 《과연 언제면 그의 참모습이 우리 눈앞에 선명히 비쳐질것》인가라고 주제넘은 잠꼬대를 늘어놓았다. 남조선언론들과 극우인물들도 김사량이 《북의 정권에 의해 매장되였다.》, 《후퇴시기 전향하였다.》 등 갖은 랑설을 퍼뜨리였으며 일본의 보수적인 언론들은 《김사량실종설》을 내돌리며 괴이한 론조

를 내돌리고있었다. 그 론조인즉 김사량이 조선문단에서 《실종》된것은 그의 복잡한 경력과 관련되며 출신이 다르고 가정환경이 복잡하기때문에 《조선의 내부사정으로》 공화국이 그를 매장했다는것이다.

지내 약삭바르게 놀다가 드물지 않게 랑패를 보군 하는 일본특유의 고약한 근성이라 해도 알지도 못하면서 제나름의 추측으로 함부로 입질을 하는데는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다.

사실 김사량을 《의식적으로 말살》한것은 공화국이 아니라 남조선반동들이였다. 1965년 남조선문교부 장관은 지시문으로 《월북한 좌익작가 김사량의 작품을 금지》한다는것을 공식 발표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김사량말살의 극치》라고 말할수 있다. 작가에게 있어서 자기의 작품을 금지당한다는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때문이다.

《월북작가》, 《좌익작가》라고 얼토당토않은 랑설을 퍼뜨리면서 김사량을 매장하려고 한것은 사실을 날조하는데 이골이 난자들의 의도적인 도발이였다.

이미 김사량이 지리산유격구로 들어가 지탱하기 어려운 몸임에도 불구하고 선전처에서 맹렬한 투쟁을 벌리고있다는것은 해명된 사실이였다. 문제는 지리산유격구에서 싸우던 그가 그후 어떻게 되였는가 하는것이였다. 살아있으면 어떻게 살아있고 죽었으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것이였다. 이 문제가 해명되지 못하다나니 외부에서 별의별 랑설이 근거없이 나도

는것은 물론 김사량가족들의 주위에서도 곁을 주지 않고 그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현상도 농후하게 나타나고있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김사량의 자식들은 자기들이 떳떳하게 사람들앞에 나서자면 아버지의 최후가 똑똑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제는 다 커서 모든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던 그들이였다.

최창옥은 자식들에게 언제나 신심을 주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남편인 김사량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였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절대로 반동도 아니고 변절자도 아니다,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남편을 믿는다고 절절히 호소하는 어머니를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속에 바라보며 맏아들 김량림과 동생들은 아버지 김사량에 대한 믿음이 나날이 확고해졌다.

그래서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 근 15년간이나 맏아들 김량림은 많은 고심을 하였다.

김량림은 아버지와 함께 후퇴의 길에 올랐었고 아버지로부터 당중앙위원회에 보내는 당원증과 마지막편지를 받았었다는 당시 최고사령부 련락군관이였던 류치종의 행처를 알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던중 4년만인 1983년 8월에 그가 단천지구에서 년로보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있다는 단서를 쥐게 되였다. 수천리를 날다싶이 하여 달려간 김량림은 심심협곡의 소박한 단층집에서 류치종을 만났다.

량림이 그에게 인사를 하면서 《혹시 기억하시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종군작가 김사량을 아시는지요? 제가 김사량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다.

류치종은 처음에는 비자루를 들고 말뜻을 리해하지 못하였던지 대답없이 머뭇거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달라지며 계단에 털썩 주저앉으며 큰죄를 지은 사람처럼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잠시후 그는 《김사량선생을 알지요. 자제분이란 말씀이지요?》 하고 말했다.

《김사량의 아들!》 하며 몇번이나 되뇌이던 류치종은 얼굴을 싸쥐면서 흐느끼였다. 한참만에야 자신을 다잡은 그는 자기반성과도 같은 울분을 토하였다.

《자네 아버지는 내가 죽였네. 살아있는 사람을 적구에 떨궈놓고 온 내가 무슨 사람인가?》

량림은 그때 당시의 전후사연을 다 알고있는터라 류치종의 말을 들으며 생각이 많았다.

《심정은 알만 합니다. 하지만 더 걸을수 없는 아버지를 데리고 일행이 북행한다는것은 그때로서는 자멸의 길이였습니다.》

이 말에 진정이 되였는지 류치종은 담배를 말아 피워물더니 이제야 량림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30여년이 지났는데도 난 헤여지던 그때 일을 생생히 기억하네. 우리는 병고로 신음하는 김사량선생을 데려오지 못

했지만 지금에 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가 우리를 생사기로에서 구원해 **김일성**장군님품에 안기게 해주었네. 자기 한몸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렸단 말일세.》

류치종은 이름없는 산마루에서 김사량과 헤여진 후 북행길에서 있었던 가지가지의 일들을 두서없이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을 마치였다.

《정말 안됐네. 그와 헤여진 후로는 생사를 전혀 모르니까.》

김량림은 아버지가 지리산유격대에 들어가 싸웠다는것을 류치종이 모르고있다는것을 알고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문서고의 자료가 아니라 산증인을 통하여 헤여지기까지의 아버지행적을 명확히 알게 된것만으로도 족하였다.

북행길에 함께 오른 동지들이 끝까지 걸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닿게 하기 위하여 고립무원한 이름모를 산마루에 운신조차 하기 힘든 단신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안되였던 아버지!

아버지도 끝까지 걸어서… 아니, 걷지 못하면 담가나 등에 업혀서라도 사랑하는 자식들과 어머니 그리고 언제나 말없이 창작사업에 전념하도록 가정일을 도맡아준 안해의 곁으로 가고싶었으리라. 망국노의 쓰라린 체험을 안고 삶의 빛을 찾아, 민족재생의 위대한 해발을 찾아 현해탄너머로, 만주와 백두광야로 헤매이던 자기에게 한없이 따사로운 자애의 빛발로 새 생을 주고 새 삶을 준 어버이의 품으로 기어이 안기고싶었으리라.

하지만 이 모든것을 누르고 아버지는 대오의 짐이 안되는것으로 동지들을 위했다. 생의 본능까지도 무한한 동지애와 의지의 힘으로 누르면서 동지들이 위대한 태양의 품으로 어서빨리 가도록 재촉했다.

얼마나 고결한가. 얼마나 돋보이는 순결한 희생정신을 지닌 아버지인가. 바로 이러한 아버지에게 다른 일이 있을수 있는가. 다른 일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자체가 고귀한 신념에 대한 일종의 배반이나 변절이 아닌가. 공화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어중이떠중이들이 타당한 리유나 구실도 없이 망탕 궤변들을 늘어놓는것을 보면 그처럼 신념이 투철하고 정의감이 강했던 아버지 김사량으로부터 오는 공포감에 질려 줴쳐대는 나발들이 분명하지 않는가.

김량림은 단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차길에서 참으로 많은 인간수업을 했다. 아버지를 찾기 위해 공화국의 그 많고많은 고장들에서 만난 무수한 사람들이 김사량을 아름다운 인간으로 추억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 이는 가장 굳센 신념을 지닌 인간이다. 그럴진대 아버지는 살았으면 가장 아름답게 살았을것이고 죽었다면 가장 굳센 신념의 인간으로 생을 마쳤을것이다.

김사량의 자식들과 친척들, 고향마을의 선량한 사람들과 일터의 사람들은 김사량의 생사여부를 알기 위하여 자기들

이 애써 노력하고있을 때 어둠의 장막을 기어이 끝장내기 위해 참으로 위대한 광휘로운 빛발이 비쳐오고있다는것을 미처 모르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여 종군작가 김사량의 최후를 밝혀 그의 삶의 진가를 명확히 하여주는 문제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점의 마음속그늘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여기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사량의 최후를 밝혀내는 사업은 단순히 한 인간의 생사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끼고 믿어주시던 한 오랜 지식인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주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문제라고 하시며 오랜 기간에 걸쳐 김사량의 행적을 밝히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김사량과 함께 종군활동을 한 일이 있는 작가와 기자들, 김사량이 소속되여있었거나 취재한 일이 있는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 김사량의 원고를 접수처리한 일군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관계자들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한 작가의 정치적생명을 위한 중대한 사업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한편 문예총중앙위원회에서는 국가문서고와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문서적인 자료들을 확보할수 있는 곳들에 대한 집중적인 탐색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김사량의 발길이 닿은 중국과 일본 등 해외의 동포단체와 그 나라 문화기관들, 해외에 있

는 김사랑의 옛친구들에게 그의 행적의뢰문건을 대량적으로 발송하였다.

실로 생사를 알길없는 김사랑에게 비쳐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해발, 의리의 빛발은 그처럼 뜨겁고 광휘로왔다. 그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의 해발, 의리의 빛발속에 김사랑의 최후행적은 바야흐로 밝혀지고있었다.

## 《김일성장군 만세!》

자연계의 태양이 쏟아내는 해볕은 그 아무리 뜨겁고 밝다 해도 음지가 없는 양지만을 만들지 못한다. 하지만 이 땅 천만의 삶에 무한한 생의 활력을 주고 무한한 열정을 주는 인민의 태양, 민족의 태양이 발산하는 한없이 자애로운 해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속그늘도 말끔히 가셔주고있거니 정녕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인덕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심혈과 로고속에 김사랑의 최후는 드디여 밝혀지게 되였다.

1985년 8월이였다.

당시 문예총중앙위원회에서는 김사랑의 최후를 밝혀내기 위하여 각 방면에서 추적과 연구를 하고있었으며 그 일환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출판물들에도 낯을 돌렸었다.

출판물들은 해방전부터 해방후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70여

년간이나 루적된것으로서 참으로 방대한 량이였다. 사업에 동원되였던 한 전문가가 《광활한 사막에 떨어진 바늘찾기》라고 표현한것처럼 이처럼 많고많은 출판물들에서 김사량의 최후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는 사업은 그야말로 품이 이만저만 많이 드는 엄청난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조국해방전쟁시기 그처럼 잘 싸운 열혈작가의 최후를 밝혀내는 사업은 단순히 생사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끼고 믿어주시던 한 오랜 지식인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주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문제라고 하신 **김정일**장군님의 그 숭고한 뜻에 하늘도 감복한듯 《광활한 사막에 떨어진 바늘》이 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1951년 6월 남조선의 어느 한 방송은 지리산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에서 《공로》를 세운 《국군》장교와 남조선의 한 작가와의 좌담회를 방송하였으며 이 방송기사가 《국군》에서 발간하는 잡지에 실렸다.

1985년당시 4.15문학창작단 단장이였던 석윤기와 조선문학창작사 사장이였던 김병훈, 조선문학창작사 자강도 현역작가였던 백철수의 말에 의하면 그때 그 잡지의 표제와 내용, 장정과 삽화의 형식으로 보아 잡지는 8.15해방 6주년을 맞으면서 낸 특간호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방송좌담회에 출연한 작가는 누구이고 《국군》장교는 또 누구인가. 그 좌담회에 의하여 밝혀진 김사량의 최

후에 대한 새로운 자료는 무엇인가.

방송좌담회 출연작가는 이름이 박계주이다. 간도출신의 소설가인 그는 김사량과 대학동창생으로서 해방전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그는 일본류학을 마치고 조선에 돌아와서는 《려수》, 《새 사람》과 같은 잡지를 편집하다가 40년대부터 잡지 《신동아》의 전신인 《삼천리》와 《신시대》의 편집장을 하였다.

해방직후 김사량이 서울에 잠시 나가있을 때는 월간잡지 《민성》에서 주간으로 있었다. 《매일신보》현상모집에 장편소설 《순애보》를 당선시킨 후부터 본격적으로 문단에 진출한 박계주는 장편소설들인 《애로력정》, 《별이여, 나의 가슴에》, 《진리의 밤》, 《처녀지》, 《피의 제전》과 같은 주로 랑만주의적색채의 대중소설로 인기를 끌었다. 비록 무저항주의적이며 련애지상주의적경향이 농후하였지만 일제식민지통치하의 어두운 조선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사량의 주의를 끌었던 사람이였다.

《국군》장교는 지리산유격대《토벌》에 참가하여 김사량을 마지막까지 추적하다가 그의 최후를 눈앞에서 목격한자이다.

요약한 방송좌담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계주: 들은바에 의하면 지리산의 공산빨찌산에 북조선작가 김사량이 있었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아까운 사람을 죽

였습니다.

장교: 그자는 우리가 죽인것이 아니라 자폭했습지요.

박계주: 아니, 자폭을 하다니요?!

장교: 우리가 공산아지트를 발견하고 포위했을 때 그들은 발악적인 총사로 저항했습니다. 우리는 포위망을 좁히며 거듭 투항하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박계주: 그래도 사격은 안했겠지요? 생포해야 하였어요.

장교: 그래서 우리는 아지트에 화염방사기공격을 가했습니다. 투항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불길이 일자 두놈은 불길속에서 서로 부축하고 나왔는데 모두 만세를 부르며 두개의 수류탄으로 자폭했습니다.

그후 우리는 유격대포로를 데리고 두 시체앞에 갔었는데 포로가 하는 말이 그중 한사람이 북조선작가 김사량이고 다른 한사람은 유격대원이라고 했습니다. …》

전쟁이 끝난 후 박계주는 한 인물과의 회견에서 김사량을 죽인것은 큰 실책이였다고 비난하였다. 물론 공화국에서 그처럼 아끼고 찾는 공화국작가로서의 김사량을 두고 한 말은 아니였다. 단순히 김사량의 작가적재능이 아까와 한 말이였을것이다.

박계주는 후날 출판물을 통해 그 사실을 또 공개하였다. 그것은 그가 김사량의 불사신같은 영웅적최후를 접하고 그앞에서 큰 충격을 받았기때문에 반공, 반북의 회오리바

람이 한창 기를 쓰던 때 김사량의 최후를 공개할 용기를 가졌기때문이였다. 그자신은 1960년대 련탄가스중독으로 몇해 고생하다가 죽었다.

김사량의 최후에 대한 진실은 후날 불굴의 비전향장기수였던 리인모영웅이 쓴 장편회상록 《신념과 나의 한생》에 의하여 더더욱 명확히 확인되였다.

리인모영웅은 회상록의 《지리산의 밤》이라는 대목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형무소에 있을 때 지리산유격대출신의 한 동지를 만난적이 있는데 그는 자기네 부대에도 작가가 한명 있었다고 했다. 후퇴를 미처 못해 유격대에 합류한 북에서 종군나온 작가였는데 <국군>에 포위되자 <**김일성**장군 만세!>를 웨치며 자폭했다고 그 동지는 감동에 겨워 말했다.

북쪽에 와서 알아보니 그 작가는 바로 김사량선생이라고 한다. 일제때 벌써 대단한 문필력으로 아꾸다가와상에 론의되여 들썩하게 했고 일본의 나프문학건설에도 참가했다는것은 그때 벌써 널리 알려져있었다. 중국 연안에 가서 지낸적이 있어 <노마만리>라는 장편종군기를 썼고 해방후 평양에서는 <뢰성>이라는 장군님에 대한 장막극을 써서 공연했다.

그런분이였으니 적들의 손에 붙잡히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한것이다. 참된 문필가는 신념과 량심, 지조를 생명으로 아는 사람들이다.》

리인모영웅도 일본의 같은 대학을 다닌 김사량의 후배였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인민군신문 종군기자로 활동하였으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지리산유격대에서 싸웠다. 그러고보면 김사량과 리인모영웅은 다같이 비슷한 행적을 가지고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면 적들도 시인했고 영웅적삶을 산, 공화국의 여러 인물들도 확인한 김사량의 최후는 과연 어떠하였는가.

…북행길에 함께 올랐던 일행과 헤여지지 않으면 안되였던 김사량의 마음은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사람의 고독이라는것이 무엇인지를 실지체험으로 똑똑히 깨닫고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되였다.

가랑잎을 깔고 누웠는데도 울퉁불퉁한 생땅바닥이여서인지 잔등과 어깨가 몹시 아파났다. 진통제 한알 없는 김사량은 꾹 참고 견디는수밖에 없었다. 조금 있으니 동통이 사라졌고 그래서인지 뇌리에는 오만가지 생각이 갈마들었다. 그중에서도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이 가족모두와 함께 마람유원지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던 일이였다.

량림이, 그때는 너무도 어리였지. **김일성**장군님께서 그애를 목마 태우시고 거니실적에 어머니와 량림이 엄마는 너무 행복스러워 눈굽을 적시였지. 지금 량림인 무얼 할가? 이 전쟁판에 다들 무사하기나 한지?

사량은 문득 어느 책에서인가 인간은 불행에 빠졌을 때 가

장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한다고 쓴것을 본 기억이 났다. 동시에 와뜰 놀라며 상반신을 일으켰다.

(아니, 그럼 내가 지금 불행에 빠졌단 말인가?)

그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불행에 빠진것이 아니였다. 동지들을 무사히 떠나보내고 병든 몸으로라도 적과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이 산중에 떨어진것이였다. 불행은 믿을데가 전혀 없는 가엾은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민족의 구세주이시고 겨레의 사랑의 해발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고 또 그이께서 아시고 각별히 사랑을 받아안았던 사람이 내가 아닌가. 나의 혈육들은 지금 모두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겨있지 않는가. 나야말로 둘도 없는 행복자다.

사량은 쓸데없는 감상에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이때였다.

주위의 사방에서 인기척이 났다. 김사량이 귀를 도사리니 멀리에서 오는 잡관목을 헤집는 소리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리는 점점 커지고있었다.

사량은 자기가 포위되였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적들이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는 알수가 없었다.

그는 허리에 찬 권총에 손을 가져다댔다. 그리고 동지들이 남기고 간 수류탄도 주머니에서 꺼내 옆에 놓았다. 점점 가까워지는 놈들의 몰골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다. 50명정도

는 될것 같았다.

김사량은 자기에게 최후의 시각이 다가왔다는것을 직감하였다. 그의 눈길이 저도 모르게 북녘쪽으로 향해졌다. 저도 모르게 비장한 목소리가 심장에서 울려나왔다.

《**김일성**장군님! 부디 안녕하시여 이 전쟁을 이겨주십시오. 장군님만 계시면 조선민족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보천보의 불길이 꺼지지 않을것이며 공화국은 영원토록 무궁번영할것입니다.》

김사량은 제일 가까이 다가온 적장교놈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다. 단번에 그놈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꼬꾸라졌다. 그 총성에 다른 놈들이 순간이나마 주춤했다.

《야, 한놈이다! 총을 쏘지 말고 생포하라.》

적들속에서 터져나온 이 말에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산중턱에서 자지러진 총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적들이 삼대 무너지듯 쓰러지기 시작했다.

사량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보매 후퇴하는 인민군대오는 아닌것 같았다. 차림새로 보아 적구에서 활동하는 지리산유격대 전투원들인것 같았다. 그들의 인원은 대략 10여명이였는데 무장은 잘 갖추고있었다.

적들은 제압되였다. 살아남은 몇놈은 뺑소니를 쳤다.

몸에 쌍안경을 걸친 무장소조의 책임자되는 사람이 사량한테로 달려왔다. 그가 바로 1982년에 김사량을 구원하여 지

리산유격대에 데려다준데 대하여 회상한 지리산유격대출신의 당중앙위원회 일군이였다.

《어떻게 된겁니까? 아니, 몸이 말이 아니구만요.》

인민군군관복에 중좌의 견장을 단 사량을 모두가 내려다보며 그의 정상을 보고 놀라와하였다.

김사량은 책임자를 올려다보며 있는 힘을 다해 자기소개를 하였다. 그리고 혼자 남게 된 전후사연도 다 피력하였다.

《김사량선생이란 말입니까? 종군하여 락동강을 건너 남해에까지 진출하셨단 말입니까?》

무장소조일행의 놀라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보통의 의지와 담력으로는 이런 병세의 몸으로 종군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힘들다는것을 안 그들은 김사량이 한없이 돋보였다.

이윽하여 책임자가 대원들을 모여놓고 무슨 토론을 하였다. 그러더니 김사량에게 단도직입으로 말하였다.

《우리는 지금 임무수행중입니다. 동지를 태백산밀영아지트로 데려다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여 김사량은 구원되고 태백산밀영에 있는 지리산유격대의 병동으로 오게 되였다. 그곳에서 그는 치료를 할수 있는껏 다하고 몸을 추켜세웠다.

김사량을 맞이한 지리산유격대 지휘부에서는 대단한 인재가 나타났다고 기쁨에 설레였다. 만나는 사람마다 김사량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고 그를 위해주었다.

그는 밀영아지트에서 지리산유격대 선전공작처책임을 맡고 일하였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았는지 중환자같지 않았다. 정신의 힘이 그렇게 큰것이였다.

김사량은 유격대원들을 원쑤격멸에로 추동하는 힘있는 글을 많이 썼다.

그의 손을 통해 나가는 호소문, 공문, 삐라문 등 모든 글들은 전투원들속에서 기운이 솟게 하였고 원쑤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게 했다. 김사량은 언제 날이 밝고 언제 날이 저무는지 알수 없었다. 해가 전혀 비치지 않는 굴안에서 전등불대신 등잔불밑에서 글을 써야 되니 몇달이 지나자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백지장처럼 되여버렸다.

하지만 점점 커지는 유격대의 전과속에 자기의 몫도 당당히 있다는것을 생각하니 오히려 더 힘이 샘솟았다. 함께 일하는 대원들은 그의 몸에서 그렇듯 큰 힘이 발산하는것을 목격하니 자기들도 힘든줄 모르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전투에 전투가 이어지는 속에 날이 밝듯이 전투로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왔다. 1951년인것이다.

이해에 들어와 적들의 준동은 더욱 극심해졌다.

지리산의 산과 들, 골짜기마다 《토벌》의 총포성이 멎을 날이 없었다. 너무 무리한탓인지 김사량의 건강은 또다시 악화되여갔다. 어떤 때는 심하게 각혈도 하였다. 지휘부에서는 수시로 김사량의 건강문제를 놓고 론의가 분분했고 결국은

그를 사업에서 리탈시켜 병치료를 전업으로 하도록 결정하였다. 김사량자신도 앞으로의 투쟁을 위해서는 우선 몸부터 추켜세워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이렇게 되여 그는 험준한 산골짜기에 자리잡은 초막(병동)으로 옮겨지게 되였다. 일행은 둘이였다.

지리산과 하나로 잇닿은 산줄기의 산속인데도 총소리 같은것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귀에 들리는것은 산새소리와 골짜기밑을 흐르는 물소리뿐이였다. 한창 여름인 6월이라 초목이 너무 무성하여 한치앞도 가려보기 힘들었다.

김사량은 병치료에 전념하면서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 붓은 그자체가 그의 생명과도 같은것이였다. 붓이 멎으면 생명도 꺼졌다고 생각하는 그였다. 사량은 눈을 뜨면 붓을 잡았고 붓을 잡으면 일필휘지로 격동적인 글을 써내려갔다. 그렇게 쓴 각종 선전물들은 비교적 몸이 나은편인 함께 치료를 받고있는 유격대원이 지휘부로 날라갔다.

바로 이러한 두 생명에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운명의 시각이 덮쳐들었다. 참빗으로 쓸듯 지리산의 산과 골짜기들을 샅샅이 뒤지던 적들이 그들이 있는 초막을 발견하고 2중, 3중으로 에워쌌던것이다. 미친듯 퍼붓는 총탄이 비오듯 초막안으로 날아들었다.

《투항하라!》

《손들고 나오면 살려준다!》

초막안에서는 대답대신 총탄이 쏟아져나왔다. 악에 받친 적들은 초막을 향해 화염방사기를 들이대고 불을 뿜었다. 순간에 초막은 재더미로 변했다.

잠시후 매캐한 연기속으로 불에 그슬린 두 부상병이 서로 부축하며 걸어나왔다.

적해병대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그들을 에워싸고 총구를 들이댔다.

순간 적들을 전률케 하는 웨침소리가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이어 수류탄의 폭음이 산발을 들었다놓았다. 김사량과 유격대원은 자폭으로 최후를 마치였다. 김사량은 달리는 행동할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 길이였고 전사의 의리를 지키는 길이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제1계단에 있어서 종군작가였을뿐아니라 그야말로 용감한 전투원으로, 능숙한 정치일군으로 활동한 김사량은 이처럼 최후의 순간에 수령의 신임과 사랑에 어긋나지 않게 영웅적으로 전사하였다. 그날은 1951년 6월 23일이였다.

그가 마지막순간 수류탄을 터뜨리며 적들을 전률케 한 《**김일성**장군 만세!》의 웨침소리.

그것은 품어주고 아껴주고 내세워주신 위대하신 어버이수령님께

드린 마지막인사였으리라.

김사량의 빛나는 최후는 후대들에게 인생에 대한 말없는 교훈을 주고있다.

인생행로에서 생을 어떻게 마치는가 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생의 시작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생의 시작을 아무리 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생의 마감을 값있게 결속하지 못하면 그런 생은 빛날수 없다. 생의 시작이 아름다왔으면 마감도 아름다와야 한다.

훌륭한 최후를 마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은 시작과 과정도 아름답고 숭고해야 하지만 그 마무리를 고결하게 해야 한다. 이로부터 사람들속에는 인간의 한생에 대한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는 사후에 똑바로 해야 한다는 말이 전해지고있다.

력사에는 한생을 빛나게 장식하고도 마무리를 잘못하여 후세에 치욕으로 재평가된 영웅들도 있었고 말년에 인생전환을 하여 높은 공적을 세우고 생을 마침으로써 인민들의 기억속에 살아있는 그런 명인들도 적지 않았다. 바로 김사량은 길지 않은 37년 생애에 곡절도 많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참다운 인생길을 걸었고 생의 마감도 고결하게 장식했다.

이런 생, 이런 삶이 영원히 기억되는 참다운 생, 참다운 삶이 아니겠는가.

## 재능있는 작가, 혁명적인 작가

조국해방전쟁시기 남진하는 인민군대오와 함께 때로는 달리는 땅크우에서, 때로는 불타는 전호가에서 잉크 아닌 피로 글을 쓰며 락동강 최전선까지 달려나갔던 작가 김사량.

물론 그는 37살의 짧은 생애에 남달리 창작유산을 많이 남겼으며 문학적재능이 특출하게 알려진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래전에 생을 마친 그의 최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생을 바친 사람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끝까지 그 공적과 최후까지도 찾아 빛내여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믿음, 의리의 빛발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더우기 오래동안 행적을 찾을 길 없었던것으로 하여 세월의 흐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렸던 그가 마침내 절세위인들의 손길에 떠받들리여 《세계종군사에 없는 자폭작가》로 빛나게 된것은 참으로 기적중의 기적이 아닐수 없다.

김사량의 최후가 밝혀진것을 두고 그의 가족들은 이루 형언할수 없는 환희와 격정에 휩싸였다.

생사를 모르던 때로부터 과연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던가.

수십년동안 김사량의 혈육들이 흘린 그리움의 눈물, 슬픔의 눈물은 그 얼마였던가.

김사량과 연고관계가 있는 해내외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장렬한 최후, 고결한 희생을 두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보다는 한 인간의 최후를 끝까지 밝혀 생사여부가 아니라 정치적생명을 지켜주고 빛내여준 그 위대한 품에 대한 찬사는 실로 경이적이였다.

김사량에 대하여 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새 생명을 받아안은것처럼 끝없는 환희와 기쁨에 겨워하고있을 때였다.

김사량의 전투적인 종군활동과 그 최후에 대한 조사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기쁘시고 그 누구보다도 감개무량함을 금치 못하시였다.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해도 이처럼 격정에 넘칠것 같지 않으시였다.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돌리시고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보람이 참으로 크시였다.

세계전쟁사를 보면 전장을 종군한 유명무명의 기자나 작가는 많았다. 그중에 종군길에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실종되였거나 사망한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종군길에서 대오와 떨어져 적구에서 싸우다가 최후의 순간에 자기에게 생의 활력을 주고 삶의 희열을 안겨준 수령만세를 부르며 자폭한 작가는 김사량 한사람뿐이다. 그는 신념이 있었으며 의리가 있었다. 그리고 량심적이고 정의감이 강한 인간이였다.

그러고보면 어버이수령님께서 김사량을 너무도 잘 알고계신것이다. 너무나도 잘 아시고 너무나도 믿으셨기에 그이께서는 그 누구도 김사량의 최후에 대해 확고한 견해를 못 가지고있을 때조차 그는 정의감이 강하고 량심적이며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신념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확언하시지 않으셨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신념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신 교시를 생활의 철리, 력사의 진리로 간직하시였기에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이시여 김사량의 최후를 끝까지 밝혀내도록 하신것이였다.

조사보고를 다 읽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확신에 넘친 어조로 김사량은 비록 일제시기에 고등교육을 받았으나 민족적량심을 지니고 문필활동을 벌린 진보적인테리의 한사람이며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칭송한 재능있는 작가였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종군작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전사한 혁명적인 작가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재능있는 작가!

혁명적인 작가!

붓으로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작가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영예롭고 고귀한 칭호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마침내 력사에 그 이름이 깊이 새겨진 김사량은 37살밖에 살지 못

한 단명의 작가였어도 그보다 오래 산 작가들도 받지 못한 이 세상 더없는 성스러운 부름으로 불리우게 되였으니 이보다 더 성공한 인생, 행복한 사람이 또 있겠는가.

김사량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 배려는 끝이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국보인 《조선대백과사전》에 김사량의 이름과 그의 고귀한 행적이 오르도록 하여주시였으며 식량사정이 어려운 때에도 김사량가족전원이 평시와 같이 식량배급전량을 정상적으로 공급받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주변군부대에서는 지휘부성원들이 가정을 방문하고 생활상 제기되는 문제를 수시로 료해하였으며 군인들이 달라붙어 마당에 우물을 파고 졸짱을 놓아주었으며 살림집과 집짐승우리를 수리하고 많은 구멍탄도 실어다주었다.

또한 여러장의 고급모포와 솜이불, 옷감들을 전달하고 지어 부엌세간들까지 일일이 갱신하여주었다.

인민군렬사가족인 김사량의 가족을 인민군대가 돕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라고 하면서 주변에 주둔하고있는 인민군장병들이 떨쳐나 그들을 위해주는 아름다운 소행은 마을과 군, 온 나라의 인민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마을의 이웃들은 물론 군의 일군들과 학생들, 전쟁로병들, 가두녀맹원들까지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일**장군님께서 끝까지 품을 들여 찾아주

신 김사량선생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매일이다싶이 가족을 찾아와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또 하나의 격동적인 사실이 알려져 만사람들을 끝없이 설레이게 하였다.

김사량이 살아있었으면 일흔세번째의 생일을 맞았을 1987년, 바로 그해 3월 《김사량작품집》이 세상에 나온것이였다.

《김사량작품집》!

이것은 한 작가가 쓴 작품이 쌓아져 저절로 이루어진 작품집이 아니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에 의하여, 김사량에게 대를 이어 비쳐지는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의 빛발속에 다시 환생한 김사량의 영원한 넋이였다.

그의 생사를 알길없던 그때로부터 연연히 달은 바뀌고 해가 바뀌여 어느덧 40년 가까운 긴 세월이 흘렀고 교과서에서 김사량의 작품을 읽으며 자란 세대들도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고 우리 사회에 전쟁을 모르고 자란 세대들이 등장한지도 퍼그나 오래되였던 그때, 전진하는 공화국문단에도 오랜 작가들을 대신하여 새 세대 작가들이 등장하고 문단과 사회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남에 따라 김사량의 이름도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갔던 그때에 작가가 해방전후에 창작한 우수한 작품들중에서 대표적인 작품들을 묶어 저자를 소

개하는 글과 함께 편집한 이 책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파문을 일으켰다.

작품집의 서문에는 이렇게 씌여져있다.

《…김사량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열렬히 칭송하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작가이며 새조선건설과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한목숨 다 바쳐싸운 애국적작가이다.

김사량의 한생은 비록 짧았지만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사랑의 빛발속에 영생하고있으며 그가 남긴 문학은 인민들을 충성과 위훈에로 부르며 우리 주체문학의 아름다운 화원에 영원한 꽃으로 피여있을것이다.》

광범한 독자들속에서 저자의 이름을 크게 날리게 한 이 작품집이 발행되자마자 작가의 명예를 지켜주고 빛내주시려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에 대한 반향이 공화국경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크게 울려나왔다. 뿐만아니라 김사량을 변함없이 믿어주고 그의 명예는 물론 가족들의 마음속그늘까지 깨끗이 가셔주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여준 태양의 광휘로운 빛발앞에서 김사량의 《실종》과 《전향》, 《변절》에 대하여 함부로 떠들어대던 어중이떠중이들은 추풍의 락엽처럼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혀 더는 혀바닥을 놀려댈수 없었다.

김사량이 생전에 그처럼 갈망하던 개인작품집이 출판된데 이어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조선문학사》와 《문학통보》,

잡지 《천리마》 그리고 《로동신문》과 《평양신문》, 조선중앙TV를 비롯한 공화국의 출판보도물들에 김사량의 빛나는 삶과 작품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소개되게 되였다. 사람들의 심장을 더더욱 격동시킨것은 공화국의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기념비적도서들에 김사량의 종군기가 력사적인 전승사의 한 부분을 당당히 차지하여 력사에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참으로 재능있는 작가, 혁명적인 작가라는 이 고귀하고 성스러운 부름속에 종군작가 김사량은 자기의 넋이라고 할수 있는 《김사량작품집》을 비롯한 창작물들과 그를 소개하고 내세운 수많은 출판보도물들과 더불어 끝나지 않은 빛나는 생을 살고있다.

## 3대를 이어 부르는 빛의 노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사량의 가족들을 위하여 참으로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그 모든것을 여기에 일일이 적기는 힘들다.

다만 김사량의 장손녀와 관련된 이야기만을 소개한다.

김사량의 장손녀 김정향은 하반신신경마비로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몸이 되였다. 온 가족이 외딸의 병을 고쳐보려고 안 다녀본데가 없었다. 불치의 병으로 진단되여 희망마저 잃었다. 아버지는 딸이 어려서 다리를 다친 그때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빨리 손을 쓰지 못한것을 뼈저리게 후회하였고 끝내 대지를 활보하지 못하는 딸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고말았다.

정향이가 다리를 다쳤을 그때는 12살 나던 해였다.

강서군의 한개 리인 고창리사람들은 남녀로소가 다 속이 깊고 인정이 깊기로 유명하다.

바로 그곳에서 정향이가 자랐다.

집안의 외동딸이였던 정향이는 아침이면 어머니가 흔들어 깨워야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숙제공부를 하다가도 TV에서 아동영화가 나오면 좋아라 다가앉던 아직 동심을 채 버리지 못한 그또래 아이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소녀였다.

정향이또래의 아이들은 그와 놀거나 함께 다니기를 좋아했다.

그것은 그가 의협심이 강한 천성을 지니고있은데도 있었지만 공부나 조직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이여서 학급은 물론 온 학교의 자랑이였기때문이였다.

김정향은 글짓기에 소질이 있어 언제나 선생님과 학급동무들의 감탄을 자아내군 했다. 동네사람들은 그가 할아버지를 닮아서 글짓기에 소질이 있다고들 했다.

그가 2학년때인 어느해 3월 학년말시험이 한창일 때였다.

정향이의 담임교원이 퇴근하려다가 교실에 불이 켜져있는 것을 보고 발길을 돌리였다. 교실문을 열어보니 정향이가 공부에 열중하고있었다. 왜 아직 집에 가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대답하였다.

《전 오늘 글짓기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맞지 못했습니다. 10점 최우등으로 소년단원의 영예를 빛내이고 아버지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겠다고 한 맹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정향이를 꼭 그러안았다. 그는 정향이와 함께 밤을 지새며 복습을 도와주었다. 그때 그는 정향이의 일기장에서 이런 시를 보았다.

해마다 6월이 오면 떠오릅니다
수류탄을 높이 쳐든 할아버지모습이
남쪽의 하늘땅을 진감하며
태양의 빛발을 우러르며 터친
《**김일성**장군 만세!》의 웨침소리가

그 모습 그 웨침소리에
언제나 내 마음 비추어보며
할아버지처럼 살리라
할아버지처럼 해님만을 따르리라
이 마음도 날마다 커만 가요

문학과목을 담당한 담임선생님은 정향이의 문학적재능에 저으기 놀라며 물었다.

《이걸 혼자 힘으로 지었어요?》

《예.》

《정향학생은 앞으로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작가가 될수 있어요.》

그날 밤 정향이는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하루빨리 해님을 노래하는 작가가 되고싶습니다.》

《그래, 머지않아 그날이 올거예요.》

《야, 작가! 나도 할아버지처럼 작가가 된다!》

정향이는 좋아라 뜀박질을 하였다.

선생님은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념은 유전되는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할아버지처럼 살려는 어린 마음의 그 자각, 키워주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태양의 해발을 노래하는 작가가 되겠다는 그의 결심을 놓고 교육자로서 우리 후대들이 그처럼 순결하게 자라는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정향이가 앞으로 꼭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치는 사람이 되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 다음해였다.

겨울방학기간이 다가오자 정향이는 많은 계획을 세웠다.

학습과제는 물론 좋은일하기운동도 무엇을 할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서에 반영한 그는 한가지 문제만은 계획에 반

영하기를 망설이였다.

학급에 특류영예군인의 딸인 류경이가 있었는데 그의 학과실력이 다른 동무들보다 크게 뒤떨어져있었다. 그런데 그를 돕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던것이다.

담임선생을 찾아간 정향이가 이야기했다.

《선생님, 류경이 일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침 잘 왔어요. 나도 지금 그걸 생각하던 참이였어요.》

정향이는 무등 기뻤다. 선생님도 류경이를 도와주는 일때문에 고심했다니 무슨 방도가 나질것이였다.

《문제는 류경이의 부담을 덜어주는거예요. 그러자면 하루이틀이 아니라 늘쌍 동무들이나 내가 그의 집에 드나들며 제집일처럼 돕는겁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난 정향이는 생글생글 웃었다. 그리고 동무를 돕게 되였다는 생각으로 하늘을 날것 같았다.

학급동무들이 계획에 따라 여러가지 일을 분담하였다.

정향이가 받은 분담은 류경이의 수학학습을 도와주고 다른 동무와 함께 그의 아버지치료에 좋은 고려약을 마련하는것이였다.

동무들이 떨쳐나 도와나서니 류경이의 얼굴이 환해졌고 집에도 활기가 띠였다. 그의 학과실력도 나날이 높아갔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정향이는 방향을 바꾸어 마을앞을 지나는 강가로 향했다. 얼음판우에서 썰매를 타고있는 옆집의 6살 난 어린이 국철이를 데려가기 위해서였다. 아침에 국철이 엄마가 직장에 나가면서 겨울방학이 되여 집에 있군하는 정향이에게 국철이를 부탁했던것이였다.

그는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날듯 한 걸음으로 얼음우를 걸으며 놀음에 정신이 팔린 많은 아이들가운데서 국철이를 찾기 시작했다.

이때였다.

강 한복판에서 아이들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국철이가 얼음구멍에 빠졌다!》

이맘때면 한겨울인데도 따뜻한 날씨일 때는 얼음이 녹기때문에 얼음판에 오른 사람들은 누구나 주의해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정향이는 고함소리가 난쪽으로 뛰여갔다.

한참 달려가보니 얼음구멍에 빠진 국철이가 물속에 잠겼다가는 솟구치고 그러다가는 또 잠겨버리면서 허우적거리고있었다. 간신히 솟구쳐올라 주위의 얼음판을 잡으면 맥없이 깨여져나가군 했다.

《국철아!》

정향이는 고함을 치며 더 생각할새없이 차디찬 물속으로 뛰여들었다. 그리고는 자맥질을 하여 그의 몸을 으스러지게 잡아안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마을쪽에서 아이들이 울며불며 떠드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달려왔다. 어른들이 국철이를 꽉 붙잡고서 정신을 잃은 정향이를 강가로 업어내왔다. …

마을에 있는 진료소의 의사선생님과 학급동무들이 찾아와 목메여 불렀다.

《정향아, 눈을 좀 떠. 우리가 왔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2월의 명절이 왔다.

학급동무들은 천리마구역에 가기로 약속하고 길을 떠났다. 그곳에 정중히 모셔져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자기들이 키운 향기그윽한 꽃을 드리려는것이였다.

《정향이도 있었으면. 그가 얼마나 이날을 기다려왔니.》

동무들은 자기들의 행렬에 정향이가 없는것을 몹시 서운해하였다.

먼길을 걸어 천리마구역에 도착한 학급동무들은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동상앞에 다가섰다. 많은 사람들이 붐비며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정히 안고 온 꽃송이들과 꽃다발들을 드리고있었다.

자기들의 차례가 되여 꽃을 드리려던 학급동무들이 일시에 놀랐다.

(아니, 정향이가?)

정향이가 화락하니 땀으로 젖은 모습으로 대렬에 들어서

는것이였다.

동무들은 묻지 않았다. 어떻게 그 몸으로 여기까지 왔는가고.

하지만 모두는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달리는 살수 없는 그였던것이다.

정향이가 병원의 침상에서도 정성담아 피워가지고 온 꽃다발을 정히 드리였다.

정향이를 비롯한 아이들의 그 기특한 모습을 목격한 군의 일군들은 너무나도 감동되여 잠시라도 려관에 가서 쉬였다가 가라고 권유하였으나 학생들은 그길로 학교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하는수없이 일군들은 서둘러 뻐스를 조직하여 어린 학생들을 학교로 태워보내주고는 눈가에 뜨거운것이 맺히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흔히 사람들은 깨끗한 마음을 수정이나 순금에 비유하고 아침이슬이나 샘물에도 비교한다.

정향이의 그지없이 순결한 마음, 이를 어찌 수정이나 순금에 비유할수 있겠는가.

아직은 그의 하나하나의 자욱을 충정과 애국이라는 거창한 부름으로 평가할수는 없지만 자기를 품어안아 키워준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끝없는 충정으로 충만된 그의 마음은 참으로 고결하다고밖에는 달리 표현할길 없다.

그후부터 웬 일인지 정향이는 쩍하면 다리가 아프다며 울

상이 되군 하였는데 부모들은 그가 얼음구멍으로 뛰여들었을 때 갑자기 차디찬 얼음과 물에 몸이 잠겼댔으므로 그 후유증이 아닌가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때 정향이가 얼음구멍에 뛰여들면서 강바닥의 모난 바위돌에 몸이 부딪친것을 누구도 몰랐다. 그 바위가 하반신으로 뻗어있는 신경을 끊어놓다싶이 했다는것을 후에 병원에 가서야 알게 되였다.

가족들은 맥을 놓고야말았다. 하반신마비가 왔고 그걸 고쳤다는 이야기를 부모들은 들어보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래도 앉은뱅이딸을 놓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부모들이 가만있을리 만무했다. 온 한해, 아니 10년을 넘게 그를 업고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다녔다.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고 하였건만 조금도 추서지 않는 정향이의 몸을 두고 부모들은 눈물로 날과 날을 보내였다.

그러던 1991년 12월이였다.

광휘로운 태양의 빛발이 어두운 마음들에 따사로이 비쳐들었다.

김사량의 가족에서 그의 맏손녀가 하반신마비로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즉시 김사량의 손녀를 치료완치시킬데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 사랑, 그 은정에 떠받들리여 정향이는 지방과 평양의 전문병원에서 1년 6개월동안 특별치료를 받게 되였다. 평양

의 김만유병원에 7개월동안 입원해있던 기간에는 고가약이란 약은 다 쓰면서 공화국의 권위있는 의료전문가들의 집중치료도 받게 되였다. 김사랑의 손녀가 위대한 장군님의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정속에 불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입원해있다는것을 알게 된 고향사람들과 평양의 낯모를 사람들, 병원의 전체 직원들이 떨쳐나 정향이의 회복을 위해 실로 눈물겨운 지성을 다하였다.

드디여 정향이는 병을 완치하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대지를 활보하게 되였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져다주신 사랑의 기적이였다.

정향이는 퇴원하는 날 호실창가에 서서 푸르른 창공을 향해 이렇게 웨쳤다.

《할아버지! 나 걷게 되였어요. 할아버지를 감싸안아 생을 빛내준 따사로운 그 해빛이 나에게도 포근히 비쳐들었어요.

아,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처럼 행복해요. **김정일**장군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이야요!》

만리대공으로 정향이의 마음속진정이 메아리쳐 울려갔다.

그것은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우러러 3대를 이어 부르는 영원한 빛의 노래였다.

## 김사량의 일화 몇가지(2)

### ○ 장군님 덕분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믿음의 해발속에 수십년전에 생을 마친 김사량의 최후가 영웅적이였다는 감동깊은 사실이 공화국국내는 물론 해외에 널리 퍼지기 시작한 그때 많은 기자들이 커다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김사량과 그 가족들에 대한 취재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그들가운데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조선신보사의 기자 김지석도 있었다.

남달리 촉각이 빠르고 정치적감각이 예민한 그는 이전에도 사람들이 알고싶어하는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원만히 준것으로 하여 신문사에서 손꼽히는 토픽뉴스기자로 명성이 자자했다. 항간에서도 그의 글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읽는 판이였다. 그런지라 김사량의 최후소식으로 해내외가 벅적 들끓자 신문사에서는 김지석을 공화국에 파견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일군의 마중을 받은 그는 일군에게 호텔이 아니라 곧장 김사량의 가족들에게로 자기를 안내해줄것을 간청하였다. 조국에 수많이 드나든 김지석에게 있어서 전례없는 일이였다.

김지석의 요구는 쾌히 수락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곧장 김

사량의 가족들이 살고있는 고창리로 향하였다.

차창밖으로 모내기가 끝난 전야의 푸르른 전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김지석은 벼이삭이 무르익는 가을이 아닌것이 섭섭했다. 그것은 김사량이 따가운 해볕속에서 미풍에 설레이는 벼이삭들을 보며 사색의 나래를 펴기 좋아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그래서인지 자기도 벼바다속에서 김사량의 최후에 대한 좋은 글감을 생각해내고 멋지게 글을 써낼것 같았다.

고창리에 당도했을 때는 정오무렵이였다. 사전에 련락을 받지 못했는지 집에는 아들이 없었다. 다만 하반신마비로 운신못하는 손녀 김정향이 침상에 조용히 누워있을뿐이였다. 그도 그럴것이 비행장에서 내리면 의례히 호텔에 려장을 풀고 취재는 그 다음날에 이루어지군 하여서 이번에도 조국에 도착한 즉시에 곧장 취재지로 올것이라는것을 생각지도 못한 가족들이였다.

해외동포기자가 왔다는 전갈을 받은 맏아들 김량림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차림새로 그대로 달려왔다.

오랜 시간에 걸쳐 김지석의 취재는 진행되였다. 많은 사진도 찍었다. 반나절도 안되여 이렇게 큰 수확을 거둔것은 김지석이 기자생활을 시작한이래 처음이였다. 김지석은 그 다음날로 귀로에 올랐고 본사에 도착해서는 그날 밤으로 집필을 끝내였다.

1986년 7월 30일부 《조선신보》에는 《어둠속에서 해방의 빛속으로》라는 표제와 《혁명작가 김사량과 그 발자취》라는 부제목을 달고 김사량에 대한 기사가 사진과 함께 특집으로 편집되여 실렸다.

글은 나가자마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조선동포들은 물론 일본사람들속에서도 반향이 대단했다. 독자들의 강렬한 요구에 의해 김지석은 그 련속편을 쓰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1986년 8월 18일부에 《남해바다가 보인다》는 표제밑에 김사량에 대한 글이 또 실리게 되였다.

후날 《조선신보》 기자, 편집원들이 조국에서 돌아오자바람으로 원고를 하루동안에 써내고 글이 그처럼 독자들의 심금을 울린 비결이 무엇인가고 김지석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속마음을 터놓았다.

《수십년이나 묻혀있던 김사량의 최후를 끝까지 밝혀내여 그의 삶을 빛나게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가 눈물겹고 세계종군사에 없는 자폭작가 김사량의 최후가 너무도 영웅적이여서 나의 붓은 거침없이 달렸다. 나는 실로 감동적인 력사적사실에 채색을 하지 않았다. 사실 그대로가 사람들에게 더 실감을 주고 더 교훈을 주리라고 생각했기때문이다. 한마디로 내가 글을 빨리 쓰고 글이 사람들을 매혹시켰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김사량의 최후를 밝혀내신 장군님 덕분이다.》

## ○ 아버지로부터 받은 《특수임무》

종군작가 김사량의 최후가 기적적으로 밝혀질무렵에 있은 일이다.

일본의 문화인대표단이 공화국을 방문하여 평양과 지방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는데 대표단일행중 한 성원이 수상쩍게 행동하여 사람들의 의혹을 자아냈다.

그는 참관일정에도 없는 지방의 도서관에 들어가 신문이나 잡지를 보여줄것을 요구했고 어떤 때는 대표단의 참관로정에서 벗어나 호텔의 홀에서 공화국에서 나오는 신문들을 열독하군 했다. 호텔에서 볼수 있는 신문이나 잡지를 다 보고서는 안내원에게 다른데서 신문들을 더 구해다줄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렇게 열흘이 지나갔다. 그런데도 그는 공화국출판물들에 대한 탐독을 그치지 않았으며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에는 나날이 시름이 짙어갔다. 저녁에 대표단일행이 돌아와 그의 신상을 보고 어디 편치않은가고 물으면 그는 도리질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그는 이날만은 신문이나 잡지를 보지 않았다. 그대신 아침식사를 끝내고는 곧장 안내일군이 들어있는 방을 찾아갔다.

《한가지 물어도 좋습니까?》

그의 말에 안내일군이 쾌히 응했다.

그러자 그는 활기를 띠며 말했다.

《이북에서는 작가 김사량을 어떻게 보고 평가합니까?》

일군으로서는 전혀 뜻밖의 질문이였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도 김사량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알고있었던것이다. 하지만 그의 리해를 정확히 그리고 풍부히 해주기 위하여 다음날 문예총일군과 면담하도록 하여주었다.

평양이 사방으로 한눈에 바라보이는 호텔의 만장에 위치한 회전면담실에서 그들은 만났다.

문예총일군이 대표단성원에게 먼저 말을 꺼냈다.

《왜 김사량선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계시는지 그것부터 알고싶은데요?》

대표단성원은 매고있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놓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처럼 작가였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아버지는 김사량과 동기동창생이였으며 서로 마음이 통해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인지 대학 재학당시 일본의 내외정세가 전례없이 긴장하고 살벌했지만 둘은 사상문제와 정치문제에 대하여 터놓고 론의하기를 좋아하였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된 조선의 독립문제와 조선사람들의 가긍한 처지를 놓고 밤새도록 열변을 토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러던 어느날 밤 아버지는 일본경시청에 있는 친구로부터 조선국내에서 변이 났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김일성**장군 항일유격대가 국경을 넘어와 보천보를 들이쳤다는것이였다. 자정이 넘었지만 아

버지는 한 동료와 함께 김사량이 있는 하숙방으로 달려갔다. 그 하숙방에서 보천보소식을 들은 김사량이 흥분하여 진정하지 못하고있던 모습을 아버지는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있었다. 세월은 흘러 김사량과 아버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헤여지게 되였다. 아버지는 그후 김사량의 행적을 알기 위해 무척 애를 썼지만 귀에 들려온것은 썩 좋은 소식이 못되였다. 조선전쟁때 김사량이 남조선의 원주계선에서 행불되였다는 말을 듣고는 혹시 남조선에 살고있지 않을가 하여 수소문도 해보았다. 그러던중에 총련계사람을 통해 공화국에서 김사량의 최후행처를 밝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아버지는 무등 기뻤다. 역시 김사량은 살아있을 때에도 정의로웠지만 생의 마감도 정의롭게 했다고 생각되였다. 그 찰나에 문화인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아들이 공화국을 방문하게 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특수임무》를 주었다.

그 《특수임무》란 아들이 직접 제눈으로, 제귀로 공화국에서 김사량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가를 알아오라는것이였다. 말하자면 출판물에서 공개적으로 떠드는것과 다른것이 있는가 하는것을 알아내는것이였다. …

문예총일군은 소리내여 웃었다. 김사량과 연고관계가 있는 인물, 그런 인물의 아들이여서 능히 그런 질문을 할수 있다고 생각되였다. 그는 대표단성원이 알기 쉽게 모든것을 설명해주었다.

일본으로 돌아온 아들로부터 김사량은 **김일성**주석님으로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량심이 있으며 신념이 있는 작가라는 과분한 신임과 믿음을 받아안았으며 **김정일**장군님의 각별한 은총에 의하여 누구도 관심하지 않았고 또 관심할수도 없었던 생의 최후까지도 밝혀져 세상에 없는 자폭작가로 빛나게 되였다는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감개무량하여 이렇게 뇌이였다.

《역시 위인들은 다르다. 김사량선생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위인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된게 나는 더 기쁘다. 너에게 <특수임무>를 준 보람이 있다.》

## ○ 위력한 편지가 날아온 사연

김사량은 전선을 종횡무진한 용감한 종군작가였을뿐아니라 군인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유능한 정치일군, 선동일군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락동강도하전투를 앞두고 있은 일이였다.

적과 대치한 어느 한 계선에서는 산발적인 치렬한 격전이 계속되고있었는데 놈들은 인민군대가 락동강을 도하하기 전에 인민군전사들의 《맥》을 다 뽑아버리기 위하여 계속 공격을 가해왔다. 계선을 차지한 인민군전사들은 지휘관까지 모두 17명이였는데 그들은 적들이 공격을 해올 때마다 모두 저

지시켰다.

악에 받친 적들은 다음날 12대의 땅크를 앞세우고 사면팔방에서 공격을 해왔다. 전투는 가렬하고 처절했다. 적들은 발악적으로 17명의 인민군전사들이 차지하고있는 진지가까이로 접어들었다.

진지에서는 육박전이 벌어졌다. 적들을 격퇴시킨 뒤 진지에 남은 병사는 8명뿐이였는데 그중에는 원해라는 병사도 있었다.

강계주변의 한 농촌마을에서 태여난 그는 전쟁이 일어난 해에 결혼하였다.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전선에 탄원한 그 병사를 젊은 안해는 뜨겁게 배웅하였다.

(내 기어이 조국을 지키는 싸움에서 용맹하리라.)

이런 맹세를 가다듬고 전선으로 달려나온 병사는 수많은 싸움들에서 용맹을 떨치였다. 그러다가 남해바다가를 눈앞에 둔 락동강가에서 도하를 앞두고 차지한 계선에서 적들과 싸우게 되였던것이다.

그는 적들이 도사리고있는 산야를 바라보면서 담배를 한대 꼬나물었다. 그의 머리속에는 한가지 생각만이 지배하였다.

(기어이 적들을 물리치고 락동강을 도하할테다.)

살아남은 8명 병사들은 상부로부터 받은 도하시간을 알고 있었다. 그때까지 남은 시간으로 보아 이제 한차례의 격전이 있을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 마지막싸움을 앞두고 흥분

되여있었다.

이때였다. 전선사령부에서 오는 통신원이 도착하였다.

총포탄이 비발치듯 오가는 지역을 통과하면서 달려온 통신원은 그들에게 편지 한통을 내밀었다. 8명중에 제일 나이많은 분대장이 그 편지를 받아 읽어보았는데 원해에게 온 편지였다.

《아들을 낳았어요. 이 기쁜 소식을 어서 전하고싶었어요. 부디 잘 싸워주세요. 안해 금순》

소박한 편지였다. 분대장은 원해에게 편지를 쥐여주었다. 원해는 너무도 기뻐 환성을 올렸다. 그의 집은 3대독자로 내려왔다. 이런 그에게 있어서 생남은 실로 큰것이 아닐수 없었다.

그는 전투를 앞둔 긴장한 때라는것도 잊고 진지에서 벌떡 일어나며 전우들에게 웨쳤다.

《동무들! 우리 처가 아들을 낳았소. 우리 조국의 미래를 지켜 용감히 싸웁시다!》

병사들은 모두 그를 축하해주고 《조국을 위하여! **김일성**장군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를 웨치면서 공격해오는 적들속으로 육박해들어갔다. 그 힘은 실로 놀라왔다.

8명의 병사들은 최후의 돌격전에서 적들을 수많이 쓸어눕히고 증원부대가 올 때까지 그 계선을 끝내 사수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전사하였다.

전우들을 위훈에로 불러일으킨 원해의 손에는 그 편지가 꼭 쥐여있었다.

증원부대 병사들은 그들의 위훈에서 큰 고무를 얻고 원쑤들을 족치면서 락동강가에로 가닿는 통로를 열었다. 한장의 편지가 내는 힘은 실로 컸다.

전선사령부에서는 원해의 안해가 보내온 편지를 전 전선병사들에게 모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그 편지는 락동강도하전투에서 적지 않은 위력을 발휘하였다.

사람들은 그들의 위훈에서 몇천몇백마디 연설보다 소박한 아낙네의 한장의 편지가 내는 힘을 똑똑히 느끼게 되였지만 그 편지가 가렬처절한 락동강계선에까지 와닿은 사연만은 알지 못하였다.

후에야 사람들은 락동강전호속에서 종군기집필에 여념이 없던 김사량이 짬만 있으면 원해와 허물없이 대화하는것을 상기하였고 그가 원해의 고향에 편지를 보내여 안해로 하여금 남편에게 그 위력한 편지를 쓰게 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 □ 빛속의 생은 푸르다

## 60여년후에 수여된 영웅칭호

주체102(2013)년 7월 자정도 지난 어느날 밤이였다.

한대의 승용차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건설장으로 미끄러지듯 달려오더니 기념탑대문앞에 이르러 서서히 멈춰섰다.

승용차문이 열리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내리시였다.

황급히 달려온 일군들이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 깊은 밤에…》

격해지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뒤말을 잇지 못하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그이께서는 자정이 지났지만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고싶어 또 나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곳을 차례로 돌아보기 시작하시였다. 밤은 점점 깊어져 어느덧 새벽 2시를 가까이하였건만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영웅홀로 걸음을 옮기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공화국영웅홀이 멋있다고 하시며 기쁨속에 영웅홀을 바라보시였다.

이때였다.

그이께 한 일군이 여기에 전쟁시기 배출된 공화국영웅, 로력영웅 수백명을 전시하고 종군작가 김사량영웅의 자료를 더

전시하려 한다고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의 말에 수긍하시며 적후에 떨어졌던 영웅작가의 생애를 더듬으시는듯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였다.

세계전쟁사나 인류문화사를 살펴보면 종군한 문예인들이 적지 않지만 자기의 최후가 영원히 알려질수 없는 정황에서 영웅적으로 자폭한 사람은 조국의 귀중함을 뼈에 새긴 작가 김사량뿐이다. 그가 생의 마지막순간에 터친 심장의 웨침, 오랜 세월의 곡절많은 언덕을 넘어 조국에 전해진 사실은 결코 세월의 장막으로 없앨수 없고 인간의 망각으로도 지울수 없다.

김사량은 너무도 아까운 나이에 생을 마치였다. 참으로 애석하고 아쉬운 삶이였다.

그러나 누가 감히 그의 생이 끝났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누가 그의 창작이 끝났다고 생각할수 있겠는가.

깊은 감회속에 잠기셨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윽하여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김사량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고 종군작가로 적극 활동하였으며 자폭으로 최후를 마치는 마지막순간까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그에 대하여 자주 회고하시였습니다. 당에서는 김사량이 전사한지 6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

여 지난 6월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새벽 2시, 삼라만상이 다 잠든 야밤삼경에 60여년전에 세상을 떠난 한 작가의 생애를 뜨겁게 추억하시며 동서고금에 없는 사랑과 의리의 숭고한 세계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러 일군들은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그러면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영웅홀에 전시된 참전영웅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정겹게 바라보시며 걸음을 옮기시는 그이를 따라섰다. 김사량영웅의 사진앞에 이르러 그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앞에 수십일전에 있었던 감격의 그날이 영화의 화면처럼 다시금 펼쳐졌다.

2013년 6월.

이무렵 조국땅에서는 다가오는 전승절을 맞으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친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위훈에 대한 발굴 및 조사사업을 다시금 진행하여왔는데 그 일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오랜 기간의 진지한 노력끝에 전사자들의 가족들은 물론 함께 싸운 전우들도 모르는 새로운 영웅적사실이 수많이 밝혀졌으며 그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도 보충되고있었다.

이미 1980년대 중엽에 수십년간이나 알려지지 않았던 전쟁시기의 최후가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속에 밝혀진 김사량종군작가에 대한 평가도 그중의 하나였다.

새롭게 밝혀졌거나 다시금 재조명된 하나하나의 력사적사실

들과 영웅적위훈에 대한 자료들은 방대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신념이 있는 사람, 정의감이 강하고 량심이 있는 작가라고 크게 평가하여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재능있는 작가, 혁명적인 작가라고 하시면서 품들여 그 최후를 밝혀주신 김사량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며 그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김사량에게 영웅칭호를 수여하는 모임이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김사량의 가족들은 물론 그와 연고관계가 있었던 몇몇 안되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 공화국의 이름있는 작가, 문예인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김사량이 입당보증을 해주고 안해까지 얻어준 관록있는 희곡작가 박혁이 지팽이에 몸을 의지하여 걷는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수여모임에 참가하여 주석단에 올랐다. 해외에서 출장차로 조국에 체류하고있던 동포작가들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수여모임은 한 인간의 공적을 기리여 그에게 표창을 하는 그런 단순한 회의가 아니였다. 인간은 한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생의 마감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누구나 바라지만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닌 인간의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가 누구이든 조국과 인민, 민족을 위

하여 조금이라도 이바지한 사람이라면 크게 내세워 그 삶을 빛내주는 자애로운 사랑과 믿음, 의리의 빛발은 과연 어떻게 되여 세대와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영원히 비쳐지는가 하는 인생의 철리를 만방에 다시금 새겨주는 숭엄한 모임이였다.

영웅칭호를 수여하는 모임에서 김사량의 손자가 터친 진정의 목소리는 큰 진폭으로 장내를 진감하며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다.

《저의 할아버지는 해방전 부유한 가정에서 태여나 일본에 건너가서 대학까지 나온 식민지지식인으로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별로 큰일을 한것이 없는 작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최후는 지리산속 어느 골짜기의 고립무원한 정황에서 마쳐진것으로 하여 오랜 세월 생사여부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가친척들의 마음속 한구석은 늘 무거웠고 그것도 세월이 흐르고흘러서 이제는 없어지고 모습조차 기억에 남지 않았댔습니다. 그런데 절세위인들께서 그토록 많은 품을 들여 할아버지생의 자욱자욱을 더듬어 찾아 빛내주시고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0년이라는 오랜 세월의 이끼에 묻혀있던 자그마한 공적을 귀중히 여겨 공화국영웅이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셨으니 이 대해같은 은혜를 무슨 말로…》

너무도 감격이 극하여 말을 채 끝맺지 못하고 오열을 터뜨리였으나 사람들은 그가 하려던 심장의 고백을 똑똑히 듣

고있었다.

60여년세월이 흐른 뒤 수여된 공화국영웅칭호, 이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심장이 피여올린 영생의 꽃이고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정화라고.

모임마감에 박혁이 연단에 나섰다. 회의절차에 따르면 그의 발언은 계획되여있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그의 손에는 연설문도 없었다. 하지만 참을래야 참을수 없고 끓어오르는 격정을 안고 그는 사람들을 향해 심장의 토로를 하였다.

《…남조선의 어느 한 시인은 자기의 시에서 눈덮인 들길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있는 김사량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시도하였으며 일본의 어느 한 작가는 김사량은 빛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김사량은 그토록 그리던 빛을 똑바로 찾은 사람이며 그 빛발아래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똑똑히 깨닫고 그 길우에서 보람차게 살았으며 참되게, 값있게 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각의 이 자리가 그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새기게 하여주고있습니다. 김사량선생의 생은 태양을 따라 돌면서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별과도 같은것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불변의 광원인 태양의 빛발을 받아 빛나는 별은 영원히 그 빛을 잃지 않음을 김사량은 길지 않은 자기의 삶으로 뚜렷이 증명했습니다.》

절세위인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과 고매한 은정, 고결한 의리에 떠받들리여 영생의 언덕에 오른 김사량.

과연 누가 그대의 삶이 37살에 끝났다고 말하랴.

**김정은**동지!

위대한 그이의 넓고도 넓은 의리와 믿음의 품, 세대와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영원히 비쳐지는 태양의 빛발속에서 김사량의 삶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할것이다.

## 김사량은 살아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여나 식민지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엄두도 낼수 없었던 외국류학까지 마친 작가였던 김사량, 자기의 가정적울타리와 계급적처지를 과감히 박차고 의로운 길을 찾아, 참다운 삶의 빛, 민족재생의 해발을 찾아 그처럼 모대기고 방황했던 열혈의 작가, 마침내는 그 위대한 해발속에 안겨 참된 생의 활력을 되찾고 끓어오르는 심장의 피로 삶의 태양, 민족의 태양을 격조높이 노래했으며 조국에 시련이 닥쳐오자 그처럼 젊은 아까운 생을 기꺼이 바치며 태양만세를 소리높이 웨치고 자폭한 영웅작가.

이러한 김사량이 생을 마친 때로부터 60여년이 지나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사실은 해내외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해외에서 김사량의 운명을 두고 머리를 기웃거리

던 사람들, 그와 연고관계에 있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김사량이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은 후 김사량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있었다. 그것은 그무렵 평양의 풍치수려한 석박산기슭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그 내용과 규모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가 마감단계에서 꾸려지고있었기때문이며 연고자들, 그 후손들이 커다란 기대속에 주시하고있는것은 바로 이 렬사묘에 전쟁참전자인 김사량이 안치될수 있는가 하는것이였다.

주체102(2013)년, 이해는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

세월의 흐름은 많은것을 희석시키고 잊게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떠나간 영웅전사들에 대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더욱 부각되고 진함을 모르는 영원한 사랑과 의리의 위대한 세계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백전로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령군술, 무비의 담력 그리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영웅적인민군대와 인민에 의하여 거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를 보다 의의있고 빛나게 기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것을 구상하고 설계하시였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영용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렬

사들의 묘를 새로 건설하는것이였다.

주체102(2013)년 7월 1일.

렬사묘건설을 발기하신 때로부터 언제나 묘건설에 큰 관심을 돌려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조국수호와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완공단계에 이른 렬사묘건설장을 찾으시였다.

그 모습이 확연히 안겨오는 렬사묘전경을 바라보시며 걸음을 옮기시던 그이께서는 잔디밭에 이르시여 하나같이 잘 자란 잔디들을 쓸어보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문주, 명제비, 헌시비, 기념탑, 화환진정대, 렬사들의 묘들이 경애하는 그이를 맞이하여 정중히 정렬한듯 숭엄히 솟아있었다.

문주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주를 특색있게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휘날리는 당기와 국기를 형상한 돌기둥을 세우고 《1950년》, 《1953년》이라는 글발까지 새겨놓으니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한 렬사들의 묘라는것이 시각적으로 잘 안겨온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국해방전쟁에서 위훈을 떨친 인민군렬사들이 우리 당의 품, 공화국의 품에 안겨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민군렬사묘의 중심에 일떠세운 기념

탑을 돌아보시면서 총대와 총창, 국기를 하나로 결합시켜 탑을 형상하니 정말 좋다고,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는것만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기념탑총창의 상징성을 실감이 나게 더욱 부각시킬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인민군렬사들을 안치하게 될 반원형으로 되여있는 렬사묘구획에 이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옛날부터 묘에는 묘주가 있는데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유명무명의 인민군렬사들의 묘주는 바로 우리 당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묘주는 조선로동당!

만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이 부름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전에서 오래전에 떠나간 렬사들을 한품에 안아 영생의 봄빛을 비쳐주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향도자이시고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전우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고결한 의리심이 집약되여있었다.

주체102(2013)년 7월 25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준공식이 엄숙히 진행되였다.

사람들의 눈굽을 뜨겁게 적셔주는 이 숭엄한 행사는 TV와 방송, 신문을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을 통하여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방영되여 세계 진보적인류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가운데는 김사량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오고있는 해외동포 여럿이 있었는데 그들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대하여 그 누구들보다 관심이 컸다. 특히 이미 1980년대

중엽에 김사량의 빛나는 최후가 밝혀지고 그의 작품집이 발행되여 세계의 도처에 퍼지면서 그와 연고관계에 있는 해외동포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김사량이 어디에 안치되였는가에 촉각을 세우고 주시하고있었다. 그러던중에 조국의 수도 평양에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가 훌륭히 건설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들은 혹시 그곳에 전쟁참전자인 김사량이 안장되여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평양에 날아와 제눈으로 참전렬사묘를 보고 직접 확인하고싶은 충동을 안고 많은 해외동포들이 조국에로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국가의 최고령도자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고 온 나라의 마음과 마음이 달려오며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이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의 영생의 단상에 바로 종군작가 김사량도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행사가 성황리에 끝난 후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로 국내뿐아니라 해외의 많은 동포들과 인사들의 물결이 그칠새 없던 어느해 가을이였다.

평양교외의 국제비행장에서 내린 여러명의 해외동포들과 외국인이 뻐스에 올라 흥분에 들떠있었다. 조만간에 자기들이 바라던 일이 성사된다는 생각이 온몸을 지배했던것이다. 그들이 탄 뻐스는 속력으로 시내를 향하여 달렸다. 차창밖으로 그들의 시야에 누렇게 익은 벼바다가 안겨들었다. 그 풍경은 그들에게 류다른 감흥을 주며 하많은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김사량선생이 어린시절에 저 벼이삭들의 설레임소리를 들으며 사색의 나래를 펼치군 했다고 했지. 뜨거운 뙤약볕에서 하나로 통하는 공기와 호흡하며 자유롭게 생존하는 벼이삭들을 보며 그 빛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왜 그렇게도 불평등한가고 울분을 토하던 김사량!)

뻐스는 려객들의 요구대로 곧장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로 향하여 달리다가 그 입구에서 멈춰섰다. 기념일이나 명절날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묘비구역안에서 붐비고있었다.

안내원의 발걸음을 따라 려객들은 한 묘비앞에 섰다. 그들이 보고싶어하던 김사량선생의 묘비였다. 오래동안 김사량종군작가의 묘비앞에서 그들은 깊은 추억에 잠기였다. 영웅메달을 단 렬사의 돌사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던 한 동포가 흐느끼며 묘비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김사량!

평양에서 태여나 길지 않은 37년 생애에 국내와 해외를 방황하며 참다운 삶의 빛, 진정한 민족재생의 해발을 찾고찾던 열혈작가, 마침내는 그 위대한 해발속에서 새롭게 태여나 전장을 종횡무진하며 싸우다가 신념의 인간, 공화국영웅이 된 김사량이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 풍치수려한 석박산기슭에서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고있었다. 그는 세상에 대고 《나는 살아있다.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고 말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영광이란 어떤것인가에 대하여 가르

치고있다. 그리고 유명무명의 사람들에게 비록 그가 누구이든 조국과 인민, 민족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공헌한 사람이라면 그 공적과 삶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워주는 위대한 품속에, 사랑과 믿음, 의리의 위대한 빛발속에 렬사들의 생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다는 영생의 진리를 말없이 깊이 새겨주고있다.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며 손자 김정광이 심장으로 토로했다.

《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사진으로만 보아왔다. 그것도 해방전에 사각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으로였다. 헌데 오늘 이 렬사묘에서 공화국영웅메달을 단 할아버지의 돌사진을 보고 **김정은**동지의 인간에 대한 사랑, 혁명전사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야말로 인류력사의 갈피에 새롭게 새겨지는 사랑과 의리의 최고정화라고 세상에 대고 말하고싶다.》

김정광의 손을 뜨겁게 잡으며 해외동포가 무겁게 입을 뗐다.

《본인은 이국땅에서 나서자란 조선사람이고 현재도 그곳에서 살고있지만 언제 한번 공화국을 잊은적 없다. 제 민족, 제 조국이여서 그렇겠지만 주요하게는 할아버지로부터 김사량선생의 최후가 밝혀지면 꼭 조국에 찾아가 그와 가족들에게 문안의 인사를 드리라는 유언을 받아안았기때문이다. 할아버지는 김사량선생에게서 엽전 세개와 털모자, 털신을 받았던 사실을 평생 말했다. 그리고 태행산에서 함께 싸우던 일도 늘 회고하군 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한

다고 하면서 자기가 세상에 없으면 손자인 너라도 꼭 신세갚음을 하라고 훈시했다. 그런데 오늘 김사량선생을 여기서 만나고는 깜짝 놀랐다. 도대체 할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신세갚음을 한단 말인가. **김정은**령수님에 의해 최상최대의 값진것들을 다 받아안고 저렇게 살아계시는분에게 할아버지와 내가 무엇을 드릴수 있단 말인가.》

격정에 겨워 흐느끼고있는 사람은 문바우의 손자만이 아니였다. 렬사묘 안내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한마디 없이 깊은 생각에만 잠겨있던 일본인인사가 내심을 피력했다.

《제 할아버지는 김사량선생과 대학동창생이였고 문단에 알려진 시인이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늘 김사량의 생애는 강한 빛발을 뿌리면서 공간의 한끝을 날아가버린 류성과 같이 생각된다고 말하군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와보니 김사량선생의 삶은 결코 한순간에 번쩍하고 사라진 류성과 같은것이 아니였습니다. 영원히 반짝이는 별이였습니다. 태양의 빛발이 영원하거늘 그 빛속에 존재하는 별은 영원히 빛을 뿌리지요. 전 그런 의미에서 김사량은 오늘도 살아있다고 세상에 대고 웨치고싶습니다.》

김사량은 살아있다!

마치 시의 한 대목을 읊듯 자기의 주장을 터놓는 인사의 말은 저 멀리 아득한 공간을 채우며 메아리쳐갔다.

그렇다.

석박산기슭에도 꽃이 피였다 지고 단풍이 타고 지면서 세월은 끝없이 흐를것이고 억만년세월속에 모든것이 변할것이지만 위대한 태양의 빛발은 영원할것이며 그 해발속에 김사량, 아니 이 땅에 생을 둔 참다운 인간들은 불멸의 생으로 영생을 누릴것이다.

빛과 생

집 필 한영수, 윤강철
교 정 안순광
장 정 김영일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0(2021)년 8월 12일
발 행 주체110(2021)년 8월 16일

ㄱ－1506ㄷ




ISBN 978−9946−31−141−8

생이란 무엇인가. 살아 숨쉬며 생존한다면 그것이 생인가. 이 땅에 뿌리를 둔 천태만상의 생들이 모여 인간사회를 이루고있는 오늘날 어제를 살았고 오늘과 래일에 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생에 대하여 생각한다.

ISBN 978-9946-31-141-8

9 789946 311418